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IV(2)

조정아 · 박영자 · 남신동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이현정)
통일디자인연구소(전영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김선혜)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김윤영)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IV(2)

조정아 · 박영자 · 남신동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이현정)
통일디자인연구소(전영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김선혜)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김윤영)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스)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인 쇄 처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ISBN 978-89-8479-794-9 93340
가 격 ₩22,000

©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IV(2)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xi
I.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평가 방안	1
1.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3
2.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	6
3. 교육 프로그램 평가	21
II.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31
1.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	33
2. 선행사례 분석	48
3.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65
4. 프로그램 운영	79
5. 프로그램 평가	149
III. 갈등해결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165
1. 갈등해결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	167
2. 선행사례 분석	175
3.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192
4. 프로그램 운영	209
5. 프로그램 평가	280



IV.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297
1.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	299
2. 선행사례 분석	317
3.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322
4. 프로그램 운영	337
5. 프로그램 평가	359
V. 인문학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407
1. 인문학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	409
2. 선행사례 분석	432
3.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449
4. 프로그램 운영	483
5. 프로그램 평가	505
참고문헌	519
부록: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평가 검사도구 예시	529
최근 발간자료 안내	551

표 목차

〈표 Ⅰ-1〉 프로그램 목적 진술의 구성 요소	16
〈표 Ⅰ-2〉 프로그램 형태의 확정을 위한 제 요소들	19
〈표 Ⅰ-3〉 프로그램 평가의 준거와 질문	23
〈표 Ⅱ-1〉 민주시민 역량 3단계 층위 모델링	36
〈표 Ⅱ-2〉 독일 정치교육 현황	60
〈표 Ⅱ-3〉 교육과정 목표로 진술된 해외 시민의식교육	62
〈표 Ⅱ-4〉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접목 프로그램 목적	70
〈표 Ⅱ-5〉 초등학교 대상 교육 내용 핵심 가치	75
〈표 Ⅱ-6〉 초등학교 대상 교육 체계 편성표	76
〈표 Ⅱ-7〉 중학교 대상 교육 내용 핵심 가치	76
〈표 Ⅱ-8〉 중학교 대상 교육 체계 편성표	77
〈표 Ⅱ-9〉 초등학교 대상 교육 일정표	78
〈표 Ⅱ-10〉 중학교 대상 교육 일정표	79
〈표 Ⅱ-11〉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세부 운영 일정	147
〈표 Ⅱ-12〉 중학교 대상 프로그램 세부 운영 일정	148
〈표 Ⅱ-13〉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설문 평가 결과	155
〈표 Ⅱ-14〉 중학교 대상 프로그램 설문 평가 결과	157
〈표 Ⅲ-1〉 미국의 갈등해결 프로그램	177
〈표 Ⅲ-2〉 이스라엘-아랍의 갈등해결 프로그램	178
〈표 Ⅲ-3〉 북아일랜드 상호이해교육	180
〈표 Ⅲ-4〉 독일 평화교육	182
〈표 Ⅲ-5〉 사회통합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조정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186
〈표 Ⅲ-6〉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200
〈표 Ⅲ-7〉 성인 교육 내용	205
〈표 Ⅲ-8〉 대학생 교육 내용	206
〈표 Ⅲ-9〉 성인 대상 프로그램 편성표	208
〈표 Ⅲ-10〉 대학생 교육 편성표	208
〈표 Ⅲ-11〉 성인 교육 1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211

〈표 III-12〉 성인 교육 2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213
〈표 III-13〉 성인 교육 3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214
〈표 III-14〉 성인 교육 4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217
〈표 III-15〉 탈북대학생 교육 1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251
〈표 III-16〉 탈북대학생 교육 2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254
〈표 III-17〉 탈북대학생 교육 3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256
〈표 III-18〉 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정	276
〈표 III-19〉 탈북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정	277
〈표 III-20〉 성인 교육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284
〈표 III-21〉 탈북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289
〈표 IV-1〉 전문가 협의회 진행 사항	330
〈표 IV-2〉 후속모임 진행 사항	331
〈표 IV-3〉 고등학생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일정	334
〈표 IV-4〉 대학생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일정	335
〈표 IV-5〉 교육 대상자	338
〈표 IV-6〉 고등학생 참가자의 사전 사후 설문지 응답 결과	368
〈표 IV-7〉 대학생 참가자의 사전 사후 설문지 응답 결과	371
〈표 IV-8〉 자신에 대한 생각 변화(고등학생)	374
〈표 IV-9〉 타인에 대한 생각 변화(고등학생)	375
〈표 IV-10〉 다름에 대한 생각 변화(고등학생)	376
〈표 IV-11〉 공동체에 대한 생각 변화(고등학생)	377
〈표 IV-12〉 통일에 대한 생각 변화(고등학생)	377
〈표 IV-13〉 나에 대한 생각 변화(대학생)	379
〈표 IV-14〉 타인에 대한 생각 변화(대학생)	380
〈표 IV-15〉 다름에 대한 생각 변화(대학생)	380
〈표 IV-16〉 공동체에 대한 생각 변화(대학생)	381
〈표 IV-17〉 통일에 대한 생각 변화(대학생)	382
〈표 IV-18〉 캠프에서 배운 것(고등학생)	384
〈표 IV-19〉 캠프에서 배운 것(대학생)	384



〈표 IV-20〉 캠프에서 아쉬운 것(고등학생)	386
〈표 IV-21〉 캠프에서 아쉬운 것(대학생)	387
〈표 IV-22〉 세부 일정에 대한 의견	389
〈표 V-1〉 2013년 북한이탈주민 대상 통일문화 프로그램	439
〈표 V-2〉 교육 수요조사 설문지	455
〈표 V-3〉 교육 수요조사 결과	458
〈표 V-4〉 전문가협의회 진행 사항	470
〈표 V-5〉 인문학과 통일교육 프로그램 진행 사항	474
〈표 V-6〉 인문학과 통일교육 프로그램 일정	482
〈표 V-7〉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세부 일정	493
〈표 V-8〉 학습자 반응평가 설문지	509
〈표 V-9〉 학습자 반응평가 설문조사 결과	510



〈그림 I-1〉 미래지향적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4
〈그림 I-2〉 프로그램 개발의 선형 접근법 모형도	7
〈그림 I-3〉 프로그램 개발의 상호작용 모델	8
〈그림 I-4〉 프로그램 개발의 통합적 모형	9
〈그림 I-5〉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도	11
〈그림 I-6〉 프로그램 개발 상황분석의 개념도	12
〈그림 I-7〉 프로그램 개발 타당성 분석 사례(평생교육사 연수과정)	13
〈그림 I-8〉 프로그램 선정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요소 및 여과 과정	15
〈그림 I-9〉 교육 목적-프로그램 목적-학습 목표의 개념도	16
〈그림 I-10〉 프로그램군 구성 방식의 유형	18
〈그림 I-11〉 교육 프로그램 체계 설계 모형도(플로차트형의 예시)	19
〈그림 I-12〉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핵심 대상과 영역	23
〈그림 I-13〉 목표도달 평가의 개념도	25
〈그림 I-14〉 의사결정 평가모델의 개념도	26
〈그림 I-15〉 프로그램 평가 절차	28
〈그림 II-1〉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도	68
〈그림 II-2〉 통일의 필요성	68
〈그림 II-3〉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70
〈그림 II-4〉 프로그램 개발 과정	72
〈그림 III-1〉 프로그램 개발 과정	199
〈그림 III-2〉 성인 대상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의 구조	202
〈그림 III-3〉 대학생 대상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의 구조	204
〈그림 III-4〉 성인 교육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286
〈그림 III-5〉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291
〈그림 IV-1〉 프로그램 개발 과정	329
〈그림 IV-2〉 프로그램 체계	333
〈그림 IV-3〉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	343
〈그림 IV-4〉 사람책 도서관(고등학생)	344
〈그림 IV-5〉 사람책 도서관(대학생)	345



〈그림 IV-6〉 협동활동	346
〈그림 IV-7〉 마인드맵 작성, 과수원과 동물원	347
〈그림 IV-8〉 이야기 나누기	349
〈그림 IV-9〉 미래모습 상상하기	357
〈그림 IV-10〉 고등학생 참가자의 사전 사후 통일인식 변화	371
〈그림 IV-11〉 대학생 참가자의 사전 사후 통일인식 변화	373
〈그림 IV-12〉 후속모임	404
〈그림 V-1〉 2011년 경실련 통일협회의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프로그램'	434
〈그림 V-2〉 2013년 경실련 통일협회의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프로그램'	436
〈그림 V-3〉 2013년 통일문화교육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	441
〈그림 V-4〉 2014년 '예술인 통일문화 아카데미'	443
〈그림 V-5〉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청소년 프로그램 '통일과 글쓰기'	444
〈그림 V-6〉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영화로 보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치유의 인문학'	446
〈그림 V-7〉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9가지 트라우마'	447
〈그림 V-8〉 프로그램 개발 과정	465
〈그림 V-9〉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프로그램의 구조	476
〈그림 V-10〉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의 구조	478
〈그림 V-11〉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의 구조	480
〈그림 V-12〉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자료	484
〈그림 V-13〉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자료	495
〈그림 V-14〉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사진	501
〈그림 V-15〉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 사진	504



통일교육의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통일인지 및 관련 능력 함양은 실질적 통일준비의 주요한 요소로, 통일시대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에,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4차년도 연구에서는 통일교육협의회 산하 민간단체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교육네트워크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존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일교육과 접점을 형성하는 다양한 관점 및 교육실천을 수렴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다. 교육의 내용 및 가치를 기준으로 민주시민교육, 갈등해결교육, 다문화교육, 인문학교육 등 네 개의 내용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두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평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실행 시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과 교육자료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통일교육,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민주시민교육, 갈등해결교육, 다문화교육, 인문학교육

The Contents Development for Unification Education IV: the State of Education on Unification and Program Development

Cho, Jeongah et al.

Cultivating nation's will to realize unification and related competencies through reinforcement of unification education is essential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having great significance as a long term strategy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age of unification. Hence, the 4th year study of 'Content Development for Unification Education' analyzed the state of education programs on unific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Council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groups that participate in unification education's networks of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it also sought to improve the programs of those two groups. Based on evaluations of existing educational programs on unification, the study also developed program model for unification education which can be combined with related perspectives and educational practices. Dividing the field of education into four areas such as democratic civic education,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humanities education, the study developed, implemented, and evaluated programs that combine unification education with each area of education for each target group.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educational materials that can be utilized in implementing the programs.

Keywords: Unification Education, Contents Development for Unification Educati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Humanities Education

I.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평가 방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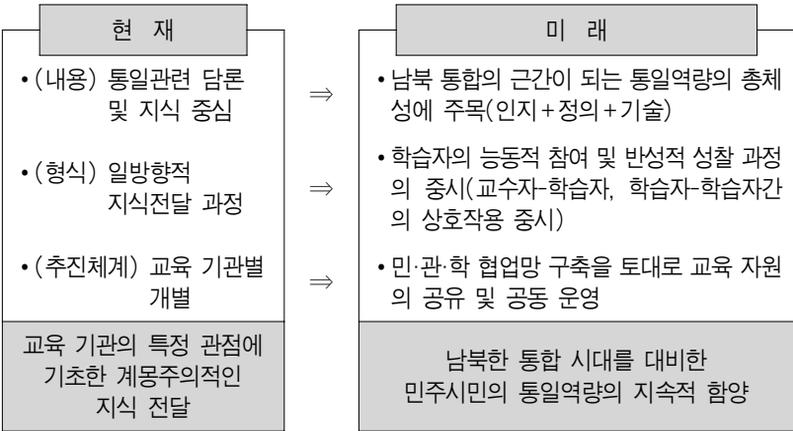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은 그 특성화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지향하며 통일능력의 함양과 관련된 인식·관점의 전환, 태도(문화적 수용성) 및 능력(화합의 기술)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기존 통일교육은 계몽주의적 시각에서 남북관계, 북한 관련 지식 등을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을 지녔으며, 이로 인해 교육 참여자의 실질적인 통일역량과 관련된 지식·태도·기능의 형성 측면에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주지주의적 혹은 규범론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학습 참여자의 실질적인 통일역량이 증진될 수 있는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네 가지 영역의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개발·운영하였다. 신규로 개발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대외적 확산을 전망하면서, 본 연구과제는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교육 종료 후에 사후 평가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평생교육 이론분야에서 축적돼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이론모델을 검토하고,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평가를 위한 기본 관점과 준거를 제시하였다.

1.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본 연구과제는 교육 프로그램의 시범개발을 통해 실천적 통일역량의 개념에 대한 입론화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것이 학습과정을 통해 어떻게 함양되고 증진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과제는 현장지향적인 참여연구를 지향하며, 사회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모델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전제하였다.

● **그림 1-1** 미래지향적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첫째, 교육 내용의 측면이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통일관련 담론과 지식을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으로 전달하는 데 치중하였다면, 향후에는 남북 통합의 근간이 되는 통일역량의 실질적 함양을 추구하여야 한다. 남북통일시대는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역사적 경험이 서로 상이한 남북한 사회구성원들이 상호이해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의 시대를 집합적으로 구성해갈 때 성립될 수 있다. 통일역량을 갖춘 남북한 사회구성원들이 사적 혹은 공적 영역에서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구성한 실천의 산물이 곧 남북 통합의 구체적인 사회상이 될 것이다. 그러한 통일역량은 남북 통합 문제에 얽힌 복잡다단한 쟁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인지적 역량 외에도 남북한 상호간에 존재하는 가치관, 태도, 문화적 태도 및 감수성,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 등에 관한 정의적, 기술적 차원의 역량까지 포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 형식의 측면이다. 기존의 통일교육의 주된 교육 방법이 일제식 강의 형태로 일방향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향후에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반성적 성찰과정, 교육에 참여한 제 주체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중대한 학습경험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교류적 상호작용의 경험 자체가 곧 통일역량 형성의 핵심 요소가 되는 문화적 소통 및 수용성, 다문화적 민감성 증진과 관련된 체험학습 과정이 될 수 있다.

셋째, 교육 전달 체계의 측면이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각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개별적이고 산별적인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면 본 연구과제는 민·관·학 협업망에 기초하여 교육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에 참여한 각 기관 및 주체들은 통일시대에 대한 저마다 상이한 관점에 기초하여 각 기관의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이제는 총체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향후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간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 운영 기관 및 주체들이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협업망 구조에 결합하여 통일교육의 목표, 방향, 가치, 접근양식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교류할 때,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2.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

가. 이론적 모형

프로그램 개발은 이상적인 교육 행위의 조직과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실천 활동으로서, 학습자 집단과 교육 기관 간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정보와 자원을 획득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¹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 체계인 개인, 조직, 지역사회가 교육적 경험을 통해 일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활동, 교육 과정, 학습자 참여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화시킨 교육 실체이다.² 이 점에서 프로그램 개발은 넓은 의미에서 프로그램 [기획] → [설계] → [운영] → [평가]를 포괄하는 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비통합적 접근법(Non-integrated Approach)이다. 이 모형은 통상적으로 다른 유사한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을 모방·답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둘째, 체제분석 접근법(System Analysis Approach)이다. 이 모형은 환경, 조직, 개인의 세 수준의 요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적절한 방법론으로 활용된다. 체제분석을 위해 고려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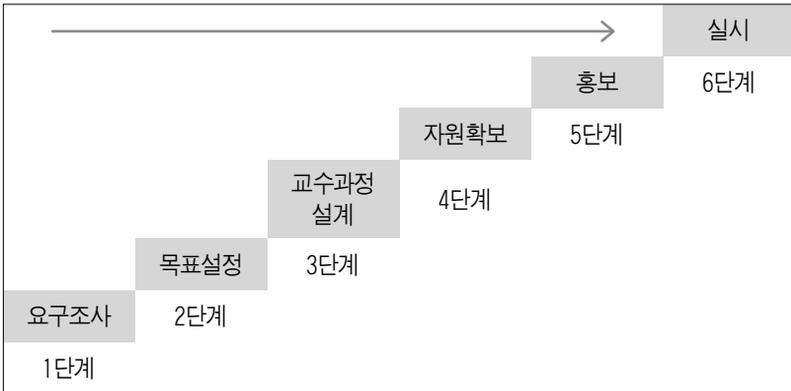
1. 이화정 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03), p. 14.

2. 김혜연,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 4

- 조직의 철학, 가치, 목표
- 조직의 구성 요소
- 조직의 환경적 제약 요건 및 내부 자원의 제한점
- 조직의 내적 요구와 가치 파악
- 학습자의 요구와 가치 분석
- 프로그램 목표 수립
- 프로그램 기대 효과 및 결과에 대한 정보 수집

셋째, 선형적 접근법(Linear Approach)이다. 이 모형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절차가 단선적인 단계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그 절차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2>와 같다.

● **그림 1-2** 프로그램 개발의 선형 접근법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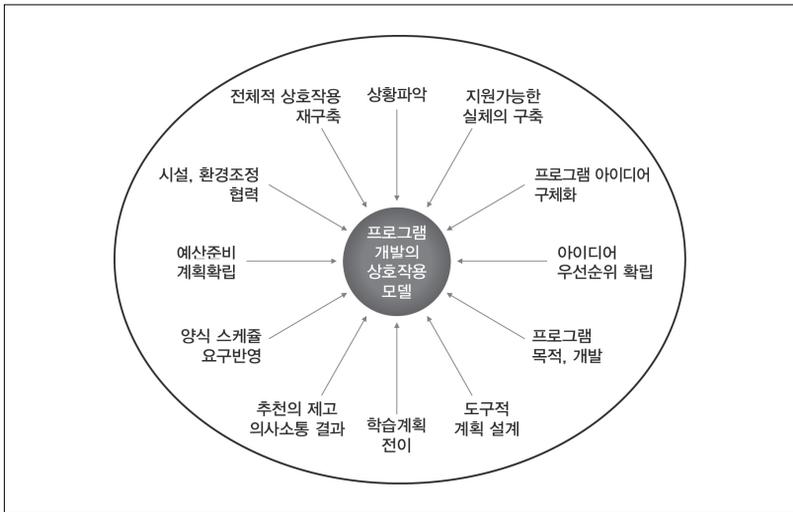


출처: T. J. Kowalski, *The Organization and Planning of Adult Educ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p. 95; 김영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서울: 학지사, 2000), p. 80에서 재인용.

- I
- II
- III
- IV
- V

넷째, 상호작용 접근법은 선형적 접근이 교육 운영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계획상의 변경 및 요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이론적 모형이다. 카파렐라(Caffarella)가 제시한 상호작용 모형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I-3>과 같다.

● 그림 I-3 프로그램 개발의 상호작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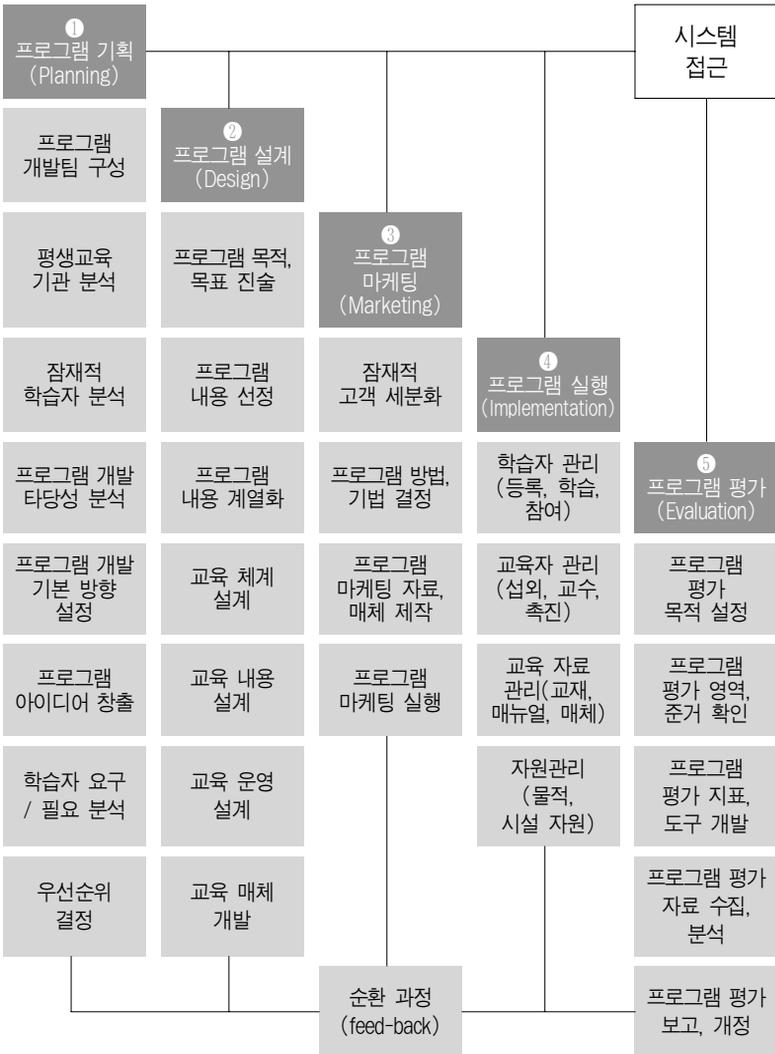
출처: 주경필,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Monitoring)을 위한 평가준거체제 개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23.

나. 통합적 모형

교육 기관마다 프로그램 개발의 취지와 목표, 추진 여건 및 노하우, 접근 양식, 학습자 특성 등에 따라 위에서 기술한 다양한 모형들이 채택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현재 국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개발 절차의 체계화를 위해 다음의 <그림 I-4>와 같은 통합적 모형을 추천하고 있다. 이하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5단계

에 해당되는 [기획-설계-마케팅-실행-평가]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록 한다.

● 그림 1-4 프로그램 개발의 통합적 모형



(1) 프로그램 기획(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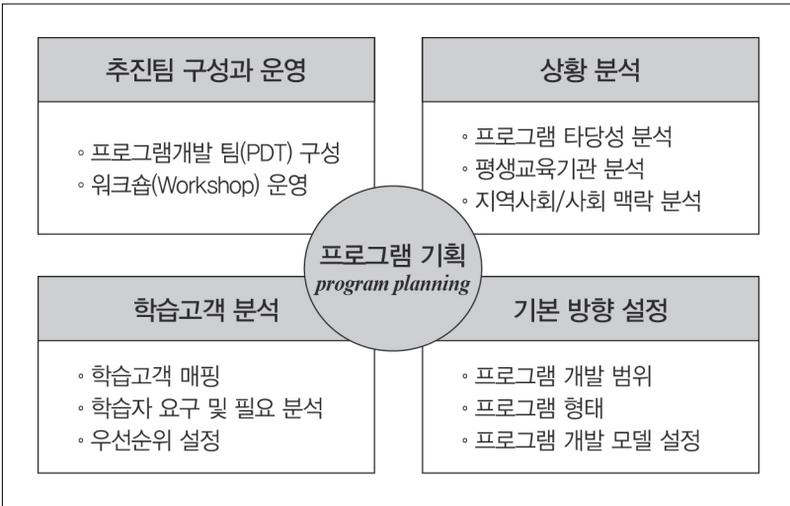
(가) 기획의 기본개념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 개발의 첫 단계로서 프로그램 개발가가 미래의 교육활동을 구상하고 개발·운영에 대한 제반의 사항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활동이다.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활동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반의 상황(요구, 대외적 환경, 내부 추진여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기획단계에는 프로그램 개발팀 구성, 평생교육 기관 분석, 잠재적 학습자 분석, 프로그램 타당성 분석, 프로그램 개발 기본 방향 설정, 프로그램 아이디어 창출, 학습자의 요구 및 필요 분석, 우선순위 설정 등이 포함된다.³

기획 과정은 ‘계획된 변화(Planned Change)’의 구체적 상(像)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으로서, ‘계획’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기획이 기관의 고유한 사명과 이념에 기초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계획은 객관적 상황 및 현실 조건에서 그러한 기획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기획이 창조성을 중시하는 개념이라면, 계획은 현실성과 논리성을 중시한다. 물론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기획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은 계획의 개념을 전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³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파주: 교육과학사, 2001) 참조.

● 그림 1-5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도



출처: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p. 177.

(나)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화 논리 개발

신규로 개발할 교육 프로그램의 비전 및 기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 취지 및 방향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타당성 논리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네 가지 차원을 고려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주체(기관)의 고유한 사명 및 가치, 비전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및 교육 요구를 분석하여야 한다. 교육 요구 분석은 수준별로 국가 및 사회적 차원, 지역사회 차원, 학습자 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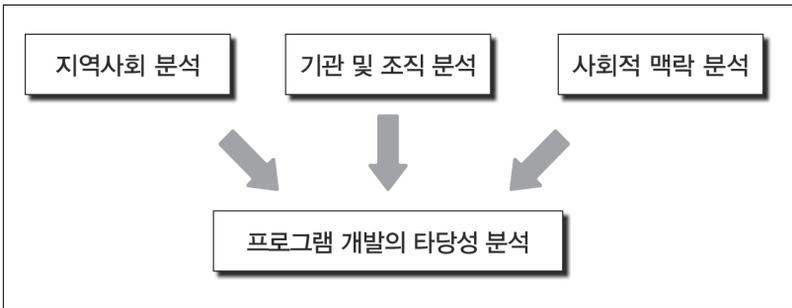
셋째, 현행 통일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의 중복성을 극복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쟁점 및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 I
- II
- III
- IV
- V

넷째,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반의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무리 바람직한 가치가 있더라도 교육조직 내외의 물리적, 객관적 환경의 제약이 있다면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경영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SWOT) 분석 방법(외부 환경, 내부 경영 자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목적, 목표, 추진 전략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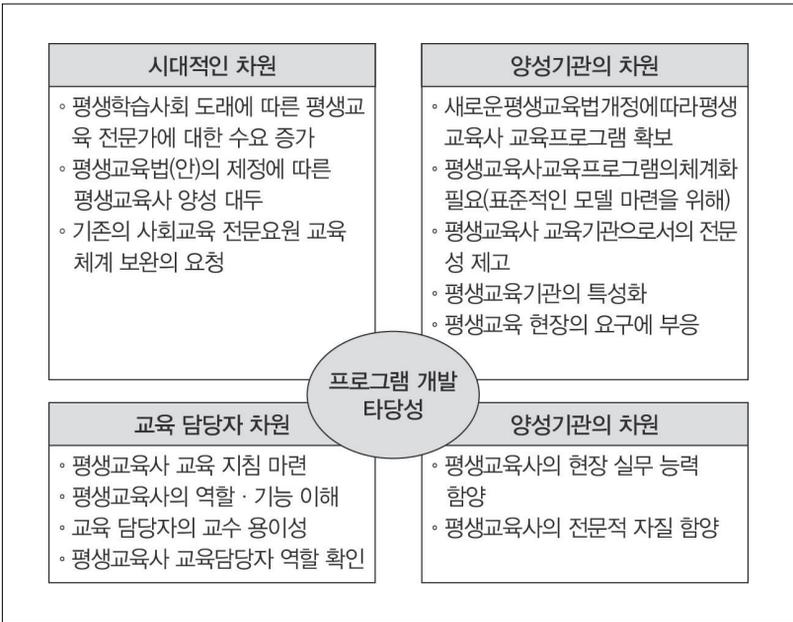
다음의 <그림 I-6>, <그림 I-7>은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 분석의 개념틀 및 그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 **그림 I-6** 프로그램 개발 상황분석의 개념도



출처: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p. 184.

● 그림 1-7 프로그램 개발 타당성 분석 사례(평생교육사 연수과정)



출처: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p. 187.

(다) 학습대상 집단의 특정화 및 요구 분석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고려할 절차 중의 하나는 학습대상 집단을 특정화(Targeting)하고 잠재적 학습대상자를 매핑(Mapping)하는 일이다. 학습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후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제반의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학습대상 집단의 특정화 방식은 크게 네 가지 차원이 동원되기도 한다.

첫째, 사회 체제 분석 방식으로서, 이는 신념, 감정, 목표, 시설, 지위 역할, 권력, 규범, 사회적 서열 등으로 얽혀있는 복잡다단한 사회적 구조망에서 대상 집단을 유형화하여 특정화한다.

I
II
III
IV
V

둘째, 사회적 계층화 방식으로, 이는 사회계층 구분의 준거되는 소득 수준, 직업, 교육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을 준거로 하여 학습 대상 집단을 특정화한다.

셋째, 사회적 차별화 방식으로서, 이는 연령, 성별, 사회적 역할 및 지위, 윤리적 배경, 교육 경험 등을 고려한다.

넷째, 문화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특정한 문화적 정체성 집단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다.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교육 대상 집단을 고유하게 선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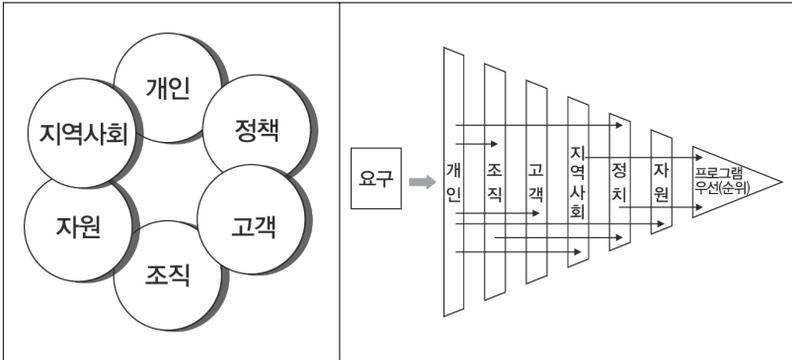
교육 대상 집단이 특정화되면, 교육 요구 분석을 해야 한다. 요구분석은 통상 ‘격차 모델’에 의해 현재와 미래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요구분석을 위해서는 설문 및 면접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그 외 직무 분석, 능력 분석, 결정적 사건 기법, 델파이 기법 등도 활용된다. 교육 요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인식요구로서 이는 학습자 개인이 인지한 직접적인 요구를 의미한다. 둘째, 귀속요구로서 이는 잠재적 학습자에 대해 제3자인 전문가 및 권위 집단에 의해 파악된 요구를 의미한다.

(라) 제안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결정

학습대상 집단의 특정화 및 요구 분석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후보들이 제안될 수 있다. 이후 교육 기관은 제안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는 조직, 자원, 지역사회, 개인(잠재적 학습자), 정책, 고객 등 제반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요인들은 각 기관마다 조직 위상 및 역할, 이념, 가치체계,

주요 학습대상자 등에 따라 구체적인 내역과 순위를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그림 1-8>과 같은 모형이 고려될 수 있다.

● **그림 1-8** 프로그램 선정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요소 및 여과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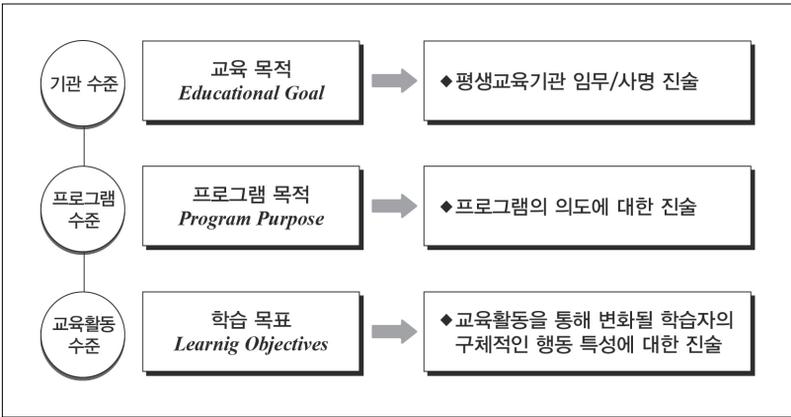
출처: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p. 263.

(2) 프로그램 설계(Design)

(가) 프로그램 목적, 목표 진술

프로그램 설계는 기획 단계에서 검토된 학습자의 요구 및 필요,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타당하게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목표 진술이 명확할 때 해당 프로그램 내용이 선정·조직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방법론이 채택될 수 있다. 프로그램 목적은 전체 기획방향과 부합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는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학습의 기대효과를 적시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야 한다.

● 그림 | -9 교육 목적-프로그램 목적-학습 목표의 개념도



출처: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p. 274.

● 표 | -1 프로그램 목적 진술의 구성 요소

프로그램 목적 진술의 구성 요소	
상 황	학습자가 처해있는 상황 혹은 학습자의 상태를 명시함.
대 상	프로그램 참여를 명시함.
내 용	제공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
직접적 결과	프로그램의 결과로 즉시적으로 변화된 특성을 명시함.
기대효과	프로그램의 결과로 나타날 기대효과를 명시함.

(어떠한 상황에 있는) ○○(대상)에게 ○○(내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 결과)을 향상시켜 ○○(기대 효과)하도록 하는데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

출처: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p. 280.

(나) 내용 선정 및 계열화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에 기반하여 적합한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이때 다섯 가지 원칙이 동원된다. 첫째, 합목적성으로서 목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능력 수준과 흥미에서의 적합성, 자발성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실용성과 다양성 측면으로서 학습의 전이효과가 분명하여야 한다. 넷째, 능률성의 측면으로서 하나의 학습경험을 통해 다양한 목적성이 추구될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 다섯째, 가능성의 측면으로서 학습지도 및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이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원칙을 토대로 하여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단위 시수의 양적 규모를 결정한다.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내용 선정, 학습 운영 전략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전체 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프로그램군’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직할 필요가 있다. 오혁진에 따르면 프로그램군은 프로그램의 계열과 학습자 대상자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⁴

첫째, 단일집중 방식은 하나의 특정한 프로그램을 특정한 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둘째, 프로그램 전문화 방식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복수의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형이다.

셋째, 집단전문화 방식은 특정한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복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넷째, 다중전문화 방식은 특정한 프로그램과 특정한 학습자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 기관에서 잘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을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유형이다.

⁴-오혁진, 『평생교육경영학』(서울: 학지사, 2003) 참조.

마지막으로, 전체포괄 방식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집단유형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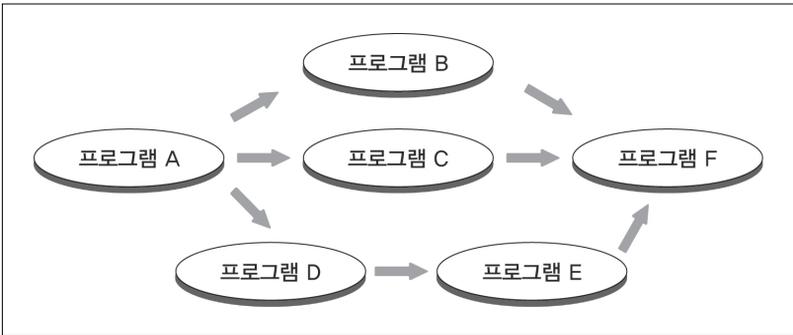
●그림 I-10 프로그램군 구성 방식의 유형



출처: 오혁진, 『평생교육경영학』 (서울: 학지사, 2003)을 참조하여 재구성.

프로그램군이 체계화되면 하위 교육 프로그램들 간의 트랙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아래의 <그림 I-11>과 같이 플로차트(Flow Chart) 형태로 전체 교육 프로그램 체계를 설계한다.

● 그림 1-11 교육 프로그램 체계 설계 모형도(플로차트형의 예시)



출처: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p. 274.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구조가 체계화되면, 각 개별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각기 교육 내용을 계열화하여야 한다. 이때 학습자 시각에서 전체적인 내용 및 논리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이 확정되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 체계, 교육 내용, 교육 운영, 교육 매체 등에 대해 다음의 <표 I-2>와 같은 내용 요소들을 확정하여 개발한다.

● 표 1-2 프로그램 형태의 확정을 위한 제 요소들

구 분	교육 체계	교육 내용	교육 운영	교육 매체
○○프로그램 형태	교육체계도	교수요목 개발	교육 활동 일정표	인쇄자료
	프로그램 편성표	코스 프로파일 (Profile)	학습 지도안	시청각자료
	교육운영 로드맵	교재 개발	교육 매뉴얼	CAI/Web 등

I

II

III

IV

V

(3) 프로그램 마케팅(Marketing)

프로그램 마케팅이란 개발된 프로그램에 잠재적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협의의 의미에서 마케팅은 촉진(Promotion)을 의미하나, 광의의 의미에서 마케팅은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으로서 ‘5Ps(프로그램 Program, 경로 Place, 가격 Price, 촉진 Promotion, 사람 Person)’의 활동들이 혼합되어 추진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관리에 해당되며, 경로란 프로그램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관의 위치나 매체의 선택과 관련된다. 촉진이란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광고, 인적판매, 홍보, 판매 촉진 등). 사람은 평생교육 기관의 인적자원을 적절히 선발, 배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⁵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잠재적 학습 대상을 세분화하여 특정하고, 이러한 학습자들을 기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한 마케팅 방법 및 기법 결정, 촉진을 위한 자료 및 매체 제작, 프로그램 마케팅 실행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4) 프로그램 실행(Implementation)

프로그램 실행 단계는 완성된 프로그램이 실제로 적용되어 전개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아무리 성공적으로 설계되었어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자동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특정한 교육환경 하에서 교수 요원, 운영 요원, 학습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⁵ 위의 책, p. 77.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난다.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준비할 제 영역은 학습자 관리(등록·학습·참여), 교육자 관리(섭외·교수·촉진), 교육자료 관리(교재·매뉴얼·매체), 자원 확보 및 관리(물적 자원과 시설 관리) 등이 포함된다.

(5) 프로그램 평가(Evaluation)

프로그램 실행이 완료되면 애초 기획한 프로그램의 목표 및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 기획-설계-마케팅-실행의 각 단계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각 단계의 개선사항을 발견하기 위한 순환과정(Feedback)으로 활용된다. 평가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평가 영역 및 준거를 설정하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평가의 지표 및 도구를 개발한다. 평가를 시행한 결과 산출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 수행 성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수정·보완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3. 교육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 설계와 전달이 효과적인지, 목표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⁶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요소 중에서 프로그램의 의도,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 참여자, 프로그램 운영을 평가자의 주 대상으로 삼아 프로그램

⁶-기영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p. 210.

의 가치 및 성과를 판단하고, 그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활동, 산출물, 비용(투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⁷

가.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이다. 첫째, 프로그램의 가치나 장점을 판단 및 결정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 및 영향을 파악 및 판단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 정도를 확인한다. 넷째,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간을 마련한다.

커크패트릭(Donald Kirkpatrick)은 교육 프로그램의 4대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학습자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느낀 호의와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학습자 ‘만족도 평가’ 또는 ‘매력성 평가’라고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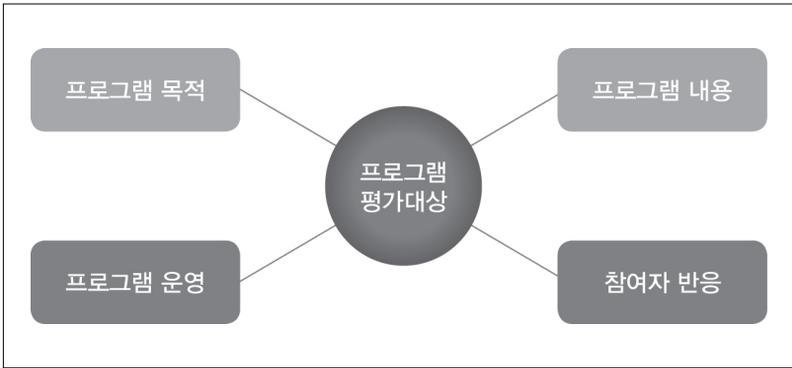
둘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어떤 지식·태도·기능을 습득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로 일어난 학습정도 혹은 학습 목표 도달에 대한 성취도 평가 내지 ‘효과성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학습자의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후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실생활 적용도 평가’ 또는 ‘실제행동 평가’라고 한다.

넷째, 평생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경영 효율성 측면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에 대비한 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를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라고 할 수 있다.

7-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p. 418.

●그림 | -12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핵심 대상과 영역



출처: 이미나 외, 『평생교육방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4)을 참조하여 재구성.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준거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및 질적 수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국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으로 효과성, 효율성, 적정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을 들고 있다.⁸ 각 기준별 평가의 핵심적인 질문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I -3>과 같다.

● 표 | -3 프로그램 평가의 준거와 질문

평가준거	질문	예시적 준거
효과성 (Effectiveness)	가치로운 산출이 성취되었는가?	교육 효과 평가

⁸ 이미나 외, 『평생교육방법론』, p. 351.

I
II
III
IV
V

평가준거	질문	예시적 준거
효율성 (Efficiency)	교육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투입되었는가?	교육 비용/수익률
적정성 (Adequacy)	교육 결과에 의해 문제해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문제해결 능력 평가
형평성 (Equity)	비용과 효율이 개인 혹은 집단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	교육 기회 및 자원 배분 근거 평가
대응성 (Responsiveness)	조직의 목표, 집단의 필요 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할 수준으로 달성했는가?	조직체의 교육 목표 달성여부
적절성 (Appropriateness)	기대된 산출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가?	총족성을 제외한 모든 준거 검증

출처: 이미나 외, 『평생교육방법론』, p.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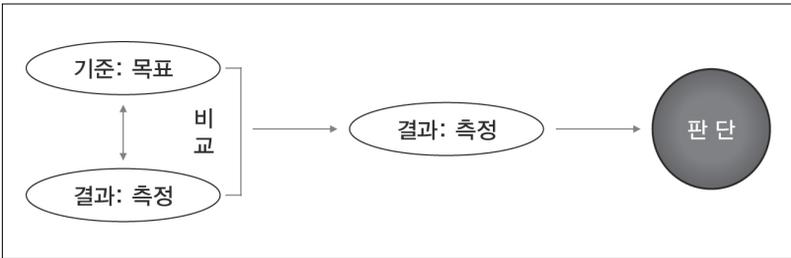
다. 프로그램 평가의 이론모델

프로그램 평가는 평가의 주된 초점 및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이론적 모형이 활용되거나 혼용되기도 한다.

(1) 목표도달 평가모델(Attainment of Objective Approach)

목표도달 평가모델은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 애초에 추구한 학습자 변화의 기대된 학습 결과, 즉 계획된 프로그램 목표를 준거로 하여 이후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발생한 실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평가모델은 학습 결과를 평가의 기준으로 되는 목표와 비교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가치와 성과를 계량화하여 판단하는 데 주요하게 활용되고, 이러한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림 1-13 목표도달 평가의 개념도



출처: 이미나 외, 『평생교육방법론』, p. 352.

(2) 의사결정 평가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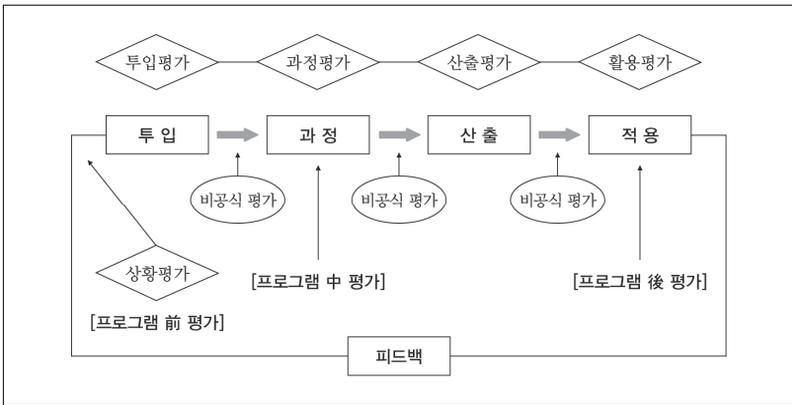
목표도달 평가모델이 프로그램의 효능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는데 주안을 둔 것이라면, 의사결정 평가모델은 프로그램 지속 여부 및 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주안을 둔 것이다. 의사결정 모델은 프로그램 기획·개발·실행·평가 등에 대한 제 측면을 평가함으로써, 기관 및 의사결정자에게 프로그램 시행에 관련된 제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유용한 정보를 산출한다. 이러한 평가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템플빔(Stufflebeam)의 소위 ‘CIPP 모형’이다. CIPP에서 ‘C’는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I’는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첫 번째 ‘P’는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두 번째 ‘P’는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의 약자이다.⁹

의사결정 평가모델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하나의 연속적이고 긴밀하게 연계된 일련의 활동이다. 상황-투입-과정-산출 평가 등 각 단계는 순환적인 관계이며, 산출 평가의 결과는 다시 상황의 요소로 환류된다.

⁹ 위의 책, p. 354.

- 투입평가: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자료와 전략이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시설, 장소, 매체 등)
- 과정평가: 프로그램이 학습자 혹은 참여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초점(프로그램 지침에 따른 학습자의 수행 정도, 학습과정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 학습 목표 도달 정도 등)
- 산출평가/활용평가: 프로그램 종료 후에 학습자에게 즉자적으로 나타난 변화(Output)와 더불어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지속된 변화(Outcome), 즉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데 초점(프로그램 참여자가 획득한 지식·기능·태도, 그 변화의 수준, 현장 및 실생활 적용 정도 등)

●그림 1-14 의사결정 평가모델의 개념도



출처: 김진화, 『평생교육방법 및 실천론』, p. 341.

(3) 탈목적 평가모델(Goal-Free Approach)

탈목적 평가모델은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설정해 놓은 목표 달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종래의 준거지향적인 평가 방식을 지양

한다.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에서 교수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가치와 내용이 구현되고 구성된다. 따라서 애초에 의도되지 않은 학습 결과 및 부수 효과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반사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탈목적 평가모델은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가치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주안을 둔다. 이러한 취지에서 탈목적 평가모델은 미리 준비한 평가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교육현장에서 전개된 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반응, 만족도 등을 관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4) 참여자 평가모델(Participation Evaluation Model)

참여자 평가모델 역시 탈목적 평가모델과 동일하게 사전에 준비된 평가도구를 토대로 한 준거지향적 평가를 지양한다. 한편 탈목적 평가모델의 주체가 교육 프로그램 제공자로 한정된 것이라면, 참여자 평가모델에서는 평가의 대상과 주체가 따로 구별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평가주체가 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함께 비판적 성찰과 숙고를 통해 프로그램의 가치, 산출결과 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자기반성, 집단 회합, 집단 평가회, 역할 연기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이 활용된다. 본 평가모형에서 평가란 평가활동 그 자체에 한정된 의미를 넘어서 또 하나의 경험학습의 과정이다. 교육활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공유, 비판적 숙고 과정을 통해, 평가의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자신의 삶 속에 내면화되는 의미를 재음미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라. 프로그램 평가의 절차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에 기반하여 평가 과정을 계획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평가의 목적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4개의 프로그램들은 그 성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별로 아래와 같은 평가 절차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의 목적 및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 프로그램 별로 평가도구를 만들기 위해 참고했던 선행 검사도구 예시는 <부록>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1-15 프로그램 평가 절차



출처: 김진화, 『평생교육방법 및 실천론』, p. 341.

상기의 7단계 평가 결과 반영과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평가’¹⁰를 의미하는 메타평가도 매우 중요한 평가 활동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메타평가는 프로그램 평가 단계의 활동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평가의 대상은 애초 설계된 교육 평가의 목적·내용·방법·분석 결과 등의 타당성·적절성 외에, 교육 평가의 활용도 내지 환류 과정이 실천적으로 후속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활동 절차를 포괄한다.

¹⁰ 김성훈 외, “교육 프로그램 메타평가 기준 개발,” 『교육평가연구』, 제22권 3호 (2009), p. 558.

II.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

1945년 남북 분단 후, 2014년까지 어느덧 69년이 흘렀다. 이제 2015년이 되면 분단 70년이 도래하게 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분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통일교육이 실시되었고, 통일이 갖는 다양한 긍정적 측면이 계속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통일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향후 미래 통일시대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 청소년층의 통일무관심은 매우 심각해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의 통일교육의 방향, 그 내용과 방법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등으로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적 변화는 국민에서 시민으로의 지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이 요구되는 현대에는 순응적인 국민이 아닌 민주적 시민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치관과 의식체계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는 더더욱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이 장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 속에서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 민주시민교육 개념과 핵심 역량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심성보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고, 사회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적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학습적 노력이라고 하였다.¹¹ 박홍순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민들이 첫째,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자각하고, 둘째,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 제반 문제들에 대한 자주적 판단력을 가지며, 셋째,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협조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²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전쟁 후 가장 성공적인 정치교육의 사례로 꼽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은 자율적이고 공동체적인 시민을 배양할 목적에서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또는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vic Education)으로 표현하고 있다.¹³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민주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춘 ‘민주적 시민’은 비로소 자신과 타인의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사유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11- 심성보,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서울: 살림터, 2011), pp. 192~193.

12- 박홍순, “열린 사회의 시민교육, 주민학습을 통한 공동체 짓기,” 『갈등사회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의 역할』 (시민교육 아태회의 자료집, 2010.10.20~23) 참조.

13- 조찬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2), p. 74.

수동적인 국민이나 저항적인 민중 그리고 소비적인 대중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Capability)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들을 시민적 활동에 참여시켜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¹⁴ 시민은 법과 제도상으로 주어진 권리를 넘어서서 시민성(Citizenship/Civility)을 발휘하면서 공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시민이 된다. 시민권을 가진 개인이 시민성을 발휘하여 소통을 통해 타인과의 공동의 선을 논의하고 실천할 때, 그 때 비로소 국민을 뛰어넘는 ‘시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역량

2008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펴낸 ‘민주시민교육 핵심 역량 실천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다음<표 II-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에 의하면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 책임감,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시민사회 속에서 시민성 역량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 건강한 민주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이는 또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려면 제도와 절차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¹⁴ 이동수 외, “시민사회와 시민,” 이동수 엮음, 『시민은 누구인가』 (서울: 인간사랑, 2013), p. 24.

표 II-1 민주시민 역량 3단계 층위 모델링¹⁵

3단계		민주주의 역량(Democratic Competency) - 민주주의	
1	다양성 존중	다원주의	• 다양성/차이 인정 • 어울림/조화
		관용	• 이해심 • 용서
2	참여 의식	정치적 활동	• 투표/선거참여 • 투쟁 • 정치 참여 • 사회적 관심 • 정치의식 • NGO활동
		시민활동	• 공동체 의식 • 소속감 • 연대 • 지역사회 참여 • 봉사/연대 • 협동
		미디어 역량	• 비판적 모니터링 • 미디어 활용
		민주적 의사결정	• 절차적 합리성 • 의사소통 • 비판 능력 • 타인 의견 경청 • 토론 능력 • 조정 능력 • 갈등조정 능력 • 자율적 사고
3	세계 시민성	다문화 역량	• 다문화 존중 • 공존
		세계시민 의식	• 통합적 담론 • 지속가능발전 역량
2단계		시민성 역량(Citizenship Competency) - 시민사회	
1	국가 정체성	국가의식	• 애국심 • 충성심 • 올바른 국가관(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역사의식	• 정체성 • 올바른 역사의식 •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
2	권리와 책임 의식	준법 규범 준수	• 기초 법지식 • 책임감 • 의무감 • 공적 의무 충실 • 엄격함 • 권위존중 • 사회적 책임 • 준법정신 • 순종(순응)
		도덕성·양심	• 정의감 • 투명성 • 도덕성 • 정직성
		권리의식	• 권리 인식 • 권리 존중 • 권리 주장

¹⁵ 이병준 외, “민주시민교육 핵심 역량 실천모형 개발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용역보고서』 (2008), p. 170.

3	신뢰와 가치	신뢰감	• 공공성	• 공익성	• 상호 신뢰
		평등	• 기회 균등 • 공정성/공평성	• 독점 반대 • 소수자의 권리 존중	
		존중	• 인권 존중	• 배려	• 공감
1단계	핵심 역량(Key Competency) - 개인				
1	자율적 행동		• 자기조절 역량 • 변화 즐기기 • 기회를 만들어낼 줄 아는 자신감	• 인내력 • 유연성	• 독창력 • 결정 능력
2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역량		• 비판적 능력 • 분쟁 중재 기술 • 커뮤니케이션 능력	• 책임감	• 협력 능력 • 공감 능력
3	언어·공학기술 등 도구의 포괄적 사용 역량		• 문제해결력 • 혁신의 의지 • 문맥적 사고력	• 학습 능력 • 반성 능력 • 분석 역량	• 계획 능력 • 조작 기술 • 판단 능력

나.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본 통일교육의 방향

(1) 통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관점 접근의 필요성

그렇다면 이제 왜 기존의 통일교육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의 가치가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바로 그것은 앞서 얘기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및 중요성과 관련된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는 결국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기에 매우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¹⁶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통일교육은 민주주의의 실천적 장점과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억압시대의 체제지향적, 순응적 통일교육이거나 체제저항적 이념형 통일교육을 넘어서야 한다. 체제 유지만을 위한 통일교육이나 지

¹⁶ 조찬래, “민주시민교육,” p. 71.

나친 체제저항적인 통일교육은 화해와 공존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가) 통일준비 과정에서 민주시민 역량의 중요성

첫째, 현재 남과 북은 70여 년을 갈라져 살아오면서 서로 다른 정치 체제, 경제 규모, 사회문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다름(이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공동체로 엮어가는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한 협동과 배려는 매우 중요하다. 즉 서로 체제가 다른 가운데 통일과정에서 남북 간에 다양한 갈등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갈등을 걸림돌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조정아에 따르면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힘은 남북의 상호 공통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제도 간의 조화와 호환성이다. 이는 ‘이기는 통일교육’에서 ‘함께 사는 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경청, 공감, 배려, 돌봄, 설득과 소통 등 남과 북의 공존과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¹⁷

둘째, 통일과정에서 남과 북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도 매우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념별, 지역별, 세대별로 통일에 대한 상이한 여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소통 과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떠오를 것이다. 결국 남과 북의 만남보다도 먼저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소양을 지닌 남-남의 구성원들의 대화와 만남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바로 관용과 상대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¹⁷-조정아, “통일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글로벌시대의 시민교육과 정치』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07), p. 161.

셋째, 통일과정에서 시민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정신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남과 북 양측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결정하고 참여할 때, 시민의 행복을 위한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 구성원들이 많아질 때 통일의 과정은 보다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며, 통일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같이 국가 중심의 관점에서, 또는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통일을 원하지는 않는다. 다원화된 오늘날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결국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한 참여를 통해서만 더욱 효과적으로 결집해나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세 가지 점을 종합해보면, 통일문제에서 남북 간, 남남 간의 다원성과 소통의 원리,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하고,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가 잘 살아나야만 한다. 조정아는 “민주시민교육은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통일에 관한 ‘통일’된 입장, 즉 정답을 ‘가르치고자’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공을 통일로 대체한 상태에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학습자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주체적 학습자들의 통일과 관련된 ‘성찰’의 과정을 매개하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계기로 작용할 때 진정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의 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¹⁸

(나) 통일 이후 민주시민 역량의 중요성

첫째, 결국 통일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민과 구성원들이

¹⁸- 위의 글, p. 165.

더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평화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체와 행복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잘 훈련된 민주시민 구성원의 존재이다. 행복한 통일공동체는 단순하게 법과 제도만 존재한다고 가능하지 않고, 통일 후 이러한 민주시민사회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이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통일 교육에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가치를 연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학교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분단시대의 평화교육이 분단극복을 위한 저항적 성격을 갖는다면, 구조적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새로운 질서창출을 위한 변혁적 성격을 갖는다. 분단 상태에서의 통일교육과 그 이후의 통일교육은 변증적으로 종합되어 발전되어 나가야 하며, 그를 위한 방안으로서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과 접목이 요구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진행할 때, 통일은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동반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지 않는 통일은 불안한 통일이다. 통일을 공고하게 하려면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다)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민주시민 역량 함양의 중요성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결합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초등학생 시기는 정규 교육을 받게 되면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즉, 새로운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게 되면서 많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가치 체계를 잡아가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년들에게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접목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의 현안에 대해 참여하는 시민성을 익힐 수 있다. 둘째,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즉, 어렸을 때 몸에 익숙해진 습관은 시간이 흘러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시기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셋째, 바로 이 시기는 생애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신체적으로는 어린이에서 성인이 되기 위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정신적으로는 매우 복잡다단한 고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이다. 작은 사건 하나에도 매우 민감하고, 자신을 타인에게 잘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하고, 때로는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적 성향까지 보일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와 협동, 다양성과 공존, 참여와 민주적 의사소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다.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 시민성 가치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담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만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의 결과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때 더 좋은 통일사회가 완성된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정의를 통한 평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세계시민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일상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어린이 대상의 ‘민주시민 훈련기법’을 소개해본다.

I

II

III

IV

V

〈민주시민 훈련기법〉¹⁹

- ① **참여하기:** 어린이 여러분!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선거이고 국민투표입니다. 어린이들은 학교나 집에서, 가족 간이나 친구들과 간에 스스로 자기 의견을 말해서 어떤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 생각 말하기를 회피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자기 생각 밝히기를 피하거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참여는 민주시민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 ② **위험을 남에게 알리기:**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못 본 척 외면하고 싶은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사고가 날 위험한 상황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또 나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등등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변에 위험을 알려서 사고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주변의 경찰서나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이를 알려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더불어 살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남에게 알리는 일은 민주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 ③ **대화하기:** 어린이 여러분! 민주주의는 힘으로 억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옳은 것은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로 간에 믿음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말하는 것은 귀머거리와의 대화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혼자 떠드는 것은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인지, 일리가 있는 것인지, 남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자기성찰이 가능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여기에 응답을 하는 것이 곧 대화입니다.
- ④ **자기통제:** 어린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나요? 목소리를 높이고 고함을 치며 화를 내지 않나요?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자기통제력을 잃어 곧바로 후회하게 될 말과 행동을 하지 않나요? 남이 나를 존경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른

19- 김은경, 『민주시민을 키우는 어린이 정치』 (서울: 리젬, 2009) 참조.

사람의 말이 나를 화나게 할지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자신의 의견이 옳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 분명해야 하겠지요. 자기통제는 폭발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 ⑤ **관용하기:** 어린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선택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도 무엇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런 관용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분별하고 토론을 통해 이를 설득할 수 있는 있어야만 관용의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토론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폭력에 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용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 ⑥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기:** 어린이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남 앞에 나서서 것을 수줍어하거나 과감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기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말이 어느 누구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들어보면 남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과 다른 내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기 위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분명하다면 말도 분명해지고 남에게도 분명한 목소리로 들립니다. 자기 의견을 드러내 놓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이며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⑦ **선택과 책임:** 어린이 여러분! 산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 거절할 때와 수락할 때, 떠나야 할 때와 머무를 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말로 두 개의 사물을 항상 서로 분리시킵니다. 선택이 너무 어렵거나 선택이 망설여질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서로 충돌할 때, 그리고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거나 선택 그 자체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흔히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말하자면 기권을 하는 것입니다. 기권은 선택의 권리를 다음 순간을 위해서 유보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선택의 권리를 넘겨주는 때도 가끔 있는데, 나의 선택이 아닌 그들의 선택은 거의 예외없이 나에게서는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⑥ **지켜야 하는 것:** 어린이 여러분! 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회 대표들이 투표로 제정한 법률을 지키는 것은 사회의 약속입니다. 또 이런 법들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를 감시하기 위해 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은 경찰이 고발한 법을 어긴 사람들의 유죄와 무죄를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도둑질할 권리와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누구든 이 같은 선택을 둘러싸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토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택 자체를 비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본 통일교육의 방향

(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평화와 공존지향적 통일교육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생각을 서로 나눔으로써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왜곡된 적대적 이미지를 지우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통일 그 자체를 전면에 세우면서 통일에 수반되어야 할 보다 높은 가치인 민주주의, 차이에 대한 이해, 관용, 평화 등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이라는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중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적 접근은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의 내용, 가치, 태도, 기술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실인 분단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적대감 등이 안보의식과 함께 이중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북한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의 포용적 통일교육이 수용되어야 한다.

(나) 정의로운 사회 참여의 가치 증대와 참여형 방식

사회 참여는 결국 시민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한 시민의 올바른 자질이기도 하다. 참여를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정의로운’ 사회 참여라는 전제 또한 필요하다. 강한 힘과 기득권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협동과 연대 정신을 통해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시민이 곧 민주시민이다. 또한 이러한 정신이 새로운 통일한반도를 만드는 기초 의식이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참가자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진행자의 주입식 교육이나 강연이 아닌 참가자들의 생각들이 모아지는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

(다) 감성과 이성의 균형적 발달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이성적 합리적 토론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성이나 합리성에 토대를 둔 감성의 영역을 점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성과 합리성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이성적으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는 감성능력의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 접목에서 감성과 이성의 균형적 발달은 매우 중요하므로 교육에서 감성의 영역을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다. 교육목표 및 핵심 역량: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참여시민 양성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교육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이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로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참여시민 양성’을 설정하였다.

(1)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통일한국 사회 건설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통일을 위한 통일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한 통일사회를 건설한다는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의 첫 번째 핵심 역량은 바로 ‘공동체’이다. 우리, 사회와의 관계 영역 속에서 협동, 배려, 책임, 행복의 가치를 담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삶에서 상호 유대와 공익 추구, 그리고 공동선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서로 돕는 생활 태도를 기르려는 취지이다. 협동은 공동선을 창출하고 증진하기 위해, 또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과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들이 공동체가 발전하고 변영하는데 필수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길러야 한다.

(2)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반도 통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미래의 통일국가는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고, 보다 정의롭고, 타인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존지향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접목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역량의 하나는 ‘평화’이다. 평화는 통일의 출발점이자 지향점

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심성보는 지구촌 시대의 민주적 시민은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동시에 구현한 사람이고, 민주시민교육은 양자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평화적 시민은 공동선과 공동체의 민주적 과정으로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서로 인정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폭력이 아닌 평화의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²⁰

안타깝게도 남북한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 이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아직도 매우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일교육이 더욱 더 어려울 수 있는 여건이다. 남북 간 상호 적대감은 독일과는 다른 통일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남북 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결할 수 있는 평화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학교 곳곳에서 일어나는 왕따와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연장선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한다.

(3) 주체적 참여시민 양성하기

통일준비 과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과 북의 지도자만이 아닌 남북한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응원하는 통일의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적 시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사유하고 실천하며, 그 판단 기준에 맞춰 참여 실천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세 번째 핵심 역량은 ‘참여’로 설정하였다. 참여를 위해서는 스스로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²⁰ 심성보,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p. 333.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2. 선행사례 분석

가. 국내 사례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보통 1987년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삼는다. 그 후 초창기에는 비정부기구들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경실련, 참여연대 등 11개 단체가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구성하였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심의 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운영하였고, 1999년에는 30여 개의 단체가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시민교육을 진행하였다.²¹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이 갖는 정치적 한계로 인해 부족한 감도 없지 않다. 또한 2014년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지성과정’을 개설하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하였다.

국내 민주시민교육 사례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접목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직접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존의 통일교육을 뛰어넘어, 민주시민교육과 접목하여 ‘공동체, 평화, 참여’라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평화교육 또한 통일교육의 한 범주로 포함하여 살펴보겠다.

²¹ 홍득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체제구축 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2권 (1997) 참조.

(1) 어린이어깨동무²²

“남과 북의 어린이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어깨동무는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적 지위를 인정받은 NGO(비정부기구)이다.

(가)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의 접목

1996년 활동을 시작한 어린이어깨동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평화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평화로운 세상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평화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동체, 평화, 참여,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을 중요시하며, 통일교육과 연결된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방식으로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참여형 교육 기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사 양성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나) 어린이,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사례

1) 평화지킴이(어린이 피스리더)

어린이 피스리더를 양성하는 평화지킴이 교육사업은 이 단체의 핵심 사업이다. 어린이들이 평화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평화로운 세상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평화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과 실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화감수성 향상 활동(평화지수, 비폭력대화 등), 평화 이슈(인권, 전쟁, 분단과 통일)에 대한 어린이 눈높이에서의

²² 어린이어깨동무, <<http://www.okfriend.org>> (2014.10.20).

접근과 실천활동이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까지 매년 한 기수씩, 현재 12기를 진행하였다. 매년 11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 약 15명을 대상으로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2) 평화이음이(청소년 피스리더)

청소년들이 지닌 평화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을 평화로운 세상의 평화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평화 이슈 중 연간 활동 내용과 목표를 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완성함으로써 청소년의 평화 활동을 실천의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문제의식을 가진 평화 이슈와 관련된 연구(독서, 토론, 인터뷰, 현장방문)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목표(피스북 발간 등)를 설정하고 실현해 나가고 있다.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현재 5기까지 진행하였다. 매년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약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 초등학교 순회 평화교육

기존의 통일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의 통일교육을 넘어서 평화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북녘 이해 및 더불어 살기 교육 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많은 어린이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강사단을 양성하여 각 학교에 방문하여 학급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들의 언어, 생활 등의 소재를 통한 북한 친구들에 대한 이해 향상과 남북 어린이가 더불어 사는 준비(문화이해지 등)를 주요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초등학교 3~6학년 총 30,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펼치고 있다.

4) 어린이 평화캠프

공동체 안에서의 공존 연습을 바탕으로 더 큰 사회에서의 평화 이슈에 대한 접근을 목표로 두고 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놀이와 체험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평화 현장 방문, 체험활동, 느낌 나누기, 더 나은 대안 고민하고 모둠별 발표하기 등이다. 평화교육의 입문 과정으로서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로운 공존 연습과 놀이와 체험을 통해 평화와 관련된 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총 18회를 개최했으며, 11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숙박교육으로 진행한다.

5) 동아시아 어린이 평화워크숍

동아시아 어린이들의 교류와 협력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아시아 평화 의제를 선정하여 함께 놀이와 체험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친해지기, 서로의 문화 이해하기, 평화 의제 탐구 및 평화 현장 방문, 체험 활동, 공감 활동 등이다. 200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2회를 개최하였으며, 11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숙박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6) 평화교육 교사 연수

학교현장에서 평화의 눈으로 통일과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교육의 확대와 발전을 목표로 교사 연수를 펼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학교현장의 요구 변화에 따라 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론 강의와 실습 병행,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강의와 현장 프로그램 사례 연구,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학교 현

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주요내용은 북녘 이해, 남북관계 이해, 갈등해결, 다문화, 더불어 사는 연습 등 다양한 콘텐츠 교육과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의 이해 및 교육 실습 등이다. 200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0회를 개최하였으며, 평화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대학(원)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30시간 직무연수 등) 연수 및 시범교육으로 진행한다.

(2)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1913년에 창립한 ‘홍사단’ 산하 운동본부로서, 홍사단 정신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구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족통일촉진, 세계평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NGO이다. 1996년에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7년에 창립되었다.

(가)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의 접목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성인, 대학생과 청년, 청소년, 어린이와 학부모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각각 통일교육을 펼치고 있다. 통일교육 사업을 통해 사회적 통일의를 고취시키고, 통일준비 과정과 통일한국에서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표로 두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가운데 평화, 참여,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참여형 교육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 교사 양성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나) 어린이,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사례

1)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가치관과 의식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통일교육으로 접근하여 통일준비 과정과 통일한국에서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복잡해진 환경 속에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남북 및 남남 간에 평화적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공존 문화를 창출한다는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대를 나누기, 평화적 통일감성 키우기, 평화적 갈등해결, 통일 이해하기, 통일 놀이터, 통일의 미래상, 프로그램 마무리하기 등의 참여형 교육기법과 일반적인 강의 형태의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부터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도권 및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박 2일 교육으로는 총 18회를 진행하였고, 일일 방문 통일교육으로는 약 50여 차례를 펼쳤다.

2) 청소년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워크숍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의 확장성과 자발성을 확대를 목표로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이 교육과 실습 두 가지 모두를 익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통일이론 학습부터 시작하여 전문가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키우기, 청소년 이해하기, 실제 교육 프로그램 기획·실습·발표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 개최하였으며, 1박2일 숙박교육으로 전국 순회교육이 이뤄졌다. 학교 교사, 교육단체 및 기관 담당자, 학부모 등이 매회 20~30여 명 가량 참가하였다.

3)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평화통일교육

청소년만큼 가치관과 의식체계를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인 어린이와, 자녀들과 매일 소통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과 소통과 행복을 목표로 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가한 학부모와 어린이 자녀가 함께 소통하는 데에도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가족과 함께 하는 Fun Fun한 놀이, 생생 활동하기, 평화표현하기 등과 평화와 인권의 시선으로 용산 전쟁기념관 답사하기, 야외 포스트별 평화통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2013년 토요일 오전에 3시간씩 총 4회를 진행하였으며, 매회 25명 정도가 참가하였다. 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단체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청년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청년 강사들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4) 어린이 평화통일교육 청년교사 양성

앞서 언급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평화통일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청년 강사를 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점이다. 청소년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이해하기, 평화통일교육 이론 학습, 프로그램 기획 및 실습, 다양한 교육 진행 시연 등을 약 석 달 동안 진행하였다.

5) 청소년 평화통일캠프

남북 분단 현장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통일미래를 새롭게 꿈꾸도록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민통선 일대 등의 분단 현장을 답사하고, 통일전망대에서 북한도 조망하면서 평화통일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박 2일 숙박교육으로

총 3회 진행하였고, 매회 40여 명씩 참가하였다.

6) 청소년 통일교육 매뉴얼북 제작 및 배부

1년 동안 전국에서 진행하였던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교육 결과물을 매뉴얼북으로 정리하여 관련 교육 현장 교사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교육의 확산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연말에 각 1권씩 총 3권을 제작하여, 약 800여 곳의 학교 및 관련 기관에 배부하였다. 배움과 성장, 프로그램 도입 단계, 프로그램 본 단계, 프로그램 마무리 단계, 느낌과 성장 등 총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각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매뉴얼로 자세하게 담았다. 그리고 배움과 성장, 느낌과 성장 부분에서는 통일교육 및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내용과 활동 사진, 결과물 사진 등을 수록하였다.

나. 해외 사례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직접적으로 결합한 해외사례로는 독일의 정치교육이 유일하다. 이는 분단국가가 갖는 구조적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밖에 대다수의 나라들은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먼저 독일의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접점 사례를 살펴본다. 이후 해외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일의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

(가) 통일 이전의 서독의 통일교육

통일 전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분단이 되었고, 분단이 점령국가의 정치적인 의도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보다 급한 교육적 과제는 하루 속히 서독에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을 서독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하였다. 이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통일교육을 내포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었는데, 통일교육은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통일 전 서독의 통일교육 정책은 통일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독의 통일정책 및 동독 정책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1949년부터 1963년까지의 관계 단절 단계이다. 서독이 전체 독일을 대표한다는 유일 대표권을 주장하면서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2단계는 1963년부터 1969년까지의 관계 정상화 모색 단계이다. 서베를린 시장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가 표방한 점진적 접근 정책은 인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고, 점차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도록 이끌었다. 3단계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의 관계 정상화 및 교류협력 단계이다. 1969년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서독의 동독 정책 및 통일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1969년 서독 수상에 취임한 브란트는 취임연설에서 동방정책을 발표하고 1민족 2국가론을 제안하였다. 이후

브란트는 꾸준히 대 동독 접근 정책을 추진하면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1972년 서로를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4단계는 1982년부터 1989년까지의 교류협력 활성화 단계이다. 기독교민주당의 콜 정부는 동독과 많은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끌었다. 이 당시 통일정책의 핵심은 동서독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동서독 주민들의 만남과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초창기의 통일교육은 냉전시대의 논리가 존재하였지만, 동방정책 이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동독에 대한 비난보다는 동독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모아졌다.

그러면서 서독은 통일교육을 좁은 의미에서 동서독의 통일문제에 한정해서 실시하지 않고,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자유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을 포괄하였다. 1978년의 ‘통일교육기본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 목적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즉 동독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동독 및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²³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이다. 이것은 정치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1976년에 서독 내에서 합의한 것으로서 아직까지도 독일 내 민

²³ 김창환, “통일 전 동·서독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과 실상,” 『한독교육학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3), pp. 19~22.

주시민교육의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첫째, 주입식 교육 및 교화를 금지하고 있다.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견해를 배우는 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배우는 자는 수업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의 주제가 사회에서 대립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가르치는 자는 주제를 이러한 대립적 입장이 드러나게 서술하고 논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관심사의 관철과 해결 능력 배양을 지향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배우는 자로 하여금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배우는 자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자신을 위한 최종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협약으로 인해 서독 및 통일독일의 정치교육은 내적 다원성이 이루어졌고, 자연스럽게 이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정치교육원을 비롯한 수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외적 다원성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²⁴

(나) 통일 이전의 동독의 통일교육

동독에서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독의 정치교육과는 달리 체제 지향적인 이념교육 중심이었다. 동독의 통일교육 정책 역시 통일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통일정책 추진 단계이다. 여기서 통일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의미한다. 2단계는 1955년부터 1961년까지의 통일선전 단계이다.

²⁴ 강경선 외, 『2012 교육정책 연구과제 보고서: 서울형 민주시민 교육 모형과 실천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 교육연구 정보원, 2012), pp. 55~56.

연방제 형태의 국가제도 수립과 1961년 베를린 장벽 건립과 함께 폐쇄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3단계는 1961년부터 1971년까지의 분단 인정 및 상호승인정책 추진 단계이다.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자,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분단 현실을 인정하였다. 4단계는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조약정책 단계이다. 서독과 많은 조약을 체결하면서 실익을 추구하게 된다. 서독 역시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였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위협을 느껴 교류와 폐쇄정책을 병행하였다.²⁵

동독 통일교육정책의 핵심은 사회주의체제 지향적인 이념교육 중심이었다. 그러하다보니 모든 통일교육 정책은 공산주의 정당이 총괄하였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정당 정책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학교 교육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시민’ 교과를 정규교과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그러하다보니 결국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교육,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우월성 강조, 서방체제에 대한 비판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²⁶ 즉 동독의 통일교육은 서독과는 달리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시민교육 차원의 접근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 통일독일의 통일교육

1990년 드디어 동서독이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 이후에도 정치교육은 계속 이어졌고, 이는 과거 서독의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구 동독 지역에는 과거 체제지향적 국가시민교육이 아닌 민주시민교육 가치가 담긴 정치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교육의 주

²⁵ 김창환, “통일 전 동·서독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과 실상,” pp. 28~29.

²⁶ 위의 글, pp. 27~30.

요한 핵심은 통일 이후 생겨나는 다양한 갈등과 분열을 인식하고, 구동서독 시민의 상호이해를 통해 사회심리적 간격을 좁혀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것에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 또한 기본적으로 학교의 정치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통해 정치교육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정치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 행동을 연습하고, 정치 참여에 대한 능력과 자세를 배양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앞서 말한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의 정신 가치는 항상 살아나 있다.²⁷

결국 독일이 통일 후에도 공고한 민주주의를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서부터 통일교육(정치교육)에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담아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래서 더욱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아래는 독일의 정치교육 현황을 보여주는 표이다.²⁸

● 표 II-2 독일 정치교육 현황

담당기관 (단체)	활동 유형	재정적 기반
연방, 각주 정치교육원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교사원수, 교재개발), 민주 시민교육 단체 지원, 교재개발, 자체 민주시민교육	내무부

²⁷- 강경선 외, 『2012 교육정책 연구과제 보고서: 서울형 민주시민 교육 모형과 실천방안 연구』, p. 56.

²⁸- 위의 책, pp. 136~137.

담당기관 (단체)	활동 유형	재정적 기반
6개 정치재단	포럼, 세미나, 역량강화 훈련	내무부
지방자치 단체	지역 시민대학, 세미나	자체
교회	세미나	"
노조	"	"
정당	"	"
신문, 기업	포럼	"

(2) 해외 민주시민교육 사례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은 국가 교육과정에 ‘민주주의’란 표현을 교육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시민의식(Citizenship)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시민의식 학습을 토대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지칭하고 있다. 분단된 구조가 아니다 보니 대다수의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추구와는 다른 광의의 평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표 II-3 교육과정 목표로 진술된 해외 시민의식교육²⁹

출처	국가 교육과정 진술에 나타난 시민의식 (National Curriculum Statement)	핵심어
프랑스: 고등학교 교육과정 (2009)	“프랑스 국민들은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으로 지식 전수, 시민의식 교육, 직업 및 사회 준비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세가지 목적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지식전수, 시민성 교육, 직업 및 사회 준비
호주: 신세대를 위한 교육 목적 선언 (2009)	“첫째, 모든 호주의 젊은이들이 성공적인 학습자, 자신감이 있는 창의적인 개인, 그리고 적극적이며 정보를 갖춘 시민이 되도록 지원하고……”	성공적인 학습자, 창의적 개인, 정보를 갖춘 시민, 교육의 평등 및 수월성 진작
독일: Berlin Cosmopolitan School 교육이념 (2009)	“우리는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세계의 시민이 되기를 촉구한다.”	학업 능력, 다언어 구사, 사회적·간문화적 기술의 계발
미국: 연방교육 위원회 교육표준 K-12, 시민의식 교육 부문 (2009)	시민의식교육은 학생들이 원칙을 준수하는 효율적인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시민의식교육은 역사와 정부에 대한 교육,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공민교육, 사회현안에 대한 토론, 모의법정 및 모의선거, 인성교육 등을 포함한다.	역사 및 정부 학습, 민주주의 시민, 모의법정, 선거, 인성교육, 학생회 조직, 지역공동체 참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교육과정 (2002)	“우리가 추구하는 학습자상은 민주주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정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본적 문해, 기술 터득, 비판적 능동적 시민

²⁹ 위의 책, pp. 136~137.

(가)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구교(카톨릭)와 신교(개신교) 사이의 오랜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갈등은 다소 완화되었다. 상호 이해교육, 통합교육, 공동체 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해 두 종교 간 학생들의 화합을 위한 평화교육 프로젝트 또한 기여를 하였다. 구교와 신교의 학생들이 3~4일 동안 함께 숙박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포용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주입식으로 상호이해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고 어울리는 프로그램 속에서 평화와 공존 의식이 싹튼 것이다. 이는 남한의 통일교육이 평화와 공존지향적 통일교육으로 진행해가는 것에 시사점을 줄 수 있겠다.

(나) 미국

미국은 19세기에 이미 ‘정치교육’을 도입하였고, 1880년대에는 ‘공민’(Civ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다문화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고, 다양성 속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꼽고 있다. 미국의 시민교육은 다양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 교과목에 시민교육 영역이 다뤄져 있고,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공민, 민주주의 원리,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점 등의 과목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³⁰

³⁰ 손경애 외,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pp. 37~43.

(다) 핀란드

핀란드는 유럽 사회의 복지국가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자치활동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 의회, 어린이 국회, ‘헬싱키 청소년의 목소리’, 청소년 열린 포럼 등을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핀란드 교육청은 능동적인 시민의식을 정체성, 참여의 증가, 만남의 활성화, 자기와 타인 및 자기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배려 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³¹

(라) 스웨덴

1985년에 발표한 교육법에 따르면 첫째, 학교의 모든 활동은 근본적인 민주주의 가치에 일치하도록 행해져야 하고, 둘째, 학교의 모든 사람은 각자의 내면적 가치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환경을 존중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학교가 표방하며 전해야 하는 가치는 ‘인간의 삶, 개인의 자유와 온전함의 불가침성’, ‘모든 사람의 동등한 가치’, ‘남성과 여성의 평등’, ‘약자와 소수자와의 연대’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완성의 토대는 학교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 안에서 다양성과 토론, 그리고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고 있다.³²

(마) 프랑스

프랑스의 민주시민권은 1789년 제정한 ‘인권선언’에 연원을 두고 있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핵심원칙이 법치주의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사회공동체를

³¹- 심성보,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pp. 424~449.

³²- 오혜원, “학교의 시민교육: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안 민주시민교육,” (수원시평생학습관 발표문, 2012) 참조.

구축하려는 데 기본이념이 있다. 결국 민권의 본질과 실체를 학습시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공동체 구성원이며,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학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1990년대 중반에 와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었다. 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시민교육을 강화시켰고, 이어서 초등학교 과정도 발전시켰다. 프랑스 또한 앞서 살펴본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의회 활동이 매우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³³

(바) 영국

영국의 민주시민교육 역사는 오래 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사회 참여와 통합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7년 집권을 하게 된 노동당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정치교육’을 보다 적극적인 개념인 ‘시민교육’ 또는 ‘시민성 교육’으로 전환하여 보다 활발하게 교육을 진행하였다.³⁴

3.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가. 프로그램 개발 기본 방향 및 개발 원칙

(1) 핵심 역량 개발: 공동체, 평화, 참여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결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

³³-손경애 외,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pp. 54~58.

³⁴-위의 책, pp. 44~49.

를 만들기 위한 참여시민 양성에 있다. 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세 가지 핵심 역량은 ‘공동체’, ‘평화’, ‘참여’로 설정하였다.

(2) 자기 문제화 교육 (가치명료화 교육)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다. 즉 모든 교육의 출발점은 개인의 변화를 통한 공동체와 사회의 변화를 꾀하는 것에 있다. 이번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접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통일의 문제가 결국 내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의 문제이며, 이것의 완성은 나로부터의 변화의 시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게 필요하다. 한반도에 남북이 분단되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섬나라가 되어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지금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꿈도 결국 분단의 섬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의 미래로 뻗어갈 때, 우리의 미래와 나의 장래 직업도 함께 펼쳐갈 수 있다는 미래 지향적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3) 소규모 집단 참여형 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방법적 가치 중의 하나는 교육 프로그램에 본인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주가 되었던 주입식 강연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민주적 의사소통과정이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집단 참여형 교육이 적절하다.

(4)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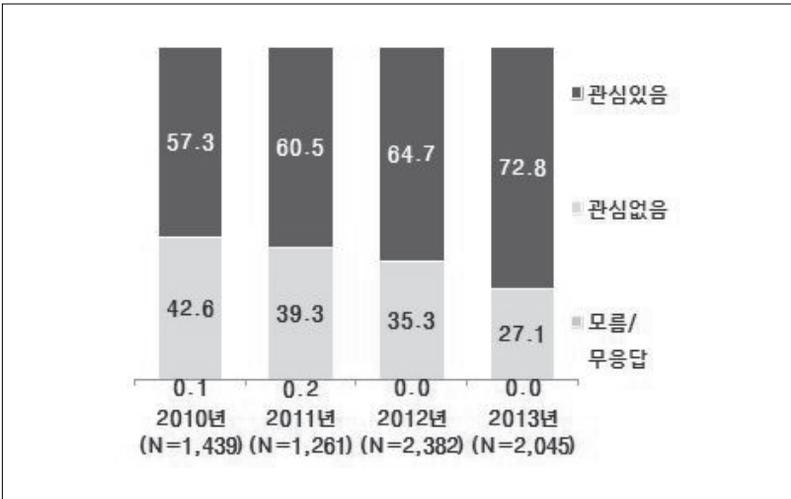
아무리 좋은 교육적 가치와 내용도 그것이 교육대상자의 이해와 요구에 맞지 않는다면, 교육의 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달리 3차 교육에서 끝내지 않고, 거리에 나가 1차부터 3차까지 배웠던 내용을 담아 직접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하고 ‘통일을 위한 평화캠페인’을 펼치기도 하였다.

나. 교육 요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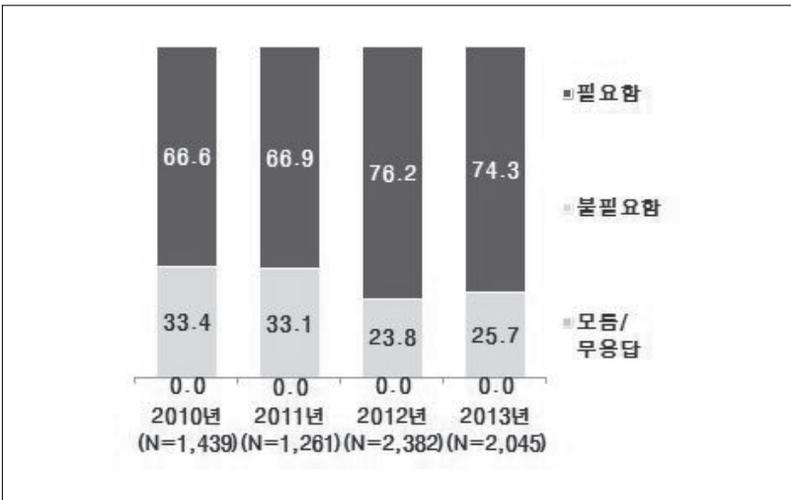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통교협)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청소년 통일인식조사’ 결과의 주요특성을 살펴보자.³⁵ 가장 먼저 평소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아래와 같다. 2010년도 57.3%에서 2013년도에는 72.8%로 매년 증대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아래와 같이 매우 높은 편이다.

³⁵ 청소년 총 2,045명 대상 설문,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2.17\%$, 조사방법은 우편조사. 지역별, 학교별로 할당 표본추출 방식, 조사기간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청소년 통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통일교육협의회, 2013.

● 그림 II-1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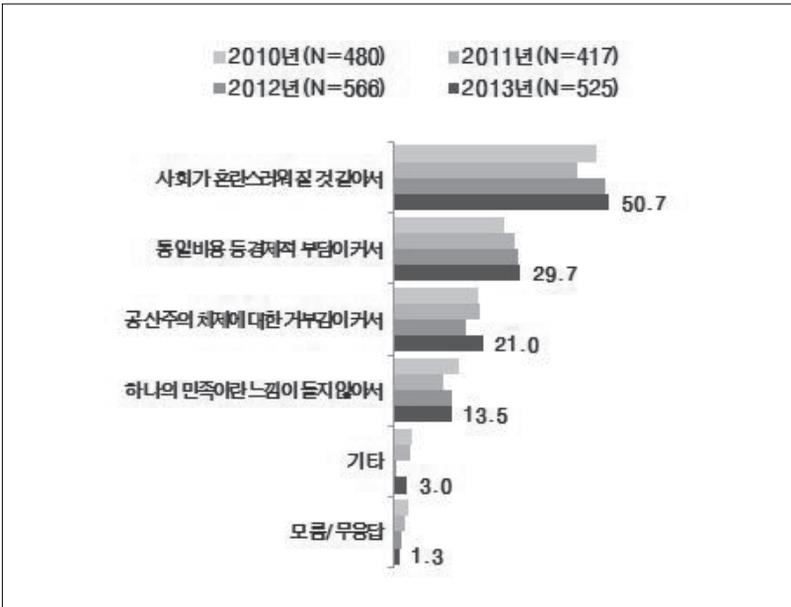
● 그림 II-2 통일의 필요성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013년 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이다. 응답자의 25.7%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그림 II-3>과 같다.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가 50.7%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하나의 민족이란 느낌이 들지 않아서’ 등이 뒤를 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을 매우 높게 보이고 있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로 ‘사회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어섰다.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통일교육의 가치는 바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도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교육 안에 민주시민교육 가치 접목이 절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의 가치 함양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관심도를 높이고, 공동체적 가치 및 평화의 가치 함양을 통해 통일로 인한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통일이 지향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내면화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을 개발하였다.

● 그림 II-3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다.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 (1) 목적: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참여시민 양성

● 표 II-4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접목 프로그램 목적

핵심 역량	내용	관련 가치
공동체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과 협력, 경쟁에서 통일로! (분단국가) 협동과 배려 (남북관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서로의 배려) 공동체와 행복 (미래사회 통일국가) 	협동, 배려, 공동체, 행복

핵심 역량	내용	관련 가치
평화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평화 발견 • 우리 사회의 평화 • 독일·에멘 통일과정 비교 (합의 통일-전쟁 통일 후의 모습) 	정의, 공존, 평화
참여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시민성) • 참여를 위한 어떤 관점이 필요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참여(민주적 과정) •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모둠 계획서 작성하기 	시민성, 민주적 과정, 참여(실천)
실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위한 평화 캠페인 활동 ※ 중학생은 4일차에 야외 실천 활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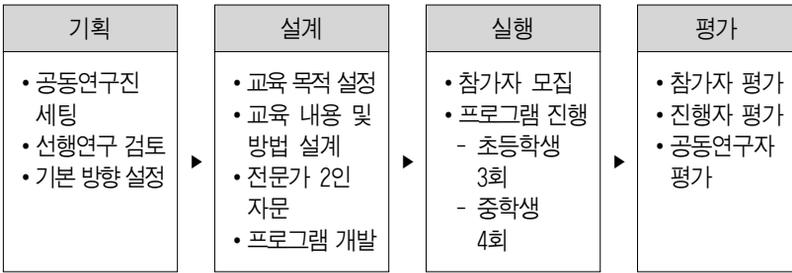
(2) 목표

앞서 살펴봤듯이 결국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참여시민 양성’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학생들이 스스로가 통일준비 과정과 향후 통일한국 시대의 중요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경쟁보다는 협력, 협동과 배려, 공동체와 행복, 나와 우리의 평화, 세상을 바꾸는 참여와 행동의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 개발 과정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 그림 II-4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기획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기존에 진행했던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검토하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교육이 가장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는 오랫동안 평화통일교육을 민주시민교육 가치와 방법으로 진행해온 전문가 1인이 담당하였다. 이 이외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가 1인(청소년학 이론·실천 전문가)과, 초등학생 교육 전문가 1인(현직 초등교사, 초등학생 민주시민교육 전문가)이 공동개발자로 참여하였다.

개발진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나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결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에 착수하였다.

(2) 설계

구체적인 설계 작업에 들어가면서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참여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설정하였다. ‘공동체’, ‘평화’, ‘참여’라는 핵심 역량 세 가지를 토대로 세부적인 교육 내

용과 방법을 구성하였다. 그 준비 과정에서 통일교육 이론 분야에서 많은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석 공주교대 교수와,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천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구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용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였다.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지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초등학생은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중학생은 모듈별로 대화를 통하여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초등학생은 보통 활동을 통하여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반면, 중학생은 자신과 자신 주변의 느낀 것을 중심으로 자기화하여 내면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몸을 직접 이용한 놀이 또는 활동이 주를 이루도록, 중학생은 활동 수업을 하더라도 몸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게 설계하였다.

(3) 실행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을 각각 3~4회씩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중학생의 경우, 방학 중에 4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자 모집은 군포중학교 측의 협조를 얻어 중학생을 모집하였다. 이렇게 모인 15명의 학생들과 하루에 3시간씩 교육을 진행하였고, 4일차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전날 직접 제작한 홍보물을 가지고 군포 거리에서 ‘통일을 위한 평화캠페인’을 펼치기도 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구로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참가자를 모집하여, 토요일 오전에 3시간씩 교육을 진행하였다. 초등학생 프

로그램에 참여한 3명의 진행자는 모두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초등학생의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실행에 옮겼다.

(4) 평가

참가자 평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준을 고려한 가운데 매일 교육 마무리 시간에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직접 얘기하고 적은 내용들을 모았다. 진행자 평가는 진행자들의 평가서를 이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공동연구자 평가에 있어 공동연구진의 근무여건상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 프로그램 내용

(1) 교육 체계

(가) 초등학생 프로그램

- 주제: ‘공동체’, ‘평화’, ‘참여’를 통한 꼬마 민주시민 되어보기
 - 초등학생들의 발달단계 및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구성
 -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평화’, ‘참여’ 등의 민주 시민교육의 가치를 내면화

(나) 중학생 프로그램

- 주제: ‘나’로부터 시작하는 ‘공동체’, ‘평화’를 경험하고 ‘참여’를 통해 성장하는 민주시민 되어보기
 - 다양한 놀이와 활동으로 구성하여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모아 내는 작업을 중심으로 구성

- 자신들의 주변, 혹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자기화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교육 내용

(가) 초등학생 프로그램

● 표 II-5 초등학생 대상 교육 내용 핵심 가치

핵심 역량	초등 내용	핵심 가치
공동체 (3시간)	•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 공동체적 가치, 협동(력)
	• 협력할 때에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 배려, 책임
	• 행복한 공동체를 꿈꿔봐요.	• 행복
평화 (3시간)	• 우리 주변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스스로 느껴봐요.	• 내 안의 평화
	•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꿔요.	• 우리 사회의 평화
	• 행복한 공동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화가 필요해요.	• 공존
참여 (3시간)	• 친구들과 함께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 좋아요.	• 참여의 즐거움
	•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사회 참여	• 사회 참여
	• 우리도 사회 참여할 수 있어요.	• 실천, 민주적 과정

I

II

III

IV

V

● 표 II-6 초등학교 대상 교육 체계 편성표

핵심 역량	내용	초등 내용
공동체 (3시간)	• 경쟁과 협력, 경쟁에서 통일로!	•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 협동과 배려	• 협력할 때에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 공동체와 행복	• 행복한 공동체를 꿈꿔봐요.
평화 (3시간)	• 나의 평화 발견	• 우리 주변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스스로 느껴봐요.
	• 우리 사회의 평화	•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꿔요.
	•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 비교	• 행복한 공동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화가 필요해요.
참여 (3시간)	•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 친구들과 함께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 좋아요.
	• 세상을 바꾸기 위한 참여	•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사회 참여
	• 행복한 공동체,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	• 우리도 사회 참여 할 수 있어요.

(나) 중학생 프로그램

● 표 II-7 중학생 대상 교육 내용 핵심 가치

핵심 역량	중등 내용	핵심 가치
공동체 (3시간)	• 나와 타인은 연결되어 있어요.	• 공동체적 가치
	•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 협동(력)
	•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아요.	• 행복
평화 (3시간)	• 스스로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알아보아요.	• 내 안의 평화

핵심 역량	중등 내용	핵심 가치
평화 (3시간)	• 놀이를 통해 문제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가져봐요.	• 우리 사회의 평화
	•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 공존
참여 (3시간)	• 참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참여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공유해요.	• 참여의 가치
	• 각자의 참여 경험을 나누고,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보아요.	• 사회 참여
	• 평화동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실천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요.	• 실천, 민주적 과정
실천 활동	• 직접 제작한 홍보물로 시민들에게 통일메시지를 전해보아요.	• 직접행동

● 표 II-8 중학생 대상 교육 체계 편성표

핵심 역량	내용	중등 내용
공동체 (3시간)	•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 나와 타인은 연결되어 있어요.
	• 협력	•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 공동체와 행복	•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아요.
평화 (3시간)	• 나의 평화 발견	• 스스로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알아보아요.
	• 평화를 위한 문제해결	• 놀이를 통해 문제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가져봐요.
	•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배려	•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I
II
III
IV
V

핵심 역량	내용	중등 내용
참여 (3시간)	•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 참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참여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공유해요.
	• 청소년과 사회 참여	• 각자의 참여 경험을 나누고,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 보아요.
	• 행복한 공동체, 평화통일	•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실천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요.
실천 활동	• 통일-길거리 캠페인	• 직접 제작한 홍보물로 시민들에게 통일메시지를 전해 보아요.

(3) 교육 일정표

● 표 11-9 초등학생 대상 교육 일정표

날짜	시간	장소	대상	내용
8월 30일 (토)	09:30 ~ 12:30	구로남초	5학년 학생	•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 협력할 때에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 행복한 공동체를 꿈꿔봐요.
9월 13일 (토)	09:30 ~ 12:30	구로남초	5학년 학생	• 우리 주변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스스로 느껴봐요.
				•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꿔요.
				• 행복한 공동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화가 필요해요.
9월 27일 (토)	09:30 ~ 12:30	구로남초	5학년 학생	• 친구들과 함께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 좋아요.
				•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사회 참여
				• 우리도 사회 참여 할 수 있어요.

● 표 II-10 중학생 대상 교육 일정표

날짜	시간	장소	대상	내용
8월 6일 (수)	13:30 ~ 16:30	인생나자 교육장	중학생	• 나와 타인은 연결되어 있어요.
				•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 한지 생각해 보아요.
8월 8일 (금)	13:30~ 16:30	인생나자 교육장	중학생	• 참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참여 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공유해요.
				• 각자의 참여 경험을 나누고, 청소년 의 참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 제에 대해 알아 보아요.
				•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 천활동계획서를 작성해요.
8월 9일 (토)	-	군포 거리	중학생	• 교육 후속활동

(4) 교육 방법

학생들의 발달 단계 및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놀이를 중심으로 한 체험 및 활동 위주의 방법을 선정한다.

4. 프로그램 운영

가. 교육 대상

(1) 초등학생 프로그램

(가) 교육 대상: 서울 구로남초등학교 5학년 학생

(나) 교육 대상 선정 원칙 및 고려 요소

- 다양한 계층의 학생 선정: 구로남초는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

- 가가 혼재되어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빈도가 높아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선정하기 용이
- 초등학생의 대표성 고려: 초등학교 저·중학년보다는 고학년 중 5학년을 선정

(2) 중학생 프로그램

(가) 교육 대상: 군포중학교 2학년 학생 15명

(나) 교육 대상 선정 원칙 및 고려 요소

- 다양한 계층의 학생 선정: 군포중학교와 협력을 맺어,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였고, 이 프로그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 중등의 대표성 고려: 중학교 1, 3학년이 아닌 2학년을 표본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진행

나. 교육자료 개발

(1) 초등학생 프로그램

(가) 1일차 핵심 역량-공동체

1) 학습지도안

가) 활동 목표

-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좋음을 느끼게 한다.
- 협력할 때에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 미래사회 통일국가에 대해, 행복한 공동체에 대해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활동 개요

기차길 놀이를 통하여 협력의 필요성을, 친구 이끌어주기 활동을 통하여 배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쟁기념관의 평화의 시계탑과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동화책을 읽고, 미래사회 통일국가에 대해, 행복한 공동체에 대해 상상해 보는 활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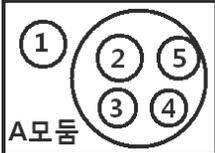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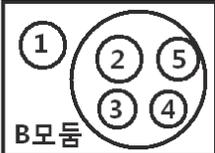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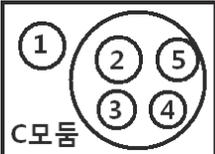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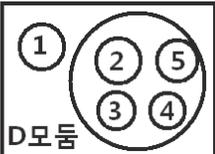
다) 준비물

EBS 다큐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 중 ‘3의 법칙’ 부분 영상, 카프라 10세트, 안대 15개, 평화의 시계탑 사진,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동화책 6권, 평화의 시계탑 설명 자료, 꽃밭에서 설명 자료, 활동지, 사인펜 세트, 배경음악

라) 지도안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경쟁과 협력, 경쟁에서 통일로! - 경쟁 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40분	<p>■ 마음열기(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다큐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 중 ‘3의 법칙’ 부분 영상을 본다. ⇒ ‘공동체적 가치’ 함양 <http://www.youtube.com/watch?v=d21704exSHs>. • 활동지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일,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을 있는 대로 작성한다. <p>☞ ‘3의 법칙’ 영상을 통해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꿈꾸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뜻이 맞는 사람 세 명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하면 놀라운 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공동체적 가치)</p>

I
II
III
IV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경쟁과 협력, 경쟁에서 통일로! - 경쟁 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40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3의 법칙' 영상 보기</p> <p>■ 활동 1: 기찻길 만들기(30분)</p> <p>*출처: 박광철, 『재미와 감동이 있는 협력놀이』 (서울: 즐거운 학교, 2010) 내용 수정 ⇒ '협동' 체험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준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둠 당 카프라 1세트, 배경음악(경쾌한 음악) ② 모듬원은 4~6명으로 구성, 모듬 안에 또 다른 모듬과 개인 구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ext-align: center;"> <div data-bbox="432 813 647 966">  </div> <div data-bbox="664 813 879 966">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data-bbox="432 978 647 1132">  </div> <div data-bbox="664 978 879 1132">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4~6명이 한 모듬이 되도록 전체 모듬을 나누고 번호를 정한다. ② 같은 모듬 안에서 다시 두 모듬으로 나눈다. 이 때, 한 모듬(개인)은 한 명, 다른 한 모듬은 나머지 인원인 3~5명이 되도록 한다. ③ 카프라를 나누어 주고 기찻길을 만들도록 한다. ④ 같은 모듬 안에서 다른 두 모듬(개인+모듬)이 따로 기찻길을 만들도록 한다.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경쟁과 협력, 경쟁에서 통일로! - 경쟁 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40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기차길 만들기(혼자만들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기차길 만들기(여럿이 만들기)</p> </div> </div> <p>⑤ 1분 또는 3분의 시간이 지나면 만든 기차길의 개수를 확인한다.</p> <p>⑥ 기차길 개수를 기록하고 같은 모둠 안에서 혼자 활동하는 모둠원을 바꾼다.</p> <p>⑦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간을 주고 기차길을 만든 카프라의 개수를 기록한다.</p> <p>⑧ 모든 학생들이 한 번씩은 꼭 혼자 하는 활동을 경험한다.</p> <p>⑨ 전체 활동을 마친 후 피드백을 해준다.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하는 것이 좋음. 다른 모둠끼리 경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둠 안에서 혼자와 협력의 활동을 한 것)</p> <p>⑩ 학급 전체가 참여하여 함께 협동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교실 전체에 기차길을 잇는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기차길 만들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교실 전체에 기차길 잇기</p>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20px;"> <p>☞ 기차길 만들기 활동을 통해 혼자 하는 것(경쟁)보다는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을 깨닫게 한다. 더불어, 한 사람이 30개를 이룰 때 네 사람은 120개가 아니라 90여개 정도를 이룰 수 있는 점과 관련하여 피드백 과정 시 그 이유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를 한다. 그래서 협동을 할 때에는 배려와 책임이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협력)</p> </div>

- I
- II
- III
- IV
-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협동과 배려 - 협력할 때에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p>	<p>20분</p>	<p>■ 활동 1: 친구 이끌어 주기(20분) *출처: 박광철, 『재미와 감동이 있는 협력놀이』, 내용 수정 ⇒ '배려와 책임' 체험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준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대 15개, 배경음악(잔잔한 음악) ② 두 명씩 짝을 짓는다. • 놀이 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두 명씩 짝을 짓는다. ② 한 명은 안대를 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말없이 한 손가락으로 이끌어 준다. ③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려고 하면 이끌어주는 사람이 다른 손으로 안대를 한 사람의 몸에 터치하여 멈추도록 한 뒤에 움직인다. ④ 일정 시간이 흐르면 역할을 바꾸어서 한다. ⑤ 다 끝이 나면 동그렇게 앉아서 소감을 발표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친구 이끌어주기 활동을 통해 무엇인가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배려와 책임)</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친구 이끌어주기(짝)</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친구 이끌어주기(전체)</p> </div> </div>
<p>공동체와 행복 - 행복한 공동체를 꿈꿔봐요.</p>	<p>60분</p>	<p>■ 활동 1: 탐구작품(전쟁기념관의 평화의 시계탑) 관찰하기(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의 시계탑 사진을 TV 화면에 띄우고, '꽃밭에서' 동요 음원을 재생한다. • 여러 질문을 통하여 평화의 시계탑과 '꽃밭에서' 동요의 의미와 관계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p><질문 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엇이 보이나요? ② 우리가 흔히 보는 미술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재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나요?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공동체와 행복 - 행복한 공동체를 꿈꿔봐요.</p>	<p>60분</p>	<p>③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④ 작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⑤ 무엇이 들리나요? ⑥ 가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⑦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⑧ 노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⑨ 작품과 노래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p> <p>■ 활동 2: 관련 정보를 보고, 작품의 메시지 생각해보기(2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동화책을 학생들에게 읽어 준다. • 평화의 시계탑 설명 자료, 꽃밭에서 설명 자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동화책을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 자료를 읽고, 다시 평화의 시계탑 사진 자료를 보고 노래를 들으며 작품의 메시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본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동화책 읽어주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동화책 읽어주기</p> </div> </div> <p>■ 활동3: ‘공동체’, ‘평화’, ‘행복’의 주제에 맞는 작품 만들기(3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봤던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체’, ‘평화’, ‘행복’의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린다. • 활동지에 4컷의 그림을 그리는데 점점 단순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다. •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그 그림에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작품 만들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작품 만들기</p> </div> </div>

I
II
III
IV
V

2) 교육매체

- 영상: EBS 다큐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중 3의 법칙 부분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d21704exSHs>>

3) 교육에 활용한 교수자료

- 평화의 시계탑 설명 자료

평화의 시계탑



전쟁기념관 평화의 시계탑은 이어령 전 새천년준비위원장의 아이디어로, 조각가 안필연 경기대 교수가 1년 여에 걸쳐 제작했고, 국내 최고의 소리 전문가 김벌래 홍익대 교수가 평화 멜로디를 작곡한 조형물로,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 유일의 시계탑이다.

통일시대를 앞두고 6·25전쟁의 비극과 교훈을 상기하며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조형화한 평화의 시계탑은 높이 9.5m, 길이 2.3m, 폭 1.2m의 규모로, 재질은 청동이며, 두 자매가 6·25전쟁 당시 남북이 사용했던 폐무기의 잔해 위에서 전쟁과 평화를 상

징하는 쌍둥이 시계를 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한 소녀가 안고 있는 시계는 매 시간 평화의 멜로디를 울리게 될 평화의 시계로 우리 민족의 밝고 힘찬 미래를 향해 영원히 움직이는 시간을 나타내며, 또 한 소녀가 안고 있는 전쟁의 시계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6·25전쟁 발발과 함께 모든 것이 파괴되어 멈춰버린 시간을 상징하고 있다. 시계탑 옆에는 또 하나의 시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시계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국민적 축제 속에 평화의 시계탑 위에 올려 통일의 시각을 표시함으로써 남북 대화합의 통일시계탑이 될 계획이다.

‘평화의 시계탑’은 6·25전쟁 당시 남북의 형제가 전장에서 만난 비극적인 상황을 표출한 인근의 ‘형제의 상’과 함께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뜻 깊은 조형공간이다.

출처: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warmemo.or.kr>>.

■ ‘꽃밭에서’ 동요 설명 자료

전쟁-가난 속에 자란 ‘70세 어린이’ ‘꽃밭에서’ 작사가 어효선

아동문학은 나에게 인생 자체요,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길에 들어선 것은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가난했던 그 시절 우리 어린이들이 전쟁과 가난 등으로 겪어야 했던 아픔, 그리움, 그리고 꿈이 그들을 지켜본 나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헤어져 있는 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의 그리움이었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가슴을 예리하게 파고 들었다.

요즘의 엄마들은 어린이들에게 책을 골라 줄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한다. 서점에 가면 어린이책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산이 전쟁의 폐허가 됐던 바로 그 시절, 우리 어린이들은 읽을 책은 커녕 교과서마저 없어 수업다운 수업도 받지 못하기 일쑤였다. 공부보다 죽음이 더 가까웠고 친구 간의 우정도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못한 안타까운 시절이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올바른 말과 글을 알려주고 거칠어진 정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거듭된 고민 끝에 글다운 글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기어이 평생의 일이 되고 말았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 아빠가 매어놓은 새끼줄 따라 /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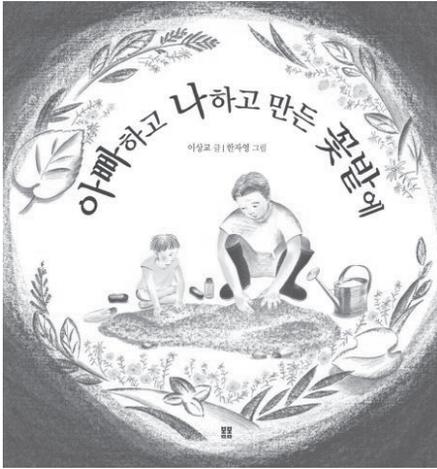
이 글 “꽃밭에서”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대구에서 창간된 어린이잡지 『소년세계』에 처음 실렸다. 전쟁으로 가족들은 천안으로 피난시키고 나는 부산 토성초등학교로 동원되어 그곳에서 교편을 잡았다. 애틋살던 주인집 아들이 내 큰 놈과 동갑이라 밤마다 가족이 그리워 나의 애뜻함을 어린이들의 정서에 실어 동시를 만든 것이다.

이화여고 음악교사이던 권길상 형이 이 글에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들자 피난민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 널리 퍼져 나갔다. 전쟁으로 아빠와 헤어져야만 했던 많은 어린이들과 피난민들의 정서에 맞고 곡조가 애뜻해 많은 이들이 함께 부르곤 했다. 두 달 전 집 근처 초그만 술집에서 50대 신사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감회가 새로웠다. 아마 그는 한국전쟁 때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은 게 분명해 보였다.

출처: 『동아일보』, 1994년 5월 1일.

■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동화책 설명 자료

전쟁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빠를 그리는 한 소년의 이야기!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는 아동문학가 어효선의 시에 권길상이 곡을 붙여 만든 동요 ‘꽃밭에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림책이다. 한국전쟁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다정다감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애뜻한 마음을 아름답게 그렸다. 다래산 산자락에 사는 웅이네는 아버지, 어머니, 웅이 세 식구가 다정하게 살고 있다. 어느 해 갑작스레 터진 전쟁으로 아버지는 집을 떠나 전쟁터로 나가고, 웅이는 아버지 대신 꽃밭을 정성스레 가꾼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와 함께 떠난 이웃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왔지만, 웅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전쟁이 한 기정에 가져다 준 비극을,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랫말처럼 담담한 글에 여백을 살린 소박한 그림이 애절함을 더한다.

출처: 다음 책 소개,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1742338>>.

(나) 2일차 핵심 역량-평화

1) 학습지도안

가) 활동 목표

- 우리 주변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스스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
-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보다는 대화가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활동 개요

풍선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자기 안의 평화와 행복을 스스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 매듭 고리 전달하기, 카드 놀이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펼쳐져 있는 행복과 평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기술 활동을 하고 난 뒤,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준비물

풍선 색깔별로 6개씩 5종류, 검은색 큰 봉지, 하트 포스트잇, 색 도화지, 행복과 관련한 영상, 초록색 독 이야기 자료, 녹색공, 주소 라벨지, 매듭 고리, 훌라후프, 감정 단어 카드(주소 라벨지), 무지개 카드, 악플 카드, PPT, 배경음악

라) 지도안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나의 평화 발견 - 우리 주변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스스로 느껴봐요.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풍선 선물 주고 받을 때 평화와 행복 느끼기(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풍선 1개씩 불고, 매듭을 짓는다. • 자른 주소 라벨지에 좋아하는 음식이나 아이스크림 적고, 자기 풍선에 붙인다. • 손으로 풍선을 띄우며 다른 친구와 풍선 선물을 주고 받는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풍선에 라벨지 붙이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풍선 선물 주고 받기</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2: 풍선 띄우기를 하며 평화와 행복 느끼기(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선 색깔별로 모둠을 구성한다. • 모둠별로 풍선 1개만을 빼고 나머지 풍선을 검은색 봉지에 담아 한쪽에 모아 둔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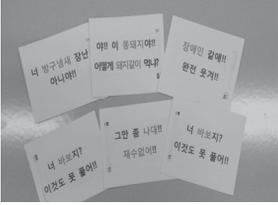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나의 평화 발견 - 우리 주변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스스로 느껴봐요.</p>	<p>4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뎀원끼리 손을 잡은 상태에서 발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위를 이용하여 풍선을 띄운다.(300번) 모뎀원끼리 손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로만 풍선을 띄운다.(100번) 힛수를 세는 도중에 떨어뜨려도 다시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어서 힛수를 세게 하고, 목표 힛수에 도달하기 전에 활동을 중지시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ext-align: center;"> <p>풍선 띄우기</p> <p>머리로만 풍선 띄우기</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풍선을 이용한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각자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자기 안의 행복과 평화 느끼기)</p> </div> <p>■ 활동 3: 내가 행복하고, 평화로웠을 때 나누기(2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과 관련한 영상을 본다. 하트 포스트잇에 내가 행복했을 때, 평화로웠을 때를 적는다. 내가 행복했었던 적, 평화를 느꼈던 적에 대해 쓴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ext-align: center;"> <p>행복했을 때 적기</p> <p>행복했을 때 적기</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p>자신이 행복했을 때 칠판에 붙이기</p> </di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우리 사회의 평화 -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꿔요.	40분	<p>■ 활동 1: 초록색 독 이야기를 통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저해하는 요인 알아보고 없애기(1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을 둥글게 앉힌다. • 녹색공을 주고 받으며 초록색 독 이야기를 한다. • 검은색 봉지에서 풍선을 꺼내 각자 한 개씩 갖는다. • 라벨지에 내 마음의 초록색 독(주었거나 받은 것,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방해되었던 것)을 적어, 풍선에 붙인다. • 각자 “초록색 독을 없애겠어요.” 외치며 풍선을 터뜨리고 쓰레기를 주워서 버린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초록색 독 이야기 하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초록색 독 없애기</p>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초록색 독 이야기와 초록색 독 없애기 활동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행복과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알아본다. 그래서 다음의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사회에서 행복과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 알아보기)</p> </div> <p>■ 활동 2: 매듭 고리 전달하면서 친구들과 행복하고 평화로움 즐기기(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명 정도가 한 모듬이 되어서 둥글게 선 다음, 서로 손을 잡는다. • 한 개의 매듭 고리를 모듬별로 주어 원에 건다. • 손은 사용할 수 있지만 손가락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매듭 고리를 모듬원이 손을 잡은 채로 반시계 방향으로 모두 통과한다. • 모듬별로 매듭 고리 1~2개를 더 준다. •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학급 전체가 모여 원을 만들고 훌라 후프 또는 매듭 고리를 통과해보도록 한다.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우리 사회의 평화 -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꿔요.</p>	<p>40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 활동 방법 알려주기 매듭 고리 전달하기 </p> <p> ■ 활동 3: 감정 알아맞히기 놀이를 하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기(15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등 뒤에 다양한 감정 단어 카드를 붙인다. • 서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의 등 뒤의 단어를 본 후, 그 단어를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 같은 방식으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상대방의 단어를 얼굴 표정과 행동으로 알려준다. •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모두 자리에 앉고 한 명씩 일어나서 자신의 등 뒤의 감정 단어가 무엇인지 말한다. • 잘 모르거나, 틀릴 경우, 학급 아이들 전체가 얼굴이나 행동으로 다시 표현해서 알려준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p style="text-align: center;"> 등 뒤에 감정 단어 카드 붙이기 친구에게 몸짓으로 알려주기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20px;"> <p>☞ 감정 알아맞히기 놀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평화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사회의 행복과 평화)</p> </di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 비교</p> <p>-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화가 필요해요.</p>	40분	<p>■ 활동 1: 무지개 카드 놀이와 악플 카드 놀이를 하며,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15분)</p> <p>〈무지개 카드 놀이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에게 무지개 카드 3장씩 나눠준다. •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 1개를 주며, 카드에 적힌 바르고 고운 말을 해 준다. • 모든 카드를 나눠준 아이는 선생님에게 손가락 3개를 펴며 오면, 다시 3장을 채워 준다. • 두 번째에도 모든 카드를 나눠준 아이는 선생님에게 손가락 4개를 펴며 오면, 4장을 채워 준다. • 세 번째에도 모든 카드를 나눠준 아이는 선생님에게 손가락 5개를 펴며 오면, 5장을 채워 준다. • 같은 카드 5장을 모으면 놀이가 종료되는 놀이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p>〈악플 카드 놀이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개 카드 놀이에 이어서 악플 카드 놀이를 한다. • 아이들에게 추가로 무지개 카드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악플 카드 한 장씩을 나눠 준다. •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카드 중에 한 개를 뺏는다. 이 때 무지개 카드를 뽑으면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악플 카드를 뽑으면 진 사람이 악플 카드에 적힌 나쁜 말을 하며 이긴 사람의 카드를 뺏는다(뺏을 때에는 악플 카드 1개와 무지개 카드 1개를 남겨두기). • 악플 카드만 남은 아이는 선생님에게 손가락 2개를 펴서 온다. 교사는 2장을 채워 준다. • 두 번째에도 악플 카드만 남은 아이는 선생님에게 손가락 3개를 펴서 온다. 교사는 3장을 채워 준다. • 세 번째에도 악플 카드만 남은 아이는 선생님에게 손가락 4개를 펴서 온다. 교사는 4장을 채워 준다. • 교사가 신호할 때까지 계속 놀이를 한다. <p>〈소감 말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플 카드 놀이와 무지개 카드 놀이를 하고나서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해보며, 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I
II
III
IV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 비교 -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화가 필요해요.</p>	<p>40분</p>	<p>• (추가 활동) '지식채널e'의 '폭력의 법칙'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출처: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613023></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무지개 카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악플 카드</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무지개 카드 놀이하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악플 카드 놀이하기</p>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20px;"> <p>☞ 무지개 카드에는 고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적혀 있다. 따라서 무지개 카드 놀이를 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좋은 말을 주고 받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악플 카드에는 듣기 싫은 말, 기분이 나빠지는 말이 적혀 있다. 따라서 악플 카드 놀이를 하면서 학생들은 행복의 반대의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활동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 (말의 중요성)</p> <p>■ 활동 2: 대화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15분)</p> <p><대화의 기술 1-등 대고 듣고 말하기(대화주제-주말에 있었던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명씩 짝을 이룬다. 등을 댄 채로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한다. </di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 비교 -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화가 필요해요.</p>	<p>4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신호하면 역할을 바꾸어서 한다. <p><대화의 기술 2-옆으로 앉아서 듣기(대화 주제-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명씩 서로 옆으로 앉아서 말하고 듣는다. • 듣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탄성을 피우며 전혀 듣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 선생님이 신호하면 역할을 바꿔서 한다. <p><대화의 기술 3-마주 앉아 듣기 1(대화 주제-내가 좋아하는 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명씩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말하고 듣는다. •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고, 무표정으로 절대 반응을 하지 않는다. • 선생님이 신호하면 역할을 바꿔서 한다. <p><대화의 기술 4-마주 앉아 듣기 2(대화 주제-좋아하는 TV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명씩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말하고 듣는다. •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을 웃으며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 선생님이 신호하면 역할을 바꿔서 한다. <p><소감 말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하고나서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대화의 기술 활동</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대화의 기술 활동</p> </div> </div>

I
II
III
IV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 비교 -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화가 필요해요.</p>	<p>40분</p>	<p><대화의 기술별 활동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등대고 들고 말하기</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옆으로 앉아서 듣기</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마주 앉아 듣기 1</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마주 앉아 듣기 2</p>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이전 활동에서 말이 중요함을, 대화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대화의 기술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대화법이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이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지에 대해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한다. (대화의 기술)</p> </div> <p>■ 활동 3: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을 통해 대화의 중요성 이해하기(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을 간단히 알아본다. •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함을 알려준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필요는 없다. 단지 독일은 서로 대화를 통하여 평화 통일을 이룩하여 현재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반면 예멘의 경우에는 대화가 아닌 무력에 의해 통일을 이룩한 이후 여러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된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을 통해 대화의 중요성 이해, 공존)</p> </div>

2) 교육매체

■ PPT: 대화하는 기술 알아보기

대화의 기술 1- 등 대고 듣고 말하기



1. 등을 댄 채로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합니다.
2. 말 하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 선생님이 신호하면 역할을 바꿉니다.

주제-주말에 있었던 일

대화의 기술 1

대화의 기술 2- 옆으로 앉아서 듣기



1. 옆으로 앉아서 말하고 들었습니다.
2. 듣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탄성을 피우며 전혀 듣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 연기 작렬!
3. 선생님이 신호하면 역할을 바꿉니다.

주제-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 이야기

대화의 기술 2

I
II
III
IV
V

대화의 기술 3- 마주 앉아 듣기 1



1.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말하고 들읍니다.
2.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고, 절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 연기 작렬!
3. 선생님이 신호하면 역할을 바꿉니다.

주제-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대화의 기술 3

대화의 기술 4- 마주 앉아 듣기 2



1.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말하고 들읍니다.
2.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 연기 작렬!
3. 선생님이 신호하면 역할을 바꿉니다.

주제-내가 재밌어하는 TV프로그램이나 게임

대화의 기술 4

3) 교육에 활용한 교수자료

■ 초록색 독 이야기 자료

수학 시간이었어요. 수학을 엄청 못하는 지아는 수업 시간마다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았지요. 오늘도 지아는 크게 좌절하고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바보야, 절대로 답을 못 알아낼 거야.' 지아는 자신에게 너무 화나서 자신이 마치 초록색 독으로 가득 찬 듯했어요. 이 때, 옆에 앉아 있던 대진이는 “지아야, 연필 좀 빌려줄래?”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아는 “너 그 똥똥한 입 닥쳐, 너는 눈이 빼었니? 내가 공부하느라 집중하는 것 안 보이냐구, 이 미련 곰탱아!”라고 신경질을 부렸어요. 이것은 마치 독을 대진이에게 쏘는 것과 같았어요. 대진이는 상처를 크게 입었고 자신이 초록색 독으로 가득 찬 듯 느꼈습니다. 그러곤 “너나 입 닥쳐!”라고 지아에게 말해버렸어요.

옆 줄에 있던 현주가 콧노래를 부르며 대진이에게 와서 “대진아, 이 단어 쓰는 거 좀 가르쳐 줄래?”라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기분이 나빠 있었던 대진이는 초록색 독을 현주에게 쏘았어요. “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니, 이 바보야!! 넌 언제나 도와 달라고만 하니?”라고 쏘아 붙였어요. 화가 난 현주는 곧바로 “칭, 지도 멍청하면서, 너나 잘해!! 너도 머리만 컸지 속이 텅 빈 머저리 바보야!!”라고 말했어요. 현주는 자신이 초록색 독으로 가득 찬 듯 느꼈지요.

현주는 씩씩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마침 옆에서 고은이와 승희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현주는 이 둘에게 독을 쏘았어요. 그들 역시 초록색 독으로 가득 찬 듯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 역시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별명을 부르는 등의 행동으로 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전 학급이 독으로 가득 찼고 초록색 독을 서로에게 계속해서 쓰고 있었답니다.

■ 매듭 고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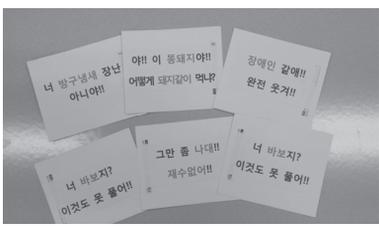
- ⇒ 매듭 고리는 구멍승 등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약 90cm 정도 되는 줄을 매듭을 지어서 둥글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 정도의 매듭 고리 크기는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몸집이 뚱뚱한 아이 포함)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 감정단어 카드 자료

긍정적인	샘나는
부끄러운	너그러운
걱정하는	행복한
게으른	부정적인
사랑하는	상처 받은
따뜻한	편안한
외로운	화난
심술궂은	비뻐
다정한	슬픈
기쁜	자신 있는
냉정한	미안한
즐거운	무서운

* 감정 단어는 위의 예시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 무지개 카드와 악플 카드 자료

	
〈무지개 카드〉	〈악플 카드〉

<무지개 카드의 문구>

- 진짜 진짜 축하해.
- 사랑사랑 설레여.
-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 콩닥콩닥 너를 사랑해.
- 당신의 미소가 참 예뻐요.
- 하늘 땅 만큼 사랑해.
- 너의 귀여운 미소가 좋아.
- 정말정말 축하해요.
- 두근두근 설레여요.

<악플 카드의 문구>

- 애 이 똥돼지야! 어떻게 돼지같이 먹냐?
- 너랑은 절교야! 널 왕따시킬거야
- 넌 우리반 완전 따애 전따 되어 불래?
- 애 너는 빠져! 재수없어!
- 잘 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 하기는!
- 애 피구공 잡지마! 공 썩잖아!
- 너 바보지? 이것도 못 풀어!
- 너 방구냄새 장난 아니야!
- 옛 애가 나 만졌어! 나 썩는 것 같애!
-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기는!

(다) 3일차 핵심 역량-참여

1) 학습지도안

가) 활동 목표

-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사회 참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재미있는 놀이를 통하여 서로 도와가며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행복한 공동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활동 개요

업앤다운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다양한 영상을 통하여 사회 참여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재미있는 부루마블형 놀이를 하면서 각자 경쟁하는 것보다 서로 도와가며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빙고 그림 만들기 활동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I

II

III

IV

V

다) 준비물

조끼,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영상, 경복궁 복원하기 사회 참여형 브루마블 놀이 세트, 소포지, 문장 종이, 색연필 및 사인펜 세트, 파스넛, 배경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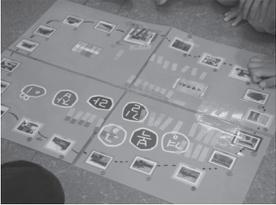
라) 지도안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60분	<p>■ 활동 1: 업앤다운 놀이하기(1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조건이 비슷한 친구끼리 2명씩 짝을 짓는다. •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두 발을 맞대고 손을 잡는다. • 교사의 신호와 동시에 발을 지지대를 삼아 손을 끌어당기며 일어난다. • 2명이 잘 되면 4명, 6명, 8명 등으로 늘려서 한다. <p><업앤다운 놀이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업앤다운 놀이하기(2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업앤다운 놀이하기(여러명)</p> </div> </div> <p>■ 활동 2: 등으로 말하기(1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세트의 문장 종이를 준비한다.(단어 수의 합은 아이들 수) (예)○○○선생님은 잘 생겼다 등 • 팀을 나눈 뒤, 팀장을 뽑는다. • 한 글자씩 교사가 알려준 다음, 말하지 않고 팀별로 서로의 단어를 알려주며 문장을 조합한다. • 다 조합하였으면 글자 순서대로 앉는다. • 한 사람씩 일어서며 단어를 외친다. • 전체가 풀 수 있는 학생 수만큼의 글자 문장을 준비한다. • 아이들에게 각자 한 글자씩 알려준 다음, 문장을 조합한다. • 다 조합하였으면 글자 순서대로 앉고, 한 명씩 일어서며 단어를 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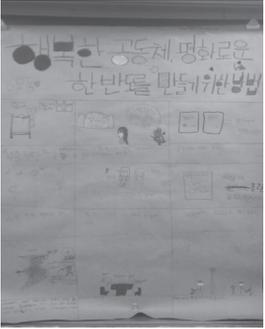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 친구들과 함께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 좋아요.</p>	<p>60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문장 조합하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단어 외치기</p> </div> </div> <p>■ 활동 3: 친구를 혼자 남겨두면 안돼!! 놀이하기(1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황색, 연두색, 파란색 조끼 각 8개와 빨간색 조끼를 남은 인원수만큼 준비한다. (예) 27명일 경우에는 주황색, 연두색, 파란색 조끼 각 8개와 빨간색 조끼 3개 준비 아이들에게 원하는 색깔의 조끼를 가져가게 한다. 아이들에게 게임규칙을 설명해 준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 한 명이 1~24가 적힌 종이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 교사가 그 숫자를 부르면 그 숫자만큼 아이들이 뭉친다. 해당 숫자만큼 모두 뭉치지 못하면 선생님이 승리, 모두 뭉치면 아이들 승리! (교사가 승리할 경우 교사가 종이를 뽑은 아이에게 뽕망치로 때리고, 아이들이 승리할 경우 종이를 뽑은 아이가 교사를 뽕망치로 때린다.) <p>[세부 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빨간 조끼 입은 친구는 조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숫자 0부터 24까지 모든 숫자로 변신 가능 교사가 천천히 20을 다 세기 전에 미션을 수행 <p>[변형 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뭉칠 때 3가지 또는 4가지 이상의 색깔이 섞이게 한다. (단 숫자 2또는 3이 나올 경우 제외) 놀이 중간에 조커 3명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교사가 이길 경우 빨간 조끼를 벗고, 아이가 이길 경우 빨간 조끼를 그대로 입는다. 빨간 조끼를 벗은 아이는 모든 색깔이 될 수 있다. </div>

I
II
III
IV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 친구들과 함께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 좋아요.</p>	60분	<p>☞ 업앤다운 놀이 등으로 말하기 활동, 친구를 혼자 남겨두면 안돼 놀이 등을 통해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좋은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참여의) 즐거움)</p> <p>■ 활동 4: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영상을 보며 사회 참여의 중요성과 효과 알아보기(1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유튜브 영상을 본다.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G_AkZaiHgOU> • 영화 속 트레버의 '도움주기' 활동을 설명하며, 사회 참여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영상 보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영상 보기</p> </div> </div>
<p>세상을 바꾸기 위한 사회 참여 -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사회 참여</p>	30분	<p>■ 활동 1: 경복궁 복원하기 사회 참여형 브루마블 놀이하기(3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루마블형 놀이로, 같은 모둠의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사회 참여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p>1) 5~6명이 모둠을 이룬 다음, 내탕고지기 한 명을 뽑는다. 2) 여러 색깔의 포스트잇 중 한 가지를 택해 자신의 말로 정한다. 3) 제일 처음에 월급으로 내탕고에서 20냥을 가져간다. 4)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순서를 정한 뒤, <광화문>에서 시작한다. 5)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만큼 앞으로 진행한다. 6) 자기가 도착한 칸의 경복궁 전각카드를 내탕고로부터 받아 모두에게 읽어준다. 그런 다음, 만약 그 전각을 경복궁에 만들려면 돈을 지불하고 전각카드를 가지고, 자기 색깔의 포스트잇을 그 자리에 붙인다. 그 전각을 경복궁에 만들지 않으려면 전각카드를 그냥 반납하면 된다.</p>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세상을 바꾸기 위한 사회 참여 -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사회 참여	30분	<p>7) 전각을 만들려면 2냥을 내탕고에 지불한다. 하지만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파랑 전각(고종 때 증건하여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물)은 팀원 중 한 명이 포스트잇을 붙여야 하고, 검은색 전각(1990년 이전에 복원한 건물)은 팀원 중 두 명이 포스트잇을 붙여야 한다. 빨간색 전각(1990~2010년 때 복원한 건물)은 팀원 중 세 명이 포스트잇을 붙여야 하고, 노란색 전각(2011년 이후 복원 또는 예정인 건물)은 팀원 중 네 명이 포스트잇을 붙여야 한다. (복원 완료된 전각 사진 아래에 '복원'카드를 붙인다).</p> <p>8) 복원 완료된 전각에 도착하면 1냥을 복원 기념으로 내탕고에서 받는다.</p> <p>9) 한 바퀴를 다 돌면 월급 5냥을 내탕고에서 받는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회 참여형 놀이 하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회 참여형 놀이판</p>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기존의 부루마블형 놀이는 개인 간의 경쟁 놀이이다. 이 놀이에서 옆의 친구는 자신의 경쟁 상대이며, 상대방이 땅과 건물을 사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하지만 사회 참여형 놀이에서는 개인 간의 경쟁이 아니라 놀이에 참여한 모두가 함께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개인 간의 경쟁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공동체를 위한 사회 참여 활동이 유익한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p> <p>(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사회 참여)</p> <p>■ 활동 1: 초등학생이 만드는 사회 참여 활동 알아보기(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도 마을을 꾸밀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초등학생도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div>

I
II
III
IV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행복한 공동체,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 - 우리도 사회 참여 할 수 있어요.</p>	<p>30분</p>	<p>■ 활동 2: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표현하기(2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명 정도가 한 모둠이 되도록 한다. • 모둠별로 소포지를 나눠준다. • 소포지 제일 위에 '행복한 공동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을 쓰고 3×3 빙고를 그린다. •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개인별로 1~2개씩 빙고칸 안에 그린다. • 다 완성되면 한 명이 다른 친구의 그림을 보고 질문을 한다. • 질문을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림에 대해 설명해준다. • 같은 방식으로 모둠원이 돌아가며 서로 질문하고 답한다. • 모둠별로 주제와 관련된 제일 좋은 아이디어 1~2개를 뽑아서 발표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활동 결과물</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활동 결과물</p>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빙고 그림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 참여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실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사회 참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생이 만드는 사회 참여 활동<실천>과 민주적 과정)</p> </div>

2) 교육매체

■ 영상: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유튜브 영상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G_AkZalHgOU>.

3) 교육에 활용한 교수자료

■ 경북궁 복원하기 사회 참여형 부루마블형 놀이 세트 자료

○놀이 세트

<p>〈부루마블 판〉</p>	<p>〈놀이도구-전각카드, 복원카드, 주사위, 돈〉</p>

○전각카드 예

자선당	경회루
<p>자선당은 세자의 침전(자는 곳)입니다. 이 건물이 궁궐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자를 동궁마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자는 다음에 왕이 될 중요한 인물로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에 위치한 이곳에서 왕이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 옆에 있는 비현각은 세자가 학문이 높은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하던 곳입니다.</p>	<p>'왕과 신하가 덕으로써 서로 만난다'는 뜻의 경회루는 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그 아름다움이 절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타서 돌기둥만 남았다가, 고종 4년(1867년)에 다시 지은 것입니다. 원래는 사방이 높은 담장으로 막혀 바로 앞 쉼터각사에 근무하던 관리들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p>

- I
- II
- III
- IV
- V

영추문	소주방
	
<p>경복궁의 서문(西門)입니다. 영추문은 '가을을 맞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과 대비되는 개념의 이름으로 서쪽 방위의 개념에 맞게 지어졌습니다. 이 문은 주로 궁내각사에 근무하던 신하들이 많이 이용을 하였답니다. 현재의 문은 1975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복원된 것입니다. 광화문처럼 빨리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p>궐내의 음식을 장만하는 곳을 소주방(燒廚房) 또는 수라간(水刺間)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의 소주방은 크게 임금의 수라를 장만하던 내소주방, 어진을 모셔둔 진전(眞殿)의 차례, 진연(進宴), 진찬(進饌), 회작(會酌), 탄신(誕辰) 등 여러 행사에 쓰이는 음식을 만드는 외소주방, 궐내의 다과를 장만하던 생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p>

○복원 카드 예

중건	복원	복원	복원
----	----	----	----

○부루마블 판용 전각사진 예

광화문	영추문
	

신문문



소주방



■ 사회 참여 활동 이야기 자료

초등학생도 마을을 꾸밀 수 있어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에 있는 잭슨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세 구역 떨어진 쓰레기 폐기장에 유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 통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들이 동네 주변의 지하수를 어떻게 오염시켰는지 알아보려고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야기도 해 보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학생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폐기물이 위험하게 버려져 있음을 알렸고, 폐기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신문과 잡지 기사를 찾아 열심히 읽었습니다. 또 보건부 직원, 전국 각 지역의 시민 단체 사무실 등에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시장님과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솔트레이크 시의 시장님은 1개월 안에 청소 작업을 끝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쓰레기 폐기장에는 유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 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것은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나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도 이와 같이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켰답니다. 몇 년전 서울 수송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들이 함께 마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생각하기도 하고, 시장님께 편지도 쓰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주위에 알렸어요. 그러자 직접 시장님께 답장도 받고 관련 공무원들이 학교를 찾아와서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마을에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답니다.

지난 시간에 3인의 법칙에 대한 동영상을 보았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럿이 모여서 힘을 합하면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출처: 장대진 외, 『청소년을 위한 사회 참여 안내서 아름다운 참여』 (파주: 돌베개, 2004).

- I
- II
- III
- IV
- V

(2) 중학생 프로그램

(가) 1일차 핵심 역량-공동체

1) 학습지도안

가) 활동 목표

-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하는 공동체적 가치와 태도에 대해 알아본다.
-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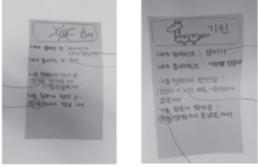
나) 활동 개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하는 가치와 태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활동을 통해 알아본다.

다) 준비물

필기도구, 전지, 색 매직, 포스트잇, 활동지

라) 지도안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나와 타인은 연결되어 있어요.</p>	<p>50분</p>	<p>■ 관계맺기(2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의 네모 박스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동물, 식물, 물건 등)을 그림으로 그린다. • 활동지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일,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을 있는 데로 작성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자기 표현하는 그림그리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나소개하는 리스트 작성하기</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간단하게 발표한다. • 각자 작성한 활동지를 모둠별로 전지에 붙인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나소개하기 모둠끼리 발표하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작성한 활동지 전지에 붙이기</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가장 힘들게 했던 일들 중에서 연결하고 싶은 내용들을 선으로 연결시킨다. •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모둠끼리 서로서로 연결하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얼마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p> </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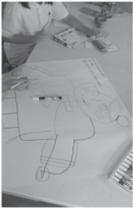
I

II

III

IV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나와 타인은 연결되어 있어요.	50분	<p>■ 우리 또래 북한 친구들의 문화와 모습은 어떨까?(3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전지에 북한의 또래 친구들의 문화, 모습, 좋아하는 음식 등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 본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모둠별로 상상해서 그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그린 내용들을 발표하고 벽에 붙이도록 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모둠별로 그린 그림 발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해 피드백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모둠별로 발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피드백하기</p>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50분	<p>■ 연필게임</p> <h3 style="text-align: center;">연필게임</h3>  <p style="text-align: center;">게임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필 깎기로 깎은 연필을 가지고 백지수표에 싸인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2. 모둠별로 협상할 사람을 결정한다. 3. 모둠별로 협상전략을 세울 시간은 5분, 3번의 협상전략을 세울 수 있다. 4. 협상테이블은 3번, 모둠별로 협상자들이 나와 협상테이블에 앉아 협상한다. 협상시간은 각각 10분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모둠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 1모둠에는 백지수표를, 2모둠에는 연필 깎기를, 3모둠에는 연필을 나누어 준다. • 게임의 룰은 연필 깎기로 깎은 연필을 가지고 백지수표에 싸인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 모둠별로 협상할 사람을 정하고, 모둠별로 협상전략을 세울 시간은 5분이며, 3번의 협상전략을 세울 수 있다. • 협상테이블은 세번을 만들 수 있는데, 모둠별로 협상자들이 나와 협상테이블에 앉아 협상한다. 협상시간은 각각 10분이다. • 연필게임을 통해 느낀점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data-bbox="364 1140 624 1333">  <p style="text-align: center;">연필게임 룰 설명하기</p> </div> <div data-bbox="675 1140 936 1333">  <p style="text-align: center;">가위바위보로 연필, 연필깎기, 백지수표 모둠별로 가져가기</p> </div> </di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50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모둠별 1차 전략 세우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협상자들이 모여 1차 협상테이블 진행</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모둠별 2차 전략 세우기</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협상자들이 모여 2차 협상테이블 진행</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모둠별 3차 전략 세우기</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협상자들이 모여 3차 협상테이블 진행</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연필게임 느낀 점 이야기하기</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지하자원 영상 상영을 통해 북한의 지하자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리고 백지수표(남한의 자본), 연필깎기(기술), 연필(북한의 자원)을 의미하며, 남과 북이 협력할 때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게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소요 시간	내용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50분	 <p data-bbox="524 620 773 645">북한의 지하자원 영상보기</p>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아요.	50분	<p data-bbox="351 676 639 701">■ 북한알기 OX 사다리(10분)</p> <ul data-bbox="376 707 930 732"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문화를 퀴즈를 통해 사다리타기 게임으로 배워본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62 748 622 941">  <p data-bbox="393 953 592 978">사다리타기 게임설명</p> </div> <div data-bbox="675 748 935 941">  <p data-bbox="703 953 902 978">사다리타기 게임진행</p> </div> </div> <p data-bbox="351 1029 832 1055">■ 남과 북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15분)</p> <ul data-bbox="376 1060 944 1151"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남과 북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본다. • 작성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모둠별로 발표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62 1168 622 1361">  <p data-bbox="393 1373 592 1463">남과 북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마인드 맵 그리기</p> </div> <div data-bbox="675 1168 935 1361">  <p data-bbox="675 1373 930 1463">남과 북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마인드맵 모둠별로 발표하기</p> </div> </div>

I
II
III
IV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아요.</p>	<p>50분</p>	<p>■ 통일이 되면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까?(2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별로 통일을 하면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지 꼬라주를 활용해 표현해 본다.  <p>모듈별로 통일을 하면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지 꼬라주활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모듈별로 발표한다.  <p>모듈별로 통일을 하면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지 활동한 내용 발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공감 중등용’ 영상 상영 마무리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FiI60dSofl8>.  <p>통일공감 중등용 영상보기</p>

2) 교육매체

■ 영상: 통일공감 중등용, <<http://www.youtube.com/watch?v=FiI60dSofl8>>.

북한의 지하자원, <<http://www.youtube.com/watch?v=XuJTowCOTWw>>.

3) 교육에 활용한 교수자료

■ ‘관계 맺기’ 활동지

자기를 나타내는 그림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세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일- 나를 힘들게 했던 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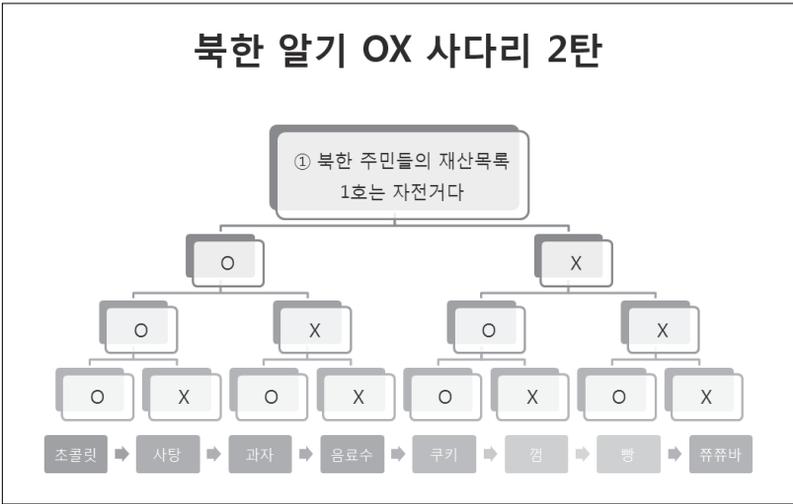
■ 북한알기 OX 사다리 활동지

북한알기 OX 사다리 문제지
<p><1탄> 꺾</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북한의 어린이들도 인터넷으로 게임을 즐긴다. (X)2. 북한에도 라면이 있다. (O) - 2000년 10월부터 생산되었다고 한다.3. 북한말로 화장실은 변소다. (X) - 위생실이라고 한다. <p><2탄> 음료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북한 주민들의 재산목록 1호는 자전거다. (O)2. 북한에도 어버이날이 있다. (X)3. 북한에는 영어로 된 신문이 없다. (X) - 북한에도 영어로 된 신문이 있다. 1964년 창간된 평양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간지로 영어판인 평양타임즈와 프랑스어, 스페인어판을 발행하고 있다. <p><3탄> 과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평양에 흐르는 강 이름은 대동강이다.(O)

I
II
III
IV
V

- 북한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다. (X) - 무상의무교육은 수업료만 없을 뿐 학용품, 교복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기자재, 연료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도 학생 부담이 되고 있다.
- 북한의 졸업식은 3월이고, 새 학년의 시작일은 4월 1일이다. (O)

북한 알기 OX 사다리 2탄



북한 알기 OX 사다리 3탄



■ 읽을거리 1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현황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많은 광물자원을 북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면, 운송비 절약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처럼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이라면 북한의 광물자원들이 다른 나라의 경제를 불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현재에도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의 남북한 비교표와 잠재적 가치를 비교한 표를 통해 통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알아본다.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광종	단위	매장량		잠재가치(억 원)		남한수입의증률 (%)
		남한	북한	남한	북한	
금	천톤	0.03	1~2	4690	234500	98.49
은		1,175	3~5	2960	10077	87.54
동		41	2155	551	28961	100
납		305	6000	1174	23095	99.96
아연	천만톤	0.044	1~2	2648	90273	100
철	억톤	0.197	20~40	4849	738426	99.49
중석	천톤	100	200~300	869	2173	100
몰리브덴		10	1~3	2086	417	100
망간		123	100~300	208	65	100
니켈		-	10~20	-	36	100
흑연	억톤	1837	6000	11834	38652	99.36
석회석		65478	1000	652486	9964965	0.65
고령토	천톤	74357	2000	11438	308	10.07
활석		5451	600	5451	600	54.73
석면		511	13	552	14	-
형석		345	500	530	768	100
중정석	억톤	712	2100	755	2227	99.84
마그네사이트		-	30~40	-	1260000	100
무연탄		3353	117	247216	8626386	57.09
유연탄			30		1853400	100

*20종 광물의 잠재가치 합계 남한 950298억원 북한 22875343억원(남한의 24배)

*남북한 금속광 매장량은 금속기준으로 동일하게 환산

*출처: 대한광업진흥공사

(나) 2일차 핵심 역량-평화

1) 학습지도안

가) 활동 목표

- 평화의 의미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알아본다.
-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나) 활동 개요

평화의 의미를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평화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다)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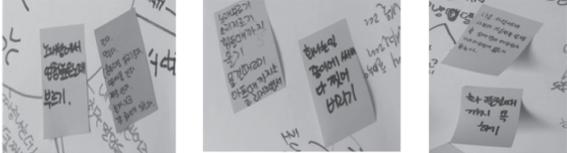
포스트잇, 필기도구, 전지, 색 매직, OHP필름

라) 지도안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스스로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알아 보아요.	10분	<p>■ 드라마를 통해 보는 일상적 싸움 영상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편의 드라마를 통해 일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장면들을 보고, 싸우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드라마 속 싸움장면들 영상으로 보기</p>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스스로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알아 보아요.</p>	<p>40분</p>	<p>■ 화마인드 맵 만들기(15분)</p>   <p>화마인드 맵 완성(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들 적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마인드맵을 만든다.    <p>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만든 마인드맵을 모둠 구성원들과 돌아가면서 이야기 하고, 모듈별로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화의 원인을 찾아본다.   <p>화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p> <p>■ 나만의 화 해소법 찾기(1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잇에 화났을 때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에 대해서 작성한다.

I
II
III
IV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스스로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알아 보아요.</p>	<p>40분</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화를 풀수 있는 나만의 비법 공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나온 내용들을 발표하고, 화를 내는 원인과 화풀이 방법들을 공유한다.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화 지도와 화풀이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발표하기</p> <p>■ 평화의 그림 그리기(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평화롭다고 생각되는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평화로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p>평화의 그림 그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평화의 그림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p>평화의 그림 모둠별로 발표하기</p> </div> </div> </di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놀이를 통해 문제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가져봐요.</p>	<p>50분</p>	<p>■ 평화통일 젠가 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위바위보를 통해 진 사람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놀이를 시작한다. • 자신의 차례에 블록을 하나 빼고, 뺀 블록은 각자가 가지고 있되 블록을 많이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블록이 무너질 때까지 반복한다. • 쌓아진 블록이 무너지면 무너뜨린 사람이 진행자가 되어 문제 카드를 뒤집고, 조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록의 단어를 활용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 • 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일인당 두번의 '패스'의 기회를 사용할 수 있다. • 진행자는 가장 적합한 대답을 한 모둠원에게 문제 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답을 한 모둠원의 블록 단어를 본인이 가져온다. • 돌아가며 진행자 역할을 맡으며 문제 카드를 가장 많이 획득하는 것이 목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65 824 622 1000">  <p>젠가가 무너지지 않게 하나씩 빼기</p> </div> <div data-bbox="676 824 934 1000">  <p>젠가가 무너지면 획득한 블록단어 확인하고 미션지 셋팅하기</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획득한 블록의 단어를 활용해 미션 수행하기</p> </div>

I
II
III
IV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놀이를 통해 문제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가져봐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의 승자를 가리는 것보다 목표한 바를 수행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지도한다. • 게임이 진행되는 시간은 사전에 알려주거나 종료 10분 전, 5분 전, 1분 전을 공지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 소감을 나눌 때는 소외되는 조원이 없도록 모두가 돌아가며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30분	<p>■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채널e '평화의 오아시스' 상영 • '대복지원 함께 생각해 봐요'라는 주제로 대복지원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지원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둠별로 토론하고, 토론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한다. <div data-bbox="465 753 833 1009" data-label="Image"> </div> <p style="text-align: center;">대복지원에 대한 생각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대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하고 피드백한다. <div data-bbox="371 1164 631 1357"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67 1164 927 1357" data-label="Image"> </div> <p style="text-align: center;">대복지원에 대한 생각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복지원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토론한 내용 발표하기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p>	<p>20분</p>	<p>■ 평화 카피라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한 문장의 카피문구로 만들어 본다. <div data-bbox="365 386 934 563"> </div> <p style="text-align: center;">평화의 카피라이터 활동하기</p> <p>■ 평화 카피라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한 문장의 카피문구로 만들어 본다. <div data-bbox="362 765 934 1106"> </div> <p style="text-align: center;">평화의 카피문구 완성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카피 문구를 발표한다. <div data-bbox="362 1229 934 1424"> </div> <p style="text-align: center;">평화의 카피문구 발표하기</p>

I
II
III
IV
V

2) 교육매체

■ 지식채널e ‘평화의 오아시스’

3) 교육에 활용한 교수자료

■ 활동지: 평화의 젠가 블록에 붙일 단어 예시

꿈	사 랑	평 화	돈
진 실	배 려	나 눔	기 부
열 정	진 심	눈 물	치 료
기쁨	도 전	양 심	공 존
자 유	쉽	웃 음	꽃
핸드폰	컴퓨터	악 기	지우개
선 물	얼 음	강 물	공 기
버 스	장 난	놀 이	행 복
슬 픔	신뢰	사 랑	믿 음
밥	협 동	고 민	양 보
고 통	즐거움	화이팅	인 내
어깨동무	땅	시 간	춤
나 무	존 중	인 사	천 둥
절 망	고 통	추 억	직 업
정 치	운 동	요 리	등 불

■ 활동지: 평화통일 젠가 놀이 미션지

통일이 되어 DMZ가 개방된다면 어떻게 활용할까?	평양에서 화장실이 급한 상황! 북한친구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화장실 용어를 모르면?	남북이 군사적 대립으로 평화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결할까?
통일이 되면 어떤 직업이 필요할까?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일상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남과 북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단으로 생긴 상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언론! 평화통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통일이 되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생길까?
북한친구와 컴퓨터 게임을 해야 하는 데 어떤 게임부터 할 것인가?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한다면?	통일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은?
내일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서 갑자기 핵미사일을 쏜다고 한다면?	이산가족을 찾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은?
북한에서 길을 잃어 버린다면?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통일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
가장 쉽게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통일이 되면 국가의 이름은 어떻게 정할까?
북한 친구와 노래방에서 함께 불러보고 싶은 노래는?	통일이 되면 국기는 어떻게 바뀔까?	통일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불편할까?

■ 읽을 자료: 대북지원 관련 자료

대북지원에 '퍼주기'일까 '통일을 위한 투자'일까?

대북지원액과 공적 원조(ODA)규모 비교표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대북지원액 (억원)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공적개발원조 (억원, 원화환산)	899	1,342	3,152	2,203	3,607	2,681	3,481	3,309	4,365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북지원액 (억원)	4,230	3,926	2,989	4,397	1,163	671	404	196	141
공적개발원조 (억원, 원화환산)	4,378	7,607	4,231	6,515	10,101	9,502	13,323	15,261	16,606

출처: 정경호, 『선생님, 통일이 뭐예요?』 (서울: 살림터, 2013), p. 53.

■ 읽을 자료: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베를린 선언

1) 연원

남북정상회담이란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만나 남북한 현안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회담이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상호 대립과 반목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정상 간의 만남이야말로 남북 간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들을 정치적 결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또 그 이행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북한이 1인 지배체제 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우리 측은 1970년대부터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용의를 밝혀 왔고, 1981년 1월 12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 방문, 6월 5일에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제의했다. 1985년에는 남북 간 비밀협상을 통해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북한의 무장간첩선 침투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 때에도 남북정상 회담을 제의하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이 구체적인 실현 단계로 접어든 것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남북 간에 19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김일성의 사망(1994년 7월 8일)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 내용 및 경과

① 1994년

1993년 초 북한이 국제 핵사찰을 거부함으로써 발화된 1차 핵위기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면서 1994년에는 전쟁위기에 직면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1994년 6월 15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미·북간에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바로 정상회담 개최 절차를 논의하는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여, 6월 28일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개최되었다. 남북한은 단 한 차례의 접촉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정상회담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세부적인 실무 문제까지 모든 준비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이 7월 8일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북한측이 “우리측의 유고로 정상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통지해 옴으로써 이 정상회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② 2000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은 반북·반 통일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당국 간의 대화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유헌 통치를 끝내고 김정일 시대를 본격 개막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유지에 전력을 경주하였으며, 통미봉남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려 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와 우리측이 제3국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뜻을 전달 하자 북한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3월 9일 첫 비밀접촉을 가졌다.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 북한의 안전과 경제회복을 보장할 것이며, 대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동인이 되어 남북특사 간의 세 번째 접촉에서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지고 4월 10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남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곧 이어 의전과 경호, 통신과 보도 등 세부 실무절차 문제들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준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공동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여 남측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더구나 북한측이 '기술적인 준비관계'를 이유로 급박하게 일정을 바꾸어 방문 일정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조정되었다.

양 정상은 6월 13일 평양의 순안 공항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체류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회담이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③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응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의 방향에 들어서는 등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2007년에 들어서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의 동결을 해제(2007년 4월 10일)하고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도 가동하였다. 북한도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사찰단의 감시를 재개(2007년 7월 14일)하였다. 북핵 문제의 해결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도 정상화되어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007년 2월 27일 ~ 3월 2일)이 개최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2007년 7월 초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 접촉을 북측에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7월 29일 국가정보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두 차례 비공개로 평양을 방문하여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이에 앞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8월 8일 동시에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북한의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되었다. 8월 7일부터 18일까지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은 10월 초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양측 간의 협의를 거쳐 10월

2일 ~ 4일로 늦추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총 30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10월 2일 서울-개성-평양 간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최고통수권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하였다.

양측은 10월 3일 두 차례 개최된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10·4 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각종 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을 비롯하여 30회의 회담이 열리고 20건의 합의서 또는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출처: <<http://www.uniedu.go.kr/uniedu/board/bbs/view.do?mcd=MC10001115&currPage=3&listScale=20&pageScale=10&bbs=nsrel&atclSn=16239>>.

■ 읽을 자료: 세계 평화군축의 날 관련 자료

전쟁위기 국면에서 맞이한 세계 평화군축의 날

세상이 망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영화나 만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쓰나미가 전세계적으로 밀려온다든지, 다시 찾아온 빙하기 같은 일 때문일까? 아님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고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망하거나 우주인이 쳐들어와서 망할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흥청망청 에너지를 쓰다가 석유가 바닥나서 망할 수도 있겠다. 우주인에게 멸망하는 것은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자연 재해나 전쟁 같은 파급력이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석유가 사라지기 전에라도, 각국 정부가 쏟아 붓는 어마어마한 국방비 때문에 세계에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국제평화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는 해마다 군사비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내는데, 이 자료에는 각국 정부가 국방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잘 나와 있다. 이 금액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감이 오지 않는다. 예컨대 2011년에 각국 정부가 쓴 국방비를 살펴보면, 중국 1,430억 달러, 러시아 719억 달러, 영국 627억 달러, 프랑스 625억 달러, 일본 593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건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숫자다. 세계6위 국방비 지출 국가인 일본이 우리 나라 돈으로 60조가 넘는 돈을 국방비에 쓴 셈이다. 이 국가들만으로도 이미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인데, 1위인 미국이 국방비로 쓴 7,110억 달러(한화 약 798조)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표현조차 너무 불똥없어질 지경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2011년에 쓴 국방비를 모두 합하면 1조 7,380억 달러라는, 과연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모으면 저 정도가 될까 싶은 숫자가 나온다. 국방비에 쓸아 부은 돈이 1조7380억 달러인데 비해,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에 원조한 금액은 모두 합쳐도 1,300억 달러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 격차가 바로 세계가 얼마나 파국에 가까이 왔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다.

SIPRI의 연례보고서에는 각국 군사비 총액뿐만 아니라, 여러 유용한 자료들이 나와 있다. 무기판매 상위 100대 기업들의 판매액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60%가 늘어나서 2011년에는 약 4,111억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무기상인들은 분쟁 중인 세력 양쪽 모두에 무기를 팔고, 상대방의 무기에 대한 정보까지 팔아넘기는 그야말로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로 서슴지 않았다. 또한 한국 정부가 2004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동안 세계 주요 무기 수입국 가운데 무려 네 번째 순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무기 수입의 6%를 점유하고 있다는 깨알 같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SIPRI에서 발간하는 이 놀라운 보고서에 기반해서, 전 세계 평화 단체들이 이 세상에서 군사비로 지출되는 무지막지한 돈을 줄이자는 군축 캠페인 GDAMS(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2011년 처음 시작된 GDAMS는 올해로 3회째를 맞으며 작년 2회 행사 때는 40여 개국에서 약 140여 개의 행사가 열려 평화와 군축의 목소리를 냈다. 제 3회 GDAMS는 전 세계적으로 4월 15일에 열렸고, 우리 나라에서도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는 구호로 국회의원 15명과 24개 평화단체들이 참여해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GDAMS에서는 뉴스레터를 발간하는데,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가면 평화군축센터에서 올린 GDAMS 뉴스레터를 볼 수 있다.

SIPRI보고서와 GDAMS 뉴스레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 거대한 숫자로서 국방비뿐만이 아니다. 물론 막대한 국방비를 줄여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비는 SIPRI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317억 달러(한화 약 35조)에 이르고 세계 12위 수준이다. 하루에 국방비로 940억씩을 매일 쓰는 셈이고 1인당 65만원을 국방비로 낸 것이다. 이 금액을 줄여나가면서, 복지나 교육 분야로 예산을 돌리는 일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군사비를 줄여가는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1회 GDAMS에서 유엔군축사무소 고위대표의 "GDAMS는 전 세계는 물론 각 국가들의 우선순위를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서 인간안보와 모두의 안전을 창출하는 일로 전환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지 성명에서도 드러나듯이, 군축은 돈 몇 푼을 아끼자는 측면을 넘어서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일이다.

군사안보론자들은 평화를 위해서 강한 군대를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연 군사안보가 우리를 평화롭게 한 적이 있을까? 강한 군대를 가지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높아지지만, 브레히트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에서 말했듯이 '승전국에서도 패전국에서도 하층서민은 굶주리기 때문이다. 사실 전쟁의 승리는 평화의 승리가 아니다. 평화는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패배한다. 군사안보, 즉 많은 돈을 써서 강한 군대를 가지는 방식은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그게 평화를 지킨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했던 나머지 절반의 국가들도 군사안보론에 입각해서 전쟁을 착실히 준비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절반만의 성공, 그나마도 전쟁의 성공일 뿐 평화의 성공은 아닌 것이 군사안보의 실체다.

군사안보가 결국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 어떤 철학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까? 군축은 바로 이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강한 군대로 평화를 지킬 수 없고, 강한 무기를 사들이는 일은

한정된 국가 재원을 축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할 뿐이다. 평화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줄여가는 노력이다.

군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당연히게도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수행하는 국가들이다. 그리고 최근 전쟁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는 남북한 정부도 마찬가지다. 군사안보의 실패와 군사안보를 대체할 대안안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게 바로 현재의 남북 관계다. 군사안보에 입각한 남북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양국의 군비경쟁을 일으켜 무기상인들의 배만 불릴 뿐, 양국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군사비의 비중을 줄이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고, 남한 정부도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 부으며 사회 곳곳에 들어가야 할 재원을 갉아먹고 있다. 남한이나 북한 모두에서 군비 경쟁으로 남은 것은 사회 취약 계층이 더욱 살기 어려워졌다는 점과, 군사적 긴장 고조로 사람들이 불안해졌다는 것, 다시 말해 평화에서 우리 삶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3회 GDAMS를 맞아 한국의 평화단체들이 내세운 구호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에서 군축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다.

남북한 정부가 서로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한 세계군축의 날, 남북 모두가 총을 내리자는 구호가 더더욱 절실하게 들린다.

출처: 『미디어스』, 2013년 4월 17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33503>>.

(다) 3일차 핵심 역량-참여

1) 학습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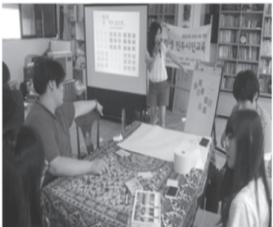
가) 활동 목표

- 자신의 의견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 소신에 따라 의견을 말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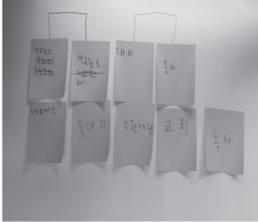
나) 활동 개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게임을 통해 알아보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 다) 준비물: 숨은그림찾기 활동지, 필기도구, 전지, 색 매직
 라) 지도안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참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참여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공유해요.</p>	<p>15분</p>	<p>■ 참여 개념 정의하기(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트잇에 '청소년 참여'를 음식으로 표현하고,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참여의 의미를 알아 본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참여 음식으로 표현하기</p> <p>■ 참여하지 않으면(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를 포스트잇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 작성한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이게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세상이 될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피드백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참여하지 않으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피드백하기</p> <p>■ 청소년은 어떤 사회 참여를 하고 있을까?(2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어떤 참여를 해 봤는지 포스트잇에 내가 했던 사회 참여 활동을 적고 모듈별로 발표하면서 전지에 붙인다.

I
 II
 III
 IV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참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참여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공유해요.</p>	<p>40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나는 어떤 참여를 해봤는지 모둠별 전지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슷한 내용끼리 묶고, 다른 내용끼리 분류해서 모둠별로 나온 내용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발표자를 정해 순서대로 발표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나는 어떤 참여를 해봤는지 모둠별 발표하기</p> <p>■ 청소년 참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것은? (2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를 방해하는 것을 포스트잇에 적고 모둠별로 전지에 붙인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들 찾기 전지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세 평화환경 운동가 핵, 굶주림에 맞서다’ 영상상영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P1KODGJyY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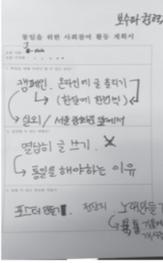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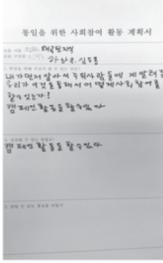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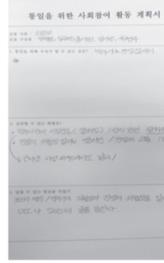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각자의 참여 경험을 나누고,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보아요.</p>	<p>50분</p>	<p>■ 가치카드 게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카드 5장씩을 모둠별로 준비뽑기 방식으로 나눠주고 가치카드 5장의 점수 총합이 100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둠원들과 합의해서 각각의 가치에 점수를 매기도록 한다. 작성된 가치카드를 이용해 게임을 진행한다. 게임이 끝나면 조별로 획득한 카드의 점수를 합한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으며,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방법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가치카드 게임</p> <p>■ 진행 T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카드를 점수가 보이지 않도록 손으로 펼쳐서 다른 모둠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모둠별로는 지키고 싶은 가치카드 한 장을 결정하고, 혹시 다른 모둠에서 지키고 싶은 가치카드를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모둠별로 3명이 나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합이 더 많이 나오면 가치카드를 지킬 수 있다. 다른 모둠에 어떤 가치카드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지고 오고 싶은 가치를 모둠끼리 협의해서 결정한다. 모둠별로 협상자를 정하고, 협상자는 교환할 가치카드를 가지고 교환하고자 하는 가치카드를 가지고 있는 모둠으로 가서 협상을 한다.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교환이 성립되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환은 성립되지 않는다. 재협상을 할 때에도 교환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이기는 쪽이 가치카드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시간이 종료되면 조별로 획득한 카드의 점수를 계산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채널e '어떤 선거권' 상영 - 지식채널e '어떤 선거권' 영상을 상영하고 소감 발표를 한다.

- I
- II
- III
- IV
-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각자의 참여 경험을 나누고,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 보아요.</p>	<p>50분</p>	 <p>'어떤 선거권' 영상보기</p>
<p>평화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실천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요.</p>	<p>50분</p>	<p>■ 평화통일을 위해 사라져야 할 것을 찾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채널e '6·25전쟁 1,069명의 아이들을 피난시킨 미군중령' 영상 상영 • 평화통일을 위해 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마인드맵으로 전지에 적어본다.  <p>평화통일을 위해 사라져야 할 것들에 대한 마인드맵그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평화통일을 위해 사라져야 할 것 베스트 5'를 정하고 발표한다.  <p>평화통일을 위해 사라져야 할 것 베스트5 카드에 적기</p>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평화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실천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요.</p>	<p>5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발표한 ‘평화통일을 위해 사라져야 할 것 베스트 5’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지에 정리하고, 한 사람당 3장의 스티커를 가지고 즉석투표를 통해 베스트 3을 결정한다.  <p>평화통일을 위해 사라져야 할 것 베스트3 스티커 투표하기</p>  <p>평화통일을 위해 사라져야 할 것 베스트3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평화통일을 위해 사라져야 할 것 베스트3’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사라지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활동지를 활용해서 계획을 작성한다.  <p>평화통일을 위해 사라져야 할 것에 대한 실천활동 계획서 작성하기</p>

I
II
III
IV
V

과정	소요 시간	내 용
<p>평화 동일애 대해 생각해 보고, 실천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요.</p>	<p>50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실천활동 계획서 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작성된 실천활동 계획서를 발표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실천 계획서 모둠별로 발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채널e '그걸 바꿔봐!'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한다.

2) 교육매체

- 영상: '14세 평화환경 운동가 핵, 굶주림에 맞서다' 영상상영,
 <<http://www.youtube.com/watch?v=PIKODGUgiY0>>.
 지식채널e '그걸 바꿔봐!', '6·25전쟁 1,069명의 아이들
 을 피난시킨 미군중령'.

3) 교육에 활용한 교수자료

■ 활동지 가치카드

정 의	진 실	민주주의	꿈
평 화	양 심	평 등	의 무
존 중	배 려	희 망	책 임
사 랑	자 유	행 복	열 정
신 뢰	공 정	공 존	도전정신

■ 활동지 ‘통일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 계획서’

통일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 계획서
모듈 이름 : 모듈 구성원 :
1.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3. 알릴 수 있는 홍보물 만들기

■ 읽을 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참여의 관리 관련’

모든 아동·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쉽게 풀어쓴 UN아동권리협약 중 참여권 관련조항 제12, 13, 15, 17, 18조

제12조 아동의 의견

아동은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항이나 절차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13조 표현의 자유

아동은 국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이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15조 결사의 자유

국가는 부모의 적절한 지도하에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 적합한 정보에의 접근

국가는 아동에게 다양한 정보원의 정보와 자료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유익한 사회 문화적 정보를 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부모의 책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일차적 책임을 지니며, 국가는 부모의 이러한 책임을 지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유엔의 인권교육안내서, 『ABC: Teaching Human Rights』 (2004).

▶ 요하네스버그 원칙 1

(a) 모든 사람은 간섭하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보유한다.

(b) 모든 사람은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각자의 선택에 따라 말, 문서, 인쇄물, 예술 형식 또는 어떤 매체의 형식으로든지 국경을 넘어 추구하고 수용하고 전달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차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읽을 자료: ‘다수결의 원칙 관련’

다수결의 원칙은 과연 민주적일까?

중학교 1학년 3반 교실이 시끌벅적하다. 청소년센터에서 주최한 줄넘기 대회에서 30명으로 구성된 1학년 3반 팀이 입상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상금 30만 원이 학급 비로 들어온다. 그러나 아이들이 흥분할 만도 하다.

“우리 그 돈으로 피자 파티하자.” 창수가 말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을 질렀다. “말도 안돼!” 금주가 말을 자르고 나섰다. “교실에 놓을 화분을 사는 게 더 나아.” 그러자 야유가 쏟아졌다. “자! 조용조용.” 담임선생님이 나섰다. “우리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자. 각자 의견을 말하고, 토론을 하는 거야.”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다. 수업이 끝난 뒤에 고기를 사다 구워 먹자는 동욱이의 제안에 아이들은 책상을 두드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 다음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요.” 민우가 거들었다. 여기저기서 그렇게 하자고 아우성을 쳤다. 그때 선욱이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무 늦게까지 학교에 못 있어. 동생을 봐야 돼. 하지만 모두가 찬성이면 나는 그냥 빠질게.”

몇몇 아이들이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금주가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건 불공평해. 우리 모두 함께 그 돈을 벌었잖아. 그러니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해.” “그러면 새로 나온 해리포터 영화를 보러가는 건 어때? 조조할인을 받으면 돼.” 정욱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이들은 토론을 계속했다. 마침내 투표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37명은 해리포터 영화를 보는 데 찬성, 2명은 반대, 나머지 3명은 기권을 했다.

1학년 3반은 민주적인 결정을 내렸다. 모두 함께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았고, 그래서 마침내 엄마 대신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선욱이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선욱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수자의 권리 보호 원칙을 지킨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정책 결정권이다. 1학년 3반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토론과 타협, 절충을 거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서도 의견이 나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이다.

출처: 한대희, 『청소년 정치 수첩』 (서울: 양철북, 2008), p. 13.

I
II
III
IV
V

■ 읽을 자료: ‘청소년 참여 사례 관련’

청소년 참여 사례들

■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병역을 거부한 이스라엘 학생들

팔레스타인은 오늘날까지 유대인과 아랍인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분쟁지역이다. 이스라엘은 2001년 3월 샤론 총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팔레스타인 자치구 안에 있는 군사 점령지를 넓혀 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낡은 무기과 돌을 던지며 저항하자 이스라엘군은 여기에 맞서 미사일과 전투기, 탱크로 보복 공격을 해 희망을 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목숨을 던져 저항했고, 이는 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열여덟 살이 되면 군대에 가야 했는데,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여섯 명의 고등학생은 “힘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병역을 거부한다.”는 편지를 샤론 총리에게 보냈다. 편지를 인터넷에 올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62명이나 나타났고, 편지가 총리에게 전달되면서 어른들 사이에서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평화를 바라는 큰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먼저 여성 5,000여 명이 평화 집회를 열었고, 53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제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나가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편지는 정부와 군대에는 충격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곧이어 여성 1만 명이 모여 두 번째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그 뒤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핑계로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공격해 마을을 부수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자 세계 곳곳에서 비난이 빗발쳤다.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세계가 하나가 되어 고등학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핀 희망의 불씨를 지켜주지 않을 수 없었다.

출처: 메라 세이지로 저, 정은지 역, 『평화를 지킨 사람들』 (서울: 초록개구리, 2010) 참조

■ 고등학생 우리말 지키미 동아리 ‘초아’의 언어민주주의의 희망을 깨우다

초아는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춘다’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작은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초아의 활동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정치인들과 시민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외국어, 외래어에 가려진 우리말을 발힐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7명의 고등학생들로 구성되어 매주 라디오의 정치인 인터뷰 전문을 이용해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작업을 2011년부터 해오고 있다.

‘언어민주주의의 희망을 깨우다’ 활동에서 언어민주주의란 정치인들이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참여도를 이끌어냄을 이르는 말로 우리나라 언어의 주권은 한글에게 있고,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주인은 한글이므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와 외래어를 순화하여 한글을 지켜내고자 하는 정신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정치인과 시민들 간의 서로 존중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는 대화가 부족하다. 미래의 유권자로서 ‘초아’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웠고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한 결과 정치인들이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말보다는 쉬운 말이 사람들에게 더 와 닿기 마련이고 외래어나 외국어보다 우리말이 더 잘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직업상 언론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외래어,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 점을 고려해 ‘초아’는 정치인들이 우리말을 쓰도록 권장해 그 파급효과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활동하고 있다.

출처: 아름다운재단, “2011년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사례” 참조.

■ 통일을 실천하는 고등학생 모임 ‘희망’

‘희망’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운영되었던 통일실천단 성격의 모임으로 통일교육을 통하여 실천 활동을 6, 7, 8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통일모임이다.

1. 교육 (6월)

- 1차 교육: 기존 회원 중심으로 진행(30~40명)
 - 내용: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
통일모임의 필요성
학교내 활동 및 회원조직 교육
- 2차 교육: 확대된 회원으로 진행(70~80명)
 - 내용: 북한 바로알기
통일이 되면
미군이야기(미군기지)-지역 현안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재조명
우리문화 사랑하기

2. 결성식(7월)

- 1, 2차 교육을 통하여 ‘희망’ 결성
- 전체 운영체계 및 학교별 모임체계 구성

3. 활동 내용

- 학교안 실천 내용
외제학용품 사지말고 쓰지말자
영자 티셔츠 안입기
우리 고운말 쓰기

4. 대중 행사

- 캠프, 통일음악제 (8월)
- 지역통일행사 및 전국 통일행사에 참여 (8월)

5. 해단식(8월): 활동 평가

출처: <cf1e1.uf.tistory.com/attach/1339451A49D44B2B7B7295>.

■ '학생변론권 보장' 오병헌이 학교정책 바꿨다.

서울시교육청, '학생 징계 시 재심청구권·학생변론권 보장'
오병헌 군이 주장했던 '학생 징계 시 재심청구권·학생변론권 보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조영상 장학사는 29일 "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재심청구권을 보장하도록 지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재심청구권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특히 D고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오병헌군의 경우 재심청구권·학생변론권이 없는 학교 징계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징계를 거부해, 우리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돌아볼 계기를 만든바 있다. 시교육청에선 재심청구권을 규정해 정하도록 지도하는 것과 함께 학생 징계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시교육청 조영상 장학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상고를 보장하듯이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재심청구권이나 학생변론권을 학교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에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생활지도 부장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관련 연수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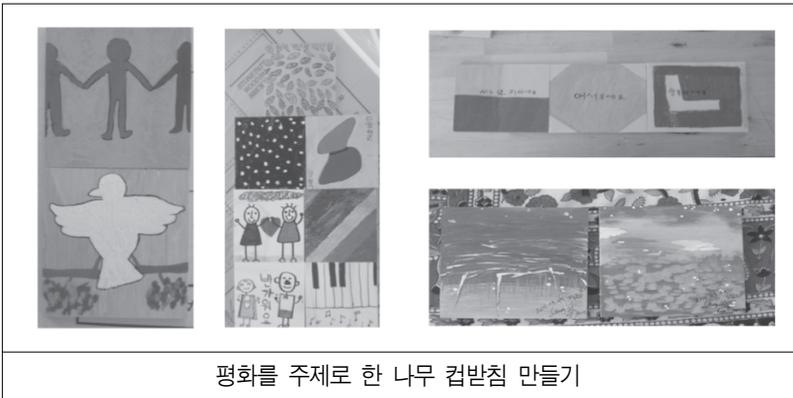
출처: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년 9월 30일, <www.1318virus.co.kr>.

(라) 4일차-교육 후속활동 Tip

- 3회기 통일민주시민교육을 마무리하고, 후속활동으로 통일을 위한 평화캠페인을 준비해서 봉사활동과 연결해 운영하면 효과적이다.
- 캠페인에 활용할 피켓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한 피켓을 활용해 거리행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평화를 주제로 한 컵받침을 만들어 캠페인 때 통일관련 상식
들을 알아보는 활동 때 선물로 활용한다.



I
II
III
IV
V

다. 프로그램 실행

(1) 초등학생 프로그램

(가) 교육 환경

- 장소: 서울 구로남초등학교 4층 교과 3실
- 사전 준비
 - 놀이 및 활동 중심 수업이기에 필요할 때에만 책상과 걸상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책상과 걸상을 치워 놀이 공간 확보
 - 영상 및 PPT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프로젝션 TV 준비

(나) 강사 위촉

- 주강사: 장대진(공동연구원, 초등교사)
- 보조강사: 김OO, 허OO(초등교사)
- 강사 위촉 시 고려사항
 - 초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임을 고려하여, 강사 전원을 초등교사로 구성한다.
 - 프로그램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참가 학생들의 교사가 아닌 다른 학교의 교사로 강사를 구성한다.

(다) 세부 운영 일정

● 표 II-11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세부 운영 일정

날짜	시간	장소	대상	내용
8월 30일 (토)	9:30~12:30	구로남초 교과 3실	5학년 학생	•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 협력할 때에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 행복한 공동체를 꿈꿔봐요.
9월 13일 (토)	9:30~12:30	구로남초 교과 3실	5학년 학생	• 우리 주변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스스로 느껴봐요.
				•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꿔요.
				• 행복한 공동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화가 필요해요.
9월 27일 (토)	9:30~12:30	구로남초 교과 3실	5학년 학생	• 친구들과 함께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 좋아요.
				•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사회 참여
				• 우리도 사회 참여할 수 있어요.

(2) 중학생 프로그램

(가) 교육 환경

- 장소: 인생나자교육장
- 사전 준비
 - 영상 및 PPT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프로젝션 TV 준비

(나) 강사 위촉

- 주강사: 김지수(공동연구원, 인생나자작업장 상임이사)

○ 보조강사: 인생나자작업장 활동가 2인

○ 강사 위촉 시 고려사항

- 주강사와 보조강사 연결 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준비하기에, 사전에 함께 조율하고 기획할 수 있는 멤버십이 중요함. 만약 이러한 멤버십이 없는 관계일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프로그램 기획 및 검토 과정이 중요하다.
- 이번 프로그램 경우에는 그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주강사, 보조강사들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

(다) 세부 운영 일정

● 표 II-12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세부 운영 일정

날짜	시간	장소	대상	내용
8월 6일 (수)	13:30~16:30	인생나자 교육장	중학생	• 나와 타인은 연결되어 있어요.
				•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아요.
8월 7일 (목)	13:30~16:30	인생나자 교육장	중학생	• 스스로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알아보아요.
				• 놀이를 통해 문제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가져봐요.
				•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날짜	시간	장소	대상	내용
8월 8일 (금)	13:30~16:30	인생나자 교육장	중학생	• 참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참여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공유해요.
				• 각자의 참여 경험을 나누고,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보아요.
				•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활동계획서를 작성해요.
8월 9일 (토)	13:30~16:30	군포 길거리	중학생	• 통일을 위한 평화 캠페인 활동 (통일홍보물 직접 제작)

5. 프로그램 평가

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가

(1) 목적 타당성

(가) 초등학교 프로그램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참여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해야 할 핵심 역량으로 ‘공동체’, ‘평화’, ‘참여’를 설정하여 내용을 계열화시켰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공동체’, ‘평화’, ‘참여’를 각각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의 즐거움과 함께 할 때 지켜야 할 협력과 배려’, ‘나의 평화와 우리의 평화’,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사회 참여’로 초등학교 수준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만들었기에 목적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 ‘평화’, ‘참여’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각각 ‘공동체적 가치, 배려, 책임, 행복’, ‘내 안의 평화, 우리 사회의 평화 공존’, ‘참여의 즐거움, 사회 참여, 실천, 민주적 과정’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목적에 맞

게 구성하였으며,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서 ‘공동체, 평화, 참여’의 핵심 역량에 대한 접점을 찾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즉,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접점을 찾는데 있어서, ‘공동체’ 핵심 역량에서 ‘경쟁과 협력, 경쟁에서 통일로-분단국가’의 내용은 ‘공동체적 가치와 협력’을 주 핵심 가치로 하였고, ‘협동과 배려-남북관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서로의 배려’의 내용은 ‘배려’와 ‘책임’을 주 핵심 가치로 하였으며, ‘공동체와 행복-미래사회 통일국가’의 내용은 ‘행복’을 핵심 가치로 추출하였다. ‘평화’ 핵심 역량에서 ‘나의 평화 발견’의 내용은 ‘내 안의 평화’를 주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고, ‘우리 사회의 평화’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평화’를 주 핵심 가치로 하였으며, ‘독일과 예멘 통일과정 비교-합의 통일과 전쟁 통일 후의 모습’의 내용은 ‘공존’을 주 핵심 가치로 추출하였다. ‘참여’ 핵심 역량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의 내용은 ‘참여의 즐거움’을 주 핵심 가치로 하였고, ‘참여를 위한 어떤 관점이 필요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참여’의 내용은 ‘사회 참여’를 주 핵심 가치로 하였으며,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의 내용은 ‘실천, 민주적 과정’을 주 핵심 가치로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접점을 찾는 데 있어 목적타당도도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중학생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중에서 ‘공동체’, ‘평화’, ‘참여’를 핵심 역량으로 하여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기법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차시별로 구성하였다.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서 ‘공동체’, ‘평화’, ‘참여’의 핵심 역량에

대한 접점을 찾아 프로그램 구성을 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보드게임들을 활용해 교육에 활용하였으며, 토론을 통해 스스로가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기획·설계 적절성

(가) 초등학생 프로그램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기획·설계에 있어서 대상자가 ‘초등학생’임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지수준, 초등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여야 한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 및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놀이(기차길 놀이, 풍선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 매듭 고리 전달하기, 무지개 카드 놀이, 업앤다운 놀이 등)와 활동(친구 이끌어주기, 감정 알아맞히기, 대화의 기술, 등으로 말하기 등)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사유와 토론을 통하여 지식을 쌓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개념을 받아들이고 사고를 구체화한다. 학습자 반응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호기심과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갖추고자 하는 핵심 역량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공동체’, ‘평화’, ‘참여’의 핵심 역량에 적합한 놀이와 활동을 배치하여 설계하였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풍선’을 활용한 놀이 활동은 일반적으로 관계맺기 활동이나 협력 놀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수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수업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풍선’을 이용한 놀이 활동을 교실에서 진

행한다면 이는 교육적 효과가 내재된 ‘수업’ 활동이 아니라, 단순한 ‘놀이’ 활동에 머무르게 된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에서는 ‘평화’ 핵심 역량에서 ‘내 안의 평화’와 ‘우리 사회의 평화’에 대한 가치를 개념화시키기 위하여 ‘풍선’ 놀이 활동을 접목시켰다. 풍선 선물을 주고 받는 활동이나 풍선 띄우기 활동을 통해 내 안의 평화를 느끼고, 초록색 독 없애기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평화에 대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공동체’, ‘평화’, ‘참여’의 핵심 역량에 적합한 놀이와 활동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기획하였다.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고려할 때 어떤 단일하고 균질된 집단 구성원보다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서울 구로구의 구로남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로남초등학교가 위치한 구로동은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단지 주민과 연립주택가의 주민 자녀들이 학생으로 유입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등의 유입으로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기획 단계에서 구로남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나) 중학생 프로그램

중등학생들의 발달단계 및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기존에 많이 해본 놀이와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했으며, 민주시민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해 통일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정의내릴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공동체’, ‘평화’, ‘참여’의 핵심 역량에 적절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간단한 놀이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배치하여 설계하였다.

(3) 운영의 문제점

(가) 초등학교 프로그램

초등학교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도 다소 발생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참가 학생 수가 10명으로 적어 본 프로그램의 적절성,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다소 부족하였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일반 수업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한 교실의 인원이 30여 명 안팎이기에 본 프로그램에서 예시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의 시간, 운영 방법 등을 달리 적용해야하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을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보니 지각하는 학생이 다소 있어 매끄럽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단위 수업 시간에 비하여 놀이 및 활동이 다소 많은 경향이 있었기에 실제 적용할 때에는 본 프로그램에서 예시한 놀이 및 활동을 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상황과 학생 여건에 맞는 놀이 및 활동을 선별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위 수업 시간에서 놀이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식한 핵심 역량 및 가치를 내면화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넣는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중학교 프로그램

대상 학생 수를 15명으로 하였는데, 혹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시 인원이 더 많을 경우에는 시간 조절 등 프로그램을 달리 진

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을 활용해 진행할 시에는 45분씩 진행할 수 있도록 모둠발표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보니 지각하는 학생이 다소 있어 매끄러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4회차까지 진행하는데 1~2명이 1회 정도 결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방학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학기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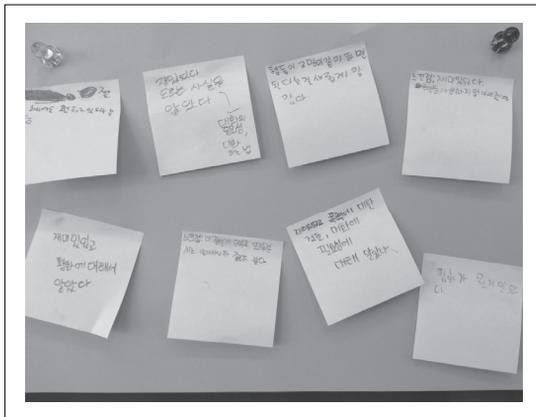
나. 학습자 반응 평가

(1) 초등학생 프로그램

(가) 평가 방법

○초등학생임을 고려하여 소감 쓰기 방법 적용

(나) 평가의 예



(다) 설문 결과

● 표 II-13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설문 평가 결과

일차	영역	내용
1일차	세부활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차길 만들기 놀이에 대한 소감 - 재미있었다. - 교실 전체에 기차길 있는 활동이 스릴 넘쳤다. - 협동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었다. 협동과 배려가 중요한 것을 알았다. -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할지 잘 모르겠다. - 친구들과 협력과 배려를 잘 해야겠다. - 재미있었다. 배려하는 것과 책임이 중요한 것을 알았다. - 교실 전체에 기차길 있는 활동을 또 하고 싶다. -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 안대쓰고 하는 활동할 때 느낌이 이상했다. -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2일차	세부활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하는 기술 활동에 대한 소감 - 웃겼다. - 이야기할 때에는 서로 마주보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알았다. - 등 대고 이야기할 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 앞에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답 답했다. - 무표정으로 있는 앞 사람이 너무 웃겼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었다. 협동과 배려가 중요한 것을 알았다. -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할지 잘 모르겠다. - 친구들과 협력과 배려를 잘 해야겠다. - 재미있었다. 배려하는 것과 책임이 중요한 것을 알았다. - 교실 전체에 기차길 있는 활동을 또 하고 싶다. -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 안대쓰고 하는 활동할 때 느낌이 이상했다. -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3일차	세부활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가 하는 사회 참여하기 활동에 대한 소감 - 미국 초등학교들이 놀라웠다. - 빙고그림을 채우기가 어려웠다. - 빙고그림에 무엇을 그려야 할지 생각이 잘 안 났다. - 우리도 초등학교이지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다. - 사회 참여를 하면 좋다.

I
II
III
IV
V

일차	영역	내용
3일차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았다. - 부루마블 게임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이상했다. - 사회 참여가 무엇인지 알았다. - 초등학생들도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신기했다. 나도 트레버처럼 하고 싶다. - 친구 남겨두지 않는 놀이가 재미있었다. - 다음에도 선생님한테 뽕망치로 때리고 싶다. - 사회 참여는 좋은 것이다. -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해서 좋았다. - 빙고그림을 그릴 때 생각이 잘 안 나서 지겨웠다. -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 설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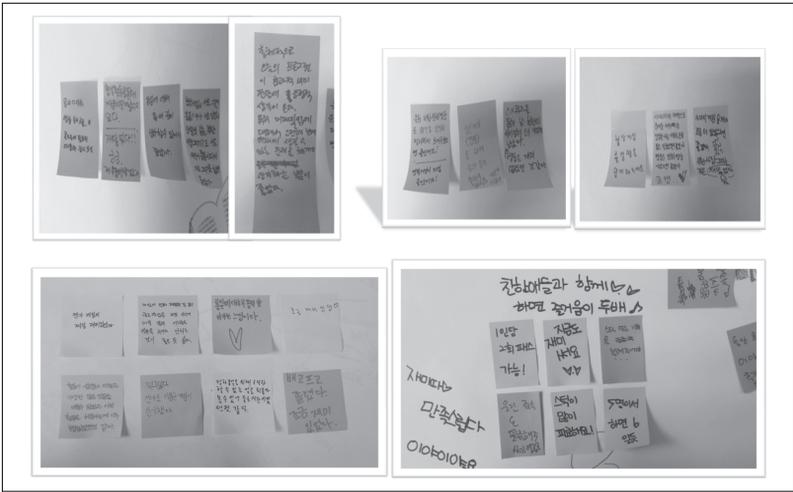
- 놀이 중심,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 이 수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공동체’, ‘평화’, ‘사회 참여’의 핵심 역량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가 비교적 높았다.
- 1일차 ‘행복한 공동체 꿈꾸기’활동의 4컷 만화 그리기 활동과 3일차 ‘우리도 사회 참여 할 수 있어요’ 활동의 빙고그림 그리기 활동을 다소 어려워했다.

(2) 중학생 프로그램

(가) 평가 방법

- 대상 학생수가 15명으로 그룹이 작아 설문지 방식이 아닌 직접 소감쓰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나) 평가의 예



(다) 설문 결과

● 표 II-14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설문 평가 결과

일차	영역	내용
1일차	세부활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게임에 대한 소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의 협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 제일 좋았다. - 서로 의견충돌이 나서 감정이 상할 것 같다. -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자원관련 영상을 PPT로 간단히 정리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 영상이 재미없다. - 영상 길이 조절이 필요하다. - 영상이 만화영상이었으면 좋겠다. - 사다리게임에 문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 사다리타기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써주시고, 정답을 아는 사람은 손을 들고 맞췄으면 좋겠다. - 문제의 다양화

I
II
III
IV
V

일차	영역	내용
1일차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북한 친구 상상하기를 할 때 의견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따로 그렸으면 좋겠다. - 또래 북한 친구 상상하기가 재밌다. - OX퀴즈를 통해 남과 북의 차이점이 더 기억에 남았다. - 통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미가 전달되었다. - 특히 미래직업을 고민해보며 문제점도 고민해보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부분이 좋았다. - 풀라주에 필요한 잡지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 재미있었다. 계속 했으면 좋겠다.
2일차	세부활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가게임에 대한 소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5명이 했으면 좋겠다. - 돌아가면서 최소 4번은 했으면 좋겠다. - 어려운 문제는 내지않거나 다시뽑기 - 패스 2번 - 문제를 뽑은 뒤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종을 쳐서 점수 획득 - 문제를 먼저 뽑고 젠가를 3개 정도 뽑은 뒤 종을 치고 가장 좋은 답을 한 사람이 점수 획득 - 뜬금포 단어 많이 추가하기 - 패스횟수 제한 -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 친한사람끼리 해야 재밌을 것 같다. - 스틱을 얻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 1인당 2회 패스가능 - 웃긴 점수 포함 • 중학생들에게 어려웠던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한다면?’ - ‘북한친구와 노래방을 가면 어떤 노래를 부를것인가?’ - ‘DMZ’ 관련 질문이 어려워요. - 다 어려워요. - 통일 후의 이야기 - 북한친구와 어떻게 놀까? - 통일이되면 좋을까? - 통일이 된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 통일 이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신경써야할 분야 - 통일 이후 수요가 증가할 분야

일차	영역	내용
2일차	세부활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이 되면 국가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 북한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한 방안은?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 재미있었고 보람된 하루였다. - 좀 재미있었다. - 배고프고 졸렸다. - 통일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느낌 - 젠가로 이용한 게임이 신기했다. - 게임이 진짜 재미있었던 것 같고, 광고작업은 자칫 시간이 너무 걸려 어느 정도 여유를 주거나 안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활동이 생각보다 재밌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런 활동을 해본다는 게 정말 보람있었던 것 같다. - 젠가게임이 제일 재미있었다. - 좋은 것을 얻어간다.
3일차	세부활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카드 게임에 대한 소감 - 게임이 어렵다. - 게임인원은 5~6명이 좋은 것 같다. - 조커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 - 가위 바위 보 승자가 카드 얻기 - 인원은 3명으로 충분한 것 같다. - 점수의 제한을 200점 정도로 늘리면 좋겠다. - 카드 갯수 늘리기 - 조력자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 게임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 5명이 적당한 것 같다. - 룰이 복잡하고 게임 실행이 어렵다. - 가위바위보도 움직이는 해결사와 지키는 해결사도 있으면 좋겠다. - 게임이 한판씩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정리가 없었다. -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좋은 체험이었다. -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 가치게임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았다. 가치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참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다. - 어렵지만 재미 있었다.

I
II
III
IV
V

일차	영역	내용
3일차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들었다. - 힘들지만 재미있었다.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 보람있다. 재미있었다.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 4일동안 좋았다. 힘들 줄 알았는데 힘들지도 않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 - 전체적 교육 진행 순서도 나쁘지 않지만, 마지막 홍보판 만들기는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해주셨으면 한다. - 정말 분쟁을 하면 안되게 노력을 할 것이다. - 활동도 너무 재미있었고, 그 중에 게임도 다양해서 4일동안 즐거웠다. 간식도 맛이 있었다. 다음에 또 오고싶다. - 다 너무 유익했고,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4일 동안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마지막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3일 동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라) 설문 평가

- 놀이 중심,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고, 개발한 놀이에 대한 참여 대상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게임의 룰을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 이 수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공동체, 평화, 사회 참여’의 핵심 역량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가 비교적 높았다.
- 2차시에 진행된 ‘젠가 게임’은 해결할 문제가 청소년들이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북한과 남한의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어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지만 남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주었고,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하였다.
- 3차시에 진행된 ‘가치카드 게임’의 경우 룰이 다소 복잡해서 어려워하기는 했지만 재미있게 참여했다.

다. 향후 개선 방향

‘행복한 공동체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참여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동체’, ‘평화’, ‘참여’를 핵심 역량으로 선정하여 내용을 계열화시킴으로써 대상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고 적절한 목적타당성을 갖추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보급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이 좀 더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 초등학생 프로그램

먼저, 대상 및 일정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프로그램은 대상 학생 수가 10명으로 적었고,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보니 지각하는 학생이 다소 있어 매끄럽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실 상황과 맞게 20여 명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 후 활동 및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일선 초등학교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규 수업시간에 적용한다면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단위 수업 시간에 적용한 놀이와 활동 수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2일차 프로그램을 예로 든다면, 내 안의 평화를 느끼기 위하여 풍선 선물 주고받을 때의 평화 느끼기(활동1), 풍선 띄우기를 하며 평화와 행복 느끼기(활동2), 내가 행복하고 평화로웠을 때 나누기(활동3)로 되어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활동3이다. 활동3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내 안의 평화를 실제 느끼고 ‘행복’이라는 개념을 내재화시킨다. 이 때 활동1과 활동2는 활동3을 끄집어내

는 보조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활동1과 활동2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정작 중요한 활동3의 활동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교실 상황과 학생 여건을 고려하여 활동1과 활동2 중 더 적절한 것을 골라 한 가지 활동을 하고 바로 활동3을 한다면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단위 수업 시간에서 놀이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식한 핵심 역량 및 가치를 내면화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넣는다면 더욱 프로그램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반응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몇 가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학생들이 어려워하였던 1일차의 4컷 만화 그리기 활동은 콜라주로 표현하기로 수정하고, 3일차의 빙그림 그리기 활동 전에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활동(예: 하나 주고 하나 받기 활동)을 추가한다면 학습자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1차 교육 때 진행했던 ‘기차길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마지막에 기차길을 모두 이은 후, 그 기차길 위에 부산역-서울역-평양역-베이징역-모스크바역-베를린역-런던역 꺾말을 세우고 ‘유라시아 대륙횡단열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좋을 듯 싶다. 2013년 한·러 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유라시아 횡단열차에 대한 개념 및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향후 철도 연결로 인한 여러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통일미래는 이보다 더 큰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줘도 좋겠다. 만들어진 한 대의 열차의 객차(우유곽 활용 등)에는 각각 한 쪽 면에는 자기 이름을 기재하고, 나머지 한 쪽 면에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희망 메시지를 적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2) 중학생 프로그램

교육 대상 및 일정 관련해서는 20명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반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약간의 조정만 하면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이 있는데, 월 1회 정도 3시간으로 진행되는 중학교들이 많아 연간 7회 정도 진행되고 있어, 3회기는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4회기 프로그램은 후속활동인 남북 관련 캠페인활동이나 통일관련 기관이나 시설들을 견학하는 등의 활동으로 연계하면 연간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아리 구성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 설계 관련해서는, 2일차의 젠가 게임의 미션카드 중에 어려워하는 미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3일차의 가치카드 게임의 룰을 좀 더 단순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룰을 수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Ⅲ. 갈등해결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갈등해결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

가. 사회통합 과정으로서의 통일

통일은 더 이상 통일방식이나 체제 논의에 머물러있지 않다. 통일은 남과 북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와 다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는 공동의 언어가 있고 공동의 역사를 갖고 있고 문화적 전통이 같은 이른바 ‘한민족’이다. 하지만 이미 분단이 반세기를 넘어 70년에 이르렀고, 남과 북 주민들은 수 십 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이미 남과 북 사회는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일된 사회는 이 같은 이질적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남북한의 통합을 ‘속도가 완만한 정체국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과 북 국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단계, 남북한 간의 실질적 통합의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하듯³⁶ 통일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협력을 가속화하는 사건의 누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³⁷ 통일은 궁극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장기적인 통합³⁸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과 대면이 늘어나 상호이해를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로 다른 혹은 이질적인 사람과 집단에 대한 거부나 편견이 높아질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³⁶ 정현백 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참조.

³⁷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참조.

³⁸ 여기서 통합은 ‘완전한 통합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서로 다름이 존재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른다. 박종철 외, 『통일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참조.

때문에 통일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상황이나 통일을 먼저 이룬 독일의 경험을 볼 때 갈등을 다루는 과정이 순탄하거나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한국 사회의 갈등은 사회가 양극화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2010년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7개국 중 두 번째로 심각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르며, 이것은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9년보다 두 단계 더 상승한 것이다. 갈등이 파괴적인 형태로 전개되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단지 경제적 손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관계도 악화되고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는 등의 영향도 있다.³⁹ 또 2013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에서도 우리사회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92.8%가 응답했고, 이념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계층과 세대갈등을 그 다음 순위로 꼽았다.⁴⁰

“역사적으로 식민지배, 분단 그리고 전쟁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은 냉전시대의 흑백논리와 이념대립을 심화시켰으며, 대외정책 및 경제·사회정책은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안마다 치열한 이념논쟁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고, “경제적 세계화, 대내외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계층 간 소득양극화 등으로 앞으로 더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처럼 이익갈등이 가치갈등으

³⁹ 박준, “한국 사회 갈등 현주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대통합 2차 심포지움 자료집, 2013) 참조.

⁴⁰ 경실련(사) 갈등해소센터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12일.

로 점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갈등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치갈등이 함께 발생하고, 이것이 갈등을 복합적으로 증폭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갈등해결이 지체되면서 정부의 갈등해결 능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⁴¹ 한 마디로 갈등은 복잡하고 심화되어 가는데,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 능력이 낮아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현재의 진단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의 정도나 갈등해결 역량의 정도를 감안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될 경우, 갈등이 더 중층화될 위험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통합’이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독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언어와 역사가 같고, 같은 문화전통을 가졌지만 우리와 다르게 분단기간에 제한적이거나 의사소통이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의 난관을 비교적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가 우세했다.⁴² 하지만 통일 이후 양 지역 주민들 간의 통일결과에 대한 평가의 차이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역 주민들은 상대지역을 범주화시켜 서로 상대방을 거만함, 신뢰성 부족, 이기적·기회주의적이라는 의미와 게으름, 무능함 등의 의미가 내포된 Wessis(서쪽 것들)와 Ossis(동쪽 것들)라는 말로 폄하한다. 이러한 상호 간의 부정적 평가는 ‘마음의 벽’을 쌓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높아가는 경향을 보였다.⁴³

이는 단지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이 아니라 통합 이후 사회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통합력의 저하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

41- 사회통합위원회, “2012년 연례보고서,” p. 43.

42-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참조.

43- 위의 책, p. 44.

후 독일인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을 감안하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을 보는 시선이 통일독일 이후와 다르다고 장담할 수 없다.⁴⁴ 물론 남한 사회에 적응을 요구받는 ‘탈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회체제와 문화가 다른 두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함께 산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이 겪는 갈등은 통일과정과 이후 문제를 예측하는 리트머스지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통일이 제도보다는 ‘실체’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통합의 과정이라고 볼 때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갈등해결 역량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통일이 준비하는 것이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나. 통일교육으로서 갈등해결교육의 필요성

평화적인 갈등해결 능력이란 단지 갈등해결이 개인적인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능력’으로서, 교육을 통하여 학습과 내면화가 가능한 ‘후천적이고 사회적인’ 성질이다.⁴⁵ 따

⁴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3년 7~8월에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42.0%에 지나지 않았다.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58.0%(별로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49.7%+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8.3%)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국민의 15.3%가 북한이탈주민을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꺼린다고 대답했고, 15.7%가 ‘직장동료’로 받아들이는 데 꺼려진다고 했다. ‘사회동반자’(39.0%) ‘결혼상대자’(49.9%)로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했다. 국민의 45.2%가 ‘북한이탈주민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42.2%,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도 12.7%나 됐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참조.

⁴⁵ 박보영,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 67.

라서 갈등해결교육이란 바로 그러한 능력, 서로 다른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평화적인 갈등해결 능력의 향상은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한다. 흔히 갈등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거나 무시, 혹은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익숙한 갈등해결 방법이다. 마치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으로 갈등을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이 갈등을 더 키우거나 관계를 악화, 단절시키고 사회적으로 불신과 폭력을 확대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갈등해결 능력 함양에 있어, 갈등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필연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은 언제나 있지만 갈등해결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당사자들 상호 관계나 사회적으로 긍정적 혹은 건설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창의적이고 협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화적인 갈등해결 역량은 단지 개개인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갈등 혹은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영향을 미친다.⁴⁶ 특히

⁴⁶- 2011년 노르웨이 정부 청사와 노동당 청년 캠프에서 폭탄과 총기로 민간인 70여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노르웨이 정부는 “브레이비크라는 한 인물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일을 피해야 하며, 그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쌓아온 전통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브레이비크와 같은 인물을 만들어 낸 체제가 변화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순원은 “사회적인 도전과 위협의 상황에서 노르웨이 정부가 보여준 대처능력은 평화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했다(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회원 월례공부모임, 2014년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고, 오랫동안 분리되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키워온 남북한 사이에 갈등해결교육은 특히 더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힘이나 폭력, 법에 의존하는 갈등해결 문화를 극복하고 대화와 협력, 상호 존중, 상대방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변화시키며 갈등 당사자들의 자발적 문제 해결의 가치에 근거한 갈등해결의 대안적 방법과 문화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해결교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추구한다.

(1)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존중’이다.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느낄 때 다른 사람에 대해 존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것을 돕는 것이 그 목표이다.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어울려 함께 사는 타인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2) 다름의 인정과 다양성 존중

다른 환경과 조건의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차이와 차별에 대해 이해한다. 남성과 여성, 나이, 장애 여부, 사회적 지위, 남과 북 출신과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한다.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5월 21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그 자체를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과 공존의 훈련의 기반에는 ‘다양한 정체성의 수용’⁴⁷이 전제되어 있다.

(3)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듣고 말하기

갈등이 발생하고 커지는 배경에는 적절하지 않은 의사소통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의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감정적인 대립이 커지고 갈등의 쟁점이 다른 사안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해결교육에서는 ‘적극적 듣기’,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 드러난 ‘입장’과 실제 ‘관심사’를 구별하기 등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의사소통 기법을 배운다.

(4) 화의 관리, 감정의 평화적 표현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의도와 행위가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좌절된 욕구를 표출하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하다. 물론 일상에서도 ‘화’가 우리의 삶, 행동과 정신,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관리되지 않은 ‘화’와 같은 감정은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갈등해결교육에서는 화를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표출할 수

47- 정현백 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p. 77.

있는 방법을 익힌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화를 잘 관리하여 그것이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화를 관리하는 방법과 훈련, 나아가 화를 비롯한 다양한 감정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힌다.

(5) 모든 생명과 자연의 존중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해야하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인정해야한다.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한 개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할 대상으로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존의 대상은 인간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자연 그 자체이어야 한다. 자연과 인간의 존중,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갈등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갈등도 예방하는 길이다. 모든 생명과 자연의 존중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 상호작용을 한다는 의지적 자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6) 협력적 문제해결의 방법

상호 존중과 공존을 위해서는 상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탐색하며 상호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힌다. 그리고 구조화된 다양한 대화의 방법-협상, 조정, 진행 등-에 대해 익히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문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화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갈등해결교육은 비록 모순적이고 비평화적이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대안을 구상하고 스스로 그 대안 속에서 살아가

는 낙관성을 전제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활양식을 넘어설 수 있는 중심의 전환을 전제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마주치는 직접적 폭력 외 물리적, 구조적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평화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 대해 순환적으로 대응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평화적 상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⁴⁸ 갈등해결교육은 피할 수 없는 갈등을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해결교육은 남과 북의 통합과정으로서 통일이 서로 다른 사회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며, 차이를 협력적, 창조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켜 ‘함께 사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오랜 분단이 낳은 남과 북의 차이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여 적대감을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데, 그리고 과정에 이르는데 중요한 삶의 기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공하는 갈등해결교육은 남북한 사람 사이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2. 선행사례 분석

동서고금을 통해 사람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늘 함께한다. 따라서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가 어떠한 형태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통일은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남과 북의 사람들의 갈등을 다루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평화적인 갈등해결 역량을

⁴⁸ 박보영,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 연구』, p. 67.

얼마나 갖추었는가 하는 것은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갈등해결 역량을 갖추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갈등해결교육·훈련의 현황과 해외 사례를 살펴본다.

가. 해외 평화교육 사례⁴⁹

해외 평화교육의 사례로 대표적인 분쟁지역인 이스라엘과 북아일랜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갈등과 화합을 이루어내는 미국, 그리고 동서독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평화교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 나라들의 갈등과 분쟁은 각기 다르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종교분쟁으로 보이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과 분쟁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불평등과 분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각기 다른 인종과 종교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과 더불어 심각한 무력분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분열과 분리를 넘어서 통일과 통합을 이루어 내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각기 독특한 경제, 사회, 문화적 통일과 통합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이 사회적으로 만연함으로 인해 폭력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평화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상호이해교육’은 북아일랜드 교육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미국의 ‘갈등해결’ 프로그램 역시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공존 교육’이나 ‘집단감수성 훈련’은 공교육의 차원이 아닌 시민단체와 평화단체에 의해 진행된다. 이

⁴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서의 적용방안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2001); 정현백 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참조.

스라엘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오니즘과 유대인 민족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기 때문이다.

(1) 미국의 평화교육: 갈등해결 프로그램

표 III-1 미국의 갈등해결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학교갈등해결 프로그램	<p>1960년대 미국 사회에 평화운동이 확산되면서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으로 편입되기 시작함. 또래조정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역사회 조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받음. 미국의 모델은 성인들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고, 조정이 일과시간에 이루어짐.⁵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 만들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심각한 폭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실, 특히 교실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평화적이고 건설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통해서 '다름'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 폭력적 갈등 당사자들이 모두 평화적 갈등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갈등해결의 지향점임. •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분노 조절, 편견과 적대감 줄이기, 갈등 분석, 협동, 중재, 협상 등의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 타인에 대한 인정과 관용을 위한 가치와 태도 습득함. -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HIPP	<p>평화를 증진시키도록 돕는 프로그램(Help Increase Peace Program) 대표적인 평화운동 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AFSC)에서 실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지역에서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불관용을 줄이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넘나들 수 있는 이해력을 강화시키고 갈등해결과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I
II
III
IV
V

구 분	내 용
H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사회의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훈련함. - 역할극, 자기긍정향상, 감수성, 폭력과 편견에 대한 진지한 대화, 원·원으로 이끄는 활동과 협동과 의사소통을 복돋우는 게임, 세 가지 워크숍(기초편, 고급편, 훈련편)을 수료하고 나면 워크숍 진행자가 되어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됨.

(2) 이스라엘-아랍평화센터(네베살롬/와हत 알살람)의 ‘대면 프로그램’과 공존훈련

● 표 III-2 이스라엘-아랍의 갈등해결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대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대-아랍인 참석자들(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참석자임)이 동수로 참석하여 두 언어를 사용하며 유대-아랍인 전문진행자에 의해 진행되는 집단 감수성 훈련과 공존훈련 - 네베살롬(Neve Shalom)과 아랍어 와हत 알-살람(Wahat al-Salam)은 ‘평화의 오아시스’라는 의미로 NS/WAS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두 민족이 협동과 평등한 공존의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세운 마을 - 두 민족공동체, 즉 유대-아랍인 사이의 창조적 협조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 중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선구적 교육시설로 ‘두 민족·두 언어’를 통한 교육제도의 ‘평화학교’는 1979년 설립되어 다양한 공존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갈등과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 - 즉 참여자들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갈등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

50- 양계민 외, 『포래조정사업 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참조.

구 분	내 용
대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실무자는 유대인-아랍인 같은 수로 행동과학, 인문학, 수학, 갈등 상황에 있는 그룹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특수한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 유대인-아랍인이 번갈아 교장 역할 수행 - 대표적 프로그램 유대인-아랍인 대면 프로그램 유니내셔널 프로그램: 특정한 한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속하지 않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종류 청년대면프로그램, 대면프로그램 졸업생 대표들의 해외여름 캠프, 청년공동체에서의 장기간 집단감수성 프로그램. 청년지도자의 대면과 학생위원회 활동, 기타 성인 프로그램, 팔레스타인-유대인 프로그램, 대학과정, 전문진행자 훈련과정, 여성 교육, 키운슬링과 훈련

(3) 북아일랜드의 상호이해교육

북아일랜드의 경우 정치·경제적 분단을 정당화해왔던 종교적 분단, 구교와 신교라는 두 종교적 정체성만이 대립하던 분단구조에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문제에 대해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실생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가장 시급한 평화교육적 과제로 꼽는다.⁵¹ 북아일랜드는 오랫동안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리되어 있는 양쪽 공동체의 학생들이 서로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규 과정을 통해 상호이해교육, 통합교육, 공동체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⁵²

⁵¹- 강순원, “북아일랜드 포래조정활동의 평화교육적 의미,” 『국제이해교육연구』, 제9권 1호 (2014) 참조.

⁵²- 북아일랜드의 학교 형태는 학교법인의 종파적 성격에 따라 신교계가 운영하는 Presbyterian School, 구교계의 교육 운영권을 유지한다는 의미의 Catholic Maintained School, 이러한 분리주의를 배격하고 한 학교공간에서 함께 통합교육을

표 III-3 북아일랜드 상호이해교육

구 분	내 용
상호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적극적 관심이 표명되면서 시도 - 1983년에는 <북아일랜드교육발전위원회,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유사정부기구>가 탄생하여 <EMU⁵³ 프로그램 개발 위원회>를 설립, '교사를 위한 EMU 가이드안'을 작성하여 학교 내부와 학교간 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기법 소개 - 1989년 북아일랜드 교육부는 EMU라는 이름으로 문화적 유산 공유 및 지역사회 간 접촉이라는 목적사업을 지정함. - 1992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법적으로 이 커리큘럼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공평, 상호존경의 정신에서 '다름'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4개의 목표에 의해 구체화됨. 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계형성 촉진 ② 갈등의 이해와 창의적 해결 ③ 상호의존성에 대한 자각 ④ 문화적 다양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교육에서 단일종교만 가르쳤던 기존 방식에서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아일랜드어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일랜드 역사도 배우게 되었음. - 지리나 법률에서도 북아일랜드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다룸. - '적극적 학습'을 통해 현장견학이나 구체적 실습을 경험해봄으로써 북아일랜드의 현실을 이해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됨.
또래 조정교육 ⁵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아일랜드의 경우엔 초등 고학년 단계에서 특히 통합학교의 경우 또래조정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으로 권고하고 있음. Key Stage 2(3년의 초등고학년 과정)의 마지막 학년인 7학년 때 또래조정이 이루어지며, 대부분 학교에서 6학년 말에 전 학생을 교육시킴. 중학교과정인 Key Stage 3단계에서는 시민성교육의 일부로서 지역갈등 이해하기가 있고 학생활동으로 회복적 정의나 또래조정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으로 권고하고 있음.

한다는 Intergrated School, 그리고 영어가 아닌 아이리쉬로 교유한다는 Irish-Medium School로 이루어진다. 위의 글 참조.

⁵³- EMU(Education for Mutural Understanding and Cultural Heitage), 상호이해교육

⁵⁴- 위의 글 참조.

구 분	내 용
또래 조정교육 ⁵⁵	- 통합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파를 초월한 친구 간의 상호이해 및 갈등해소를 위한 또래조정은 지역사회 간 상호이해를 통해 쌓인 벽을 허물자는 EMU와 함께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의 대명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어린이가 함께' 라는 통합교육 이념을 구체화 - 지역 시민사회 및 대학연구소센터와 상호협력 - 모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하는 상생적 학교 문화를 구축하여 실생활 문제해결기술을 통해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것을 지향 - 교사 주도하에 모든 학생이 참여 -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의미를 부여

(4) 독일의 평화교육

통일 후 독일에서 평화운동은 약해지고, 대신 평화교육에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냉전이 끝나고 핵 전쟁위협이 사라지면서 전쟁은 평화교육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주제가 되었고, 그 대신 가정, 직장, 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폭력들이 평화교육의 핵심 주제로 등장한다.⁵⁶

통일 후 독일은 무엇보다 동서독 사이의 큰 경제적 차이를 극복해야 했고, 이와 동시에 가치관의 차이와 문화적, 생활적 차이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정치적 입장과 참여 방법의 다름 또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인 과제이기도 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동서독 사람들의 내적 통합을 위해 독일 정부는 물론 정당 기

⁵⁵- 위의 글 참조.

⁵⁶- 고병현 외, “평화교육의 개념과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통일부 용역보고서』 (2007) 참조.

관 및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통일 전후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을 실시해왔지만 통일교육이라 명명하지 않고 정치교육, 평화교육, 독일 민족화합 교육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간접적 통일교육을 해왔다.⁵⁷

● 표 III-4 독일 평화교육

구 분	내 용
학교에서의 평화교육 ⁵⁸	<p>학교 평화교육 내용도 국가방위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적 상황에서의 독일 군사외교의 위치와 같은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어 비폭력, 평화주의에 입각한 사고와 행위능력의 개발에는 미치지 못함. 이러한 시각들이 최근에는 평화교육 연구기관과 교사교육 기관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제공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워크숍, ‘관용적인 브란덴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내용: 비폭력 행위능력 신장, 공격성 억제 교육, 갈등중재훈련 -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훈련, 반공격성 훈련, 사회적 학습 프로그램, 갈등훈련, 중재 프로그램, 가해자-피해자 균형잡기, ‘생활속의 학교’ 프로젝트, 인종주의 없는 학교, 학교 내 계속교육 프로그램, 폭력예방, 다양성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이 없는 학교-용기 있는 학교 - 학생, 교사, 사무직원의 70% 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서명을 해야 함. - 몇 명 학생이나 교사들만 관심이 있을 경우, 대부분 주위에서 무관심하거나 방해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행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학교 전체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때문에 일과성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학교 문화로 바뀔 수 있음. -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관용, 다른 문화 이해, 인종차별 거부, 극우파 반대 등등에 관한 주제에 관해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도 함.

⁵⁷-이나영, “인물탐구 수업모형을 활용한 도덕 교과와 통일교육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 3.

구 분	내 용
정치교육 ⁵⁹	<p>통일 이후 독일은 '체제 통합'과 더불어 동서독 주민들 사이의 통합, 즉 '내적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 주로 체제 통합, 즉 화폐 통합, 법제 통합, 교육 통합, 정치 통합 등은 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통일 이후 동서독 출신 주민들의 교류, 민주시민교육 등과 같은 내적 통합은 학교 및 시민단체, 정당 차원에서 이루어짐. 내적 통합을 위한 정당과 시민단체의 노력은 통일독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라트아데나워재단, '만남추선형 민주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독 출신의 학생들이 함께 만나 같은 공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 -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3회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간 캠프 형태로 진행되며 독일의 역사와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서로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눔. - 시민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독일 동서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에 시작되어 '인간적 만남을 통한 통합'을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명이 넘는⁶⁰ 동서독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이는 독일의 사회통합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음. - 연령, 직업, 이념에 상관 없이 동독출신 5명, 서독 출신 5명을 선발하여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독일의 내적 통일을 방해하는 서로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동서포럼의 규칙은 첫째, 참가자들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함께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며 둘째, 가장 중요한 규칙은 '상대방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 것'

⁵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서의 적용방안 연구』, 2001; 고병현 외, 『평화교육의 개념과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참조.

⁵⁹- 이나영, 『인물탐구 수업모형을 활용한 도덕교과의 통일교육에 대한 고찰』; 무지개 청소년센터 뉴스레터, “남북포럼, 그 첫 번째 이야기,” (2014) 참조. 글쓴이는 이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명명했는데, 독일에서는 갈등해결교육이라 따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갈등해결교육으로 구분한다.

⁶⁰- 이 글이 2014년 발표한 논문임을 감안 2014년 현재로 본다.

구 분	내 용
정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 소파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 소파모임은 구동독 시절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던 때, 친구 혹은 동료들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소파에 앉아 이야기했던 동독의 이야기 문화에서 유래 - 1990년부터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 구성원들의 집에서 모임 시작 - 주 1회 진행되고 모임장소는 구성원들의 집에서 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 - 주요 내용은 통일 이후 자신의 일상에 대해 같이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 철학적 토론을 함. 특히 통일 직후 가장 많이 된 논의는 통일 이후 독일사회의 정의(Justice)였음. - 1995년에는 협회를 설립하여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협회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실업 문제도 해결해 나감. - 현재는 매달 1회 만나며, 독일 주변국 사람들과 예술가들과 예술품 구매자들의 만남을 주선하여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젝트, 다문화 가정 및 국제적인 프로젝트도 진행 중임.

나. 국내 갈등해결교육 사례

국내에서 갈등해결교육을 제일 먼저 실시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동서독 통일을 보면서 정치적 통일뿐 아니라 공존과 화해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방안을 모색⁶¹⁾하는 과정에서 갈등해결 역량 향상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이후 1999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이

⁶¹⁾ 박수신, “갈등해결센터 10년 기록하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갈등해결센터 10년 기록하고 기억하다』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13), pp. 30~31.

하 AFSC)가 후원하는 ‘갈등해결과 관용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갈등해결 워크숍이 열린 그후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단체가 갈등해결과 평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조정자훈련

(가) 교육 목표와 내용

중립적 제 3자로서 갈등당사자가 서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갖도록 돕는 것이 조정자다. 따라서 조정자훈련은 조정자로서 갈등에 대해 가져야하는 관점이나 태도, 갈등해결 방법으로서 조정 방법이나 특성, 절차에 대한 이해, 조정자로서 필요한 의사소통, 분노 다루기,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특히 조정자로서 기술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갈등당사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믿고 지지하며, 문제해결의 주체로 당사자를 인정하는 것, 조정자의 시비와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와 합의 과정을 중립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훈련한다.

(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정자 훈련은 조정의 이해, 갈등해결의 이해, 의사소통의 기초, 조정자의 역할, 조정의 원칙과 과정, 조정의 단계 및 실습 등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의사소통 기술, 문제해결 기술 등 조정의 기술, 집단분쟁 조정 실습, 조정에서의 협상과정 이해, 조정자의 윤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자 훈련은 지역사회 리더, 교사, 노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I

II

III

IV

V

● 표 III-5 사회통합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조정전문가 훈련 프로그램⁶²

구분	강의 주제	강의 내용
1강	조정 이해	한국 사회의 평화적 갈등해결, 조정의 필요성
2강	갈등해결 이해하기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3강	갈등 분석	분석을 왜 하는가? 다양한 분석방법 이해 갈등분석 실습
4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대화(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 기초
5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조정자의 역할, 조정 원칙과 과정
6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조정단계 및 실습
7강	조정기술1	의사소통 기술
8강	조정기술2	문제해결 기술
9강	집단분쟁 조정 실습	집단 간 조정의 특성
10강	조정에서의 협상 과정 이해	협상의 원칙과 방법
11강	합의문 작성법	합의문의 요소와 작성 방법
12강	조정자의 윤리, 한국 사회에서의 조정 적용 모색	조정자가 해야하는 일, 해서는 안되는 일 조정의 현실 적용 모색

(2) 회복적 정의의 피해·가해 대화모임 조정자 훈련

(가) 교육 목표와 내용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가해 행위자와 피해자가 각각의 필요를 다루고 잘못을 바로 잡기위한 대화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피해

⁶² 이 과정은 갈등해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전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며, 조정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회당 3강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갈등해결센터 10년 기록하고 기억하다』, p. 48.

자의 상처와 고통을 회복하고 가해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2006년 갈등해결센터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한 소년사법에 대한 대안모델로 ‘회합’실험연구⁶³와 2010년 법원에서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화해권고⁶⁴ 활동이 기반이 되면서 법원 외 학교와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부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를 필두로 수원, 인천, 의정부 등의 소년부에서 적용되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사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교 폭력을 다루는 새로운 대안적 방법으로, 그리고 각 공동체에서 일어난 손실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서클, 조정 등 회복적 정의에 기초해서 대화를 구조화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나, 최근 시민사회 영역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다.

63.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에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피해자 가해자 대화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고, 경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보는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실험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 2002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온 갈등해결교육, 특히 2004년부터 개설된 조정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조정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조정자 훈련이 관계회복 중심(인본주의적) 조정에 초점을 두었던 것도 회복적 정의 실험 연구 진행이 순조로울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박수선, “회복적 정의의 실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14 회복적 정의조정자훈련 자료집』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14).

64.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0년부터 소년범죄를 다루는 접근 방법으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화해 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전국 소년 법원에 그 적용이 확장되고 있다. 화해 권고 위원은 가정법원장 또는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한다)은 법 제25조의 3 제1항에 따른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에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거나, 법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그 밖에 소년보호 사건과 연관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화해권고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 4).

I
II
III
IV
V

(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각 단체마다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최소 24시간에서 총 100시간 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회복적 정의 교육 프로그램은 민간단체를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법이나 교육 영역에 확대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의 경험이나 콘텐츠는 민간단체가 제공하고 있다.

(3) 회의 진행자 훈련

(가) 교육 목표와 내용

회의 진행자 훈련은 회의 진행자로서 회의 참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잘 듣고 충분히 논의하여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도록 회의를 이끌어 가는 진행자를 훈련하는 것이다. 여러 조직이나 모임이 ‘함께 일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만족스러운 회의가 되지 않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모임이나 조직의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경험을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회의진행자로서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실행력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이나 태도, 기술을 익힌다.

(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행자로서 회의를 설계하는 방법,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모으는 방법, 차이와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서로 만족하고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진행자로서 갈등과 차이를 바라보고 다루는 태도와 관점, 의사소통 기술을 익힌다.

(4) 청소년 대상의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가) 교육 목표와 내용

청소년의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공존의 관점을 훈련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평화 리더십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일상의 갈등을 평화롭게 다룰 수 있도록 관점과 태도, 기술 등을 익혀서 서로 원하는 것을 찾아 만족스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단체에 따라 다른 명칭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갈등해결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 대상의 성격, 교육 시간, 교육 대상자의 수 등 교육현장의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실내 갈등다루기’, ‘평화리더십 교육’,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비폭력평화훈련센터는 ‘HIPP 어린이·청소년 평화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IPP(Help Increase Peace Program)은 긍정과 신뢰, 갈등해결, 협력, 팀 구축, 사회 정의 등의 문제에 적용되는 청소년 평화 훈련이다. “원으로 둘러 앉아 그룹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독특한 학습 구조 행태로, 이는 말하고 듣고, 생각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데 있어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하며 비난하지 않는 환경을 창조한다.”⁶⁵ 이를 통해 자기 긍정과 확신 그리고 돌보는 배움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 간의 발달에 공헌한다. 이 모델은 15~20명이 원형으로 모여 진행자 팀이 인

⁶⁵- 갈등해결센터, <<http://peacewave.net>>.

도하는 데에 따라 놀이와 활동, 성찰을 진행한다. 참여자 모두에게 편안하면서도 진지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서로 나누고 이를 통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차리고, 서로로부터 배우며 사회적인 소통과 비폭력적인 대응 방식을 익히게 된다.

한국비폭력대화센터(NVC)⁶⁶는 Non-violent Communication의 약자로 비폭력대화로 번역된다. NVC는 “우리가 날 때부터 지닌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방법(말하기와 듣기)이다.”⁶⁷ 서로 마음으로 주고받는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 네 가지 모델-관찰, 느낌, 필요(욕구), 요청-에 따라 자신을 명확히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또한 경청하면서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제3자로서 중재할 수 있다고 한다. 비폭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을 위한 스마일 키퍼스 과정이 15시간으로 진행된다.

(5) 또래조정자 훈련

(가) 교육 목표와 내용

또래조정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사소한 갈등이 폭력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같은 또래인 친구가 조정자가 되어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학교 생활을 같이하는 또래는 친구들 사이에

⁶⁶- 한국비폭력대화센터는 의사소통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지만, 최근 단체가 ‘평화교육’영역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어 갈등해결교육의 영역으로 분류해 넣었다.

⁶⁷- 한국비폭력대화센터, <<https://www.krmvc.org>>.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알 수 있고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조기 개입할 수 있다. 또래조정 교육은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관점부터 조정에 필요한 기술(의사소통, 브레인스토밍, 분노다루기)과 조정실습, 학교 내 또래조정반 운영과 홍보 방안 등으로 구성하여 훈련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 2003년 이래 지속적으로 실시해오던 또래조정자 훈련은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⁶⁸되어 각급 학교에 확대되어 소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다.⁶⁹

(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래조정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24차시로 구성해 진행하는데, 또래조정 소개, 갈등의 이해와 해결방법, 조정자의 태도와 기술, 역할, 차이의 인정과 편견다루기를 담은 조정의 기초, 갈등 분석, 의사소통, 또래조정의 단계 익히기, 분노 다루기, 문제해결력 기르기 등을 담은 조정 기술, 조정실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2년부터 교육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또래조정자 훈련은 미약하나마 전국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⁷⁰

68- 또래조정은 2003년부터 민간단체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왔다. 그러다가 2011년 경기도 교육청이 ‘또래중조’라는 이름으로 10개 학교를 선정하고 운영하였으며,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69- 2014현재 교육부 시범실시 학교는 123개교이며, 교육청별로 별도 지정 실시하는 학교는 2013년 기준 1,448개교이다(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2014년 3월 4일).

70- 2012년도 시작된 교육부 또래조정 사업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와 경실

(6) 진행자 훈련

이상의 평화와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진행자(Trainer for Training) 교육도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을 위한 강사, 회의진행이나 대화모임을 위한 진행자(Facilitator), 분쟁해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각 진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별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하고 있다.

3.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가. 프로그램 개발 기본 방향 및 개발 원칙

여기서는 남북한 주민 상호 간의 갈등해결과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은 남북한 주민이 함께 일하는 직장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갈등해결교육은 기본적으로 ‘평화의 원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참여자가 교육의 중심이 되고, 교육 과정 자체가 차이 인정, 상호 존중, 협력적 문제해결이라는 평화의 원리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교육 진행자와 참여자가 상호 존중과 경청, 협력적 문제해결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갈등해결교육은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익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런 갈등해소센터가 운영기관이었으나 대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광명교육연대, 대전경실련, 부산경실련, 포항여성회 등 지역에서 기반이 마련되어서 가능한 것이었다.

의사소통 등 구체적 문제해결 기술을 몸에 익혔을 때 그 교육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평화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익히는 것이 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⁷¹ 따라서 갈등해결교육은 인지적 측면에서 갈등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갈등해결을 위한 상호 인정과 존중의 태도를 갖고, 문제해결 역량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기술로서 갈등해결 역량이 삶의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배움의 과정은 교육 진행자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실습, 역할극이나 사례 분석 등 학습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 참여인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수업시간에 서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규모인 15명 미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규모로 참가자 수를 정하였다.

그리고 교육 기획과 진행자가 남한 사람이 중심이어서 단어의 선택이나 사례의 선정, 놀이 등을 할 때 북한 출신 참가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갈등해결’이 어느 한 당사자의 문제라기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문제이므로 한 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다.

나. 교육 요구 분석

통일교육으로서 갈등해결교육을 설계하고 진행하기 위해 이미 남북한 정치·사회 체제와 문화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71. 정현백 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p. 20.

남한 사람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것으로 하였다. 실제 경험하는 갈등이 무엇인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남한 사람 혹은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성인과 청소년(대학생) 대상의 교육을 위해 직장인 7명(북한이탈주민 4명, 남한 사람 3명)과 대학생 2명(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에서는 남북한 문화, 지위나 성별 등 역할 갈등의 경험이나 사례, 갈등해결 방법, 상대에 대한 이해(고정관념), 차이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 상호이해를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 등을 질문하였다.

서로 무엇이 불편하고 어려운가를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이 갈등의 요인으로 우선 꼽은 것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이다. 남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표현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우회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반해 북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납득할 때까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사표현 방식의 차이는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남한 사람은 이중적이다. 북한 사람은 공격적이라거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직장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 수용이 되지 않거나 인식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상태를 보였으나,⁷² (탈북)대학생들의 경우는 그것이 고정관념에 머무르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자존감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존감이 낮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으나, 우선 우리 사회가

⁷² 성인은 서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남한(북한)사람은 이러저러하다고 한다’고 표현하는 반면, 대학생들은 ‘남한(북한)사람은 이러저러하다고’ 직접 표현하는 것에서 그 차이가 있었다.

북한에 대해 이해가 낮은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⁷³ 영어나 컴퓨터 활용능력 등 남한 사회에서 생존에 필요한 역량이 떨어지고 남한 사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데서 오는 위축감도 그 요인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존감은 남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의견과 다를 때 다소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⁴ 이것은 소소한 일상의 갈등이 늘 발생하고, 상대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⁵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로의 사회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차이로 생기는 낯설음과 이질감,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은 ‘더치 페이’ 문화를 낯설게 생각하고 이것을 개인적 혹은 이기적인 태도로 이해하거나, 남한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업무역량과 보상의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남한 사람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의 관계를 적정한 거리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성인의 경우 관계의 특성이 직장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라는 점도 있지만,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남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프레임으로 해석되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직장인들

73.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떤 질문이 불편하고 힘들었는가를 물었다. 질문은 ‘북한에 사탕이 있는가?’, ‘북한에서 밥은 먹는가?’, ‘인육을 먹어보았는가?’와 같은 것이다. 자신이 살았던 사회에 대한 남한 사람의 이러한 인식은 그 집단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74. 남한에 정착한지 10년이 되었다는 여성은 자신이 이제 ‘원시인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였다. 지난 10년간 남한 사회 문화가 낯설어서 겪었던 고통을 자신이 ‘원시인’과 같았다고 하였다.

75.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맡은 업무에 대해 의견을 말하거나 하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곧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을 갖게된다고 하였다.

은 갈등을 드러내놓고 다루는 것을 불편해했다. 갈등 유무를 떠나 ‘갈등’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남북을 떠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직장인으로서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대학생들은 남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물론 대학생 신분이라 팀 과제 등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직장인들과 관계의 특성이 다른데다 앞으로 ‘함께 살’ 사람들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길 바랐다.

이상 인터뷰 결과, 갈등이 생기면 문제를 ‘사람’이나 ‘집단’의 문제로 해석하면서 문제 자체를 보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로 치환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차이가 남녀노소, 세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차이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릇된’ 혹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생긴 행동양식을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이해하거나, 다른 문화에서는 자신들의 행동양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차이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이나 문제해결 태도는 문제를 회피하고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⁶ 대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⁷⁶ 남북한은 그동안 서로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키워오고, 상대방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고착되어 왔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물론 상호 접촉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상대의 체제나 사회에 대한 교육을 통해 형성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다.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1) 프로그램 목적

남·(탈)북 주민이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나쁘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갈등을 협력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2) 프로그램 목표

(가) 성인대상 교육

함께 일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직장 동료라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단지 남한과 북한 사람 사이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접하는 차이와 갈등 중 하나라는 점을 인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남녀, 남북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에 미친 영향을 알도록 한다. 교육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터에서 갈등해결 방법의 적용을 모색한다.

(나) 대학생 교육

자신의 감정,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노 등의 강한 감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알고 자신의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고, 분노가 미치는 영향, 다루는 방법을 안다. 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요소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인지한다. 존중받는 의사소통을 경험함으로써 남과 북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더라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을

I

II

III

IV

V

느낀다.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다른 사람이나 그룹을 이해하는데 미친 영향, 나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안다.

○ 정의적 영역

-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한다.
-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해받음으로써 존중받는 마음을 경험한다.
-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낀다.

○ 인지적 영역

-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갈등해결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 의사소통의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안다.
-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안다.
- 분노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임을 안다.
(대학생)

○ 행동적 영역

- 다른 사람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개발 과정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하였다.

● 그림 III-1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기획

통일교육으로서 갈등해결교육의 적용 방안에 대한 기존 문헌을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연구진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2) 설계

교육 설계를 위해 우선 남한주민/북한이탈주민이 같이 일하는 직장
 에 다닌 경험이 있는 성인과 탈북대학생 인터뷰를 실시했다. 성인은
 북한이탈주민 4명을 포함해 7명을 인터뷰하였고, 대학생은 3명⁷⁷⁾을 인
 터뷰했다.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
 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북간
 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외국의 평화교육의 현황에 대한 전문가

⁷⁷⁾ 인터뷰는 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함께 온 일행이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결과적으로 3인의 인터뷰가 되었다.

자문을 받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갈등해결교육을 주로 하는 강사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성인 교육은 대상자가 빠르게 선정된 데 비해, 대학생 그룹은 연구 마감기간이 되어서야 섭외가 되었다. 교육에 적절한 그룹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표 III-6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분	진행 내용	내용
1차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6월 16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 참석자: 김화순(한양대학교 글로벌 다문화 연구원) 김선혜, 김정아, 전상희, 명희 (이상 연구진) 	교육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2차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6월 26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 참석자: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김선혜, 김정아, 전상희, 명희 (이상 연구진)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서 남북한 의사소통의 양식과 차이
3차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9월 2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 참석자: 이나영(서울외국어고등학교 교사) 김선혜, 김정아, 전상희, 명희 (이상 연구진) 	상호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통독 내적 통합 사례연구

구분	진행 내용	내용
4차 전문가 자문	- 일시: 2014년 9월 15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 참석자: 강순원(한신대학교 교수) 김선혜, 김정아, 전상희, 명희 (이상 연구진)	분단된 나라에서 갈등해결교육의 이해를 위한 자문회의
5~6차 전문가 자문 (온라인)	- 일시: 2014년 6월 15일/ 9월 30일 - 온라인 자문 - 참석자: 박수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 해결 센터 전 소장) 김영진(갈등해결과 평화교육 강사) 이덕경(갈등해결과 평화교육 강사)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자문

(3) 실행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직장인: 통일연구원 연구진의 도움을 통해 남한 사람과 북한이탈 주민이 함께 일하는 직장을 섭외하였다. 그러나 해당 직장에서 ‘갈등해결’ 교육에 난색을 표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이 유연하고 자유로운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 대학생: 대학생 참가자 역시 통일연구원 연구책임자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섭외하였다. 가톨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생 동아리 대표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하였다.
- 직장인 참가자들은 4회에 걸친 직무연수에 참여하였고, 대학생은 하루 6시간 교육에 참가하였다. 직장인은 한 달 후에 교육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과 교육을 기획했던 실무자를 따로 만나 평가모임을 가졌고, 대학생은 1주일 후에 교육진행자와 4명의 학생이 참가해 교육에 대한 평가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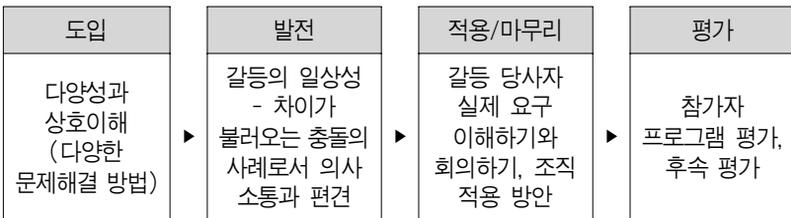
마. 프로그램 내용

(1) 교육 체계

(가) 성인 교육

성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은 상호이해에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갈등의 일상성), 구체적으로 대상이 있는 갈등 사안, 문제해결 방법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하게 된 것은 갈등이 있으나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교육 참가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갈등을 다루려면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야 가능하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림 Ⅲ-2 성인 대상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의 구조



1) 도입

참석자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 안면이 있지만 각자 개방의 정도가 다르고 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한다. 자기소개부터 문제해결 방식까지 ‘우리는

서로 다르다’,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듯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점을 느끼도록 한다.

하나의 틀인 동료, 상사, 북한이탈주민 등의 특정한 프레임이나 고정관념으로 당사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자기 소개,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으로 차이를 드러내도록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으로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친근함을 높인다.

2) 발전

조직 구성원 사이의 갈등의 상대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갈등이라는, 갈등의 일상성을 드러내도록 한다. 갈등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어나는 소통의 제약을 통해, 한 집단이 갖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상호 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통해 느끼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갈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조직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한다.

3) 적용/마무리

앞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기초로 조직내 갈등을 다루기 위한 접근 방식-실제 관심사 이해하기를 사례로 다룬다. 이때 사례는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례, 조직 내 갈등 사례는 부담이 되므로 민원인과 갈등을 다룬다. 이를 통해 해당 조직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조직 구성원과의 갈등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를 회의를 통해 다뤄봄으로써 실제 조직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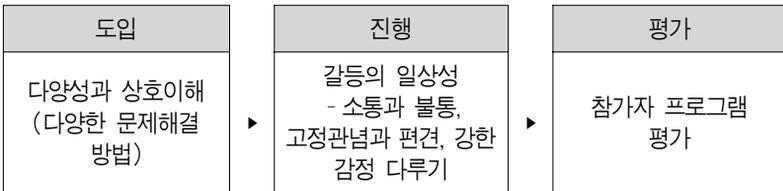
4) 평가

참가자들의 자기 기입식 설문과 소감 나누기를 통해 과정을 평가한다.

(나) 대학생 교육

전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그림 III-3 대학생 대상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의 구조



1) 도입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소개부터 문제해결 방식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요소가 되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통해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끼도록 한다. 몸을 움직이는 게임이나 활동을 통해 친근감을 형성한다.

2) 진행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 즉 의사소통,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다룬다. 의사소통이 단지 정보만이 아니라 느낌과 감정도 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활동을 한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한 상호 오해와 불신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의사소통의 장애요인과 장애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익힌다. 아울러 남북 공통으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남한과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드러내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갈등의 보편성(누구에게나 있다)과 특수성(갈등 특정 상대가 있다)을 느끼도록 한다.

3) 평가

참가자들의 자기 기입식 설문과 소감 나누기를 통해 과정을 평가한다.

(2) 교육 내용

(가) 성인 교육

표 III-7 성인 교육 내용

구분	제목	목표	구성
1차 (7.9.)	당신은 누구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참가자들이 서로 알고 친밀한 분위기 조성하기 - 교육 참가자 상호이해 과정에서 상호 차이와 다양성 인식하기 - 다양한 문제해결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개와 수업 기대 나누기, 친화 놀이 - 개인간 갈등대응 유형 진단과 특성 알기
2차 (7.16.)	불통, 고통,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중하며 말하고 듣는 방법을 배우기 - 언어, 비언어적 요소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소통과 불통의 경험 나누기 - 의사소통의 장애요인 - 비언어적 태도와 그에 대한 이해 - 잘 듣는 태도와 잘 듣는 방법 배우기
3차 (7.23.)	고정관념과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안의 벽, 고정관념과 편견 벽을 낮추는 대화,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무엇인지 찾기 - 고정관념과 편견이 미치는 영향 알기 -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이기 위한 방안

I
II
III
IV
V

구분	제목	목표	구성
4차 (7.30.)	역지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파악하기 - 갈등 당사자 중심으로 문제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당사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태도, 맥락 찾기(삼각형 분석)
5차 (8.6.)	차이가 힘이 되는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의견이 풍부한 논의의 시작임을 알고, 안전한 논의를 위한 방법 배우기 - 의견 나누기와 의견 결정을 구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안전한 논의를 위한 논의 방법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배우고 익히기
6차 (8.13.)	문제 해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것 - 적용하기 위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조직 내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 찾기 - 우리 조직 내 갈등해결, 상호이해를 위한 방법 논의

(나) 대학생 교육

● 표 III-8 대학생 교육 내용

구분	제목	목표	구성
1강	다양한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참가자들이 서로 알고 친밀한 분위기 조성하기 - 갈등에 대한 경험 나누기 - 다양한 갈등해결 방법 익히기 - 협력적 갈등해결 방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개와 수업 기대 나누기, 친화 놀이 - 갈등경험 나누기 - 개인간 갈등대응 유형 진단과 특성 알기 - 갈등은 어떻게 바라보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구분	제목	목표	구성
2강	소통과 불통 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소 알기 - 언어, 비언어적 요소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 - 존중하며 잘 듣기 연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귓속말 전달하기 - 의사소통의 필터 이해 - 단정하기를 통해 비언어적 태도의 중요성 익히기 - 잘 듣는 태도와 잘 듣는 방법 배우기
3강	강한 감정 다루기와 고정관념과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 원인과 다루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함. - 고정관념이 편견으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편견을 줄이는 방법을 알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한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나의 분노 상황 적어보기, 감정단어 맞추기 - '남성과 여성', '남과 북'이라는 주제의 고정관념이 편견으로 이어지는 사례 찾아보기 - 편견을 줄이는 방법 이야기 나누기 - 수업 소감 나누기

(3) 프로그램 일정표

(가) OO 직원교육

- 제목: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합원 교육
- 교육 대상: OO노동조합 조합원 13명(북한이탈주민 4명 포함)
- 교육 시간: 90분 6차⁷⁸

⁷⁸ 교육 프로그램을 초기에는 6차로 설계하였으나, 교육 기간이 여름휴가와 겹치는 등의 문제로 지속하기 어려워 4회차로 단축하여 진행하였다.

● 표 III-9 성인 대상 프로그램 편성표

구분	제목	내용	시간
1차	당신은 누구십니까?	갈등의 이해, 개인의 갈등대응 유형	90분
2차	불통, 고통, 소통	의사소통	90분
3차	고정관념과 편견	고정관념과 편견 이해	90분
4차	역지사지?	갈등분석 (갈등 당사자의 실제 요구 이해하기)	90분
5차	차이가 힘이 되는 문제해결	집단내 의사소통, 회의하기	90분
6차	문제해결하기	조직에 적용 방안	90분

(나) 대학생 대상 교육

- 제목: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교육
- 교육 대상: 탈북대학생 15명
- 교육 시간: 90분 3강(총 6시간)

● 표 III-10 대학생 교육 편성표

구분	제목	내용	시간
1강	다양한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	갈등의 이해, 개인의 갈등대응 유형	90분
2강	소통과 불통 사이	의사소통	90분
3강	강한 감정 다루기와 고정관념과 편견	강한 감정 다루기와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이해	90분

(4) 교육방법

교육의 목표가 단지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태도를 바꾸

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기술)을 익히는 것인 만큼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교육 진행자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뒤 실습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 내용을 종합·정리해서 배움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매 수업마다 교육 주제와 관계없이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서클-등글게 원모양으로 앉아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방식의 대화를 통해 진행자와 참가자가 평등하게 발언하고 듣는 진행을 선택했다. 이 방식을 통해 상호 존중과 경청을 반복적으로 느끼도록 하였다.⁷⁹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 교육에 진행자 2~3인이 교육 과정에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참여했다.

4. 프로그램 운영

가. 교육 대상

통일교육으로서 갈등해결교육인 만큼 남한 국민/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그러나 실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성인 교육의 경우 남한 국민/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일하는 직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시행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직장의 노조가 교육을 주관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교육 제목으로 ‘갈등’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⁸⁰을 보여, 교육의 명칭도 ‘갈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⁷⁹-이 방식은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말하는 것으로, 진행자라고 더 많은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동등한 발언기회를 갖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않는 제목으로 바꾸었다. 교육 참가 동기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80%) 이상 참여한 참가자들에게는 직무연수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성인 교육은 노조위원장을 포함해서 북한이탈주민은 4명, 남한 사람은 9명으로, 13명이 교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은 1, 2, 4회는 10명, 3회는 9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을 신청하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1명이 있었고, 3회부터 새롭게 참석한 사람도 있었다. 12명은 외부 출장으로 아예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처음에 6회로 기획된 교육은 당초 계획보다 교육 시작 시기가 늦어지고, 중간에 휴가로 교육을 한 주 쉬게 되면서 4회로 조정해서 진행하였다.

대학생 대상의 교육은 애초에 청소년 대상의 교육으로 기획하였으나, 자발적 참여와 적정 인원의 교육생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교육 대상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학생도 남북한 학생을 함께 모으는 것이 여의치 않아 결과적으로 탈북 대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교육생을 모집하였다. 동아리를 통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안내하였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프로그램 평가단의 형식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하였다.

2개 대학교의 탈북 동아리 학생을 중심으로 15명이 참여하였고,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다양하였다. 교육시간은 총 6시간으로 각 90분간 세 블록으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⁸⁰-교육제목에 ‘갈등’이 들어가는 것은 해당 ‘조직에 갈등이 있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 점은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도 드러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은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직무연수’로 정리하였다.

나. 교육자료 개발

(1) 성인 교육

(가) 학습지도안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 1차

- 제목: 당신은 누구십니까?
- 학습 목표:
 - 교육 참가자들이 서로 알고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교육 참가자 상호이해 과정에서 상호 차이와 다양성을 안다.
 -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제해결 스타일을 안다.

표 III-11 성인 교육 1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도입 (40분)	자기소개와 기대 나누기 (30분)	1. 참석자와 진행자가 둥그렇게 앉는다. 2.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다섯 가지-오감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3. 이 교육 과정에 대한 기대와 염려, 상호 필요한 도움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	토킹 스틱 ⁸¹ - 돌보기
	교육 과정 안내(5분)	1. 진행자는 참석자들에게 전체 교육 과정과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질문을 받는다. (진행자는 매회 2~3인이 참석, 쉬는 시간 없이 끝까지, 시작과 마무리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	

⁸¹-토킹 스틱(Talking Stick)은 구성원들이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이 도구를 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 대개 구성원들에게 의미있는 것을 사용한다.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도입 (40분)	놀이 - 바람이 됩니다. (5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석자보다 의자를 한 개 적게 놓는다. 2. 참석자는 동그렇게 둘러앉고 진행자(술래)는 특정한 행동이나 모양에 해당되는 말을 한다. 예) 바람이 불니다. 안경끼인 사람에게 바람이 불니다. 3. 해당 되는 사람은 일어나서 자리를 옮긴다.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서있는 사람이 술래가 된다. 4. 술래는 또 다른 지시문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예) 구두 신은 사람, 아침밥 먹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등등과 같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움직이도록 한다. 모두가 움직이기를 원할 때 '태풍이 불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전개 (40분)	나는 누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임을 알린다. 예) 택시 안에서 종교나 정치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2. 다양한 문제해결 유형(갈등대응 방식)을 소개하고, 사례에 대해 참가자들이 의견을 말하도록 한다. 3. 의견의 대립이나 충돌 시 각 유형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룹별로 토의하고 발표한다. 	
마무리 (10분)	평가 소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금 기분과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2. 마무리 인사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 2차

- 제목: 불통, 고통, 소통
- 학습 목표:
 - 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요소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안다.

- 존중하며 말하고 듣는 방법을 알고 경험한다.

● 표 III-12 성인 교육 2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도입 (10분)	건강박수와 인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석자와 진행자가 둥그렇게 앉는다. 2. 음악에 맞춰 여러 가지 박수치기로 친밀한 분위기를 만든다. 3. 돌아가면서 지난 한 주, 오늘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한 단어로 소개하기(패스 가능) 	경쾌한 음악, 토킹 스틱
전개 (70분)	의사소통의 장애요인 잘 듣는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것'을 예로 들고 소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눈다. 2. 참가자들과 소통과 불통의 경험을 나눈다. 3. '잘 듣는 태도'를 연습한다. 돌씩 짝을 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 잘 듣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고 이야기 주제는 '여름 휴가'로 한다. 듣는 사람은 맞장구 외에 말을 하지 않도록 하여 서로 2분간 듣고 말하도록 한다. 4. 그림을 전달해서 그리도록 한다. 그 결과를 갖고 원래 그림과 전달해서 그린 그림이 차이가 난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고 의사소통 필터를 설명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잘 듣는 방법으로 '질문하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달을 따온 광대 이야기'를 예시로 든다. 2. 114 안내원의 이야기로 바꿔말하기의 효과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시문을 갖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연습을 한다. 3.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한다. 	
마무리 (10분)	평가 소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금 기분과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2. 마무리 인사 	

I
II
III
IV
V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 3차

- 제목: 고정관념과 편견
- 학습 목표:
 -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 서로 나눈다.
 - 고정관념이 편견으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본다.
 - 편견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나눈다.
 - 고정관념과 편견이 조직생활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

● 표 III-13 성인 교육 3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도입 (20분)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행자가 일주일 동안의 안부를 짚막하게 묻는다. 2. '다른 사람과 공통점 찾아 삼만리'라는 활동을 소개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한다. 나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가서 서세요. 단, 서로 말하지 않고 서시면 됩니다."라는 설명을 한 뒤 1분 동안 시간을 준 뒤, 자리가 잡히면 사람들에게 왜 옆에 섰는지 물어본다. 3. '느낌 가는 대로'- "지금부터 진행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어깨에 손을 짚어 주세요."라고 말한 뒤 지시문을 알려준다. 지시문에 따라 움직여 사람들의 어깨에 손을 짚고 나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도입 (20분)	활동	<p>(지시문)</p> <p>①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 했을 것 같은 사람은? ② 이성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사람은? ③ 돈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은? ④ 잘 사줄 것 같은 사람은? 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은?</p> <p>4.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나 고정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 내가 가진 고정관념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p>	
전개 (60분)	역지사지	<p>1. 번신평타리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등에 어떤 단어를 부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보고, 해당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나의 등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 추측해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의 등에 단어를 부착하도록 한다. 빌딩 수위, 기관장, 민원인, 안내데스크 직원, 업무 담당 공무원, 기자, 탈북단체 대표, 국회의원, 의사, 동성애자, 목사, 하나센터 탈북지원 담당, 영화배우, 외국인 노동자</p> <p>2. 활동을 마친 뒤 자신의 등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면 어떤 행동을 해서 모르겠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p> <p>3. 두 그룹으로 만들어 한 집단에게는 남자, 여자, 또 다른 집단에게는 남한 사람, 북한 사람에 대해 ‘...해야 한다’ 혹은 ‘...답다’, ‘그렇더라’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 보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는지 그룹원과 의논해서 적어보도록 한다.</p>	<p>직업을 적은 스티커, 전지, 보드마커, 크레파스, 칠판,</p>

I
 II
 III
 IV
 V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전개 (60분)	역지사지	<p>4. 그룹 발표를 들은 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그러한 편견이 왜 생겼는지, 편견이 있었는데 줄어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본다.</p> <p>5. 우리 조직 안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는지, 있다면 편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정보 없이 생겨 나는 편견은 곧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동성애자는 더럽다’, ‘안산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외국이 노동자가 많아서이다’, ‘토마토 이야기’의 이야기를 편견의 예시로 든다.</p>	
마무리 (10분)	평가 소감	<p>1. 지금 기분과 느낌을 열 글자로 표현하기</p> <p>2. 마무리 인사</p>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 4차

- 제목: 역지사지 - 문제를 중심으로 갈등을 바라보기, 갈등해결의 첫 걸음
- 학습 목표:
 - 갈등 상황에서 각 당사자들 행위의 맥락을 알 수 있는 삼각형 분석 방법을 안다.
 - 각 당사자들 행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
 - 갈등은 중립적이나,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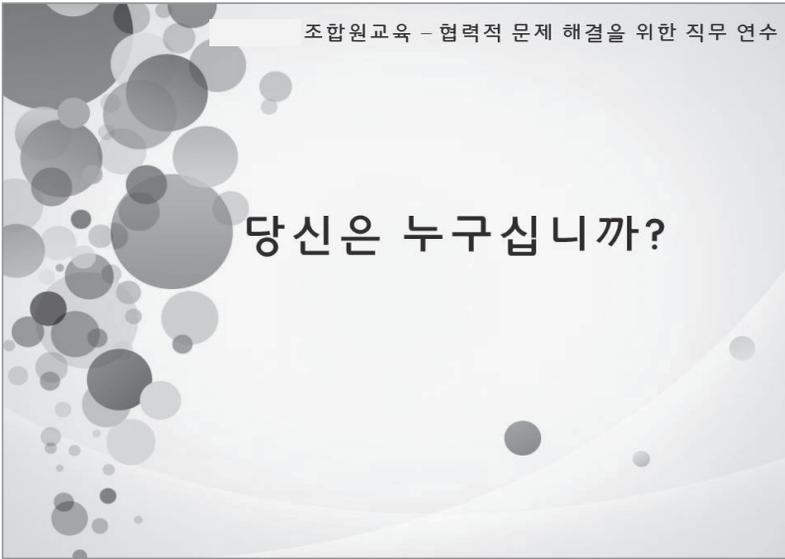
● 표 III-14 성인 교육 4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도입 (20분)	마음 인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가자와 진행자가 원으로 둘러 앉는다. 2. 내가 만일 슈퍼맨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 	토킹 스틱
전개 (90분)	역지사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갈등 상황에서 드러난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상황을 이해했을 때 문제해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예) 등산길에서 어른신을 민 사람의 예를 들어 걸음으로 드러난 행동은 무례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사람의 행위 맥락과 감정 등의 태도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를 통해 갈등상황에서 갈등 상대방의 태도를 타하는 것과 문제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다. 2. 삼각형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3. 시나리오를 갖고 삼각형 분석을 실습한다. 직장 사례로 하며 2그룹으로 나눠서 한다. 4. 분석 결과 발표 - 개입 지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5. 삼각형 분석의 적용 	전지, 보드마커, 시나리오, 철판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해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이와 다름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협력적 문제해결의 핵심임을 이야기하며, 갈등의 특성을 설명한다. 2. 갈등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함께 정리한다. 3.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갈등 원인에 따른 해결을 해야함을 설명한다. 4. 문제해결 과정에서 첫 단계,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갈등해결의 시작임을 설명한다. 	PPT자료
마무리 (20분)	평가 소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2. 설문지 작성 3. 마무리 인사 	설문지

I
II
III
IV
V

(나) 교수자료

■ 1차 수업 PPT-당신은 누구십니까?



기대와 염려, 부탁

상황 1

장을 보러 마트에 왔다.

물건을 고르는 중에 쇼핑 카트를 밀고 가던 사람이 내 엉덩이를 세게 치고 지나갔다.

순간 너무 아파서 '아야'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 카트를 끌고 가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

이럴 때 나는?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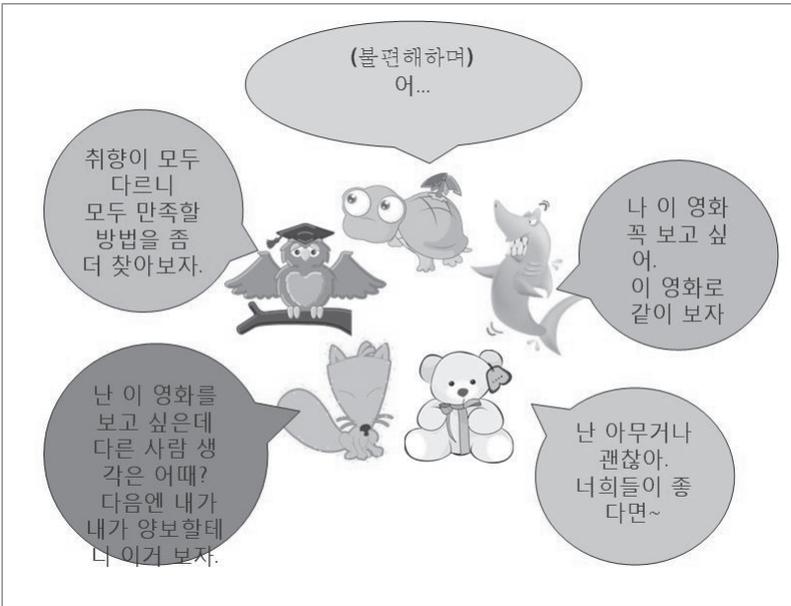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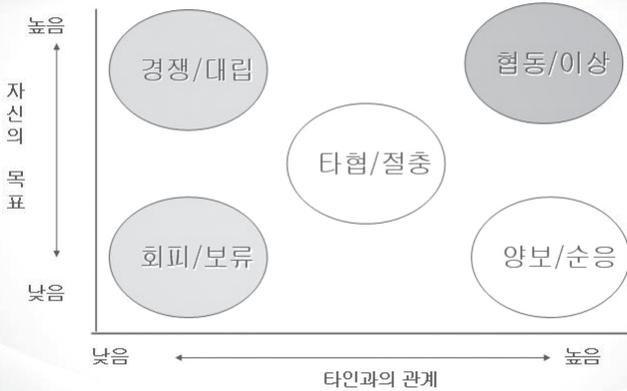
상황 2

부서 회식으로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보고 싶어하는 영화가 모두 달랐다. 독립영화부터 블록버스터까지...

이럴 때 나는?



개인간 갈등대응(해결)의 유형



Kilmann & Thomas

조별 토의

- 각 대응 유형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점과 장애가 되는 점 각 세 가지씩 얘기합니다.
- 해당 유형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동물이나 상징을 소개합니다.

I

II

III

IV

V

경쟁 · 대립형 (Win-Lose)

“내 방식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전 략	비교, 컨트롤, 속이기, 강요, 싸움
선호 유형	회피형, 양보·순응형 / 대화에 조금하고 정보 모으기에 집중
리 더 십 특 징	권위주의자: 불일치를 쉽게 수용하지 못함 현상 유지 : 위기에 쉽게 반응 지위에 따른 권력

협동형 (Win-Win)

“나는 이게 좋은데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전 략	정보모으기, 대안찾기, 마음열고 대화하기, 반대 의견 수용
선호 유형	협력형 또는 타협·절충형 / 정보 모으기에 집중
리 더 십 특 징	과정을 중시하고 대화에 주력 논쟁의 활성화: 변화와 성장에 열려 있음

타협 절충영 (Win some-Lose some)

“네가 어느 정도 양보한다면 나도 어느 정도 양보할께!”	
전 략	협상, 차이를 가르기, 부추기기, 기대를 줄이기, 모두가 조금씩 가져가기
선호 유형	타협·절충형 또는 순응·양보형, 관점의 교환에 관대하지만 불편함이 남아있음
리더십 특 징	조심스럽지만 열려 있음 남에게 똑같이 하기를 강요 않음

외피·보류영 (Lose -Lose)

“갈등? 그런 거 전혀 없어!”	
전 략	피하기, 부정하기, 무시하기, 철회·연기하기, 바라기, 희망하고 기도하기
선호 유형	회피형, / 정보수집이나 대화에 익숙하지 않음
리더십 특 징	수동적, 소심함 : 교화시키려는 경향

I

II

III

IV

V

양보 · 순응형 (Lose - Win)

“네가 원하는 대로!”	
전 락	동의, 설득하기, 과정하기
선호 유형	경쟁·대립형 / 정보 모으거나 대화에 익숙하지 않음
리 더 쉽 특 징	그룹에서 비효과적 : 유약하고 쉽게 동요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 : 걸도는 토론

내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

- 지금 다시 생각하면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결정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지금 기분은?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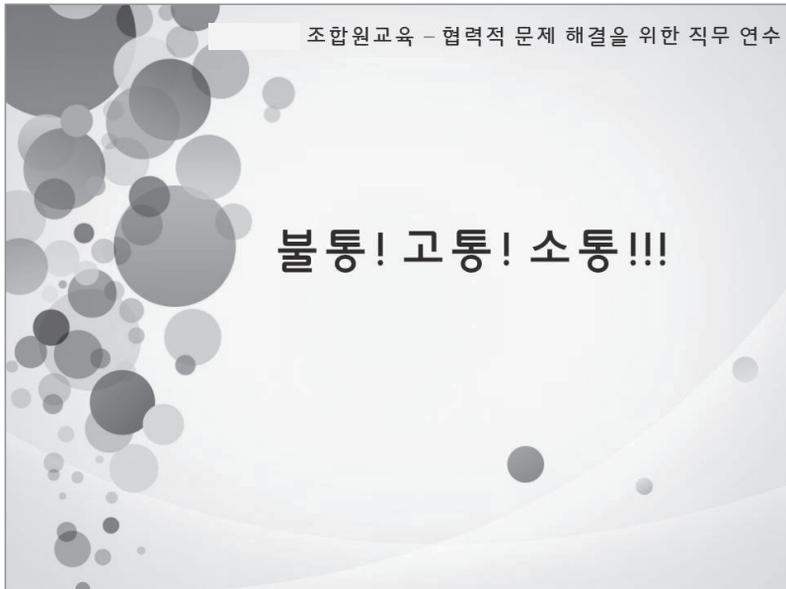
II

III

IV

V

■ 2차 수업 PPT - 불통! 고통! 소통!!!



건강 박수

1. 손바닥 박수

심장과 내장 기능 특히 대장 활동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손등 박수

이 박수는 특히 허리와 목을 강화시키며, 등과 척추 건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주먹 박수

두통과 어깨 부위 통증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4. 손가락 끝 박수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만성 비염, 코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박수입니다.

5. 손목 박수

방광과 전립선, 자궁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목뒤 박수 및 등뒤 박수

어깨 부위의 근육과 옆구리 근육의 피로를 푸는 데 좋습니다. 평소 자세가 좋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 전체가 뻣뻣한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소통·불통 경험 나누기

이럴 때는? 말하지 않고

-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다. 화가 풀리지 않은 채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나는...
(어제 직장동료와 다투고 그 다음날 아침)
- OO에 찾아온 민원인이 “OO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거요!”라고 따져 물을 때
- 로또를 샀는데 10만원 당첨이 됐다. 이럴 때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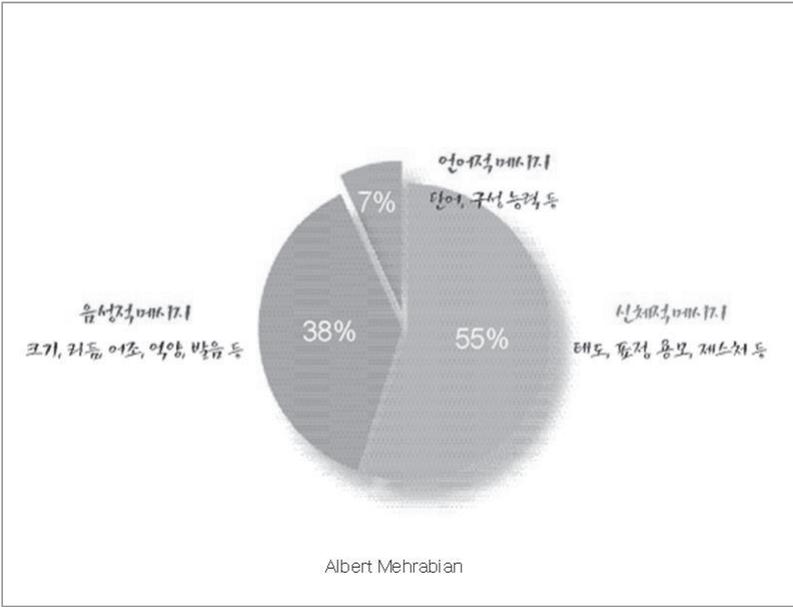
I

II

III

IV

V



이야기 나누기

- 요즘 내 관심사는 ~

꺾속말 전달하기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듭니까?

I

II

III

IV

V

의사소통의 필터



태도
경험
의사소통 스타일
문화적 배경
고정관념
관점
신념
지식
기분
숨은 의도
성별
나이/세대
갈등대응 유형
:



“ 000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상대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었다고
똑같이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대화 합시다!

I

II

III

IV

V

질문하기는

불분명한 대목에 대해
효과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말하는 사람의 진위를 파악하고
명료화 할 수 있다.

사람을 함부로 보고 말이지~

질문의 효과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대화자의 이야기를 한층 명료화할 수 있다.

에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다.

세상과 사물을 보는 관점을 그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질문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너무 많은 질문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바꿔말하기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뜻을
명확하게 들었는지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방법

I

II

III

IV

V

바꾸말하기 방법

- “당신이(네가) 이야기 하는 것은 ~라는 거야?”
- “당신(네) 얘기는 〇〇해서 〇〇하단 말씀이신가요?”
- “제가(내가) 이해하기로는 〇〇〇해서 〇〇〇하단 말씀이신데, 맞는지요?”

바꿔말하기 효과

-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
- 내가 이해한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음
- 상대가 존중 · 인정받는다는 느낌
- 말한 사람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화났을 때 감정을 식히는 역할

114에 전화를 걸면

- 오는데 전철 안에서 젊은 애가 영어책을 보더라구요. 얼마나 부럽던지.
-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 애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군대도 못 간다네. 정말 속상해서 원.

I

II

III

IV

V

듣기는

1. 이야기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며
2. 잘 듣기 ≠ 동의(同意)이다.
3.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한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 의사소통의 장애가 되는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듣기와
- 사람이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말하기가 필요하다.

잘 듣기

- 올 여름 휴가계획~ (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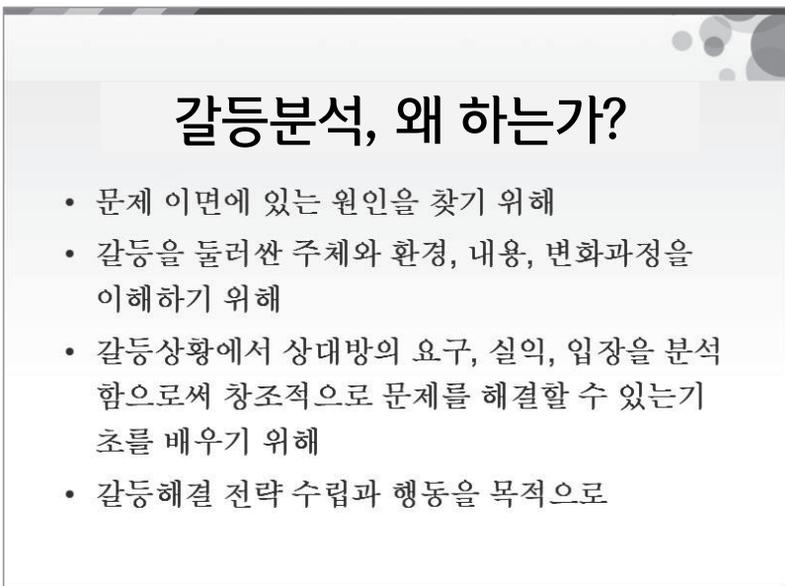
I

II

III

IV

V



갈등분석, 언제 하는가?

- 현안 파악을 위해
- 개입 등 문제해결을 시도할 때
- 문제해결 과정에서
- 문제해결 후

ABC 삼각형기법(The ABC Triangle)

갈등이 태도, 행동, 상황/맥락이라는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면서 각 차원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 기반해서 주요 당사자들 각각의 ABC를 파악하는 분석기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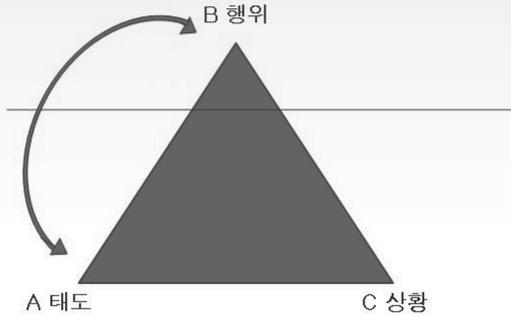
II

III

IV

V

빙산의 일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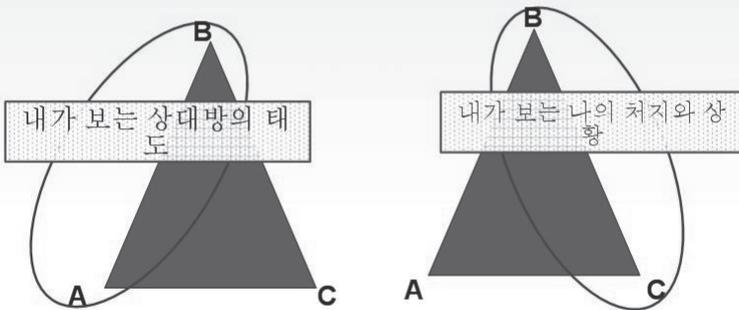
기법 사용시점

- 각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통찰력을 얻고자 할 때
- 이후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개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자 할 때
- ABC 중 한 차원에서의 변화가 다른 차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할 때

기법의 목적

- 주요 당사자들 각자의 ABC 파악
- 각자의 ABC가 갈등 상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각 당사자의 욕구와 두려워하는 것을 ABC와 연관시키기
- 개입지점 파악하기

스캔들과 로맨스에 대하여



I

II

III

IV

V

**‘갈등’이란 말을 들으면
나는 이런 느낌!
떠오르는 상징?**

갈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 자녀, 배우자, 직장동료나 상사 등

갈등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

긍정적/건설적 기능	부정적/파괴적 기능

갈등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

갈등 자체는 중립적

어떻게 다루는가가 관건

I

II

III

IV

V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갈등은 역사적 산물	관 점	갈등은 역사 변동의 원동력
평형상태의 상실과 부조화 등 역기능 강조	기 능	사회통합/발전을 위한 구조적 필연성 등 순기능 강조
갈등은 제도적, 권위적, 강압적 방법으로 해결내지 통제가능	관 리 방 법	갈등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가능
갈등이 없거나 가시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사회	건강한 사 회	갈등이 평화적 건설적 동력으로 전환 되는 제도와 문화가 있는 사회
법과 질서	초 점	절차와 상호작용
“내 말을 안 들어”	태 도	“나랑 의견이 달라”

평화적 갈등분쟁 해결의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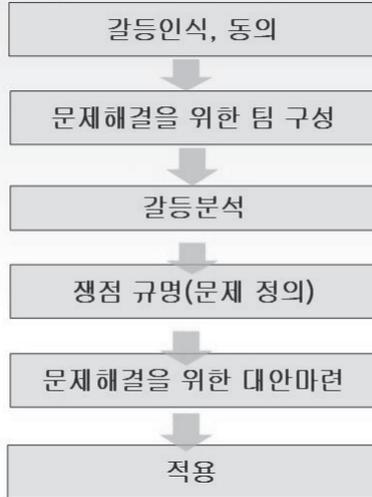
1. 제도적 접근

평화적 갈등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문화적 접근

문제해결이 평화롭게 이뤄질 수 있는
개인, 집단, 사회적 문화의 형성

문제 해결 과정



갈등 해결은

관련 당사자가
상호 만족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자발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갖는 것

(정주진, 한국사회와 갈등해결)

I

II

III

IV

V

■ 사회교육 팀장 사미진 씨 이야기

나는 청소년수련관 사회교육팀 담당으로 들어와 올해 사회교육 팀장이 되었다. 입사한 지 3년 만에 팀장이 된 거라, 조직 내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되어 일은 고되지만 즐겁고 신이 난다.

어제 영어교육 강사가 수강 학생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내게 전했다. 영어 텡스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1년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도 레벨이 오르지 않아 자기보다 서너살 어린 학생들과 수업을 받는데 수업 분위기를 흐리길래 다른 영어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학생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욕까지 했다고 한다. 그 어머니가 영어선생님 더러 이야기가 안 통한다며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니 나더러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학생의 정보를 찾아보니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이로 1년 동안 수업을 무료로 들은 수강생이었다.

무료로 다른 수업을 더 듣기는 어려울 것 같아 찾아보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무료로 수강이 가능한 과목이 있었다. 다행이다 싶어 그 어머니와 면담 약속을 잡으려다 다른 행사가 계속 있어서 정신 없이 보내고 전화할 시간을 놓쳤다. 너무 늦게 전화하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 다음날 전화하려고 마음먹고 퇴근했다.

오늘 출근하자마자 팀장 회의가 있어서 끝내고 자리에 앉아 지훈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사회교육팀장이 누구냐며 큰 소리를 치면서 들어서는 부부가 있었다. 깜작 놀라 쳐다보고 있는데 “나 김지훈 엄만데, 사회교육팀장 나와!”하는 것이었

다. 순간 당황은 했지만 어제 그 학생의 어머니구나 싶어 얼른 가서 인사를 하고 상담실로 모시고 들어갔다.

상담실로 들어가면서도 그 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1년 동안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레벨 통과를 못한 것은 담당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친 것이니, 영어 선생님을 자르고, 지난 1년 동안의 수강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는 것이었다.

수업도 무료로 들었고, 레벨 통과를 못한 건 아이가 수업을 못 따라가서 그런건데 이런 요구를 하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돼, 그건 상식적으로 도가 좀 넘어서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지금 수업은 지훈이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 다른 영어 수업을 듣게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나를 무시하냐며 더 화를 내면서 지훈이가 수업을 옮겨도 그 선생을 다시 만날테고 우리 아이 더 무시할텐데 이런 곳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면서, 앞으로 여기서 수업 들을 생각도 없으니 지난 1년 동안 수업료와 정신적 피해보상과 오늘 여기 오느라 일도 못하고 왔으니 오늘 일당까지 챙겨달라는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면 들어줄 수 없다고 했더니 높은 사람 불러오라며 민원 운운하더니 너랑은 이야기 못하겠다고 막말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우리가 해 줄 것이 없고, 민원을 넣겠다면 넣으라고 큰소리를 쳤다. 큰 소리가 나자 관장님이 오셔서 학생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1년 동안 무료로 들은 수업료를 보상하라는 것이나 다른 수업을 무료로 듣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자신을 ‘무시하냐’며 화를 내는 그 어머니 행동이 이해도 안 되고, 내 능력을 인정해주어 파격적으로 팀장 발령을 내 준 관장님에게도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나에 대해 실망하실 것 같아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 김지훈 학생 어머니 김미자 씨 이야기

어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훈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전화를 했다. 우리 지훈이가 1년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계속 레벨 통과도 못하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과 수업을 하니까 수업에도 재미를 못 느끼고 자꾸 수업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한다며, 지금 수업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영어 수업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1년 동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지훈이를 생각하면 속상하기도 하고, 지훈이가 공부를 못해 통과 못한 거라 처음에는 그냥 듣고 있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훈이가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집중을 안 하고 자꾸 판청을 해서 다른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말을 계속 듣다보니 지훈이가 굉장히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보다 못하고 마치 저능아 취급 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그래서 “당신과는 이야기 못하겠다”고 “수련관 담당자와 통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영어선생님이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담당자 전화를 기다렸다. 전화를 기다리면서 영어 선생님이 추천한 다른 영어 수업을 알아보니 그건 수업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자 걱정이 확 밀려왔다.

앞으로 지훈이 방과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걱정이 앞섰지만, 약 값이 없어 계속 약을 못 먹었더니 머리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 걱정이 많아지자 마음이 불안해져서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아 아무것도 못 먹고 전화만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고 너무 화가 나서 저녁 10시 넘어서 수련관에 전화했더니 ‘업무가 끝났다’는 안내만 나오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영어 선생님 말대로 반을 옮기면 돈이 걱정이고,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를 무시하는 그 선생님이 다시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걱정이 되었다.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엔 전화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전화가 오지 않아 수련관으로 가려고 하자 남편이 내가 걱정된다면서 일을 안 나가고 수련관에 같이 가겠다고 하여 남편이랑 같이 수련관으로 갔다.

수련관에 가서 담당자인 사회교육팀장 만나러 왔다고 하자, 젊은 여자가 나와서 자신이 팀장이라고 상담실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젊은 사람한테 어려운 사정 얘기를 하는 것이 비참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지훈이가 이미 1년 동안 무료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번 얘기하면서, 지훈이는 집에서 따로 영어공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는 말까지 하면서 “집에서 어머니가 봐주시면 좋다”라는 얘기도 했다. 마치 지훈이가 레벨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듯 느껴져서 아이의 상태와 나의 어려운 처지를 의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아이가 무시당할 것 같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그리고 1년 동안이나 지훈이 레벨 통과를 못 시킨 건 선생님 잘못인데, 그걸 지훈이와 나한

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1년 동안 수업 받은 거 허사니 환불해달라고 하고, 무능력한 영어선생도 자르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 다시는 안 보내줬다고 했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울시에도가도 민원을 넣겠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 집은 생활이 매우 어렵다. 남편도 일하다가 다친 뒤 힘든 일은 못하고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일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나도 예전에 강사도 하고 아이들 과외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몸이 약해서 몇 년 동안 일도 못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처지다. 하루 하루를 겨우 버틸 정도로 집안 형편이 매우 안 좋고, 나는 우울증까지 생겨서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아이들 둘 교육은 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련관이나 복지관 등에서 수업료 면제되는 교육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 그리고 거기라도 가지 않으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공부 때문이 아니더라도 보내고 있었다.

큰 소리가 나자 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잠깐 보자고 한다. 내가 몸이 안 좋아진 뒤로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수련관에 가서 한 행동이 마음에 걸린다. 1년 동안 무료로 들은 수강료를 달라고 한 건 무리한 요구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수련관에 보내지 않으면 지훈이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 행동도 있어서 얘기가 잘 될지 걱정이다.

(2) 대학생 교육

(가) 학습지도안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 1강

- 제목: 다양한 문제해결유형에 대한 이해
- 학습 목표:
 - 교육 참가자들이 서로 알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참가자들의 다양한 문제해결 스타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표 III-15 탈북대학생 교육 1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도입 (40분)	자기 소개와 기대나누기 (4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석자와 진행자가 동그렇게 앉는다. 2.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하나, 둘, 셋' 게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둘, 셋을 서로 번갈아 가며 다섯 번 말한다 - 하나에 동물 울음소리를 넣어서 서로 번갈아 가며 5번 한다. - 둘에 동작을 넣어서 서로 번갈아 가며 5번 한다. - 셋에 의성어를 넣어서 서로 번갈아 가며 5번 한다. 3. 돌아가며 자신의 학교와 이름 등 간단하게 자신의 소개를 한다 4.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는 활동 게임을 통해 구성원들의 역동성을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보다 의자를 한 개 적게 놓는다. - 참석자는 동그렇게 둘러앉고 진행자(술래)는 특정한 행동이나 모양에 해당되는 말을 한다. 	인터뷰 활동지, 토킹 스틱

I
II
III
IV
V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도입 (40분)	자기 소개와 기대나누기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는 사람이 “네”하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바꾸고 “아니오” 하면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하고 “운동화 신은 사람을 사랑합니다.”와 같은 답변을 한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사람만 일어나서 자리를 옮긴다. 자리를 옮기지 못하거나 앉지 못하는 사람이 술래가 된다. 술래는 또 다른 지시문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예) 구두 신은 사람, 아침밥 먹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등과 같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움직이도록 한다. 5. 질문을 주어 자신에 대해서 적게 한 뒤 2인 1조로 인터뷰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본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소개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 내가 잘하는 것은? - 가보고 싶은 나라 - 최근에 본 가장 기억나는 영화는? -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6. 교육 과정에 대한 기대와 염려, 상호 필요한 도움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 	
	교육 과정 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행자는 참석자들에게 전체 교육 과정과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질문을 받는다. 	
전개 (50분)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를 3팀으로 나눈다. 2. 조를 나눈 뒤 진행자와 서기를 정한다. 3. 조에서 각자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하나씩 상황을 이야기하게 하고 패스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뒤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4. 서로 이야기를 나눈 뒤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그걸 정리해서 조별로 발표를 하도록 한다.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전개 (50분)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	5. 발표를 듣고 나서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문제해결 유형(갈등대응 방식)과 연결하여 이야기한다. 6. 의견의 충돌 시 문제해결 유형에 따라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에 대하여 그룹별로 토의하고 발표한다. 7. 발표를 듣고 나서 문제해결 유형은 사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선택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며, 장단점을 아는 것이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전지, 칠판, 갈등대응 유형 현수막 갈등대응 유형 설문지
마무리 (10분)	마무리	1. 1차시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고, 느낀 점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2. 점심 식사에 대한 안내 및 주변 산책로 소개를 한다.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 2강

- 제목: 소통과 불통 사이
- 학습 목표:
 -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 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요소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존중하며 잘 듣기 실습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I

II

III

IV

V

● 표 III-16 탈북대학생 교육 2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도입 (10분)	수업열기 (1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심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가볍게 질문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한다. 2. 남녀 간의 의사소통 관련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남녀 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힘든 점은 없었는지, 어떨 때 즐겁게 대화할 수 있었는지 질문을 하고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2차시 수업에 대해서 할 내용을 이야기한다. 	경쾌한 음악, 토킹 스틱
전개 (80분)	불통에서 소통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귓속말 전달하기를 한다 - 조별로 순서를 정하게 하고, 첫 번째 사람이 나와 지시문을 본 뒤 차례대로 귓속말을 전달하고 마지막 사람이 종이에 적게 한다. 2. 종이에 적은 글들을 읽고, 원문을 읽은 다음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생각을 듣는다. 3. 이야기를 할 때 달라지는 요인으로 필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필터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을 물어본다. 4. 참가자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필터에 대해서 설명한다. 5. 딱정하기를 통해 2인 1조가 되어 역할극을 한다. - 한 명은 이야기를 하게 하고, 다른 한 명은 딱정하게 하는 지문과 잘 들어주기 지문을 섞어서 나누어 준 다음,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내용 이야기를 서로 2분간 듣고 말하도록 한다. 6. 활동이 끝난 뒤 소감 나누기를 한다. 언어적 표현만큼 비언어적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고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설명한다. 	활동지, 칠판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전개 (80분)	불통에서 소통으로	<p>7. 잘 듣는 방법으로 확인하며 듣기와 질문하기(열린질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p> <p>8. 대화의 유형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나누어 본다. (연인끼리의 대화로 설정, 활동지 제공)</p> <p>- “나 오늘 머리 했어~~.” ; “너무 예쁘다.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 “응, 예쁘네, 잘했네” ; “나도 머리 잘라야 하는데~” ; “지금 내가 못 알아본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p> <p>9.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예시에 따른 대화를 적어보게 한 후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p> <p>10. 2인 1조를 정하여 잘 듣기 연습을 한다.</p> <p>- 어린 시절 떠오른 기억 - 내가 참 잘한 일 -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p>	활동지, 칠판
마무리 (10분)	마무리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고 쉬는 시간을 안내한다.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 3강

- 제목: 강한 감정 다루기, 고정관념과 편견
- 학습 목표:
 - 강한 감정이 생기는 원인과 그걸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게 한다.
 -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 서로 나눈다.
 - 고정관념이 편견으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본다.
 - 편견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나눈다.

I
II
III
IV
V

- 고정관념과 편견이 일상 생활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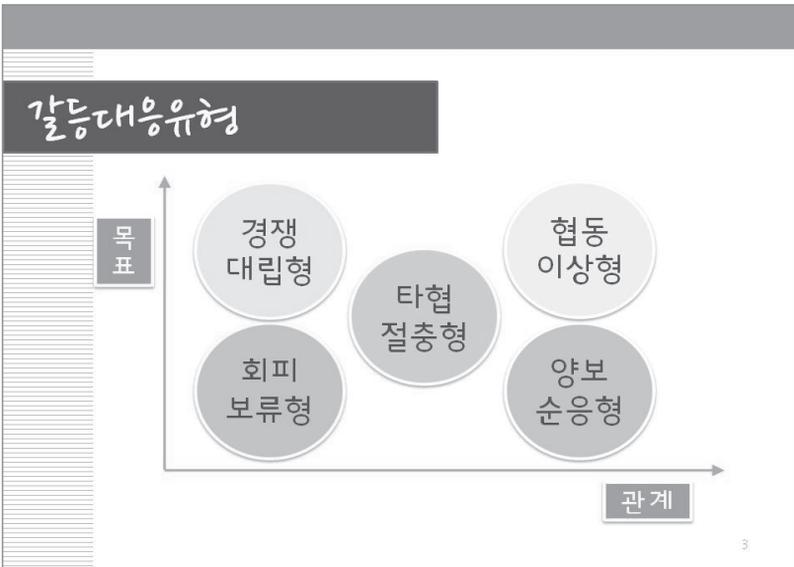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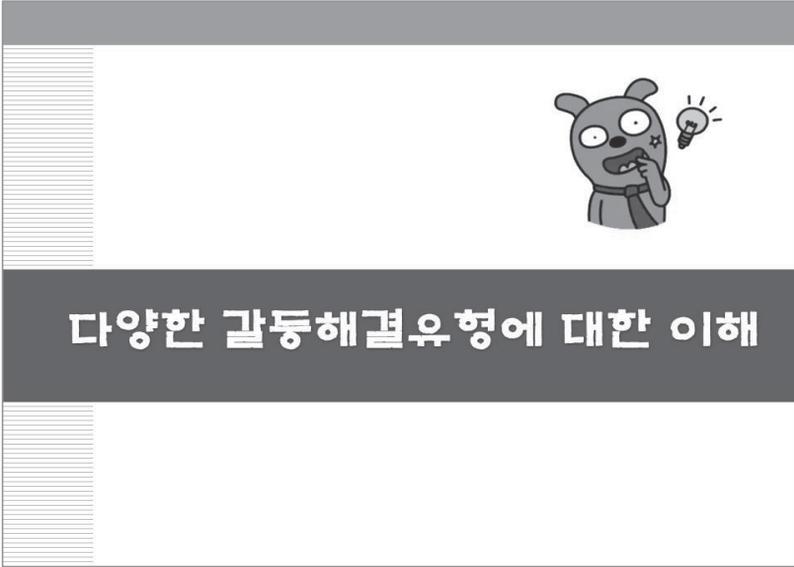
● 표 III-17 탈북대학생 교육 3차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도입 (10분)		1. 재미있는 율동 혹은 건강 체조를 다 같이 하고 시작한다.	
전개 (70분)	강한 감정 다루기 (4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소통을 할 때 감정이 평온할 때와 강한 감정이 생겼을 때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2. 눈을 감고 30초, 다음은 60초, 그 다음은 2분을 세어보게 한 다음, 신체의 각 부위에 힘을 주어 보게 한다, 3. 최근에 강한 감정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고 그 때 신체의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느껴보게 한다. 4. 이렇게 신체반응과 강한 감정은 연결되어 있으며 강한 감정이 생겼을 때 판단력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5. '분노의 솔뚜껑' 활동지를 주고, 강한 감정을 느꼈을 때의 상황을 볼꽃 크기에 맞게 적어보게 한다. 6. 긍정적인 감정 단어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 감정이 생기는 상황을 설명하게 하고, 조원들이 맞추게 한다. 7. 부정적인 감정 단어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 감정이 생기는 상황을 설명하게 하고 조원들이 맞추게 한다. 8. 감정단어 맞추기 활동을 하고 난 후 각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질문하고 몇 사람들의 답을 듣는다. 9. '분노의 솔뚜껑'에 적은 상황을 다시 보면서 내가 왜 분노가 생겼는지에 대해 자신의 욕구를 찾아보고 그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찾아본다. 	활동지, 칠판

단계	활동 제목	진행 과정	준비물
전개 (70분)	강한 감정 다루기 (4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사람마다 강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표현되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11. 강한 감정은 상대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구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정관념이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편견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내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2. 세 그룹으로 만들어 두 가지 주제를 준다. '남자와 여자',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에 대해 '~해야 한다' 혹은 '~답다', '~그렇더라'라고 자신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룹원과 의논해서 적어보도록 한다. 3. 그룹 발표를 들은 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그러한 편견이 왜 생겼는지, 편견이 있었는데 줄어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본다. 4. 일상생활에서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는지, 있다면 편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보 없이 생겨나는 고정관념이란 편견이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성애자는 더럽다', '안산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외국이 노동자가 많아서이다', '토마토 이야기' 등을 편견과 실제 사실과 차이의 사례로 사용한다. 5. 그러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고, 자신의 생활 속의 변화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본다. 	<p>전지, 색채도구, 칠판</p>
마무리 (20분)	평가 소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소감 나누기 2. 평가서 작성 	

(나) 교수 자료

■ 1차 수업 PPT-다양한 문제해결 유형에 대한 이해



갈등대응유형 : 경쟁대립형

- ✓ 자신의 목표가 중요하다: 관계 소홀
- ✓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경쟁적 자세
- ✓ 위급한 상황이나 시험 등을 볼 때

4

갈등대응유형 : 양보순응형

- ✓ 자신의 목표보다는 상대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 자기 주장을 못하거나 안 한다.
- ✓ 중요한 상대의 목표를 받아들일 때

5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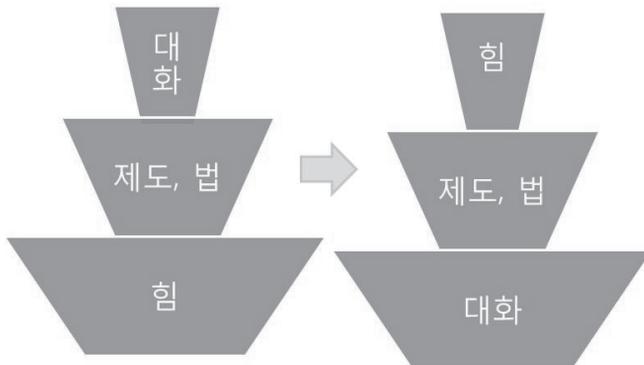
V

갈등대응유형 : 회피보류형

- ✓ 자신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 ✓ 상대와의 관계나 더 큰 갈등이 걱정되어 문제해결을 보류, 연기한다.
- ✓ 중요한 관계가 아닐 때 등

6

◆ 다툼이나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



10

갈등대응유형 : 타협절충형

- ✓ 절충, 타협해서 해결한다.
- ✓ 자신의 목표와 상대와의 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려 한다.
- ✓ 절반만 얻어도 만족스러울 때 등

7

갈등대응유형 : 협동이상형

- ✓ 상대와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Win-Win)
- ✓ 서로의 목표를 상대에게 이해시키면서
목표충족과 효과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한다.
- ✓ 목표와 관계 둘 다 중요할 때

8

I

II

III

IV

V

갈등해결방법은 다양하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해결에 정답은 없지만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 2차 수업 PPT - 소통과 불통사이



소통과 불통 사이

■ 잘 듣고 전달하기

첫 번째 사람이 지문을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해서 다음 사람에게 전함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에게 내용 관련해서 질문할 수 없음
말하는 사람은 두 번 까지 반복 가능
마지막 들은 사람은 자신이 들은 내용을 종이에 적기

13

I

II

III

IV

V

잘 듣고 전달하기

애들아, 너희들 화장실에 조심해서 다녀라.
지민이가 조심하지 않고 가다가 넘어져서
바지를 다 버렸어.
아이들이 오줌 싼다고 놀리니 그만 말도 못하고
울고 있잖아

출처-<선생님, 나 집에 갈래요>(윤태규.보리출판사,2002)

13

의사소통의 필터



15

잘 듣기 연습

1. 2인 1조를 만듭니다.
2. 지시문이 있는 종이를 받으신 뒤, 적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16

비언어적 표현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다.

17

I

II

III

IV

V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내용

시각적인 것
: 얼굴표정, 눈동자의 움직임, 포즈, 몸짓 등

촉각적인 것
: 악수, 등을 두드리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것, 포옹 등

목소리에 의한 것
: 목소리의 음조에 다양한 감정을 실음

그 외
: 시간, 환경 등

19

■ 비언어적인 요소를 신경쓰기

눈 접촉: 상대방에 초점 맞추기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이거나 고개를 끄덕이기

잠자코 앉아 있기, 물건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거나 놀지 않기

관심을 가지고 침묵하기 : 상대방이 응답할 시간을 주기

20

열린 질문하기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에는 개방적이지 못함

열린 질문은 더 길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욱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도움을 줌

의도가 어떠한지 '왜'라는 단어는 갈등을 부풀릴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음. 목소리의 톤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인 요소도 고려

21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길 바라시나요?
이 상황에 대해 뭔가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재미있었습니까?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I

II

III

IV

V

나를 중심으로 한 화법

- ▶ 상대에게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는 인상을 줌
- ▶ 상대에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임
- ▶ 상대는 나의 느낌을 저항 없이 수용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어 협력을 구할 수 있음

너를 중심으로 한 화법

- ▶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쉬워 상호 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음
- ▶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공격한다는 느낌을 줌
- ▶ 상대는 방어적으로 대응하거나 반감을 갖게 되기 쉽고, 저항하게 되기 쉬움

23

확인하며 듣기 연습

- * 두 사람이 짝이 되어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
 - 내가 기억하는 고마운 사람
 - 내가 참 잘한 일
 - 남과 북의 차이 때문에 어려웠던 일
- * 한 사람은 끝까지 듣고 상대가 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확인
 - “... 말씀은 ... 해서 ... 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제가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 말씀은...”

26

1

답이 열려 있어야 소통이다

2

고정된 것은 없다. 대화를 통해 나, 상대의 의견이 바뀔 수 있다

3

들을 땀 듣기만 하고, 말할 땀 내 말(나의 느낌과 바람)만 한다

4

존중을 표현하는 최상의 방법은 '잘 듣기'이다

5

상대의 의도대로 이해하기 위해 확인하며듣기, 질문을 활용한다

27



의사소통은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돌아보는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비폭력적이고 솔직한 표현은
내용전달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28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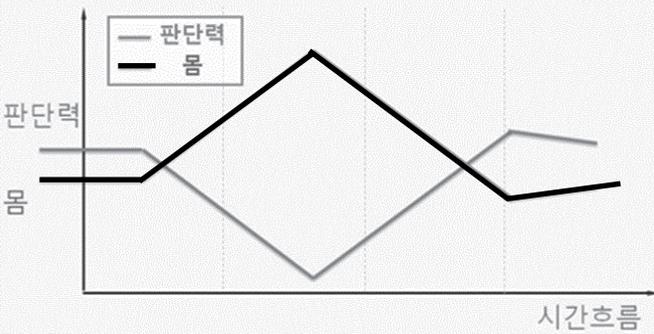
■ 3차 수업 PPT - 강한 감정 다루기, 고정관념과 편견



강한 감정 다루기

◆ 분노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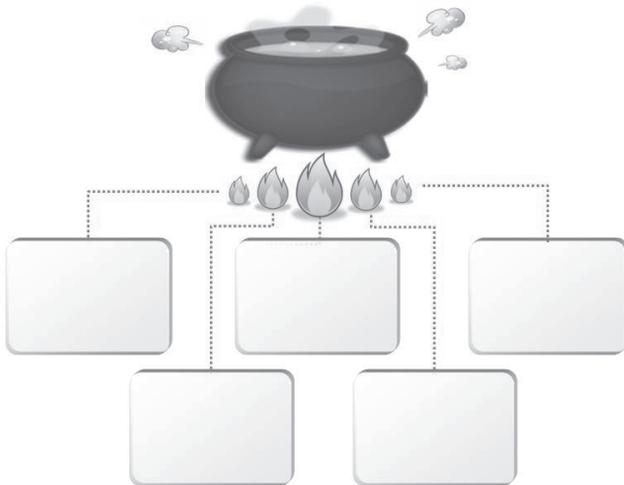
분노가 커질수록 신체와 생각의 상태가 어떻게 바뀔까요?



Making choices About Conflict Security and Peacemaking(ESR)

30

나의 분노 상황은?



32

I

II

III

IV

V



고정관념과 편견

그룹활동

1. “남자와 여자” “북한사람과 남한사람”
2. ~해야 한다 / ~ 답다 / ~ 그렇다더라
자신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구성원들과 의논하여 적어보기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주는
가치가 있다

- ◆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보면서 생기는 견해, 의견
- ✓ 편견의 결과
: 무시, 차별, 집단따돌림, 폭력 등
- ✓ 편견을 줄려면?.

35

I

II

III

IV

V

1강 수업 활동지 / 인터뷰 활동지

♣ 나에 대해 적어 보세요. ♣

나의 이름 :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그 이유는?

2. 내가 잘하는 것은?

3. 가보고 싶은 나라와 그 이유는?

4. 최근에 본 가장 기억나는 영화는?

5.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 인터뷰한 사람을 기사화해보세요. ♣

제가 인터뷰한 사람은 _____ 입니다.

다. 프로그램 실행

(1) 성인 교육

(가) 교육환경

업무 종료 후 수업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교육장소를 직장 내로 결정하고, 모둠식 수업과 게임이나 공동체 놀이가 가능한 규모와 빔프로젝터와 칠판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저녁 식사를 제공해 업무종료 시간과 수업 시간의 공백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교육 시간을 직무연수 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해 참가자들의 교육참여 동기를 높이도록 했다.

(나) 강사 위촉

강사를 위촉할 때 갈등해결 주제에 대한 전문성, 참여식 수업 진행 역량,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였다. 강사는 갈등해결센터 강사진으로 구성하였고, 강의 역량만이 아니라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를 고려해 인터뷰 진행자(연구진)를 강사진으로 우선 확보하고, 강의 역량과 참여식 수업의 특징을 고려해 두 명의 강사가 협력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 교육 홍보

한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별도의 외부 홍보는 필요하지 않았고, 참가자에 대한 홍보와 모집은 교육을 실시한 노동조합에서 맡아서 진행했다.

(라) 세부 운영 일정

표 III-18 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정

구분	내용	일시
사전 준비 과정	프로그램 기획 회의 및 협의/전문가 자문	6, 7, 8월 중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교육 수요 조사 인터뷰(7명)	5, 6, 7월 중
	북한이탈주민 이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연구자 토의	5, 6, 7월 중
프로그램 진행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합원교육' 4회 실시	7월 10일 ~ 8월 13일
사후평가	프로그램 평가회 참가자 심층 인터뷰(2인)	9, 10월 중

(2) 대학생 교육

(가) 교육환경

모둠식 수업과 친화놀이가 가능한 규모, 종일 수업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 환경적 요소와 각지에서 오는 참가자들이 접근성이 좋은 시내 중심가로 장소(서울 유스호스텔)를 선택했다.

(나) 강사 위촉

강사를 위촉할 때 갈등해결 주제에 대한 전문성, 참여식 수업 진행 역량, 교육 대상에 이해를 고려하였다. 강사는 갈등해결센터 강사진으로 구성하였고, 강의 역량만이 아니라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를 우선 고려해 인터뷰 진행자(연구진)를 강사진으로 우선 확보하고, 강의 역량과 참여식 수업의 특징을 고려해 두 명의 강사가 협력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 교육 홍보

참가자 모집이 쉽지 않아 연구진의 개인적 인맥으로 모집한 것이라 별도의 외부 홍보를 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학교의 동아리 내에 홍보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였다.

(라) 세부 운영 일정

● 표 III-19 탈북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정

구분	내용	일시
사전 준비 과정	탈북대학생 프로그램 기획 회의 및 전문가 자문	9월 중
	교육 홍보 및 교육생 모집	9월 초 중순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교육 수요 조사 인터뷰(3명)	9월 중
프로그램 진행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1강: 다양한 갈등해결 유형에 대한 이해 2강: 소통과 불통 3강: 강한 감정 다루기와 고정관념과 편견	10월 4일 10시 ~ 17시
사후평가	프로그램 평가회 참가자 심층 인터뷰(4인)	10월 중

(3) 교육 사진

(가) 성인 교육



갈등분석 발표하는 참가자

(나) 대학생 교육



자기소개와 인터뷰 게임

5. 프로그램 평가

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가

(1) 목적 타당성

성인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모두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성인대상 교육을 진행하면서 유의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러 활동-갈등대응 양식, 의사소통 방식, 고정관념과 편견-을 통해 남북한의 차이는 그런 여러 종류의 차이 중 하나라고 인식하도록 하였다. “갈등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응답자들의 반응으로 봐서 의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 탓을 했었는데, 소통할 때 서로 차이가 있어서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 민원인이나 주변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었다(교육 참가 북한이탈주민 A).

그동안 왜 갈등이 생겼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하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갈등에 대해 부정적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갈등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게 되어 피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대학생 D).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기간이 여름 휴가철이라 처음 계획과 달리 교육 횟수를 줄이게 되어 당초 설정했던 목표인 직장 내에서 갈등 사례에 적용해보는 구체적 현장 적용의 경험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다. 교육 수요 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이야기한 갈등 사례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 후에는 자

신의 직장 사례를 다뤄봤으면 좋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평가는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실제 갈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교육 수요 조사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원하는 바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나누기’ 바라는 것이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 상호이해에 도움이 되고, 갈등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해결에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당초 설계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본다.

(2) 기획·설계 적절성

대학생들이 보인 첫 반응은 “왜 우리(탈북대학생)만이나?”는 것이었다. ‘우리를 갈등이 있는 사람들로 보는가?’라는 문제의식을 표현하기도 했다. 대학생들의 요구는 남한 대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이야기와 처지를 이해받기 원하는 것이었다. 대화의 대상이 ‘남한 대학생’이었던 것이다.

평상시 학교에서 남한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피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 남북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른다. 서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다르다. 나는 북한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데 남한 친구들은 고향도 묻지 않는다. 남한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대학생 A).

현실에서 사용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가능할 것 같은데 남한 친구들과는 깊은 이야기가 어렵다(대학생 B).

성인 교육 참가자들은-특히 북한이탈주민은-이미 남한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로써 갈등이야 항상 있지만,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해를 받아야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았다.⁸² 이들은 동료들과 좋은 관계, 협력적 관계를 필요로 하였다.

그동안은 ○○ 사람들을 사적인 관계가 없이 일적으로만 만났었다. 말 한마디에 평가하는 분위기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사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참여했다(교육 참가 북한이탈주민 A).

따라서 갈등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프로세스보다는 각자에게 갈등해결의 관점이나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 적절했다고 한다면,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살아가야할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필요성이 컸다. 이해받기 원하는 것이었고, 이 대상이 현재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이후 사회에 함께 진출할 대학생들이었다. 직장인 사이의 공식적 관계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 그룹이 형성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소속감과 연결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인 참가자들은 '갈등'은 있지만, '갈등'이라는 말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반면, 대학생들은 '갈등'의 소지가 될 이슈를 다루기 원했다. 예를 들면 북한 사회에 대해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싶고, 이를 대화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⁸²-물론 성인 교육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에 다닌다는 점에서 이들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교육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북한출신 교육참가자는 “해당 조직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일반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으로 일반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탈북한 시점도 오래되었고, 대부분 젊은 대졸자라는 특성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을지라도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교류의 욕구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육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운영의 문제점

성인 교육의 경우 교육 시점이 휴가철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교육 시거나 기간을 결정해야 했는데, 휴가기간에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계획을 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직장 교육은 기본적으로 해당 직장의 변수에 좌우되므로, 해당 조직의 상황이나 실정을 감안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겠다.

대학생의 경우 교육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서 결과적으로 탈북대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교육을 시작할 때 그리고 사후 평가에서 학생들은 탈북대학생만으로 참가자가 구성된 것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 교육의 목표가 ‘남북한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토론할 것을 기대하고 온 참가자도 있어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른 교육이 진행되는 것에 혼란스러워했다.

- 남북학생들이 함께 만나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인줄 알았다(대학생 A).
-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함께) 하는 게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대학생 C).
- 남북학생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자리라고 알고 갔다(대학생 B).

모집과 홍보 과정에서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다.

나. 학습자 반응평가

(1) 성인 교육

(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종료 후 참가자들에게 교육시간의 적절성, 진행 만족도, 활용성, 내용의 적절성 등의 내용으로 평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수업에 참가한 열 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 표 III-20 성인 교육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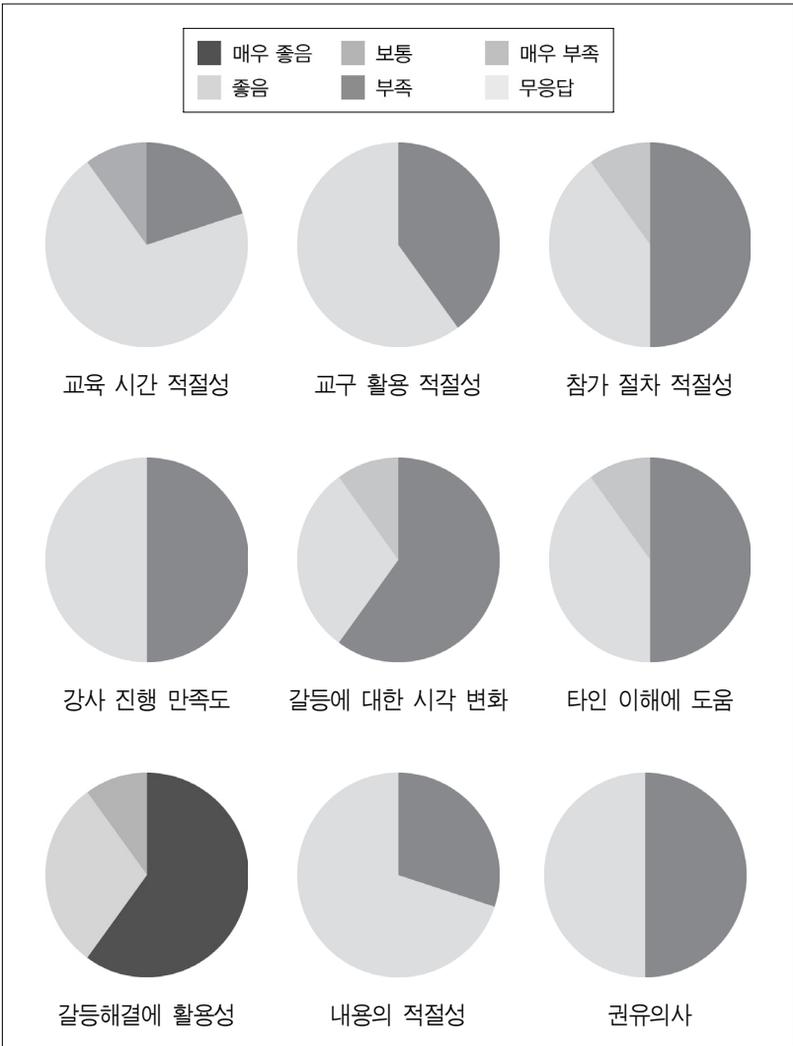
설문	응답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부족	매우 부족	총 응답 수	5점 척도 환산 평균
교육 시간 적절성 ⁸³	2	7	0	1	0	10	4.0	
교구 활용 적절성	4	6	0	0	0	10	4.4	
참가 절차 적절성	5	4	1	0	0	10	4.4	
강사 진행 만족도	5	5	0	0	0	10	4.5	
갈등에 대한 시각 변화	6	3	1	0	0	10	4.5	
타인 이해에 도움	5	4	1	0	0	10	4.4	
갈등해결에 활용성	6	3	1	0	0	10	4.5	
내용의 적절성	3	7	0	0	0	10	4.3	
권유 의사	5	5	0	0	0	10	4.5	

⁸³-수업차수가 축소되면서 마지막 수업은 90분에서 30분을 늘려 120분으로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90%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나와 문화적 배경과 성장환경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90%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9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이 프로그램이 갈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10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인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시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10%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교육 진행 중에 교육 일정이 변경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값은 대부분 4.3~4.5 사이의 분포를 보여,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시간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교육이 일과 후에 이루어졌고 교육 기간이 휴가철과 겹치면서 교육 일정에 조정이 불가피했던 점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그림 III-4 성인 교육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으로 “서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충분해서 좋았다”, “직원 간 그리고 조직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었다”, “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시간이었다”, “보조강사들의 참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해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갈등문제는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해야 한다”, “강의 수준과 실천 학습법을 조금 바꾸어서 진행하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교육 후 개별 인터뷰에서 북한 출신 참가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강렬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에 익숙한데 반해 이 프로그램은 잔잔하다”, “문화적 배경이 달라 미세한 감정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양쪽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좋았다고 했다. 일반적인 교육으로서 만족도는 높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번 조합원 교육에 참가했던 기관의 교육 기획자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체에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남북한의 특성을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주입식 교육을 병행해야한다”고 했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성인 교육 참가자 프로그램 평가용 설문지]

설문지

과 정 명 :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함원교육

교육 기간 : 2014년 7월 10일 ~ 8월 13일

※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부합되는 답란에 표시해주시시오.

설문	응답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1. 교육 횟수(4회)와 시간(90분)이 적절하였다.						
2. 교육기자재와 교구가 잘 갖춰졌고,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3. 참가 절차 및 안내가 적절하였다.						
4. 강사는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5.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						
6. 이 프로그램은 나와 문화적 배경과 성장환경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7. 이 프로그램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8.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하였다.						
9.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10. 이 교육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11.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해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1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2 도움이 안 된다면 보완할 점은 무엇입니까?

(2) 대학생

(가) 기입식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종료 후 참가자들에게 교육시간의 적절성, 진행 만족도, 활용성, 내용의 적절성 등의 내용으로 평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5명의 참석자 전원이 응답하였다.

● 표 III-21 탈북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설문 \ 응답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부족	매우 부족	무응답	총 응답수	5점 척도 환산 평균
교육 시간 적절성	4	6	5	0	0	0	15	3.9
교구 활용 적절성	5	9	1	0	0	0	15	4.3
참가 절차 적절성	4	10	1	0	0	0	15	4.2
강사 진행 만족도	8	7	0	0	0	0	15	4.5
갈등에 대한 시각 변화	8	5	2	0	0	0	15	4.4
타인 이해에 도움	5	7	3	0	0	0	15	4.1
갈등해결에 활용성	7	4	3	0	0	1	15	4.3
내용의 적절성	4	10	1	0	0	0	15	4.2
권유 의사	7	5	3	0	0	0	1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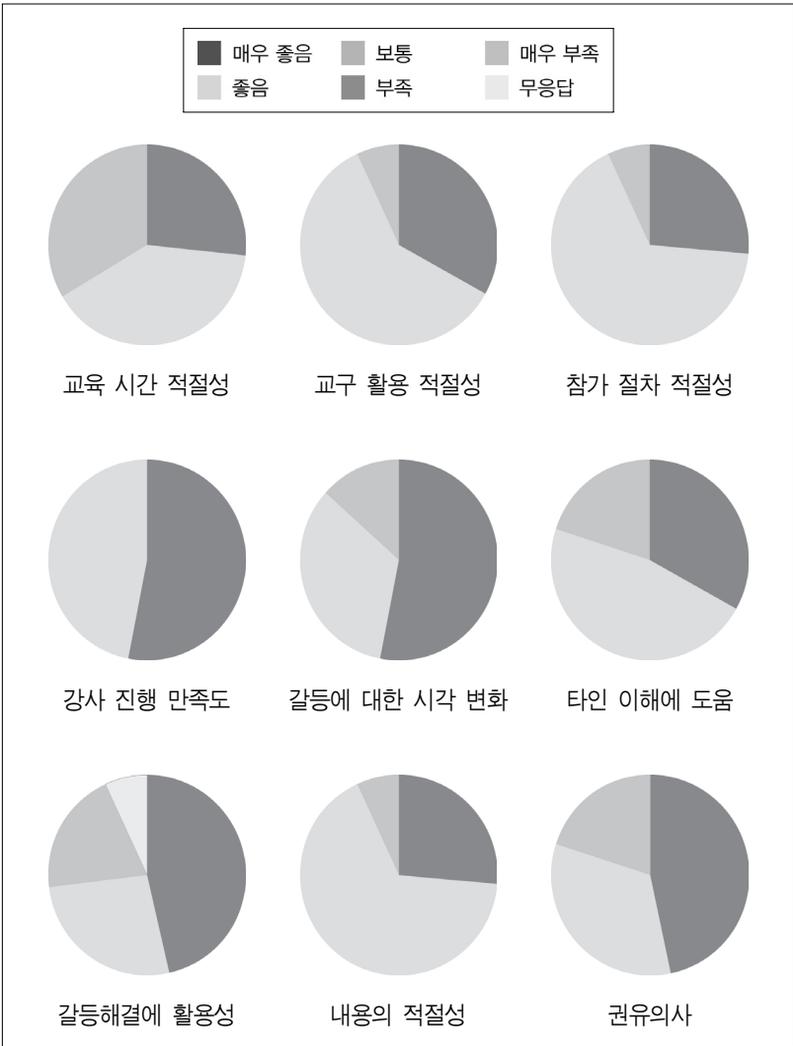
I
II
III
IV
V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8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나와 문화적 배경과 성장환경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8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이 프로그램이 갈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7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93%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의 내용에 만족하지만, 실제 갈등상황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갈등해결교육이 긴 시간 체험을 통해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8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인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값은 대부분 4.1~4.5 사이의 분포를 보여,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시간의 적절성이 3.9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보통'보다는 높은 만족도이지만, 하루에 몰아서 교육을 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그림 Ⅲ-5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시간이었다”, “갈등이 자신의 욕구 때문에 일어나고 갈등

I
II
III
IV
V

을 해소하려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청소년, 특히 예민한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어 좋았다”, “그동안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응답했다.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해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남북한 분열은 서로가 실재를 모르고 매스컴에 의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것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차이도 있지만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이 더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누구나 마음속의 힘든 상황이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나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주민들 다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충분히 도움이 되고, 남북한 주민들이 같이 참가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북한 청년들만 있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들이 겪었던 갈등을 직접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 교육 참가자 프로그램 평가용 설문지]

설문지

과 정 명: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교육

교육 기간: 2014년 10월 4일 10:00~17:00

※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부합되는 답란에 표시해주시시오.

설문	응답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1. 교육 시간(6시간)이 적절하였다.						
2. 교육기자재와 교구가 잘 갖춰졌고,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3. 참가 절차 및 안내가 적절하였다.						
4. 강사는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5.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						
6. 이 프로그램은 나와 문화적 배경과 성장환경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7. 이 프로그램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8.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하였다.						
9.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10. 이 교육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11.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해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1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2 도움이 안 된다면 보완할 점은 무엇입니까?

I
II
III
IV
V

다. 향후 개선 방향

(1)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안정성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바로 집단의 논리로 비약하거나, 문제해결을 피함으로써 관계의 거리를 두는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문제해결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신뢰를 형성하며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과 문제해결/갈등해결 역량을 갖추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갈등해결교육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신뢰 형성, 갈등해결 역량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갈등해결교육은 '삶의 태도'이자 '삶의 기술'과 관련된 교육이다. 이것을 단시간에 갖추는 것은 어렵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안정적인 교육이 가능해야 삶의 태도를 갖추고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대상의 다양화와 목표에 따른 참가자의 구성

성인 교육에서는 12명 참석자 가운데 3명이 북한이탈주민이었고, 대학생 교육은 15명 전원이 탈북대학생이었다. 성인 교육은 직장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수적 비율이 중요하지 않았으나, 대학생들은 탈북대학생이라는 정체성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다 보니 이 비율이 중요하였다. 특히 갈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데, 탈북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감-북한이탈주민을 문제있는, 혹은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향후 교육참가자 구성은 참가자 그룹이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와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따라 세심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갈등해결 역량을 갖추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조금 더 일찍 이런 교육을 접한다면 더 많은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 역량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 현장 갈등해결 사례의 연결

교육 수요 조사 결과 ‘갈등’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분석되어, 실제 교육에서 남북 문제가 아닌 다른 갈등사례를 들거나 예둘러 접근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실제 사례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갈등사례를 다루면서 문제해결 경험을 갖고 싶어했다.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해결 경험까지 갖추면서 갈등해결이 실제 삶의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진전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성인 교육이 끝나고 인터뷰를 했던 참가자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즉 교육 참가자들이 역량을 갖춘 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로 연결되면 더 효과성이 높겠다고 지적했다. 이 점은 교육 참가자들의 요구와도 일치하는 점이어서 갈등해결교육이 구체적 문제해결 프로세스와 연결된다면 학습의 효과도 더 클 것이다.

IV.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의 정의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 한국 사회의 큰 변화는 기존의 통일교육의 방향,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통일교육을 시도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른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통일교육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본 교육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미시적인 교육적 노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선행 연구 등을 통해 검토한다.

가.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

(1) 한국 사회의 이주민의 증가와 ‘민족주의’ 담론의 도전

통일은 그동안 분단된 민족공동체의 회복이자 민족의 숙원사업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탈냉전·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난 15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이주하면서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만들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인 15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 구성의 3% 정도를 차지한다.⁸⁴ 이 중 결혼이주민은 2013년 현재 약 23만 명으로, 이들이 형성하는 다문화가족은 75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⁸⁵ 결혼이주자와 그들의 가

⁸⁴ 『연합뉴스』, 2013년 6월 9일.

족은 한국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통일한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주체로 포함되면서 더 이상 통일을 한민족만의 문제로 논의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한편 2006년 정부가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공식화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국가적 정체성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누가 한국인이고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기존의 민족 담론을 재정의하는 논의까지 다양한 논쟁점이 제기되고 있다.⁸⁶ 이제 통일의 주체가 누구인가, 통일한국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통일을 이루는 동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수정에 따르면, 탈냉전·글로벌 시대의 전 지구적 차원의 이주는 우리로 하여금 거주지, 국적, 귀속감이 일치해야 하는 기존의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동일한 국적, 단일한 국민 정체성, 배타적 시민권, 영토에 대한 포괄적 통치권’으로 정의되는 근대 민족국가의 동질성 가정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게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도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귀환동포, 북한출신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분단과 통일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로 논의되었는데, 사회가 다문화화됨으로써 민족주의적 관점과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충돌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양자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하고 고찰한다.⁸⁷

85- 『여성가족부』, 2013년 7월 5일.

86- 이수정, “다문화주의가 통일에 말걸기,”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10호 (2011) 참조.

87- 위의 글 참조.

(2) 새로운 청년 세대의 등장

한편 통일을 이루어내고, 통일 이후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청소년 세대의 변화도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권영승과 이수정은 ‘N세대(Net-Generation)’⁸⁸라고 불리는 청년세대의 통일의식을 대학생 인터뷰를 통해 드러내면서, 이들은 상당부분 기존의 통일당위성에서 벗어나 있고, 민족적 감정이 아닌 통일 이후에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득실, 그리고 한반도의 발전 가능성 등 현실적인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 여부를 사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통일을 ‘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이들이 소원하는 것은 “통일로 인한 한반도의 발전”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통일이 될 경우 국가에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통일은 귀찮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들은 실리적이고 구체적이며 대의명분을 위해 자신의 삶이 재편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

오늘날 대학생으로 대표되는 청년세대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통찰적으로 분석한 일련의 저서가 최근 출간되었다. 엄기호는 우리사회를 ‘단속사회’라고 명명하면서 단속사회를 사는 청년들의 특징을 기술한

⁸⁸ N세대는 어릴 적부터 컴퓨터와 함께 자랐고, 따라서 전 지구적 네트워크 환경에 익숙한 세대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민주화, 사회적으로 개방화가 추진된 시기에 성장하여 다원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었던 세대이다. 이들은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세계적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경제위기로 초경쟁/저성장 시대의 어려움을 겪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이며 현실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국가나 사회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다. 권영승 외,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의식,”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권 2호 (2011), p. 3.

다. 먼저 ‘단속(斷續)’이란, ‘같고 비슷한 것에는 끊임없이 접속’해 있지만 ‘타인의 고통같이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것은 철저히 차단하고 외면하며 이에 개입하지 않으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단속(斷束)’하여 ‘타자와의 관계는 차단하며 동일성에만 머무르며 자기 삶의 연속성조차 끊어버리’게 만든다. SNS 소통의 과도한 몰입, 취향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을 특징으로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타자로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다. 결국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은 ‘동일성에 대한 과잉 접속’과 ‘타자성에 대한 과잉단속’으로 양극화됐다. 엄기호는, 결국 나와 같은 ‘편’만 남고 내 ‘곁’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⁸⁹ 오찬호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저서에서, 우리 시대 20대 청년들이 무한경쟁 시대에 자기계발 논리에 포박되어 경쟁의 위계적 구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재생산하는지, 스스로 피해자이면서도 어떻게 경쟁의 패자에게 가해자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길 원하는 것에 대한 분노, 지방대와 상위권대 학생들 간의 학교 서열과 학교 등급, 학과 등급을 수용하고, 정시생과 수시생, (사회적 배려)특별전형을 구분 짓는 등 단계의 차이를 과장하고 벽을 쌓는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사회의 불평등을 은폐하는 편견을 따르고 재생산하면서, 주어진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⁹⁰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우석훈은 20대에 대한 이러한 우울한 모습은 근본적으로 20대가 만나는 세상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승자독식 초경쟁사회에서 비정규직 저임금

⁸⁹- 엄기호, 『단속사회』 (파주: 창비, 2014) 참조.

⁹⁰-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고양: 개마고원, 2013) 참조.

노동자가 양산되는 우울한 시대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20대가 88만원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플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라고 도발적인 조언을 한다.⁹¹ 그에 비해 엄기호의 제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질성에 기초한 ‘편’을 넘어서, 타자성을 특징으로 하는 ‘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는 ‘우정’어린 참조그룹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안한다. 우정은 삶에 실제적인 조언과 충고를 주는 관계이고, 그 관계의 망은 내게 참조그룹이 된다. 참조그룹은 ‘같음/동일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름/타자성’에 기초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와 다른 관점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나보다 앞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조언과 충고를 해 줄 수 있다. 그는 ‘경청’을 통해 우정을 만들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타자의 말을 끝까지 귀 기울이며 들음으로써 우리는 자신도 모르던 자신의 삶, 즉 자기 삶에 내재되어 있는 타자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타자성을 깨달음으로써 나와 그 타자성을 공유한 사람은 공통의 운명이 된다는 것이다. 결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이다. 결의 회복은 우리가 타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타자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통의 운명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엄기호의 주장은 통일교육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통일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밖, 이야기 밖에 추상적으로, 당위로서 존재하는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타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⁹¹ 우석훈, 『88만원 세대』 (서울: 레디앙미디어, 2007) 참조.

보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경청하는 것이 갖는 교육적 가치는 크다. 그것은 ‘통일’이나 ‘민족공동체’, ‘사회정의’ 같은 거대 담론에 무관심한 청년들이 자기계발과 경쟁 논리에 포박되지 않으면서도 타자를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면서 자기 삶에서부터 관계를 회복해나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나. 새로운 모색: 통일교육에 다문화교육의 도입

(1)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가능성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갈등할 수 있는 개념이다. 민족주의가 한 민족 내부의 동질성, 유사성, 공통의 역사문화적 경험에 주목하고 이 공통성을 사회통합과 발전의 동력으로 본다면, 다문화주의는 이질성, 타자성에 주목하고 낯설고 때로는 불편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추구한다. 한 사회가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동시에 이념으로 제시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민족주의의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의 경우 2006년도에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는 하였지만, 양자간의 긴장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공식적인 영역에서 충돌하는 장은 교육의 영역이다. 교육부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래의 단일민족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재검토하면서, 기존교과서에서 ‘한 민족, 한 핏줄, 한 겨레’ 등의 표현을 삭제하였다.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족주의 관련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에는 기존의 단일민족주의 기초의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다문화주의의 원리와 상호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는 관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⁹² 그러

나 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는 여전히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기도 한다.

양영자는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두 개념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한다. 양영자의 논문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크게 폐쇄적 민족주의, 분단민족주의, 성찰적 민족주의로 나눌 수 있다. ‘폐쇄적 민족주의’는 ‘차별과 편견, 경계와 구분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로서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을 자극하거나 민족정기나 민족자존심이라는 추상적 구호 아래 배타적 민족주의에 머물도록’ 한다. ‘분단 민족주의’는 ‘분단 상황에서 작동하는 민족주의로 남북한의 절대성과 정당화의 기반이자 남북한 통일의 동인과 매개’로서 작동하는 민족주의이다. 이 두 성격의 민족주의는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한국 상황에서 더 이상 통일담론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양영자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찰적 민족주의(Soulsearching Nationalism)’이다. 성찰적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의 긍정적 역할과 성취를 인정하되, 경계와 구분을 완화하여, 민족성에 중심을 두면서도 민족주의를 지배하는 규율이 민족의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를 지향해 가는 민족주의’이다. 예를 들면 재일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한국내 외국인과 이주자에 대한 대우의 반면교사로 삼거나, 일본 등 주변국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통해 한국 교과서의 은닉과 과장된 내용을 수정하는 계기로 삼는 것 등이 성찰적 민족주의의 관점이다. 한편, 다문화주의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국가적 다문화주의(Cosmopolitanism)과 국가적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다. ‘초국가적 다문화주의’

92- 김경은 외,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사회와 교육』, 제51권 1호 (2012) 참조.

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호소하고 인식론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국제이해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는 다른 나라의 문화나 사람들을 강조하지만 정작 일국 내에 존재하는 ‘가까운 이방인’과의 연대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국가적 다문화주의’로 국가 경계 내에서 가까운 이방인과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데 노력하는 것이다. 양영자는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성찰적 민족주의와 국가적 다문화주의의 결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결합을 통해 단일성과 다양성의 ‘정교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 둘은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인데, ‘다양성 없는 단일성은 억압과 헤게모니를 낳으며, 단일성 없는 다양성은 국민국가의 붕괴나 분열을 이끌기 때문’이다.⁹³

단일성을 전제로 하는 민족주의 혹은 민족 정체성이 다양성의 수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보면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양계민은 한민족 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면서, 한민족 정체성을 ‘단일민족 정체성’과 ‘문화민족 정체성’ 두 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단일민족 정체성’은 ‘한국인이 단일민족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의 정도를 나타낸다. 반면 ‘문화민족 정체성’은 ‘한국인이 이룩한 문화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다. ‘자민족중심주의’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다른 집단을 평가하고 해석하며, 자신과 다른 집단은 배척하고 동일한 집단은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다. 한편 ‘다문화수용성’은 ‘소수집단에

⁹³ 양영자,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제25권 3호 (2007) 참조.

대한 종족배제주의,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태도' 항목으로 구성된다. 독립변인인 위의 세요인(단일민족 정체성, 문화민족 정체성, 자문화중심주의)이 종속변인인 다문화수용성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단일민족 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는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문화민족 정체성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양계민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민족 정체성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흔히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으면 민족 정체성에 위협된다고 여기지만, 이 연구는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며,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종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의 경우에는 다른 문화의 수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⁹⁴

민족 정체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국민 정체성이 있다. 김정은과 윤노아는 청소년의 국민 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을 다루면서, 국민 정체성을 로저스 브루베이커(Rogers Brubaker)와 앤서니 스미스(Anthony Smith)의 구분에 따라 '혈통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민족국가(Ethnic Nation)'의 요소와 정치적-법적 측면의 '시민국가(Civic Nation)'의 요소로 구분'하였다. 종족 정체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혈통과 출생지를, 시민 정체성 문항은 전통문화, 언어, 법과 정치제도의 존중, 소속감, 국적, 사회적 기여 등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들은 종족적, 시민적 정체성 요인을 모두 중시하였으나,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민적 정체성의 요소에 해당하는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시민 정체성이 통일의 의미와 열망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⁹⁴ 양계민,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4호 (2009) 참조.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다문화시대의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시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⁹⁵

이상 연구를 볼 때,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그 자체로 대립하기보다는 민족주의의 특정요소가 다문화주의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배타적 민족주의, 단일민족 정체성, 종족 정체성을 강조할 때, 우리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환대와 수용은 어려워진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단일민족, 같은 종족인 북한과의 통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민족주의, 정체성은 구별과 배제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보다는 그동안 형성된 이질성에 대한 배타적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성찰적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는 다문화주의와 결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제 통일논의에는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의 관점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이수정은 통일논의에 다문화주의가 줄 수 있는 함의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통일의 주체는 더 이상 선형적으로 주어진 동질적인 민족주체가 아니라 다중화된 주체가 되었다. 즉, 통일은 ‘다양성’이 만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다. 둘째, 다양한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를 통해서, 통일은 민족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 위에서 구상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과 사회집단의 성찰성과 소통 능력은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의 통합에 필수적이다. 다양성이 주는 기회를 최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찰성과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수정은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새로운 주체들’, ‘개방적

⁹⁵ 김경은 외,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pp. 126~127.

주체들'을 만드는 과정'이고 종래의 폐쇄적 민족주의를 대체하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통일의 새로운 담론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한다.⁹⁶

(2)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연계 시도

'먼저 온 미래'라는 표현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이들과 남한 주민과의 교류 경험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전면적 대면 상황을 미리 체험해보는 연습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를 확대해보면, 나와 다른 문화, 배경, 취향을 지닌 타인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기르는 다문화교육의 경우, 현재를 넘어 통일 후 미래의 시민을 기르는 미래를 대비하는 선행 학습으로 볼 수 있다. 추병완은 한국의 다문화 현실이 학교통일교육에 우선적으로 '내적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북한과의 통합에만 치중하여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상대적으로 우리 안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였다. 통일 후의 한국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국가 정체성과 연대의식을 조장하여 다양성 안의 통일성에 근거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통일한국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학교 통일교육이 '우리 안의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그것은 통일국가 형성 이전에 우리 안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는 훈련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훈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은 구체적인 교육 영역에서 공유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서 '갈등의 평

⁹⁶ 이수정, "다문화주의가 통일에 말걸기" 참조.

화적 해결, 존중과 관용에 근거한 사회통합, 편견과 차별의 극복' 등을 교육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이질적인 집단들이 다양성 존중과 상호주의 원리에 의해 통일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다문화적 사회통합 방식이 통일국가에도 그대로 견지'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⁹⁷

추병완은 다문화교육 접근이 학교통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통일교육의 이념적 기초, 목표, 내용 선정, 방법 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는 먼저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이 갖는 의미 중 하나로 '분단사회에서 습득된 규율을 해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밝힌다. 그것은 너와 나를 가르고,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말하자면 적과 아를 구분하는 사회적 논리에 대해 타자를 인정하는 다문화교육 접근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이념적 기초로서 '열린 민족주의'의 관점을 취할 수 있다. 열린 민족주의란 '다른 민족과의 평등한 공존을 추구하며 여러 민족들과 함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Multicultural Competence)'을 함양시켜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자기성찰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통일교육의 내용으로는 통일교육의 핵심 목표인 다문화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 문화적 다양성, 반편견, 정체성, 평등, 협력, 정의 등과 같은 핵심 가치와 개념들을 통일교육의 조직 개념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접근할 때, 북한이해교육은 '학습자들이 북한 사회의 신발을 신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 생활 방식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⁹⁷- 추병완, "통일교육갈림: 한국통일교육, 다문화 시민 양성 모색해야," 『통일한국』, 제 326호 (2011) 참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방법으로 다문화교육의 공평 교수법(Equity Pedagogy)이 도움이 된다. 공평 교수법은 '다양한 인종, 종족, 문화, 집단 학생들이 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공정하고 인간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의 창조 및 지속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돕는 교수 전략 및 교실 환경'이다.⁹⁸

위에서 언급한 '다문화 역량'과 관련하여, 이향규는 '다문화감수성'을 글로벌시대의 생애 핵심 역량으로 규정한다. '다문화감수성'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 가치, 행동 역량'으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화간 감수성은 '둘 이상의 문화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 경향성'으로 일련의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 단계는 6단계로 구분되는데 처음 3단계는 '자민족중심적 단계'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문화만이 진짜 문화라고 생각하고 문화 차이를 회피하는 '부정(Denial)' 단계, 문화 차이는 구분하나 자신의 문화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방어(Defense)' 단계,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도 경시하고 근본적으로 타자의 문화도 자신의 문화와 같다고 생각하는 '경시(Minimalization)' 단계가 포함된다. 뒤의 세 단계는 자민족중심 관점에서 벗어나서 '민족 상대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단계로, 타문화가 나의 문화와는 다르지만 동등하게 현실을 구성함을 인식하는 '수용(Acceptance)' 단계, 자신의 인식 틀을 바꿔 타문화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적응(Adaptation)' 단계,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감

⁹⁸ 추병완, "학교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타당성," 『도덕윤리교육연구』, 제 29호 (2009), p. 38.

을 어느 한 문화에 정박시키지 않고 ‘건설적 주변성’을 획득하는 ‘통합(Integration)’ 단계이다. 이향규 등은 베넷의 문화간 감수성 모델을 참조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핵심 역량으로 다양성의 인정, 관용, 수용, 공감, 소통, 협력, 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성 등 9개를 선정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스토리텔링과 역할놀이, 체험활동, 디브리핑 방법 등을 사용해서 제시하였다.⁹⁹ 이 연구에서 이러한 방법이 통일교육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방법은 지금까지 논의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충분히 사용할 만한 것이다. 통일이 북한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타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 소통을 전제로 통합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타인에 대한 민감성, 다름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시민 역량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몇 개의 프로그램, 특히 스토리텔링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용 프로그램에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할 것이다.

다.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 방법으로서의 이야기

이 연구에서는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주목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을 주요 교육 활동으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⁹⁹ 이향규 외,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연구보고서』 (2013) 참조.

우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청년세대는 더 이상 민족공동체나 당위로서의 통일과 같은 거대담론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통일이 주는 ‘실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북한을 한국 경제성장에 필요한 도구로 파악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통일교육에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타자를 동등하게 환대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 환대는 그 개인이 가진 고유의 삶과 가치를 존중할 때 가능하다. 진정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시민은 나와 다른 구체적인 타인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앞서 엄기호가 타자의 ‘곁에서’, ‘경청할 것을 강조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고립적인 개인을 넘어서서 타자를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타자성을 확인하여 공통의 운명을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타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적절한 방법이며, 이러한 타자의 이해는 궁극적으로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 정창호는 ‘타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면서, 타자를 없는 존재(무)로 상정했던 플라톤(Platon)이나 통합의 대상으로 본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과 구별하여 ‘대화의 상대방으로서의 타자’를 이야기한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의 철학을 소개한다. 타자는 개념적 수준에서의 추상적 타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현실 속의 타자이다. 짐멜은 이방인을 ‘오늘 와서 내일 떠나는 방랑자’가 아니라 ‘오늘 와서 내일 머무르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타자는 밖으로부터 낯설고 특이한 성질을 가진 채 한 집단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타자는 집단의 외부에 있는 동시에 집단과 대면하고 있는 존재이다. 타자는 ‘동일성과 차이의 양면성을 가진 존재로서 항상 우리에게 대해 마주하고 있으며 그럼으로

I
II
III
IV
V

써 우리 스스로를 타자화 또는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우리와 동등한 실재'이다. 타자와의 공생을 위해 '우리는 우리 곁의 타자와 이웃으로서 무언가를 공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방식의 타자관계는 낯성의 실재성과 타자의 동등성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동시에 자기와 타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정창호는 짐멜의 타자관과 상호문화적 해석학이 다문화교육과 접점되는 지점에 대해 '타자의 낯성 그리고 자기와 타자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의식적으로 느끼고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타자와의 긴장어린 대화, 상호작용, 더 나아가 가능한 한 잠정적인 일치를 추구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 다문화교육을 통해 계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타자와의 대화는 이러한 성찰적 도야를 가능하게 한다.

박승규는 리오타르(Jean Francois Lyotard)를 인용하며, '문화'는 '관계 맺음의 방식이고, 인간이 거기 있음(Being-There)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다문화교육에서 '공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 맺음이 존재하는 곳을 '다문화공간'이라고 부른다. 다문화공간의 교육적인 의미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문화공간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한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문화가 생산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음을 암시한다. 다양한 문화가 갖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무시가 아니라, 그가 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사는지 공감하게 한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관계 맺음의 '과정'에 공감하게 된다. '이는 피상적인 차이와 다름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과 환경과 관계 맺고,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 결과로 나타나는 삶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양식을 갖추어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나갈 수 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와 그들이 생산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질 수 있다. 다문화교육에서 이야기는 ‘삶의 과정’에 대한 공감, ‘감정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¹⁰⁰

김대군도 내러티브와 도덕교육에 대해 탐구하면서 교육에서 이야기를 강조한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일반적인 도덕법칙보다는 개별성과 특수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작은 이야기들 간의 해석과 이해가 소통을 낳는다고 본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로서 ‘선한 삶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내러티브를 통한 의미 찾기는 타자와의 소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타자를 통한 자기이해에 기여한다.¹⁰¹

이야기는 이와 같이 타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통, 자기이해로 나아가는 문이다. 한편 이야기는 보다 적극적인 프락시스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남채봉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참여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방법이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연구, 교육, 실천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활력화(Self-Empowerment)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 PAR은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비판교육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전된 교육이론으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거부하고 이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연구노력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흔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 연구의 ‘대상’으로 존재하면서, 누군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참여실행연구에서는 스스

¹⁰⁰ 박승규, “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 공간의 교육적 의미 탐색,” 『문화·역사·지리』, Vol. 24, No. 2 (2012) 참조.

¹⁰¹ 김대군, “내러티브 도덕교육에 대한 해석학적 탐구,” 『윤리교육연구』, 제21권 (2010) 참조.

로 자신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사회 변화를 도모할 있는 주체(Agents of Social Change)로 인정받는다. 남채봉은 PAR이 다문화교육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다름을 즐기거나 감상하는 것(Celebration of Diversity)이 아니라, 다름과 연결된 사회 불평등이나 문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경청하는 것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은 타자의 삶을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공통의 타자성을 확인함으로써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문화주의’가 모든 다양성의 ‘인정’에 머물러서 공동체의 통합에 실패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야기를 통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타자성을 발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나와는 무관하다’는 식의 단절을 넘어 존재의 연결점을 찾게 된다. 이러한 연결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다.¹⁰²

¹⁰² 연구자들 가운데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의 ‘인정’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집단,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교섭을 강조한 접근인 ‘상호문화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상호주의의 특징으로 ‘타자와의 경계 및 접촉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간섭, 방해, 의존, 침투를 중시’하면서 ‘자신과 타자 사이의 틈새, 그 사이에 작용하는 인식과 전망에 주목’하는 것이다. 박영자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비교하면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어내는 데는 상호문화주의적인 접근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둘을 엄격히 구분하여 상이한 특징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문화주의를 보다 넓게 이해해서, 상호문화주의도 다문화주의의 한 접근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 질은 그동안 민족동질성을 강조해온 통일교육에 다문화 교육의 관점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어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기보다, 상호문화주의에서 강조하는 관점을 다문화주의적 관점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박영자,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상호문화주의’시각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7권 1호 (2012) 참조.

2. 선행사례 분석

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대화문화아카데미의 ‘남북한 삶의 이야기 나누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 한국사무소와 대화문화아카데미는 ‘남북한 주민 삶의 이야기 나누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들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동서포럼(Ost-West Forum)이 1990년대부터 독일 통일 후 동독인과 서독인들 간의 내적 통합을 위해 진행해 온 ‘삶의 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독일 통일 후,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므로 제도적으로만 다시 합쳐 놓으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상이한 체제 속에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동독과 서독 사람들의 삶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동서 간에 갈등은 오히려 깊어졌다. 동서포럼의 ‘삶의 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이질감과 편견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독일의 사례를 모델로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된 ‘남북한 주민 삶의 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은 평범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들이 만나 진솔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것은 한 사람을 그의 구체적 삶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집단적 편견을 극복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I

II

III

IV

V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4~5명과 남한 주민 4~5명이 금요일에 모여 1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점심 경에 모여 식사를 하며 자기소개를 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각각의 참가자들에게는 한 시간이 주어지며 처음 30분 동안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30분 동안은 다른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살아온 배경, 즉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가치관 속에서 성장했는지부터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나간다. 모임을 마친 이후에도 참가자들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며 인연을 이어나간다.

‘남북한 주민 삶의 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은 서로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서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이 모임은 큰 역사 속에서 개개인이 경험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의 ‘한민족 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

사할린 귀환동포, 조선족 동포, 북한이탈주민, 고려인이 구술자로 참가하여 진행된 ‘한민족 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 프로그램은 세계화 시대의 초국적 이주 문제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간의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해결할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 격동의 근현대를 살아온 60~80대의 한민족 이산민들이 삶의 역사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재외한

인 동포들과 남한 주민 간의 이산과 이주로 인한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과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실험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이제껏 쉽게 말하지 못했던 개인의 삶의 경험을 가급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청중들과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의 이야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구술자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남한주민, 사할린 동포, 조선족 동포, 북한이탈주민, 우즈베키스탄) 총 37명의 60~80대 노인들로, 학생과 연구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섯 차례에 걸쳐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민족 구성원 6~8명이 한 곳에 모여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협력적 생애사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단순히 절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삶을 경청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숙박을 하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의 일상을 곁에서 경험함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한민족 이산민들의 삶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를 경청·기록하는 과정에서 구술자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이야기(Story Telling)가 가진 소통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였다고 진술한다. 구술자들은 다양한 지역에 살며 비록 자신의 경험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역사적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며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다른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넘어 타인의 삶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다.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상호문화이해 프로젝트: ‘Conflict Kitchen’

컨플릭 키친(Conflict Kitchen)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수 겸 공예술작가인 존 루빈(Jon Rubin)과 그의 제자이자 활동가인 돈 벨레스키(Dawn Weleski), 그리고 요리사 로버트 사이르(Robert Sayre)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로서,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음식을 미국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미국 피츠버그의 한 테이크아웃 음식점이다. 2010년에 시작하여, 이란,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등 미국이 소위 ‘악의 축’ 혹은 ‘테러지원국’이라 규정한 국가들의 전통요리를 미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국가별 음식메뉴를 바꾸며, 음식 판매 이외에도 여러 행사, 퍼포먼스, 토론회 등을 함께 개최하고 있다.

해당 국가의 사람들과 문화, 예술, 사회, 정치 등의 다양한 소재에 대해 인터뷰하고 얻은 정보를 음식의 포장지에 기록하여, 미국시민들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미국 시민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적대국가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 문화를 소개하여 갈등해결, 상호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중동 지역과 미국 전역에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¹⁰³

특히 컨플릭 키친 팀은 2012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공공미술 단체의 연례 컨퍼런스에서 오찬을 담당했는데, 이때 남한과 북한의 음식을 대접하였다. 북한의 녹두빈대떡과 만두국, 남한의 해물파전과 비

¹⁰³. 컨플릭 키친은 홈페이지 <<http://conflictkitchen.org>> 에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음.

빔밥을 준비했고, 후식으로 남북한 공통의 찹쌀떡과 수정과를 제공하였다. 식사를 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식탁 위 매트에는 한국과 북한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음식을 먹으며, 한국과 북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서로 이야기 화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이 프로젝트 팀은 탈북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한 후 음식 포장지를 만들어 미국 피츠버그 테이크아웃 음식점에서 북한 음식을 팔기도 하였다.

안양시는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안양공공예술공원에서 여러 문화예술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토록 지원하였고, 이를 위해 안양공공예술팀은 컨플릭 키친팀을 섭외하여 한 문화예술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한 바 있다.

이들은 안양에서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첫째는 2013년 12월,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을 섭외하여 북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그 조리 과정을 소개하게 하고, 그것을 전 세계의 희망하는 지역 사람들의 부엌에 영상으로 연결시켜 화상을 통해 같이 북한 음식을 만들도록 하였다. 조리가 동시에 다 끝난 후, 화상으로 같이 조리한 북한 음식을 먹고, 북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는 올해 3월부터 실행한 프로그램으로, 북한생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공예술팀이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가공의 북한의 거주 공간을 만들어서, 공공예술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소개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그 거주 공간과 그들의 일상생활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컨플릭 키친의 프로젝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역인 의식주 가운데 식생활과 주거생활을 타문화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도록 하여 문화에 대한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교

육을 위한 문화컨텐츠 개발에 활용가능한 중요한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3.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가. 프로그램 개발 기본 방향 및 개발 원칙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이후 사회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구성원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 후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크게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분단 후 이질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서로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요소들이 드러날 것이고, 이러한 다른 점들로 인해 구성원간의 충돌이 야기될 수도 있다. 예측되는 모든 다른 점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오해로 발전하여 갈등이나 충돌로 전환되지 않도록 다름에 대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그런 점에서 고유한 자기 이야기를 가진 개인이 모여 자신의 개별성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고유한 타자들이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배움의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 느끼면서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교수자는 상황을 세팅하기는 하지만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지식이나 태도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 역량 중심 교육

본 프로그램은 통일사회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역량’을 중심에 두는 교육 프로그램은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나 ‘지식’을 전수하는 것과는 달리,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주목한다. 연구진은 통일사회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가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이러한 역량을 스스로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학습자 중심 교육

이러한 역량은 교수자의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가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다. 학습자가 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프로그램의 유연한 진행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자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참여하고, 학습자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는 않는다. 프로그램의 전 과정은 사전에 계획되거나 전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학습자의 반응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장면은 새롭게 ‘구성’되어 간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므로,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이 학생들은 학습자이자 공동진행자이자 본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공동연구자이기도 하다.

(3) 다른 이들과의 소통: ‘결’의 회복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는 같은 ‘편’끼리 모이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결’이 점점 사라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나와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정서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본 프로그램 참가자는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한다. 남한과 북한 출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학생, 대안학교 학생,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재일조선인, 조선족 동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비슷한 연령의 참가자를 모아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소통이 가능한 소규모 집단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적절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1박 2일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들을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8명으로 정하였다. 한 사람이 20분 가량의 이야기를 하고 10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시간을 할당하였다. 개인이 총 30분 정도를 쓰는 것이므로 8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데 4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이 4시간이 저녁시간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

(5) 민족공동체에 대한 재인식

고등학생 집단은 남한 출신 청소년, 북한 출신 청소년, 다문화 배경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출생지나 민족적 배경이 상이하지만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통일한국을 만들어나갈 주체이다. 통

일은 ‘한민족’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로운 구성원이 된 시민들이 함께 고민할 문제라는 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한편 대학생 집단은 남한 출신, 북한 출신, 조선족 출신, 재일교포 출신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한민족디아스포라를 경험하게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비록 이들이 남한과 북한, 중국과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불과 한 두 세대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자신도 북한이나 중국, 일본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분단 이전의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분단과 통일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6) 통일에 대한 개인적, 미시적인 해석

통일교육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북한이해, 정부의 통일방안, 분단의 고통과 통일 이후 사회의 변화 등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통일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도, 통일의 경제적 가치, 병역제도의 변화 등과 같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제도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통일에 대해 그보다 더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통일 이후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보도록 하고, 통일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에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포함해서 자신을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다.

나. 교육 요구 분석

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별도의 학습자 교육 요구 분석을 수행하지

는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통일교육 분야에서의 선행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방향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정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통일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통일담론은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¹⁰⁴ 그동안 통일이 주로 정치 구조적 차원, 체제 이념의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통일은 두 개의 정치 체제가 하나로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그동안 통일은 남북관계를 적과 우리가 구분되고 갈등하는 제로섬의 게임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통일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는 논의하지만 정작 남북한 일반 주민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적과 나를 구별하고, 정치 체제 중심,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상황에서는 정작 통일을 이룩하고 운영해나갈 ‘사람’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은 정치체제의 문제인 동시에 사람들간의 소통, 이해, 화합과 통합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교육에서 ‘사람’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교수자 중심의 성격이 강하였다.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북한이해교육, 그간 정부의 통일방안 등과 같은 ‘정보’ 중심 교육이거나 통일의 필요성을 다양한 각도로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통일의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다. 그러나 교수자 중심의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새로운 지식이나 관점과 연결시켜 내면의 변화를 스스로 창출해 낼 때 일어난다. 그런 점에서 통일교육에서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접근이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¹⁰⁴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6권 2호 (2007) 참조.

서 가치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 왔다. 민주시민교육, 인권 교육, 평등교육, 반편견교육, 다문화교육 등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 행동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 통일교육은 이제 이러한 다양한 접근의 성과들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통일한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구성원을 길러내야 한다. 그러한 역량을 지닌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통일은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2000년 이후 변화된 통일환경 하에 그동안 통일교육이 소홀히 다루었던 ‘사람’의 통합, 그리고 ‘학습자 중심’ 접근을 통해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다.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1) 프로그램의 목적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 진술은 학습자가 처해 있는 ‘상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 제공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프로그램의 결과로 즉시 변화될 ‘직접적인 결과’, 그리고 프로그램 결과로 나타날 ‘기대 효과’를 포함하여 진술한다. 즉 ‘어떠한 상황에 있는 대상에게 ○○(내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 결과)를 향상시켜 ○○(기대효과) 하도록 하는 데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고 진술할 수 있다.¹⁰⁵ 이러한 진술방식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¹⁰⁵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p. 280.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등학생(혹은 대학생)에게 상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갖춰 통일 이전과 이후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프로그램의 목표

보통 프로그램의 목표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목표로 나눌 때,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정의적 영역에서의 변화를 추구한다. 타인의 삶의 과정에 대한 공감, 다양성의 인정과 수용, 자기 이해,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 고정관념에 대한 성찰 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의적인 영역에서의 변화 이외에도 분단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 한민족의 역사와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등 인지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도 추구한다. 나아가 다른 이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경청의 기술,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 등 행동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도 목표로 한다. 물론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해 이 모든 역량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량의 맹아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영역으로 나누어 다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정의적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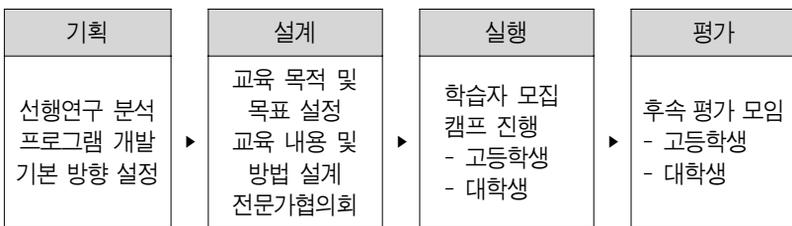
-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이를 공감한다.
-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한다.
- 나의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타인의 삶의 고유성을 존중한다.
- 분단의 고통을 겪는 탈북 친구들의 아픔을 느낀다.

-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해받음으로써 홀가분한 마음을 경험한다.
 - 통일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낀다.
- 인지적 영역
-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자기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 분단 상황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행동적 영역
- 타인의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청할 수 있다.
 -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 할 수 있다.
 - 협동하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라. 프로그램 개발 과정

본 프로그램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 **그림 IV-1**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기획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학습자(참가자)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야기를 통한 상호이해 프로그램으로 국내외에 참고할만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진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2) 설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두 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협의회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표 IV-1 전문가 협의회 진행 사항

1차 전문가 협의회	2차 전문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6월 18일(수) 2시~5시 • 장소: 종로 토즈 • 참석자: 최혜경(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윤상석(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부소장) 이인혁(문화예술키뮤니티 동네형들) 김윤영, 이항규, 유일상(이상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6월 25일(수) 2시~5시 • 장소: 종로 토즈 • 참석자: 이인혁(문화예술키뮤니티 동네형들) 박도빈(문화예술키뮤니티 동네형들) 김윤영, 이항규, 유일상(이상 연구진)

(3) 실행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고등학생 참가자:

- 참가자는 연구진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섭외하였다.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의 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다문화학생 2명, 양천구 한누리 공부방에 다니는 탈북학생 2명,

월계고등학교 일반 한국학생 2명, 안산거주 고등학생 2명(일반 고등학교 1명, 대안학교 1명)을 선정하였다.

○ 대학생 참가자:

- 대학생 참가자 역시 연구진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섭외하였다. 일반 한국학생은 한양대학교 학생 2명, 고려대학교 북한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2명으로 선정하였다. 탈북대학생의 경우, 통일연구원의 2014년 연구과제 면접을 통해 알게 된 남녀 대학생 2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재일조선인 3세 유학생과 중국 조선족 동포 유학생이 각각 1명씩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캠프에 참여하고, 한 달 후에 후속 평가모임에 참석하였다. 1박 2일 캠프와 후속 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표 IV-2 후속모임 진행 사항

	고등학생 프로그램	대학생 프로그램
1박 2일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7월 19일(토) ~ 20일(일) • 장소: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게스트하우스, 강의실) • 참석자: 고등학생 8명 (남한 4명, 탈북2명, 다문화 2명) • 활동: '나의 이야기' 나누기 (내러티브와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8월 21일(금) ~ 22일(토) • 장소: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게스트하우스, 강의실) • 참석자: 대학생 8명 (남한 4명, 탈북 2명, 조선족 1명, 재일교포 1명) • 활동: '나의 이야기' 나누기 (내러티브와 경청)
후속 평가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8월 23일(토) • 장소: 선바위역 부근 식당 • 참석자: 캠프 참가 학생 전원 및 연구진 • 토론주제: 캠프 이후 한 달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 장소: 사당역 부근 식당 • 참석자: 캠프 참가 학생 7명 및 연구진 • 토론주제: 캠프 이후 한 달간의 변화

I
II
III
IV
V

(4) 평가

(가) 통일의식 사전 사후 검사

참석자의 프로그램 참가 전후의 통일의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지를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이 검사지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문항 가운데 다섯 문항을 추출하였고, 몇 가지 주요 단어를 사용해 문장을 완성하는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5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나) 참여자 평가모델 (Participation Evaluation Model)

본 프로그램의 평가는 참여자 평가모델에 따라 참가 학생이 직접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평가모델’은 “평가의 대상과 주체가 따로 구별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행하는 비판적 숙고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 활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공유, 비판적 숙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 프로그램 결과를 적용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학습 과정”이다. 보통 “자기 반성, 집단 회합, 집단 평가회, 역할 연기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데 본 프로그램에서는 집단 회합과 집단 평가회 방식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는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로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대해 집단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회합하여 여전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왜 그러한지, 한 달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여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 프로그램 내용

(1) 프로그램의 체계

전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나의 이야기’ 나누기이다. 그러나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는 서로 자신을 편안하게 드러내고 다른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알아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본다. 그런 후에 ‘발전’ 단계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1박 2일 캠프의 2일차에 전날의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함께 사는 미래에 대해 그려보도록 한다. 통일한국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상상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을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가자 모두 함께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의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IV-2 프로그램 체계



(2) 프로그램의 내용

위의 프로그램의 체계에 따라 캠프는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각 교육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일정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 표 IV-3 고등학생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일정

시간	내용
12:00 ~ 13:15	만남 및 식사
13:30 ~ 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브레이킹(ICE BRE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안한 자기 소개 - 여러 게임을 통해 친밀감 높이기 - 서로를 알고 다함께 즐거운 시간
14:30 ~ 1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책 도서관(Living Libr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특기나 취미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로 자신만의 사람책 표지를 제작 - 2개의 테이블에 사람책이 한 명씩 앉아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책으로 가서 이야기를 듣는 형식
16:00 ~ 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짓으로 단어 맞추기 - 진행 과정에서의 이야기와 소감 나누기
17:00 ~ 1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에 대한 이해 / 일상에서의 편견과 선입견 - 다양한 소통 방식 / 갈등의 원인 알아보기 - 국가와 문화를 넘어 세계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17:50 ~ 20:00	식사 및 휴식
20:00 ~ 2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나누기 전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걱정하게 하는 것 이야기하기 - 마인드맵 등을 활용해서 자기를 표현하기
21:40 ~ 23:50	이야기 나누기 후반전
23:50 ~ 08:00	환담 및 취침
8:00 ~ 10:00	식사 및 휴식
10:00 ~ 11:20	2040년 상상하기: 페이스북 프로필 만들기
11:20 ~ 12:00	참여자 평가
12:00 ~ 13:30	식사 및 해산

● 표 IV-4 대학생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일정

시간	내용
12:00 ~ 13:15	만남 및 식사
13:30 ~ 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브레이킹(ICE BRE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안한 자기소개 - 여러 게임을 통해 친밀감 높이기 - 서로를 알고 다함께 즐거운 시간
14:30 ~ 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책 도서관(Living Libr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특기나 취미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로 자신만의 사람책 표지를 제작 - 2개의 테이블에 사람책이 한 명씩 앉아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책으로 가서 이야기를 듣는 형식
15:30 ~ 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짓으로 단어 맞추기 - 눈 가리고 삼각형 만들기 / 마쉬멜로우 게임 등 - 진행 과정에서의 이야기와 소감 나누기
16:30 ~ 1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원과 동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삶의 그래프와 나를 중심으로 관계도(마인드맵) 그려보기 - 나와 관련 있는 키워드(사람, 장소, 사물 등) 중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세가지를 골라 과일로 표현하고, 나를 고민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 세가지를 골라 동물로 표현해보기
17:50 ~ 20:00	식사 및 휴식
20:00 ~ 2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나누기 전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걱정하게 하는 것 이야기하기 - 마인드맵 등을 활용해서 자기를 표현하기
21:40 ~ 23:50	이야기 나누기 후반전
23:50 ~ 08:00	이야기 나누기 연장전 및 취침
8:00 ~ 10:00	식사 및 휴식
10:00 ~ 11:20	2040년 상상하기: 페이스북 프로필 쓰기
11:20 ~ 12:00	참여자 평가
12:00 ~ 13:30	식사 및 해산

I
II
III
IV
V

(3) 프로그램의 방법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진행 전반에 걸쳐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와 협동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활동에서 교수자는 ‘진행자’ 혹은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담당하고, 학습자가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 진행에서 주인공은 학습자이고, 이러한 원칙은 도입 아이스 브레이킹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학습자 평가 단계까지 일관적으로 유지되었다.

(가) 도입: 아이스브레이킹(Ice Breaking)

참석자는 캠프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획자 ‘동네형들’의 도움을 받아 점차 상대를 알아가고 소통하면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어색함을 없애고(Ice Breaking), 이후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신뢰를 만들어낸다. 도입 활동은 저녁시간 전까지 계속된다.

(나) 발전: 이야기 나누기

1박 2일 캠프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다. 참석자는 약 20분 내외의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진행자의 역할은 시간을 조정하는 것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나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가면서 자신의 삶과 경험을 다른 참석자들과 나눈다. 20분의 시간이 끝나면 10분간 질문시간이 있는데, 이때의 진행자는 질문자가 평가나 조언을 하지 않고, 관심 어린 질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야기 나누기는 첫날 저녁 식사 후부터 시작해서 취침 전까지 계속된다.

(다) 마무리: 미래 그리기

다음날은 통일 이후의 개개인의 삶에 대해 상상해 보는 시간이다. 2040년 현재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써 보는 활동을 하여, 자신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도록 한다. 한번은 통일한국에서 살 경우, 다른 한번은 아직 분단 상황인 경우를 가정하여, 통일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라) 평가: 성찰의 시간

스스로 프로그램의 참가자이자 평가자로서 전체 과정을 성찰한다.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1박 2일간의 경험을 디브리핑(Debriefing)한다.

4. 프로그램 운영

가. 교육 대상의 선정 원칙

통일교육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한 본 실험적 프로그램은 참여 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 두 부류로 나누어 대상별 각각 1박 2일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각각 프로그램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먼저 시행

했던 고등학생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몇 가지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대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 수정하였다.

교육 대상의 인원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프로그램 각각 8명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성격이 스토리텔링, 이야기 모임 형식이어서 소 수 인원의 참여가 적합했기 때문이다. 교육 대상의 선정 원칙은 다문 화적인 여러 배경요소들을 최대한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성별, 나이, 출신 학교, 국적, 이주배경 유무 등 흔히 한국 사회에서 타인과 구분 짓는 다문화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육 대상자 구성은 다음<표 IV-5>와 같다.

● 표 IV-5 교육 대상자

고등학생			대학생		
구분	성별	특성	구분	성별	특성
H1	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	U1	여	탈북한 대학생
H2	남	다문화 가정의 자녀	U2	남	탈북한 대학생
H3	여	탈북한 학생	U3	여	중국조선족 학생
H4	여	탈북한 학생	U4	여	재일동포 학생
H5	남	한국의 일반 고등학생 (통일관련 동아리 참여자)	U5	남	일반 대학생 (북한학 전공)
H6	남	한국의 일반 고등학생 (통일관련 동아리 참여자)	U6	여	일반 대학생 (북한학 전공)
H7	여	대안학교 재학 중인 한국 고등학생	U7	남	일반대학생
H8	여	한국의 일반 고등학생	U8	여	일반대학생

교육 대상자의 구성을 보면, 한국 일반 학생 4명으로 섭외했지만, 그 안에서도 통일 혹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각각 2명씩 구분하였다. 이는 한국 학생 내에서도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 시각, 관점 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 탈북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남녀 1명씩 섭외하였고, 나머지 2명을 고등학생의 경우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대학생의 경우는 조선족과 재일동포 학생으로 국적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구성 인원이 어느 한 출신배경에 치우치거나, 한 명이 소외되지 않도록 두 명씩 섭외하였다.

섭외 과정에서 마케팅이나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자의 개인적 인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실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만족도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규모의 참여자를 요하는 것이 아닌 소수 인원의 섭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참여자가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연구의 성격상, 프로그램 수행 후 참여자들로부터 오히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홍보해야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부분은 아래 평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나. 교육자료 개발

구두로 전화 섭외를 완료한 후,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참여 대상자들에게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특히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께 1박 2일의 프로그램을 설명하여 자녀의 프로그램 참여 동의를 받아야했기 때문에, 안내문을 보내

어 참여자들이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내문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 캠프 안내문>	
'나의 이야기, 우리의 미래' 캠프 안내	
<p>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교육 캠프 '나의 이야기, 우리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국가정책연구소 <통일연구원>의 연구과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진정한 통일은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성 속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1박 2일 캠프를 계획하였습니다.</p> <p>'나의 이야기, 우리의 미래' 캠프는 2014년 현재 고등학생 또래의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둘러 앉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음으로써, 내 자신이 타인에게서 이해받고, 내가 타인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이와 소통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를 사귀고 친숙한 마음을 나누는 과정은 모두에게 뜻 깊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p>	
프로그램명	나의 이야기, 우리의 미래
진행기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연구진	이항규 / 김윤영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유일상 조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원)
일시	2014년 7월 19일 (토) 12시 ~ 20일 (일) 2시
장소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안산) 게스트하우스
프로그램	사람책 도서관 /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 협동게임 밤샘 토크 / 2034년 오늘 그려보기
참가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 8-10명
준비물	즐거분한 마음과 호기심 개인용품(세면도구 등)

먼 길 와서 이틀 동안 함께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약간의 참가사례비(5만원)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가자는 7월 19일 12시까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게스트하우스 1층 로비에 모여주세요. 함께 점심을 나누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을 나누고 오후 2시 경에 해산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이향규 김윤영

이 프로그램 성격은 일정한 누군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지식이 주입되거나 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토론하여 지식을 얻는 강의식이 아니다. 참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과 삶을 이야기하며 타인의 삶을 경청하고 서로 공유하는 매우 평등한 구조적 환경 속에서 참여자의 적극성과 자발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안이나 교수 자료 등은 필요하지 않다. 단지, 참여자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집단 내에서 나누기 위한 서로간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게임이나 놀이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전문강사 ‘동네형들’ 팀의 도움을 받았다.

다. 프로그램 실행

(1) 교육 환경(장소, 사전 준비)

예산 절약과 안전성, 사전 준비 및 운영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장소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내의 게스트 하우스로 정하였다. 게스트하우스는 외부손님들이 묵는 호텔 수준의 숙소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의실과 숙소가 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적어 운영시간이 단축되었다. 학교방학을 이용하였기

I

II

III

IV

V

때문에 장소 예약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1박 2일 캠프식 프로그램의 안전상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바, 가급적 환경이 안전하고 편리한 곳을 선택하였다.

(2) 강사 위촉

강사는 학생들 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 즉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나 사람책 도서관, 협동게임 등을 진행할 전문 인력으로 섭외하였다. 이를 위해 ‘동네형들’이라는 청소년 혹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팀을 섭외하여 그들이 프로그램의 상반부를 진행토록 하였다.

(3) 세부 운영 일정

전체적인 일정은 위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1박 2일의 전체 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즉, 이야기 나누기 전 친목다지기를 위한 여러 활동 프로그램과 이야기 나누기 시간,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시간이다.

(가)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

처음 일정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간의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친밀감을 쌓기 위한 가벼운 활동으로 시작한다. 원을 그려 상대방의 어깨 주물러주기, 각자 얼굴 크기의 풍선을 불어서 타인의 눈, 코, 입, 이마 등 전체 얼굴 그려주기, 상대방에 대해서 퀴즈 맞추기,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과 교환하여 친구 소개 해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8명의 참여자들은 1박 2일을 함께 할

친구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IV-3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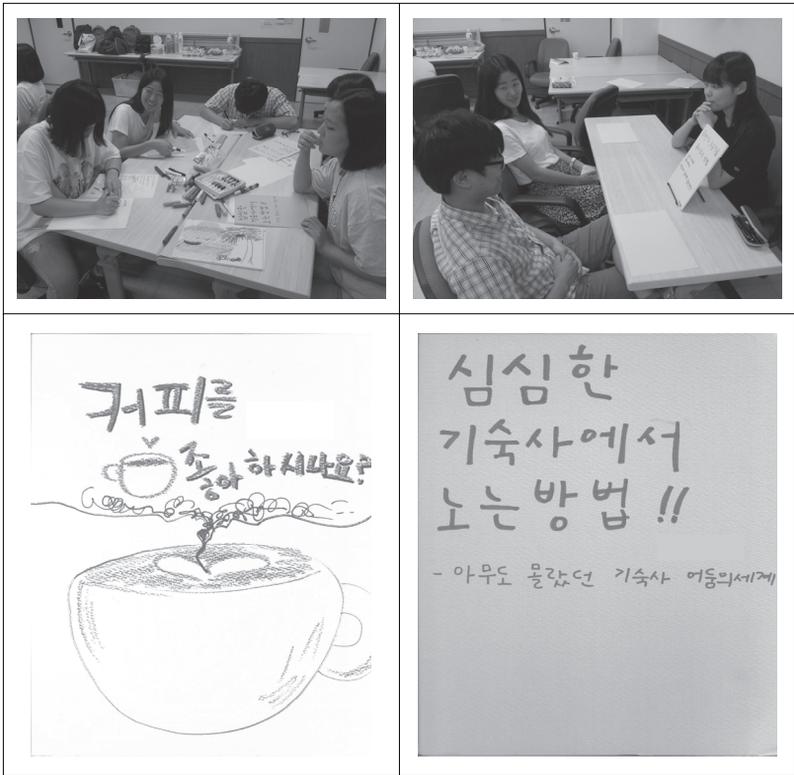
(나) 사람책 도서관 (Living Library)

두 번째 일정은 사람책 도서관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책이 되고, 독자에게 책의 내용, 즉 자신이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을 정하여 타인에게 5분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먼저 시작 전에 5분 정도 자신이 이야기할 책표지를 생각하고 꾸미도록 한다. 그 후 세 명씩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 관련 책 표지를 소개한다. 그 다음 나머지 학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 개별적으로 진지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는 본 활동 프로그램 전의 워밍업 단계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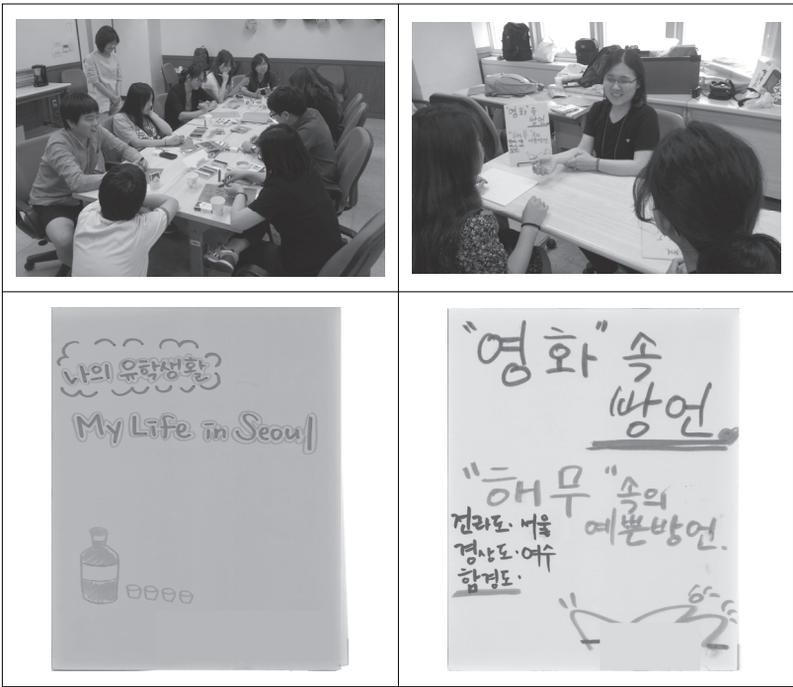
I
II
III
IV
V

주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다. 실제로 바리스타를 꿈꾸며 커피를 만드는 과정과 그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경우 음악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 자신이 재학하는 학교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혹은 여행을 다닌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주제들은 다양하며, 화자와 청자는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

● 그림 IV-4 사람책 도서관(고등학생)



● 그림 IV-5 사람책 도서관(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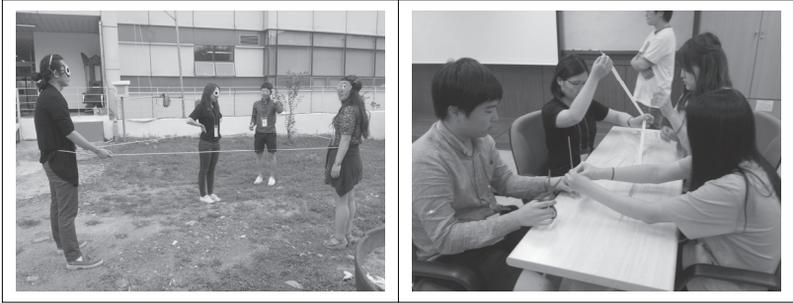
(다) 협동활동

협동활동의 취지는 집단의 단합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경험해보는 것이다. 4명씩 두 조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조별 활동게임이다. 각 조별로 실외에서 조 전원이 눈을 가린 채, 줄을 이용하여 정삼각형 만들기, 동작만을 활용하여 관련 단어를 표현하고 상대조가 맞추기, 파스타 면, 테이프, 실을 활용하여 각 조별로 협동하여 탑 높이 쌓기 등이 이 활동에 속한다. 활동 후 참여자들은 각각 조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이 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장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였다. 집단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I
II
III
IV
V

나와 남의 유사점과 차이점, 장단점을 파악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협동심을 길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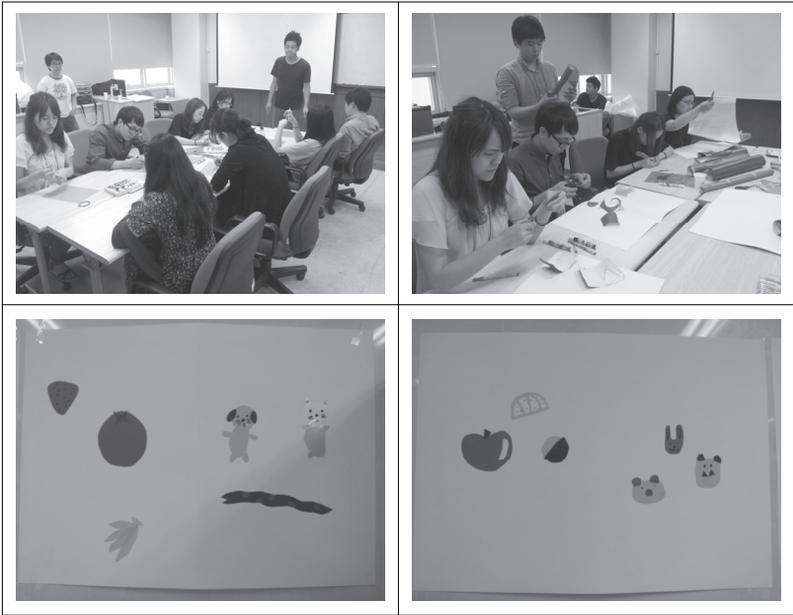
● 그림 IV-6 협동활동



(라) 나는 누구인가?

이 활동은 다음에 진행될 본격적인 프로그램인 이야기 나누기를 위한 개인의 사전 준비 단계에 해당된다.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 그래프, 혹은 나를 중심으로 한 마인드맵을 그리고, 나와 관련된 키워드를 정해보는 활동을 한다.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과 나를 고민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 각각 세 가지를 식물과 동물로 표현해보는 것을 활동으로 정한다. 이 활동은 각자 생각해보는 것만으로 마무리 짓고, 이 시간에 생각했던 내용은 다음 일정한 개인별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 그림 IV-7 마인드맵 작성, 과수원과 동물원



(마) 이야기 나누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시간은 저녁 식사 후에 시작된다. 그 전까지의 모든 프로그램은 본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위한 준비 단계라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저녁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간편한 복장 차림으로 모인다. 연구자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따뜻한 색깔의 조명과 방안을 약간 어둡게 만들어 화자가 편안하게 말하고, 청자들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자와 청자는 일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연구자는 이야기 모임의 사회를 맡아 참여자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먼저

I
II
III
IV
V

회자는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말하는 시간은 20분으로 정하고, 5분 정도 질문을 받는다. 사회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5분 전에 알려준다. 청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첫째, 화자의 눈을 쳐다보며 진지한 자세로 경청한다. 둘째, 화자나 화자의 이야기에 대해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셋째, 질문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처음 사회자는 이러한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야기 중에 화자에게 소요된 시간을 알려주며, 질문과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자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 역할은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를 흐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급적 사회자의 개입을 자제하도록 한다.

이야기의 내용은 보통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이다. 사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활동을 통해서 생각해본 마인드맵,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걱정시키거나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의 특별한 점 등 몇 가지 생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말하는 형식이나 주제는 주어지지 않는다. 20분을 꼭 채울 필요도 없다. 어떤 강요도 받지 않고, 자율성과 자발성으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타인의 삶을 이해한다. 이러한 이야기 나누기를 끝으로 하루의 공식일정은 끝난다. 그러나 실제로 참여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해서 그 후 자율적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그림 IV-8 이야기 나누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개개인이 나눈 이야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등학생은 H, 대학생은 U로 표기하였음).

H1은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다. 어릴 때 필리핀에서 산 경험도 있어서 사람들은 원래 모두 다양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때 말투도 어눌하고 한국어를 완전히 배우지 못해서 공부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중학교 때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공부에 미련은 없다. 언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림을 선택했고 재능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학교 3학년 때 00대 00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희망을 얻었다.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데서도 자신감을 찾았다. 현재 H1의 꿈은 바리스타가 되는 것이다.

- I
- II
- III
- IV
- V

H2는 아버지가 필리핀 출신 새어머니와 재혼하면서 다문화가정이 되어버렸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던 날 어머니에게 많이 혼났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H2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 필리핀에 가서 살게 되었다. 아버지는 필리핀 여성과 재혼을 하셨다. H2는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초등학교를 총 여덟 군데를 다녔다. 초등학교 때는 게임에 빠지기도 했고, 공부를 아주 잘하기도 했고, 또 어른들에게 대들어서 혼도 많이 났다. 중학교에 와서 어머니랑 크게 싸운 이후로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무척 좋지 않고, 이복동생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 중이다. 진학 관련해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외고를 지원했는데 합격했다. 외고는 학비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H2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음악과 공부, 인간을 꼽는다.

H3은 초등학교 때 북한에서 왔다. H3은 어린 시절이 지금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한다.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이 따뜻한 느낌으로 남아 있다. 한국에 와서는 말투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실향민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H3은 심리상담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독서를 통해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고 열등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H3은 희망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자신을 표현했다.

H4는 초등학교 때 북한에서 왔다. 한국에 오는 동안 학교를 못 다녀서 학교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다. 그런데 뜻밖에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중학교에서도 선생님의 실수로 자신이 북한 출신임이 알려졌고,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날라리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를 찾기가 어려웠고, 몇몇 친구들에게 먼저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고나서부터 조금씩 진짜 친구를 사귄 수 있게 되었다. H4는 자신을 검은색과 흰색으로 표현했다. 무엇이든 분명한 것을 좋아해서이다. H4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가족을 꼽았다. 남한에 친척이 없어서 다섯 뿐인 가족이 더욱 소중한데, 만나는 사람 하나 하나를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한다. H4는 간호사가 꿈인데 아버지의 반대가 커서 고민이 많다.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대학 수시전형에 경영학과를 지원했고, 지금도 간호학과의 진학의 꿈을 저버리지 못하여 괴로워한다. 한편 부모가 딸에게 갖는 기대가 커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H5는 스스로를 하얀색으로 표현한다. 흰색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무엇이든 그려 나갈 수 있는 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닌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오는 것보다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막상 입학하고 보니 친구들도 좋고 학교생활도 즐겁다. 학교에서 통일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강화도 평화전망대에 다녀왔다.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목격하고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장래희망은 동물조련사인데 조련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H6은 자신을 열정적인 빨간 색으로 표현한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

I
II
III
IV
V

는 것은 학교인데,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학교 선배의 소개로 통일관련 동아리에 가입하기도 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목표를 정해서 같이 공부를 했다. 결국 친구들 모두가 같은 학교에 합격했고, 그때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다. 하지만 가정의 문제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 지금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어 아쉬웠지만 새롭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만족하고 있다.

H7은 14세 때 대안학교에 입학했다. 대안학교의 특성상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배운다. 학교 현장학습을 통해서 4·3사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떠나기도 했다. 어릴 때 안산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학교에서 다문화로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대안학교를 좋게 바라봐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H7은 현재 특별한 꿈은 없지만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H8은 자신을 아주 평범하다고 소개했다. 자신을 검정색으로 표현했다. 검정색이 가장 튀지 않고 어디서나 어울릴 수 있는 색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는 칭찬을 꼽았다. 칭찬을 받고 싶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H8은 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최근에 항해사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 크게 충격을 받아서 지금은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다. H8은 자신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고등학생 이야기의 특징은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감정이입과 공감 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학교적응의 어려움, 꿈에 대한 고민, 가족 내의 갈등,

부모의 기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정형편의 어려움, 학업 및 시험점수에 대한 고민 등이 공감의 이야기 소재였다. 특히 화자의 이야기가 청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밀접한 상호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학생인 H5는 삶을 이야기하던 중 자신이 학교의 통일관련 동아리에 소속되어 임진각을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임진각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옆에 앉아 있던 H4(탈북학생)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다른 모든 참석자들은 경청을 하면서도 H4학생의 눈물에 당황했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H5 또한 ‘내가 말실수했나? 왜 울지?’라고 생각하며 무척 놀랐다. 모든 참여 학생들은 H4학생이 탈북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H5학생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H4학생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H4학생은 “저는 북한에서 왔구요.”라고 시작하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모든 참여자들이 동시에 “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정말? 전혀 북한에서 왔다고 생각 못했는데…….”하면서 놀라기도 했다. 이렇게 삶의 이야기 모임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감과 소통이 존재했다.

한편 대학생 참여자 개개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U1은 자신의 삶을 한국에 오기 전과 후로 나눈다. 한국에서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삶이 시작된 것은 이제 5년이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고향은 바닷가였는데 그곳에서의 기억은 모두 행복한 것으로 남아 있다. 탈북 과정에서 붙잡혔을 때는 북한에 남아 있는 동생을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기쁘기도 했다. 한국에 와서도 남겨두고 온 동생과

I

II

III

IV

V

고향 생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 한국에 와서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사람도 잘 만나지 않았다. 이것은 미술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대학에 와서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라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감성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 재능을 살려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글 쓰는 일이 아주 즐겁고 언젠가 시집을 한 권 내고 싶다. 북한에 남겨진 동생은 여전히 큰 고민거리인데 동생이 점점 낯설어지는 것이 너무 두렵다.

북한 출신인 U2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에는 6개월 동안 틀어박혀 살다가 조금씩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U2는 일곱 살 때부터 혼자 살아왔다. 소위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꽃제비’였다. U2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 갔다가 몇 차례 강제 복송을 당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나이를 속이고 초등학교에 다니기도 했고,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다. 북경에서 한국인 목사를 만나서 4년 동안 지내다가 그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태국과 필리핀 여행을 가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과 경쟁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다.

U3은 연변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는 조선어를 전공했다. 어릴 때 우연히 남한의 영화를 접하면서 작가를 꿈꾸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연극을 했고 대학에서도 연극을 하려고 했지만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지위였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 어려웠다. 오빠의 조언으로 한국에 유학을 와서 인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사투리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 한국에 유학중인 지금은 영화와 시나리오에 관심이 많다.

U4는 제일조선인 자이니치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오셨고, 부모님은 모두 일본에서 태어나셨다. U4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는 6년 동안 민족학교를 다녔다. 거기서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 사람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일반 일본 학교를 다녔다. 조선 학교가 아닌 일본 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조선 사람이 왜 일본 학교를 다니느냐며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여건상 일본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일본 학교 다닐 때 차별이나 힘든 기억은 별로 없었다. 대학교 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았고 한국에 여행을 오기도 했다. 지금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다.

U5는 자신을 소심하고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는 평화주의자라고 소개했다. U5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사춘기 시절 여동생과의 갈등이 많았다. 하지만 집을 떠나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고 있다. U5는 중학교 때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 위주의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 스스로 마음을 닫고 지내다가 같이 과외를 하던 친구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다. U5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대학 전공으로 북한학을 선택했다. 지금은 기독교 동아리 대표를 맡아서 동아리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U6은 자신의 인생에 굴곡이 없다고 말한다. 막내딸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다. 어릴 때는 말괄량이 같은 성격이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북한이탈주민 친구를 만났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북한학과에 진학했다. 대학교에 와서도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고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봉사활동도 다녔다. 현재 U6은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자가 되는 꿈을 갖고 있다.

U7은 대학교 생활을 아주 좋아했다. 아는 사람들도 많고, 동아리나 학과 행사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학교를 졸업할 시점이 되니까 많이 아쉽지만 이제는 사회로 나가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다. U7은 사람들 만나는 걸 아주 좋아하고 어쩔 때는 자신이 푼수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U7은 IMF 전까지는 행복했다. IMF가 터지고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그 시기가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U8은 수도권의 시골에서 살았다. 두 반 밖에 없는 작은 초등학교에 다녔고 그때는 아주 착하고 순박했다. 그러나 인근 신도시로 중학교를 다니면서 성격이 많이 변해서 말이 아주 많아졌다. U8에게는 꿈이 없다. 그럭저럭 공부해서 대학에 왔고, 그림이나 컴퓨터도 소질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딱히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이 지금의 고민이다. U8는 자신을 감성적이고 매우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대학생의 이야기 모임의 특징은 한민족이라는 단어로 묶여지는 사람들의 삶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 조선족, 북한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 한민족이지만 저마다 다른 사회와 문화의 배경 속에서 자랐고,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삶을 나누며 통일을 이야기 했다.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한국 역사를 공유했다. 즉 재일조선인, 조선족, 북한과 남한이 존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각각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해했다. 한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북한과 한국, 통일을 이야기 했다.

(바) 미래 모습 상상하기-통일 전과 통일 후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식사 후 10시에 모인다. 1일째 프로그램이 자아와 타인의 과거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2일째 활동은 미래 자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A4용지에 페이스북 프로필 항목을 구성하여, 한 사람에게 두 장씩 나누어준다. 그리고 한 장에는 통일 전 개인의 프로필을 작성토록 하고, 또 다른 한 장에는 통일 후 개인의 프로필을 작성토록 한 후, 서로 그 내용을 나눈다.

● 그림 IV-9 미래 모습 상상하기
(페이스북 프로필-통일 후: 왼쪽, 통일 전: 오른쪽)



I

II

III

IV

V



본 연구가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지만, 통일에 대한 언급은 이틀째 되는 날,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에 실시된 ‘통일 전과 후 미래 모습 상상하기 활동’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 활동은 통일의 당위성이나 방법 등 기존의 통일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에는 통일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중심이다. 즉, 자아의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거울에 비추듯 바라보면서 통일이 되었을 때와 통일이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본다. 결국 통일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업이 실질적으로 자아, 개인의 삶과 어떻게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인 통일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실제로 실행 후 학생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학생들은 통일 전과 후의 모습이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학생들은 통일 후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혹은 해내는 활동의 범위와 시야가 훨씬 넓어진다고 표현했다. 또 통일 후의 모습을 상상할 때 훨씬 흥분한 느낌,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다. 재미있는 것은 통일 전 사회에 속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더 걱정과 고민거리가 많아진다고 표현했는데, 참여자들의 표현이 통일 후의 모습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한 학생은 노후설계 준비는 통일 전 사회에서 좀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학생 모임에 참여한 조선족과 재일조선인 학생은 한국의 통일을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조선족 학생은 통일 전과 이후 자신은 자유롭게 북한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과연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통일 후 남북 사람들이 정말 서로 이해하며 잘 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5. 프로그램 평가

가.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평가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참여실행연구방법(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을 적용하였다. 즉, 연구 대상이 연구자로 참

여함으로써 스스로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는 곧 연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

(1) 목적타당성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목적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나누는 이야기 모임이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효과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여자들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이야기 모임이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매우 효과적이고 타당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자들은 이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의 통일관련 프로그램과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통일교육면에서 높은 교육효과를 창출하여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저도 통일 관련한 이런 거 참석해보고 이런 건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런 데서도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는데 좀 허접했어요. 이 분들이 되게 생각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 그래도 뭔가 좀 이렇고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그 때 설문지도 적었지만 저는 통일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해요. 통일이 되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통일이 되어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일비용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통일 돼야 되겠냐 안 돼야 되겠냐 이러면, 하~ 뭐 그냥 니 알아서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니가 반대해도 역사의 흐름은 된다, 이

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나? 굳이 통일에 대한 걸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얘기고, 다 좋네 이런 생각들 들면서. 제가 참여했던 어떤 프로그램과도 때때로 탈북민들의 수기를 보면서 마음이 찡해지고 이런 거 있었지만, 그런 거 다 통틀어서도 이것보다 저한테 더 통일에 대한 마음을 줬던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같이 산다는 거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가 생각보다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이 1박 2일을 통해서 많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통일강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저의 마음 속에 많은 그런 걸 줬던 것 같아요.(U5)

다른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과의 큰 차이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1박 2일의 기간 중 이튿날 헤어지기 전 약 2시간가량의 활동에서 언급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당연히 통일의 정당성을 부각시켜 강조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 다른 배경의 개인이 모여 그들 각각의 삶에 집중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가까워짐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굳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려 하지 않았지만, 상호 타인과의 마음을 나누면서 실제로 통일을 경험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작은 통일을 이룬 것 같은 느낌? 서로 다른 배경이나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쨌든 저희가 많이 친해지고 소통이 되었잖아요. 앞으로도 통일이 과도기적 단계나 그 때도 사회통합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이렇게 서로에 대한 얘기하는 시간이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런 혼란이 더 적게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도 들었어요.(U6)

(2) 기획·설계 적절성

위의 평가에 의하면, 이야기 모임은 타인과의 소통과 밀접한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작은 통일을 이루어낸 장이었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프로그램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그러면 무엇이 통일을 이룬 것 같은 집단 간의 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까? 또 왜 이야기 모임이 통일교육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기획·설계의 적절성 문제와 연관이 있었고, 참여자들은 기획·설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먼저 타인과의 소통, 이해를 경험하여 작은 통일의 느낌을 가졌던 이유로써 아이스 브레이킹과 사람책 도서관, 협동 활동 등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 단계의 많은 활동들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자들은 이야기 나누기 전 단계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서로 친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심층적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전했다.

- U6: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친밀도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내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U2: 하나같이 편안함을 줬어요, 얘기할 때. 그 편안함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연구자: 그 편안함을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 U2: 솔직함이에요.
- U3: 사전에 친해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문 강사 섭외에 대해서도 적절했다는 평가다. 연구자의 진행은 본격적인 이야기 모임으로 적절하고, 집단의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은 그 활동을 진행하는 전문 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이야기 모임 진행자와 친밀감을 위한 활동전문 강사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은 이야기 나누기 모임의 성공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 진행자의 역량을 꼽았다.

제가 두 가지만. 첫 번째로 저도 저희 동아리가 이런 모임도 많이 하고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면 타대학생들 소그룹 다섯 명씩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 리더 해본 적도 있고 멘토 해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여긴 어떻게 하지? 봤는데 진행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심리학 전공하셨나 이럴 정도로 그냥 툭툭 던지. 저는 이런 모임들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리드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마디씩 얘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이 모임에 컸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대중화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분들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게 대중화가 되면 이분들보다는 역량이 떨어지는 분들이 진행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효과가 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들었고.(U5)

이야기 모임에서 훌륭한 진행자는 전면에서 직접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다. 성공적인 이야기 모임을 위한 전문 진행자는 뒤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집단 내 개개인의 심리를 파악하여, 적절한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드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 널리 보급, 활용되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이야기 모임의 전문 진행자 역량을 기르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기본적인 화자와 청자가 지켜야 할 규율을 정한 것도 중요했다. 화자는 20분 동안 이야기하며 5분의 질문을 받는다. 또 청자는 화자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내용의 질문을 할 수 없다.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서로 미리 공유하고 진행자가 잘 지킬 수 있

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설계는 바람직했다.

마지막으로, 삶을 나누는 이야기 모임이 왜 통일교육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일교포, 조선족 그리고 다문화학생들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이야기 모임에 각각 참여하면서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참여했지만, 이 이야기 모임이 통일교육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탈북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이렇게 구성원 자체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와 상황, 배경 그런 것들 자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무언가 이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무언가 그렇게 되려면 사실 그런 것 자체가 통일로 가는 길이잖아요. (중략) 그런데 한국 사람 넷이 모였으면 그냥 별 얘기 안했을 것 같아요. 통일얘기는 커녕. 그냥 친해지기는 하겠죠.(U7)

따라서 기획의 섭외단계에서는 탈북학생의 참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각각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을 2명씩 섭외토록 하여 참여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던 것도 적절한 섭외였다고 평가했다.

(3) 운영의 문제점

1박 2일의 이야기 모임 운영 상 몇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첫째,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 활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첫 고등학교 이야기 모임이 진행되었을 때, 한 프로그램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여 그 다음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외부 전문강사의 진행상 실수라고 판단되지만, 사전에 세부프로그램 별로 적당한 시간 소요를 계산하고 배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진행자는 그 일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부 프로그램 중 협동활동은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 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을 나누어 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으나, 그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미흡함이 나타났다. 이것 또한 시간 배정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나, 그보다도 세부 프로그램 중 일부는 활동만이 아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정리하는 시간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운영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기획·설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학습자 반응평가

(1) 프로그램 사전 사후 설문 결과분석

(가) 설문지 제작

설문조사지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설문지 가운데 ‘남북통일’과 ‘통일 전후의 변화’에 대한 항목을 추출하였다. 통일의식조사의 문항 1)과 2)를 본 조사지 문항 1)과 2)로 선택하였고, 통일의식조사 문항 6), 7), 8)을 본 조사지문항 3), 4), 5)로 선택하였다. 앞의 두 문항은 남북통일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뒤의 세 문항은 통일 전후의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문항이다. 동일한 질문지를 프로그램 시작 전과 프로그램 종료 후에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참가자의 생각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전 사후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나의 이야기 우리의 미래' 프로그램 참가자 설문지

※ 다음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문1) 당신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2)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대로가 좋다.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3) 당신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같은 민족이니까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3. 남북 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 (적을 것: _____)

문4) 당신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5) 당신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참가자의 프로그램 실시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주제어에 대한 짧은 글짓기를 사전 사후에 실시하였다. 자신과 타인, 공동체와 통일에 대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도록 하였는데 깊은 생각 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적인 심상을 드러내도록 하여 평소의 생각(사전)과 프로그램 후 생각(사후)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 다음 단어를 사용해서 짧은 글 지어 보세요.
(오래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문장을 적어주세요)

1. 나

2. 다른 사람 / 타인

3. 다름

4. 공동체

5. 통일

사후검사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 문항을 추가하였다.

※ 이번 캠프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6. 이번 캠프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써주세요.

7. 이번 캠프에서 아쉬웠던 것을 써주세요.

(나) 통일의식의 변화 (사전 사후 설문)

먼저 고등학생 집단의 사전 사후 설문지 응답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표 IV-6 고등학생 참가자의 사전 사후 설문지 응답 결과

고등 학생	사전검사					사후검사				
	문1	문2	문3	문4	문5	문1	문2	문3	문4	문5
H1	2	2	1	1	2	1	2	1	2	2
H2	1	2	5	1	1	1	2	5	1	1
H3	1	1	1	1	1	1	2	1	1	1
H4	1	2	1	1	1	1	2	1	1	1
H5	3	2	1	3	3	1	2	2	2	1
H6	2	2	5	2	2	1	2	1	2	1
H7	1	2	1	2	3	1	1	1	2	1
H8	1	2	1	1	2	1	1	1	1	2
계	12	15	-	12	15	8	14	-	12	10

앞서 설문지 문항을 소개한 바와 같이 문1)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원문항이 ‘매우 필요하다’를 1점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5점으로 되어있어, 통상적인 5점 척도와 달리, 숫자가 적어질수록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1번 문항에 대해서 사전 검사에서 3명을 제외하고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해서, 참가자들의 통일 의식은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후 검사의 경우 모든 참가자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특히 H5 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그저 그렇다고 답변했으나 프로그램 참가 후에는 매우 필요하다고 바뀌었다. H1과 H6도 약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H5와 H6은 일반 한국학생이고, H1은 다문화가정 학생이다. 탈북학생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을 애초에 높게 인식하였으므로 프로그램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일반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통일필요성 인식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2)는 통일의 시기를 묻는 질문인데, 이 경우에 참가자들은 대부분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무도 현재대로가 좋다거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2)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은 H7학생과 H8학생은 사전검사에서는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으나 프로그램 후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고 답해서 통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H7과 H8은 일반 한국 학생이다.

문3)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인데, 가장 많은 학생이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 결과가 다른 학생이 두 명 있었다. 특히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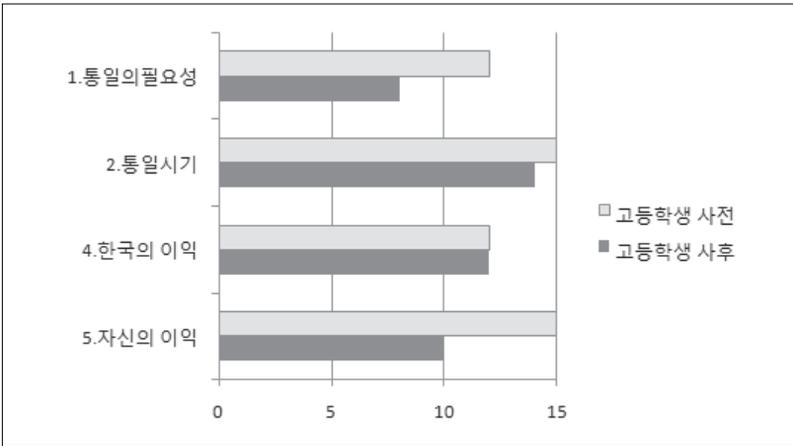
I
II
III
IV
V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H6학생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 H7학생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더 깊게 생각하여서, 이들이 국가의 유익보다는 민족이나 고통 받는 사람들에 더 주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문4)와 문5)는 통일이 남한과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냐는 질문인데, 그 결과는 흥미롭다. 참가자들 가운데 H5 학생은 국가와 자기 자신에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답하여 다소 회의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프로그램 후에는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H7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별로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았던 통일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H6학생의 경우에는 ‘다소’ 이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변화하였다. 이 세 학생은 모두 일반 한국학생이다. 이들이 설문을 할 때 그 ‘이익’을 무엇으로 생각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통일이 우리 사회와 특히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점은 분명하다.

이상 고등학생 8명의 사전 사후 설문 응답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각 문항별로 학생들이 응답한 번호의 합을 막대로 표시하였다. 문항 가운데 3)번은 양적 척도 값이 아니어서 그래프에는 삽입하지 않았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번호가 적을수록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막대가 줄어들면 그만큼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프를 보면 이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에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0 고등학생 참가자의 사전 사후 통일의식 변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가 전후의 변화가 고등학생의 경우처럼 확연하지는 않다. 그리고 일관적인 경향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해석이 다소 혼란스럽다.

● 표 IV-7 대학생 참가자의 사전 사후 설문지 응답 결과

대 학 생	사전검사					사후검사				
	문1	문2	문3	문4	문5	문1	문2	문3	문4	문5
H1	1	1	1	1	1	1	1	1	1	1
H2	1	1	5	1	1	1	1	5	1	1
H3	1	2	1	2	2	1	2	1	2	2
H4	2	2	3	2	3	1	2	1	3	3
H5	2	2	(a)	1	1	1	2	1	2	1
H6	1	2	(b)	1	1	1	2	2	1	1
H7	1	2	5	1	2	1	2	1	1	2

I
II
III
IV
V

대 학생	사전검사					사후검사				
	문1	문2	문3	문4	문5	문1	문2	문3	문4	문5
H8	2	2	3	2	3	2	2	2	2	2
계	11	14	-	11	14	9	14	14	13	13

U5: (a) 역사적 필연 / U6: (b) 경제적 파급효과

참가자 8명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U4 학생이다. U4 학생은 재일조선인 3세이다. 그녀는 통일이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매우’ 필요하다고 여기게 되었고, 그 이유도 ‘전쟁위협’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변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는 통일이 남한 사회나 자기 자신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그녀가 현재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수도 있고, 남한 사회나 자신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이므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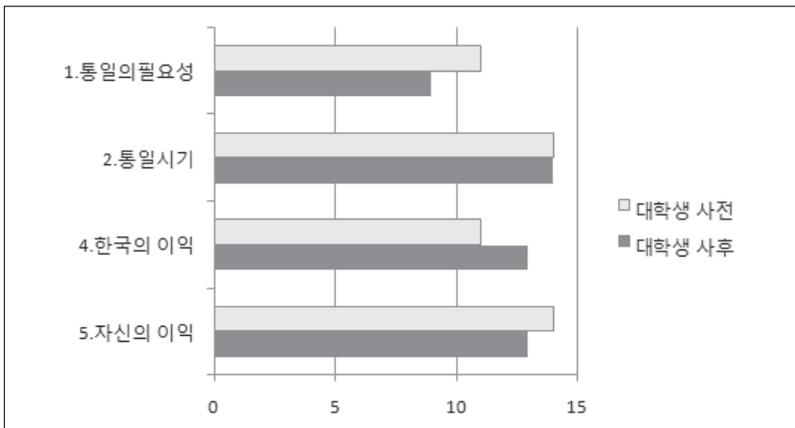
일반 한국대학생인 U5의 경우에도 U4의 경향과 유사한데, 통일이 남한 사회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지만, 반대로 통일의 필요성은 ‘약간 필요’에서 ‘매우 필요’로 바뀌었다. 그는 사전검사에서 통일의 이유를 ‘역사의 필연’이라고 직접 기입했다가 사후검사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 항목에 표시하였다. U5의 경우에도 사회적 이익 여부를 떠나서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대학생들의 응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항 3) 통일의 이유에 대한 생각이 변한 것이다. 사전검사에서 이들은 ‘전쟁위협을 없애거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8명 가운데 5명이 입장을 바

끼, ‘같은 민족이니까’ 혹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전에 비해서 현격히 통일을 ‘사랑’의 문제로 생각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같은 민족’에 주목한 것은, 대학생 집단이 탈북 대학생, 일반 한국 대학생, 조선족 대학생, 재일조선인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한민족 공동체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구성으로 인해 이들은 ‘민족’에 대해 더 주목하게 된 것 같다.

이상 대학생들의 사전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앞서 고등학생 결과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각 문항별 사전 사후 검사의 응답번호 합으로 막대를 나타내었다. 막대가 짧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이다. 통일의 필요성은 프로그램 후에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통일이 남한 사회에 주는 이익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통일이 개인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이지만 큰 변화는 없다.

●그림 IV-11 대학생 참가자의 사전 사후 통일의식 변화



(다) 자신과 타인, 공동체, 통일에 대한 생각 변화 (사전 사후 글쓰기)

학생들은 사전 사후 모두 동일한 단어를 넣어 짧은 글짓기를 했다. 학생들의 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에서는 각 문항 별로 학생의 응답을 사전 사후로 나누어 소개하고, 특징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먼저 고등학생의 사례를 먼저 살펴 본다(H1은 프로그램에 늦게 참석해서 사전 글짓기는 하지 못하였다).

● 표 IV-8 자신에 대한 생각 변화(고등학생)

1. 나		
	사전	사후
H1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좋다.
H2	나는 무모하다.	나는 사람이다.
H3	나는 나이다.	나는 세계시민이다.
H4	감수성	사랑스러운 존재
H5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나'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나'
H6	나는 학생이다.	나는 꿈이 있다.
H7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모두를 위해 살아야겠다.
H8	나는 미래가 창창하다.	나는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H1과 H8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드러내었다. H5의 경우에도 '성찰'하는 자신에 대해 표현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H3인데, 탈북학생인 H3은 '나는 나이다'에서 '나는 세계시민이다'로 자신을 확장시켜 표현하였다. 세계시민은 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었다.

● 표 IV-9 타인에 대한 생각 변화(고등학생)

2. 다른 사람 / 타인		
	사전	사후
H1		이해해 봐야 하는 사람
H2	타인을 존중하자.	다른 사람도 사람이다.
H3	나와 다른 사람도 같은 공간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다른 사람도 나와 꼭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격체이다.
H4	공존해야 할	거울 같은 존재
H5	내가 행동 말을 조심해야 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해줄 수 있는 나
H6	나와 다른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
H7	내 주변 환경이다.	타인은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다.
H8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타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도 다소 변화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H5와 H6의 답변인데, 일반 한국학생인 이 두 사람은 모두 타인을 ‘조심’해야 하고,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였으나 프로그램 후에는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표현하였다. H7도 프로그램 후에 나와 관계되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학생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 타인을 그저 ‘주변 환경’이나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 감정이 있고, 이해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람으로 인식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IV-10 다름에 대한 생각 변화(고등학생)

3. 다름		
	사전	사후
H1		다름을 이해하고 싶다.
H2	'다름'은 좋은 것이다.	이 둘 사이에 '다름'이 있는가?
H3	다름과 틀림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름은 다양성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H4	그냥 다른 것	그냥 다른 것
H5	나와 타인은 다름	다름이라고 틀리지는 않다.
H6	나와 너는 성격이 다름	남한과 북한은 다름이 없다.
H7	누군가의 존재	세상 사람들은 계란 후라이 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
H8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	다름과 틀림은 다른 것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사전에는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사후검사에는 그렇게 쓴 학생도 있지만(H5),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종료 후에 몇몇 학생들은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진짜 다른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H2는 그걸 의문문으로 표현했고, H6은 구체적으로 남한과 북한(사람)이 다르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쁨과 고통, 슬픔을 느끼는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 프로그램 종료 후에 학생들이 인식하게 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 표 IV-11 공동체에 대한 생각 변화(고등학생)

4. 공동체		
	사전	사후
H1		공동체에서 잘 지내고 싶다.
H2	공동체 생활을 위해 노력하자.	공동체 안에 이 '다름'이 존재하는가?
H3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모임 안에서 저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H4	배려가 필요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곳
H5	공동체 같은 사람들	다 같은 공동체
H6	하나로 합치는 것이 공동체	남한과 북한은 한 공동체다.
H7	지겹지만 나쁘지 않은 거	구질구질한 공동체
H8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간다..

공동체에 대한 문항의 경우, 학생들은 사후 검사에서 공동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H3의 경우, 공동체를 처음에는 ‘지역사회’라고만 기술했으나, 나중에는 자신이 타인을 이해하고, 이해받는 공간으로 적었다. 이 프로그램이 H3에게는 그러한 공동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표 IV-12 통일에 대한 생각 변화(고등학생)

5. 통일		
	사전	사후
H1		통일은 서로 다름이 합쳐진 것 같다.
H2	통일은 must이다.	통일엔 '다름'이 있는가? 남한과 북한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가?

I
II
III
IV
V

5. 통일		
	사전	사후
H3	통일은 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젊고 어린 학생들이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다.	통일에는 한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다문화인들 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4	서로 노력해야 하는	해야만 하는 것
H5	통일은 이루어져야 할 것	나서서 해야 하는 통일
H6	통일은 복잡하다.	통일은 필요하다.
H7	신기루 같은 것	통일은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H8	나는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통일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에 대한 생각변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H5와 H6의 기술이다. 처음에 통일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썼던 H5는 프로그램 종료 후 통일은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써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표현하였다. H6은 통일이 ‘복잡하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는 ‘필요하다’고 썼다. H5, H6, H7, H8은 모두 일반 한국학생들인데, 이들은 수동적이거나 부정적, 애매했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바뀐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이 ‘통일’을 직접적으로 전면에 내세워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태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경우를 소개한다. 먼저 탈북대학생인 U2학생은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을 모두 연결해서 문장을 썼다. 그는 사전검사에서는 “나를 생각하지 말고/타인을 생각하며/틀린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할 때/완벽한 공동체로서/통일됨을 느낄 수 있다”고 썼고, 사후검사에서는 “나의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집중하여/다름 속에도 하나됨을 느꼈다/공동체에 미친 내가 소중함을 보았다/

통일은 한국인에게는 걱정거리는 되지만 미래 행복은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썼다. 사전검사의 글이 탈북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소망’이나 ‘당위’를 표현한 것이었다면, 사후검사의 글은 과거형으로 자신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했음을 적고 있다. 더욱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각 문항별로 학생들의 사전 사후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IV-13 나에 대한 생각 변화(대학생)

1. 나		
	사전	사후
U1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람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U2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기보다
U3	나는 한국에 온지 1년이 거의 되어간다.	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했다.
U4	나란 무엇인가?	나는 나이다.
U5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무언가 하고 싶다.
U6	착한사람	통일리더?
U7	‘나’라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명이다.	나 자신도 특별한 존재다. (평범한 사람도 스토리가 있다)
U8	나의 이름은 ○○○입니다.	나를 사랑하자.

U6, U7, U8 학생의 경우 나중에 생각이 바뀐 경우이다. 비록 물음표를 달긴 했지만 통일리더로서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저 지구상의 한명을 넘어서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으며, 나를 사랑하고자 마음먹었다. 이는 모두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일반 한국학생들이다.

I
II
III
IV
V

● 표 IV-14 타인에 대한 생각 변화(대학생)

2. 타인		
	사전	사후
U1	한국이 고향인 사람들과 북한이 고향인 친구들로 나뉜다.	이 땅에서 자란 사람들
U2	타인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집중하여
U3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격이 많이 진보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U4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다른 사람의 삶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U5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진실하게 대하자.
U6	착한사람	다르지만 함께 어울려야 한다.
U7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다. 고로 존중받아야 하는 타인이다.	다른 사람들과 1박 2일, 타인에서 지인으로
U8	다른 사람은 있어도 틀린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자.

U7의 글을 보면, 그가 프로그램 이전 생각했던 타인은 사실 존중받아야 할 타자이고 어떤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프로그램 진행 이후에는 나와 관계 맺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이를 “타인’에서 ‘지인’으로” 라고 표현하였다.

● 표 IV-15 다름에 대한 생각 변화(대학생)

3. 다름		
	사전	사후
U1	틀리지 않고 그저 다른 것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것
U2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할 때	다름 속에도 하나됨을 느꼈다.

3. 다름		
	사전	사후
U3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향을 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다르다는 것은 더욱 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
U4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해서 다른 생각을 많이 알아보고 싶다.	다른 점은 서로가 이해해야 한다.
U5	다름을 수용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러기에 아름답다.	사람인 이상 다르지 않다.
U6	다름을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자.	수용, 이해해야 하는 것.
U7	다름과 틀림, 자주 혼돈하는 단어다. 하지만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를 뿐이다.	다름보다는 인정
U8	너와 내가 다름을 받아들이자.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자.

고등학생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학생들도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는 것을 많이 언급하였고, 나아가서 다름의 인정을 넘어서 “사람인 이상 다르지 않다”(U5)는 결론에 도달한 경우도 있다.

● 표 IV-16 공동체에 대한 생각 변화(대학생)

4. 공동체		
	사전	사후
U1	하나되는 것, 어려운 것	같이 모여 있는 곳, 사람 사는 곳
U2	완벽한 공동체로서	공동체에 비친 내가 소중함을 보았다.
U3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서로 보듬어주는 자세가 필요했다.	이제는 공동체 생활이 익숙해졌다.
U4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해도 같이 하는 것은 힘들 때가 많다.	좋아해도 싫어해도 우리는 공동체이다.

I
II
III
IV
V

4. 공동체		
	사전	사후
U5	공동체는 신이 내려준 가장 아름다운 삶의 선물이다.	공동체는 진실한 것이다.
U6	배려와 희생이 필요하다.	어울려 사는 것
U7	공동체 생활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다. 집주변 마을부터, 직장, 군대 등등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남북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U8	공동체 사회에서는 서로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개인보다 위대하다.

U4 학생의 사전 사후 글은 공동체에 대한 미묘한 어감의 변화를 보이는데, 부담스럽고 힘든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로 변화한 것 같다. U7 학생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공동체를 예로 들다가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남북공동체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희망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 표 IV-17 통일에 대한 생각 변화(대학생)

5. 통일		
	사전	사후
U1	꼭 되어야 하는 것	꼭 되어만 하는 것
U2	통일됨을 느낄 수 있다.	통일은 한국인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지만 미래 행복은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U3	성향과 취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하나의 통일이다.	통일은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U4	통일에 관심이 많다.	통일이라는 새로운 가능성.

5. 통일		
	사전	사후
U5	통일은 시대적 사명이다.	통일은 삶이다.
U6	반드시 해야 하는 민족의 과업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
U7	통일대박, 통일대박론이라는 정치적 주장이 있다. 군사적 사회적 교류가 적절한 긴장과 평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통일은 언젠가는 다가올 것이다.
U8	가장 늦은 통일이 가장 멋진 통일로.	통일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대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점은 프로그램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그들의 글 속에 표현되었다.

이상 학생들의 사전 사후 글을 보면, 전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구체적인 상을 갖게 되고, 공동체나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양적인 설문지와 더불어 글쓰기의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술한 것을 살펴본다.

(라) 배운 것, 아쉬운 것(총평)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였다.

I

II

III

IV

V

● 표 IV-18 캠프에서 배운 것(고등학생)

캠프에서 배운 것(고등학생)	
H1	다른 사람의 생각과 통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H2	북한에 대해 확실히 배웠다.
H3	아직은 어린 고1 학생, 고2 학생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어른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던 것. 어쩌면 통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아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학교수업에 따라가기만 급급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H4	나이가 어려서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까 걱정했었고 북한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까 걱정했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희망을 보고 가게 되었다.
H5	남을 더 존중할 수 있고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H6	북한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것이 없었고 북한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도 많이 좋아졌다.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좋았고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H7	살면서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 같고 한 번도 하기 힘들 이야기를 푼 것 같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많고 다 힘들게 사는구나 했다.
H8	북한도 남한과 다른 것이 없고 북한에서 온 청소년은 대부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 표 IV-19 캠프에서 배운 것(대학생)

캠프에서 배운 것(대학생)	
U1	저에 대해서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나의 미래에 통일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해줬다.
U2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지만 '통일'이라는 문제에선 우린 하나다.
U3	다를 것 같지만 같고, 같을 것 같지만 다른 모든 것을 포용하려는 마음이 짐이 생겼다.

	캠프에서 배운 것(대학생)
U4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다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느꼈다. 통일에 대해 일본에 있었을 때보다 많이 생각한 기회가 되었다.
U5	탈북민과 재외동포들은 결코 먼 존재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하였다.
U6	다양성에 대한 깨달음. 통일의 필요성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U7	진심으로 캠프에 참가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통일문제는 물론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U8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잊고 살았던 통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끼고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민들, 조선족 등 안 좋은 편견들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정말 다르면서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느꼈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 혹은 북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은 언급하였다(H1, H2, H5, H6, H8, U1, U2, U4, U5, U6, U7, U8). 이 프로그램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통일과 북한에 대해 생각하고, 그 사회와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배웠다’. 이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반성적 성찰과정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결과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 강의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학습자에게 불러일으킨 것을 보여준다. 결국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생각도 학습자 스스로가 생각하고 느끼면서 변화해나가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일반학생은 탈북학생들을, 탈북학생들은 일반 남한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H2, H3, H6, H7). 특히 탈북학생들의 경우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해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존중받고 이해되는 경험을 하였다(H2, H3). 일반 한국

학생들도 그들이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H6, H8, U5). 또한 다문화가정의 학생, 재일조선인 학생, 조선족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다 다양하고 달라 보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고 모두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H7,U3,U4). 나아가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U1, U8). 이러한 학생들의 자기 평가는 이 프로그램이 본래 목표로 했던 ‘문화간 감수성의 증진’, ‘타인의 삶의 과정에 대한 공감’, ‘자기 이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IV-20 캠프에서 아쉬운 것(고등학생)

캠프에서 아쉬운 것(고등학생)	
H1	1박 2일이어서 조금 아쉬웠다.
H2	시간이 짧았다.
H3	저는 생각을 오랜 시간 느긋하게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그에 반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H4	없었습니다.
H5	좀 더 같이 있고 싶었다.
H6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아쉽다.
H7	세계시민, 솔직 토크? 좀 더 여유롭게 진행되었으면. 그래서 남는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글쓰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H8	원으로 앉아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 표 IV-21 캠프에서 아쉬운 것(대학생)

캠프에서 아쉬운 것(대학생)	
U1	내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미안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만족한다. 구체적인 통일을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U2	더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하니 아쉬움이 남는다.
U3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아쉬웠다.
U4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았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참 좋았어요.
U5	큰 아쉬움은 없었지만 4-5명 규모의 좀 더 작은 소그룹 형태였으면 어땠을 까란 생각이 듭니다.
U6	1박 2일이 좀 아쉽. 통일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못해 아쉽.
U7	없었습니다. 충분히 만족합니다.
U8	좀 더 심층적인 얘기를 못했던 것이 아쉬웠지만 매우 만족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아쉽게 생각한 것은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그 점을 지적하였다(H1, H2, H3, H5, H6, H7, U2, U6). 한편 대학생 가운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에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경우도 있다(U1, U4, U6). 향후 대학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통일과정에 고려해야 할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소수의견으로 좀 더 소규모이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었고(U5), 직사각형 탁자가 아닌 원탁에서 이야기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다(H8). 진행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학생들의 평가는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2)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 외부강사 섭외 및 활동 프로그램, 연구자의 역할 그리고 물리적 환경, 즉 숙소, 강의실, 식사 등 전반적인 면에서 참여자들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외부강사의 섭외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즉 외부강사 ‘동네형들’이 이야기 모임 전의 여러 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연구자가 이야기 모임을 담당하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밖에 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교직원들이 묵는 호텔급 수준의 숙소는 안전하고 깨끗했으며, 활동이 진행되는 장소가 숙소와 한 건물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했다. 또한 캠퍼스 근처의 식당가는 1박 2일의 짧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참여자들은 평가했다.

전체 일정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편안함에 있다고 평가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면 계속 압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뭐 해야 돼. 알게 모르게 돈 문제도 오가는 게 계속 들리고. 그런 프로그램은 다시는 하고 싶지는 않구나.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좋았어요.(H3)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타이틀도 물론 있지만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더 할애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U7)

그리고 긴장하고 있지 않아도 됐으니까.(U8)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 내가 어떤 사

람인테 들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 좋았어요, 자연스럽게.(U3)

참여자들은 1박 2일 동안에 규율이나 규칙의 준수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존중받는 가운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공적인 집단 내에서 타인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편안한 일정 속에서도 계획된 세부 일정이 실행되었는데, 그 세부 일정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표 IV-22>와 같다.

● 표 IV-22 세부 일정에 대한 의견

세부 프로그램명	평가의견
Ice breaking	집단 구성원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의 여러 활동들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냥 몸을 움직이고 사람이랑 가깝게 했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U4)
사람책 도서관	참여자들이 제일 만족해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이 활동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인과 개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보여주었다. 그때 말문이 트였어요.(U3) 개인당 5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약간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딱 지금 시간이 (적당해요)(U6)
협동활동	눈가리고 삼각형 만들기, 무언의 퀴즈 맞추기, 파스타 면으로 높이 탑쌓기 등 조별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소통, 협동심,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I
II
III
IV
V

세부 프로그램명	평가의견
협동활동	<p>친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런 거, 믿는다는 것(U3)</p> <p>협동심, 말하지 않아도 손짓발짓으로 해도 통할 수 있다. '소통' 이란 걸 배움(U7)</p> <p>팀워크, 의사소통(U6)</p> <p>뭔가 리더가 있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고, 눈 가리니까 귀만 들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조직화되고 있고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파스타 면 쌀을 때는 뭔가 이걸 확실히 하는 리더가 있고 그랬는데, 이걸 각자 의견들이 분분했던.(U5)</p>
나는 누구인가?	<p>개인에 대한 마인드 맵,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거나 고민하게 만드는 것을 동물 혹은 과일로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이 있었다.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위한 준비단계로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활동이었다고 평했다.</p> <p>이야기 나누기 전에 마인드맵이랑 과수원 동물원 하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었어요.(U6)</p> <p>그러나 대상에 따라 적절한 유연적인 진행이 필요했다. 참여자가 대학생인 경우, 굳이 동물 혹은 과일로 자신의 고민이나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p> <p>마인드맵 해서 여기다 적은 걸로 그냥 이야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U6)</p> <p>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어진 시간에서는 좀 촉박했던 것 같아요.(U7)</p> <p>그냥 그림으로 그려도.(U8)</p>
이야기 나누기	<p>개인당 20분의 이야기 시간 배정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평가하였다. 인원수 8명도 적절했다고 평가하였다.</p> <p>집중도 잘되고, 딱 좋은 것 같아요.(U6)</p> <p>10명이라면 얘기 듣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U6)</p> <p>비슷한 연령대의 모임, 즉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눈 참여자 범위 또한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연령대를 섞는 것보다는 비슷한 연령대 모임이 이야기 나누는데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p>

세부 프로그램명	평가의견
이야기 나누기	<p>이야기 모임의 원칙은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화자에게 20분의 시간 엄수, 그리고 청자에게 화자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화자의 이야기에 대해 평가, 비판하지 않고 질문하기의 원칙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했다.</p> <p>(말하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새로 만난 학생들 앞에서 터놓은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색다르고 신기했다고 참여자들은 평가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든 요소는 바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p> <p>분위기가 그렇게 잘 조성되었던 것 같아요.(U6) 그냥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한동안 같이 놓고 그랬잖아요.(U3)</p> <p>이를 봐서는 이야기 전 단계의 활동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스스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p> <p>기분 좋았어요. 뭔가 나를 돌아보게 돼서? 이렇게 얘기해본 게 처음이어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하게 되어서. 이게 저를 바꿔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어요.”(U8)</p> <p>(듣기에 대해서) 이야기의 진솔함 속에서 참여자들은 집단내의 감정의 공유와 공감을 충분히 느꼈다고 평가했다.</p> <p>진솔함인 것 같아요. 진짜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거기 속에서도 진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다 라는 것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에서 나오는 그런. (중략) 그래서 충분히 공감에 너무 됐어요. 물론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고 100프로 이해할 수 없을지언정, 매체나 이런 거에서 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그런. 뭐라고 표현을, 좋은 말을 잘 모르겠는데. 진짜 좀 확 와 닿았어요.(U5)</p>
미래 모습 상상하기 (통일 전과 통일 후)	<p>통일 전과 후 자신의 미래 모습을 페이스북의 프로필로 작성해보고 설명하는 시간이었는데, 무겁지 않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p> <p>오히려 길게 쓰는 형식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생각은 많아요 쓰고 이런 거에 막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잘 쓸 수 있는. (중략) 보통 그런 미래를 쓰면 플랜 이렇게 막 짜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머리 복잡해지고 이런데, 생각보다 이걸.(U5)</p>

I
II
III
IV
V

이야기 나누기 모임이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첫째, 1박 2일의 시간이 짧다는 의견이다. “친해지려고 하나까 헤어진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끝날 무렵 통일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고 싶어했고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지금부터 통일이야기를 하면 더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U6)

이제는 많이 친해졌잖아요. 이제는 주제를 몇 개를 던져줘가지고 난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첫날에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해지고 학술토론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관련) 얘기를 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난상토론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좋을 것 같아요. 통일비용이라든가,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거에서 시작해서…….(U5)

1박 2일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이루며 상호이해와 친밀감을 이루는데 충분했다. 그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는 작은 통일을 이루었다면 그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통일을 위한 난상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는 평가다. 북한 혹은 통일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마련하려면 1박 2일로는 부족했다고 참여자들은 이야기했다.

둘째, 참여자의 섭외, 프로그램의 홍보 면에서 자세한 일정표의 제시가 필요했다는 의견이었다. 물론 이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연구자의 소속기관, 연락처를 기재하여 안내문을 발

송하고 섭외를 하였다. 그러나 안내문만을 봤을 때, 실제보다 지루하고 따분하며 재미없는 느낌을 받았고, 세부일정표가 없어서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점은 향후 개선 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후속모임을 통한 학습자들의 생각 및 변화에 대한 평가

고등학생과 대학생 참여자들의 후속모임은 프로그램 수행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었다. 후속모임 시 나누었던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첫째, 한 달이 지난 후 이 프로그램 중의 어떤 면이, 어떤 이유로 기억에 남는가? 둘째, 통일에 대한 생각이나 북한 혹은 남한에 대한 생각이 프로그램 전과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셋째, 다른 사람한테 이 프로그램 참가에 대해서 권유할 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답을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평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한 달 후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것: 개인의 삶 이야기 나누기

대부분의 학생들은 프로그램 활동 중 사람책 도서관과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표현했다. 처음 접한 타인 앞에서 내면 깊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경청하는 시간은 이들에게는 생소한 첫 경험이었다.

어디 가서 자기 인생 얘기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별 힘든 과정이 없었지만 제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가졌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을 비교해보면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구나 그런.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것 같고요.(H5)

저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보면 태어나서 처음해본 것 같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U8)

일단 제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장기간 사람들의 얘기를 집중해서 들은 적도 없었고.(U6)

우리가 정말 서로 각기 다른 배경에서 왔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짧지 않은 20분 동안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신선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즐겨하는 편도 아니고.(U5)

다양한 배경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말하는 것 보다 듣는 게 더 좋았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아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H8)

내가 20분 동안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친하게 되고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17분 동안 얘기를 한 게 되게 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를 했던 적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에 친해질 수 있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U3)

이들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삶을 반추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다른 사람의 삶을 경청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삶의 나누기는 집단 내 상호간의 친밀감을 높였다. 특히 탈북학생들에게 이 시간은 또 다른 의미의 활동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사연이 있고, 보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힘들다는 거를 느꼈어요. 저는 저 혼자만 얘기를 하

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 누군가 얘기를 아무 말 안하고 들어주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았어요. 입이 근질근질거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방법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H4)

북의 심각한 기아 속에서 겪었던 힘든 삶, 가족의 해체, 죽음을 각오한 탈북,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중국난민 생활, 그리고 낮은 한국 사회로의 정착과 문화충격 속의 적응 등 탈북학생들은 사실 보통 다른 학생들이 상상치도 못한 과거의 역경과 삶을 살았다. 상대적으로겠지만, 의외로 탈북주민들이 이러한 과거의 삶을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익숙할 수 있다. 왜냐면 일단 모든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으로 입국하자마자 자신의 확실한 신원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고, 한국 사회 정착과정에서 북한 혹은 통일교육 강의 및 각종 적응교육 프로그램 참여 명목으로 북한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자신의 삶 자체는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희소성이 높은, 그래서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자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탈북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듣는 것보다 익숙할 수 있다. 이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H4는 다른 사람의 삶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달았고, 듣는 법을 배운 것이다.

특히 이야기 모임에서는 공통으로 공유하고 나누었던 주제는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과 아픔의 경험이었다. 이러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참여자들은 진솔함을 느끼며 공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I

II

III

IV

V

- U7: 저는 어제 ○○한테도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바로 했잖아요. 근데 아 막 제가 눈물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최근에 울어본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감동적인 드라마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지만 보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고, 심지어 좀 더 들어가면 이산가족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가끔씩 TV에 나오잖아요. 보면 사실 굉장히 슬프고 그런데, 와 닿는 수준이 좀 가슴 아프다 이 정도에서 멈추고 바로 뒤돌아서면 끝나는데, 어제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게 실제이기도 하면서 너무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니까 저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만약에 주변 다 울고 그랬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조성하고 그랬으면. 뭔가 얘기는 좀 더 계속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망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그런 감성적이라는 부분이, 그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저는 적은 사람에 속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솔직히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남 얘기를 들으면서.
- 연구자: 뭐가 그렇게 나를 확 감정을?
- U7: 진솔함인 것 같아요. 진짜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거기 속에서도 진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라는 거를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에서 나오는 그런.
- 연구자: 그 진솔함이 내가 막 이해가 됐어? 느껴졌어?
- U7: 충분히 공감이 너무 됐어요. 물론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고 100프로 이해할 수 없을지언정, 매체나 이런 거에서 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그런. 뭐라고 표현을, 좋은 말을 잘 모르겠는데. 진짜 좀 확 와 닿았어요.

집단내 참여자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의 순간을 나누면서 감정이입과 공감의 시간을 만들어냈다. 타인의 아픈 과거의 경험을 들으면서, 참여자들, 특히 탈북학생은 과거 혹은 현재에 부딪히는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경험이 나한테만 안겨져 있다는 자아연민과 착각 속에

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앞으로 삶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내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살아감에 있어서는 진짜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든 시간이었기 때문에.(H3)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았죠. 당연히 저만 힘들 줄 알았는데.(H4)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 모임은 통일을 위한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타인과의 소통방식을 배우고,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장이었다고 평가된다.

(나)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생각의 변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 향상, 그리고 한민족 디아스포라 출현의 역사적 배경 이해

기본적으로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 후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참여자의 변화는 본 프로그램이 통일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부합되는, 성공적인 것이었음을 입증한다.

북한에 대해 (직접) 들으니까 새로웠고, 말 그대로 원미동 사람들 읽는 느낌. 상당히 좋았어요. 친해졌다는 게 위쪽 동네의 개념에. 북한이 아닙니다. 동네예요.(H2)

통일에 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책 같은 거 도서관에서 읽다가 통일관련 책이 있으면 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 프로그램을 떠올리면서 그런 분야를 해볼 것 같아요.(H7)

저는 여태까지 통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곤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게 확고해진 것 같아요. 이게 국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산가족과 우리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원해서 헤어진 게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진 건데 이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가 아니라 통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H5)

방송 같은데 가끔씩 나오잖아요. 북한 관련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채널 돌렸을 뻔한 방송을 다시 돌려서 보고 그런 식으로.(H1)

제가 통일에 대해 많이 관심이 있어서 거기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다녀와서 보니까 더 관심 깊게 할 수 있었고 자료를 찾을 때도 더 주의 깊게. 이거 갔다 와서도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H6)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 대학생의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음을 고백했다. 이는 다른 통일관련 여러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부분이었다.

제가 아무래도 북한학과고 통일에 관련된 대외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른 이탈리아 친구분들이나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을 만났어도 이렇게 단 시간 안에 짧게 많은 얘기를 했던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분단 비용보다 통일편익이 더 좋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번 프로그램이 끝나고서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나라와 나라간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든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구나.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도 쉽게 풀 수 있는 걸 어렵게 가지 말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창이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저한테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U6)

이야기 모임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시각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탈북학생들은 통일은 자신이 담당해야 할 의무이자 과제로 여겼다.

지금은 통일이 어찌면 나에게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통일이 되면 제가 잘 살 것 같아요.(U2)

이 프로그램 하고 나서 베프(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친구들을 만나서 물었어요. 너네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고. 개네는 아니래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힘들게 뺏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두 번째는 아무래도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고위 간부들이 우리 위에서…… 그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게 싫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중략) 서운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생각을 바꾸게 된 게, 내가 한국인이 되려 했지 내가 애네한테 북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지 못해서 애네가 접해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H4)

이들은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의 시각을 변화시키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믿었고, 그것이 자신의 의무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탈북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한국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희망과 사명감이 더 고취되었다.

또한 대학생 이야기 모임에 참여한 재일교포(자이니치, 조총련)와 조선족 출신의 학생들도 입장의 차이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전후 그들의 통일이나 북에 대한 생각은 변화하지 않았다. 늘 이들은 중국이나 일본의 자라온 사

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은 오히려 이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욱 더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생각은 이거는 많이 달라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가 재일조선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깐 내가 조선 사람이라는 의식이라 할까, 이런 의식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일본에 있었을 때 보다 많이. (중략) 내가 초등학교 때 일본에서 조선학교 다녔을 때는 북한 남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선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그냥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의 나로서 의식을 해서 그냥 통일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언젠인가 우리 재일 동포들은 통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일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일본 학교 다니고 일본 사회에 살아보니깐 일본에 보도, 미디어의 영향이 큰데 너무 북한에 대한 인상이 나빠서 남한과 북한을 따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랑 한국에 사는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 하니깐, 저번보다는 북한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U4)

통일에 대한 제 생각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똑같이 여기도 갈 수 있고, 북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통일이 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친척이 있으니까. 제가 2학년 때는 왔었는데 연락이 끊기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U3)

특히 재일조선인이나 조선족 학생들이 참여한 대학생 모임은 같이 참여한 다른 한국 학생들로 하여금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통일도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재일조선인도 만나고 조선족도 만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특히 추석 때 제가 외갓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해서 외할머니 고향에 방문을 했어요. 고향이라 해도 중학교 때인가 다시 부산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의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한번 가자 해서 갔는데, 가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6·25 때 원산에서 월남을 하셨고, 외할머니도 몰랐는데 일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오사카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거기 다니다가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경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조선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가고 일본사람들이 너무 경쟁의식을 느꼈다고, 재가 1등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외할머니 안 오셨으면 제가 어찌면 지금 일본 사람일 수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 친할아버지는 징용 때 삿포로에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만주에 있었다가 하얼빈 갔다가 나중에 해방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북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오버랩 되었어요. 내 핏줄 속에도 다 있구나.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북한이랑 그런 것에 가까움을 느꼈는데 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낀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이런 생각들을.(중략)

이 캠프 전까지는 그냥 그랬구나 그런 것. 이 캠프를 계기로 더 관심 있게 물어보게 되면서. 그래서 그런 통일이라는 게 지금에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북한과 남한 다르고, 일본 다르고, 중국도 다르고. 너무 다른데 불과 한 세대, 두 세대만 올라가면 이렇게 하나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막상 만나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었구나 하는 걸 보면서 통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고.(U5)

한국학생인 U5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북한 사람, 재일동포, 조선족 사람들이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적 맥락에서 자신의 뿌리와 핏줄을 살핌으로써 깨닫게 된다. 한민족이라는 범위 속에서 개인을 위치 짓고 그 연관성을 깨닫게 되니, 통일은 그리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학생, 탈북학생, 재일조선인 혹은 조선족 출신의 재외출신한인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여자들은

통일의 주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통일이라는 게 남과 북의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다문화가정을 통합하는 것도
통일이잖아요.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통일의 범위를 넓
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H4)

통일에 대한 소망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남과 북에 대한 통
일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랑 일본에 거기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분들에게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고요.(U1)

흔히 통일이라는 담론 속에서 우리는 통일의 주체를 남과 북으로 이
야기한다. 그러나 사람의 통일에 있어서 남과 북에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다문화가정을 이룬 이주민들이 존재하고, 먼저 탈
북하여 한국에 정착하며 통일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탈북주민이 있
다. 또한 남과 북이 아니더라도 재외 지역에서 역사적 맥락 속에 자신
을 소수민족인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민족의 통일을 염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마다 다양한 입장과 위치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염원하며 그 주체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
여하며 깨달은 것이다.

(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작은 통일을 이룬 시간

실제로 참여자들이 직접 경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
고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평가 항목 중에 중요하다고 판
단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연구자가 기획 단계에서 세운 교육의 목적
과 목표, 의의가 얼마나 타당했고,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후속모임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질문했고, 다양하고 값진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저는 외로운 사람이면 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에 와서 저는 아홉 명의 사람들이 제 얘기 하나에만 집중을 해주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존재가 되는구나, 그래서 외롭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H4)

친구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얘기할 때는 남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도 너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H3)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또 막상 와보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경험이 된다고 말해주고 싶고.(H6)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북한과 통일에 관한 기존의 관념들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여러 가지 썰을 들을 수 있고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썰은 당신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은 끝날 때 뭔가를 쥐어줘요. 그게 통일에 관한 새로운 생각일 수도 있고, 혹은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일 수도 있고, 혹은 오만원일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오신다면 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H2)

통일이라고 하는데 굳이 통일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살아왔던 걸 말할 수도 있고,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고,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설명하고 싶습니다.(H8)

통일된 한국에 놀러갔다 와라. 통일한국에 놀러갔다 와라. 통일에 대해서 강요하는 그런 머리 아픈 것이 아니고 놀러갔다 와서 체험을 해보고…….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U5)

I

II

III

IV

V

정리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따뜻하고 외롭지 않은 시간이었고,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고, 기존의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자아와 타인의 소통과 공감,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통일을 이룬 시간이었다.

●그림 IV-12 후속모임



다. 향후 개선 방향

이번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1박 2일 일정의 이야기 모임은 이것이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연구자뿐 아니라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통일교육효과도 높았다.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보급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홍보와 섭외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에서는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구자 개인의 인맥을 동원하여 소수 인원이 섭외되었다. 단지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1박 2일의 프로그램이 실험적 연구인만큼 연구대상이 아닌 연구자로 참여해 달라고 권고를 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참여자에게 일정한 참가비도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활용되려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섭외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충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1박 2일의 프로그램 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부족했다. 다행히 숙박이나 식사를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내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장소 섭외비나 숙식비용이 절감될 수 있었다. 향후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을 위한 일정으로 1박 2일이 적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평가 시, 1박 2일이 짧은 일정이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1박 2일의 시간은 타인과의 소통, 상호이해, 유대감 형성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으로 작은 통일을 이루었다는 참가자들의 평가는 있었지만, 아쉬운 점으로 참가자들은 통일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통일교육의 형태도 그 학습 목표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에서 북한, 통일에 대한 논의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1박 2일의 시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고려는 유동적으로 기획·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야기 모임의 성공여부는 사회자, 진행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사회자는 이야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개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

고, 참여구성원들 개개인의 생각, 감정을 살피며, 적절한 질문으로 원활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야기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이러한 진행자의 역량이 꽤 높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본 프로그램이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으려면 역량 있는 진행자의 배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행자 사전교육 혹은 오리엔테이션, 또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V. 인문학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인문학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

가. 인문학교육의 필요성 및 의미

통일교육은 한반도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통일교육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변화되어왔다. 무엇보다 철학적 논리 구조가 충분하지 못하고,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 남북통일에 대한 비전 공유 및 통일문화 형성의 밑거름 마련을 위한 남북 간 문화이해를 제고하려는 관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향후 지속적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비전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교육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의 갈등,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 민주주의의 성숙과 연관된다.

통일교육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삶의 문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능력의 배양,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의 함양,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건전한 시민의식 등의 교육이 통일교육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으로서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의사소통적 상호이해를 통해 사회의 공동가치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또는 합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사회의 공통적 가치가 사회체계의 구조적 요소 안에서 제도화되고, 공통의 가치모범과 행동지향이 내면화될 때 사회통합은 성취된다”¹⁰⁶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I
II
III
IV
V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통일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통일의 편익이나 정치적 권력에 관한 시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남북 주민의 삶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의 주역인 남북 주민에게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적 접근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통일과 관련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되는 공간이다. 통일교육의 다양한 논의에서 적극적이고 인문학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때 통일인문학은 통일을 사유하는 인문학자들의 논의 또는 인문학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인문학자들이 자신의 사유 영역에서 통일에 대한 사유를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의미한다.

나. 인문학적 소양과 통일담론

인문학과 통일교육을 결합한다는 것의 일차적 의미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학문적인 객관화의 대상으로서 인문학적 통일담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학문적 객관화의 대상으로 보고, 학문적 대상으로서 인문학적인 통일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이다. 한국의 인문학은 분단 극복과 통일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사유하지 않았다. 통일은 우리의 현재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은 빈곤하였다. 인문학적 성찰이 빈곤한 것은 무엇보다 통일을 두 개의 국가를

¹⁰⁶ 정은미,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변화,” 『다중전환의 도전과 비판사회학』 (비판사회학대회 발표자료집, 2013.10.26), p. 32.

하나의 민족국가로 합치는, 정치경제적인 통합의 문제로만 사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통일담론이 사회과학 주도로 이루어져 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볼 때, 인문학이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사유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생활습관과 관련된다. 분단 7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정서와 욕망 그리고 생활습관이 분단현실에 길들여져 있던 이유가 크다. 분단의 시간 동안 통일당위성과 의미에 대한 정치사회적 차원의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남과 북에서 통일교육은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었다. 역설적으로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가 구호나 상징의 차원에서 강조되었지만, 정작 분단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였다. 분단 현실에 대한 불감증을 유발하면서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의 진척을 가로막아왔다.

분단 현실에 대한 불감증의 이면에는 남북의 상호 적대성에 근거한 국가 폭력과 자기검열 체계라는 정치적, 사상적 제약이 작동하고 있었다. 남북은 상호 적대성을 근거로 한 국가폭력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국가 폭력은 나아가 일상적 삶을 위협하는 제약조건으로 끊임없이 환기되었다. 자기검열은 사고의 폭을 제한하거나 폐쇄적으로 만들었고 일상에서 적과 나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만연시켰다. 당연히 인문학적 상상력은 위축되거나, 인문정신 자체가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의 빈곤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최근 통일유보론과 통일회의론의 등장도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 부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지적 풍토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통일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

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의 당위성을 문제 삼고,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를 되묻는 작업이다.¹⁰⁷

현재 통일논의 자체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통일문제를 보는 민족 중심과 국가 중심의 두 시각이 대립하기 때문이다.¹⁰⁸ 국가 중심의 통일론은 냉전기 정부의 통일정책을 특징짓는 것이다. 북한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으로 설정하고 통일을 대한민국의 국가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반면 민족 중심의 통일론은 탈냉전 이후 북한을 민족의 번영을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동반자 관계로 본다. 이를 위해서 분단 해소를 통한 민족공동체 회복을 강조한다.

통일에 대한 두 시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국가 중심 통일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을 두 개의 국가(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국가 간의 통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국가 간의 통일로만 볼 경우, 통일은 정치경제적인, 거시적 체제 통합으로 그치게 된다. 독일 통일이 보여주듯이 사회문화적 통합이 결여된 통일은 통일 이후에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 둘째, 이질적 체제의 평화로운 통일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에는 동서독과 다르다. 한반도는 체제갈등이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비화된 경

¹⁰⁷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 철학』, 제21권 2호 (2010), p. 3.

¹⁰⁸ 통일문제를 보는 첫 번째 패러다임은 국가(안보)중심주의다. 이 패러다임에서 통일의 염원은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흡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통일이 체제선택의 문제가 되는 이상 통일정책은 어쩔 수없이 북한과의 제로섬 게임의 틀 속에서 수립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반해서 민족중심주의적 패러다임은 종족적, 역사적, 문화적 단일성과 정체성을 유지해 온 한민족의 존속과 번영을 국가체제보다 우위의 가치로 삼는 입장이다. 이 패러다임에 기초할 때 분단 그 자체가 남북국가의 체제 모순에 의한 것이므로 분단 해소를 통해 진정한 민족발전이 가능하며 민족국가의 설립과 발전은 민족통일을 통해서만 의의를 갖는다. 최완규, “김대중 정부 시기 NGO 통일교육의 양극화 현상,”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 (2011), p. 280.

힘을 갖고 있다. 때문에 국가지향의 통일론이 쟁점화될수록 오히려 통일에서 멀어질 뿐이다.

민족 중심 통일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한 민족 동질성을 상징함으로써 차이를 억압하는 ‘동일성의 폭력’을 낳을 수 있다. 원초주의적 동질화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치관과 행동방식의 차이를 단일한 틀에 용해시키는 획일주의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족 내부의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인종구성원과의 충돌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분단된 두 국가의 실효적 지배 상태를 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혐의를 낳을 수 있다. 같은 민족이지만 엄연히 두 개의 체제로 현존하고 있는 것이 분단 현실이다. 분단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통일지상주의의 위험을 내포한다.

민족 중심적 시각과 국가 중심적 시각으로는 남북 주민이 같은 민족 이면서도 서로 다른 체제 속의 ‘국민’과 ‘인민’이라는 분단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극복하는 데 미치지 못한다. 과도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민족성과 국가성이 함께 고려되는 균형 있는 시각이 요구된다.

민족성과 국가성은 균형과 양립의 문제이지 대체나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논의에서 국가중심의 시각과 민족중심의 시각의 대립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남북은 분단된 두 국가의 실효적 지배 상태를 인정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만들어가는 민족과 국가가 함께 하는 통일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민족과 국가가 함께 하는 통일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단계에서 통일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통일론은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발표되고 1994년에 일부 수정되어 공포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3단계 통일론으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단계로부터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최종의 통일국가 단계로 이행하는 3단계를 설정한다(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 단계→통일국가 단계). 여기서 화해·협력과 남북연합 단계의 내용은 민족중심이며, 통일국가 단계의 내용은 국가중심이다. 현 단계에서 통일은 반드시 단일국가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장기간에 걸친 교류, 협력과 평화 공존, 경제·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 나아가 국가연합을 통한 민족공동체 수립(1, 2단계)으로 여겨져야 한다. 전통적 통일론에서 말하는 통일국가(3단계)는 남북 상호 간의 충분한 교류, 협력과 평화 공존, 나아가 국가연합을 형성한 이후의 문제이다. 통일은 화해협력 단계의 성숙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 형태로 제기될 수 있는 이상의 목표이지 당위나 필연은 아니다.¹⁰⁹ 통일국가 형성은 국가연합 이후의 미래적 목표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통일을 명시적으로 선언한다면, 북한은 남한이 흡수통일을 시도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역설적으로 분단을 지속,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남북은 서로의 국가성을 승인하면서 같은 한민족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 교류·협력하고 소통의 태도와 역량을 증대시켜나가면서 ‘민족적 협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사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와 민족이 함께 하는 통일론을 수용하면서, 나아가 ‘전지구적 사상지형’까지 포괄하는 통일논의도 필요하다. ‘전지구적 사상지형’이란 근대와 탈근대가 중첩하고, 인권과 생태 등의 가치에 대한 범세계적인 자각과 대안이 모색되며,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민국가의 위

¹⁰⁹ 위의 글, p. 299.

상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21세기의 사상적 지형을 의미한다. 기존 통일담론은 국가와 민족을 부동의 전제로 삼고 있다. 기존 통일담론은 21세기의 사상적 지향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 보다 진전된 발상이 필요하다.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주로 정치경제 체제의 측면만 논의되었던 통일담론에서 나가야 한다. 이는 통일을 20세기형 국민국가의 실현, 분단 이전의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단선적이고 정형화된 틀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일의 주역인 남북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정치공동체의 맥락에서 통일을 사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을 민족의 공존·화해의 정신을 토대로 한 남북 소통과 교류, 나아가 미래지향적 정치공동체의 수립으로 이해할 때, 국가 중심과 민족 중심의 대립 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양자가 공존하면서도 한민족 전체의 미래적 비전과 희망을 담은 보다 풍부한 통일논의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

다. 인문학적 통일교육과 상상력

인문학 관점의 통일교육의 두 번째 의미는 미래의 상상력으로서 인문학적 접근이다. 새로운 미래 고향인 통일한반도를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통일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다. 통일인문학은 통일이 되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주로 한다. 어떤 목표의 당위적 달성을 이야기할 때, 상황의 현실적 조건에 대한 진단에 근거를 두고 주장되지 않는다. 당위성의 성격은 바로 당위적 목표가 상황 판단에 입각하여 좌우되거나 조정되는 목표가 아니라는 절대성에 있다. 통일의 당위성도 그러하였다. 그동안 통일논의는 통일의 현실적 가능

성을 검토한 끝에 세워진 목표가 아니었다. 통일은 절대적 당위로 내 세워졌다.¹¹⁰

그러나 최근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란 점이 더 이상 통일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민족적 유대와 정서에 입각한 통일론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통일이 되면 북한의 어려운 경제를 남한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급격한 통일이 수반할 경제적 비용에 대한 우려도 증대하고 있다. 나아가 통일이 안 되어도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는 논리나 평화를 앞세우면서 통일을 유보하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통일당위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 ‘경제’, ‘평화’의 통일당위론이 도전받고 있다. 통일인문학은 민족, 경제, 평화에 대한 의미를 재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1) 통일과 민족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가장 흔한 근거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적 기간 동안 단일민족국가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흔히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한반도를 터전으로 하여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왔다고 이야기된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분단은 수천 년 동안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해 온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된다. 또한 외세의 강요에 의해 생겨난 부끄러운 역사적 현실이 된다. 따라서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일은 단일한 역사문화적 공동체를 이루어 온 우리 민족사에서 볼 때 너무도 당위적인 과제가 된다.

¹¹⁰-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p. 3.

통일을 원하는 우리의 의식과 동기의 저변에 민족적 동질성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즉,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 등에 대한 확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지배적인 민족 관념은 단일민족의 혈통이나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 등 객관적 공통성에 입각한 것이다. 혈연적, 문화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정체성을 갖는 ‘종족적(Ethnic)’ 민족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민족에 대한 일상적 이해로 자리 잡은 것은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의 식민주의적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였다.¹¹¹ 저항적 민족주의는 외세 침략에서 자주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자연히 투철한 민족의식을 전제로 한다. 투철한 민족의식은 일제에 맞서 목숨을 걸고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에 대한 정체의식을 요구하였다. 종족적 민족 개념은 ‘우리가 누구인지’, ‘왜 단결해야 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 목숨을 걸고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었다. 종족적 민족개념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이유를 제공하였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 우수한 고유 문화에 대한 관념 등 고대로부터 한민족이 존재했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민족적 전망을 고수하는 과제는 저항의 이유로 충분하였다.¹¹²

하지만 최근 민족주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한민족이 고대부터 혈연·지역·언어 공동체로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했다는 것은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백두산, 단군신화 등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상징은 상상된 것이라는 시각이다. 역사적 기원의 측면에서 볼 때, 당대의 정치적 유용성을 위해 구성(발명 혹은 상상)되었다는 것이다. 신화적 상상물인 단일민족론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이

111. 위의 글, p. 3.

112. 위의 글, pp. 3~4.

끌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¹¹³ 또한 종족적 민족관념은 실천적 차원에서 근대정신에 위배되는 억압과 차별을 가져온다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종족적 민족관념은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강조로 타민족 침략을 호도할 수도 있으며, 민족 내부의 차별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 관념은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오늘날 이주노동자들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인종구성원과의 충돌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민족 동질성 관념은 수용되기 어렵다. 혈통, 언어, 문화 등 원초적인 속성이 전근대로부터 이어져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체성 일반이 그렇듯이 민족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역사적 시간의 진행과 공간적 차이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 민족정체성은 변화하면서 형성되는 가변적 특성을 지닌다. 20세기를 보더라도 한민족은 망국과 이산 그리고 분단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다양한 정치공동체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은 해당 지역(남과 북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용되었다. 혈연과 문화의 불변적 동질성을 고수하면서, 이를 근거로 통일당위성을 주장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혈연과 문화에 기초한 종족적 민족 개념의 해체를 주장하는 탈민족주의적 입장 역시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분단을 인위적인 것으로 느끼고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정서가 강한 이유 중 하나가 혈연적, 문화적 공통성이다. 근대적 민족 국가의 역사는 짧지만, 혈연적, 문화적 공통성을 유지해 온 역사는 오래되었다. 더욱이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

¹¹³. 위의 글, p. 4.

배를 받았고, 해방 후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분단되었다. 이러한 20세기의 역사적 경험은 통일을 향한 염원의 바탕이 되었다. 종족적 민족 개념은 20세기 전반기의 망국과 20세기 후반기의 분단 현실 속에서 힘을 얻었다. 종족적 민족 개념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대중들의 삶 속에 깊이 강박된 현실이고 끈질긴 생명력과 현실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통일은 종족적 민족 개념의 고수나 해체냐의 이분법으로 사유될 문제가 아니다. 한민족 구성원들이 서로 결합되는 미래기획적 차원에서 사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반도 통일문제의 사유는 한민족의 역사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획으로 사유되어야 한다. 비록 서로 다른 정치적 환경 아래에서 민족정체성을 다양하게 변용시켜왔지만, 민족적 유대와 정서가 강력한 한민족 구성원들의 욕망과 한민족의 역사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새로운 ‘민족적 합력’을 창출하는 방향에서 통일문제가 사유되어야 한다.

(2) 통일과 경제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

통일이 경제와 관련되어 논의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일이 가져오게 될 경제적 손실이다.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통일에 대해 유보적, 회의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 즉 통일비용론이다. 다른 하나는 분단이 초래하는 손실과 통일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통일을 정당화하는 논의 방식이다. 이는 통일이익론 또는 통일편익론이다. ‘통일비용론’의 핵심은 경제적 비용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를 남한이 책임져야 하고, 이로 인해 남한 주민의 삶의 질이 나빠진다는 논리다. 이때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통일비용은 정치·경

제·사회·문화분야에서 치루어야 할 종합적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비용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이 통일 후 치러야 하는 막대한 통일비용과 북한의 경제난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서 힘을 얻었다. 통일비용론은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접근태도를 감상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각성시키고, 통일에 대하여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산하면서 통일기피 심리를 확산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

‘통일이익론’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설득하기 위해 개발된 논리이다.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우리 민족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통일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내수시장을 키우고, 군사비를 투자비로 전환시키며,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주면서 우리 민족이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한마디로 통일은 경제 발전을 통한 민족 역량의 극대화를 가져와, 우리가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도 경제가 발전하면 취업의 기회도 확대되고 국민의 생활수준도 향상된다는 것이다.¹¹⁴

통일비용론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남한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에 초점이 있다. 반면 통일이익론은 남북의 평화 공존과 점진적 경제교류 협력을 전제로 남북의 공통적,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일이익론은 통일이 가져올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통일논의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 동안의 통일논의에

¹¹⁴ 위의 글, p. 8.

서는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을 거창하게 논의하였다. 하지만 통일이 개인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통일비용론이 통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분단이데올로기로 작용한 상황에서 이를 역전시켜 통일이익론으로 전환시켰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 공통의 경제적 이익의 부각은 이념적 접근보다 남북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한다. 이념을 앞세우면 남북의 대립을 강화하지만, 공통의 경제적 이익의 부각은 남북화해의 길을 여는 소프트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이익론은 경제적 이익을 모든 것의 우선 가치로 삼는 경제주의적 관점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 통일문제에 경제적 이익의 관점을 앞세우면 이상과 가치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이란 말에도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만연된 경제주의적 관점이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다. 통일을 돈과 관련시켜 논하는 자체가 우리 삶의 방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이라는 경제적 개념은 또 다른 형태의 분단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소지가 있다. 1990년대 중반의 ‘통일비용론’에서 확인하였듯이, 통일을 해서 경제적 이익이 없고, 오히려 민족 분열이 우려될 경우 동일한 논리가 통일반대론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남북 공통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되 경제주의적 관점이 아닌 인문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적 이익과 손실의 관점은 상호신뢰와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적과 연계되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균형 있게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총체적인 인간 발전 및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분단과 통일을 사유해야 한다. 남북분단은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왜곡해 왔고 막대한 고통을 초래해왔다. 통

일은 마땅히 이러한 질곡을 극복하려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의 경제적 이익 혹은 손실을 말하기보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통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에 중점이 있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어떤 도달 상태를 전제로 하는 득실의 계산보다 지금 당장의 고통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통일과 평화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은 냉전기의 반공주의적 냉담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족동질성에 대한 회의와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남북의 평화 공존과 현상유지를 우선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원칙을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공식적 통일방안은 ‘평화통일론’이었다. ‘평화통일론’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의미한다. 이때 평화는 통일이러는 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평화가 통일과 다른 독자적인 영역을 지닌 목적가치가 아니라,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에 증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대는 세계적 탈냉전과 더불어 남북 화해의 기운이 싹트고, 1987년 이래 민주화가 진척되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탱해 왔던 기존 사고틀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세계적 탈냉전과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증대되었고, 평화, 인권, 성, 환경, 생태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평화, 인권 등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문제

의식이 확대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였다. 즉, 평화를 통일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가치인 통일과는 다른 목적을 지닌 보편적인 가치이며, 따라서 평화와 통일의 과제가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증대하는 관심의 산물이었다.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분리함으로써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평화’와 ‘특수한 것으로서의 통일’이라는 새로운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으로 인해 자칫 평화로운 공존 속에서 두 국가로의 분리와 분단의 현상 유지라는 부정적 사고를 확대할 가능성도 또한 높여 놓았다.¹¹⁵

‘평화우선론’은 통일이 안 되어도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거나 평화를 앞세우면서 통일을 유보하거나 선택적 과제로 여기는 일체의 경향을 의미한다. 평화우선론에는 통일을 단일민족국가 수립으로 여기는 관점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통일을 두 개 국가를 통합한 하나의 민족국가 수립으로 여길 때,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갈등과 전쟁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우선론에는 통일보다 평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이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장의 이유이다.¹¹⁶

통일의 이념이 협소한 민족주의의 논리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미래지향적 가치 및 보편적 가치로 여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가 더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화우선론은 논리적 근거가 다양하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도 남북의

115.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2호 (2010), p. 201.

116. 권혁범, “통일에서 탈분단으로,” 『당대비평』, 가을호 (2000), p. 159.

평화 공존이 가능하며, 두 개의 국가로 평화 공존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통일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통일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평화의 조건을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통일은 평화 정착 이후의 선택적 과제로 여겨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평화와 통일을 구분하는 시각에는 기존의 통일담론이 분단을 강화시켜왔다는 전제 아래 무조건적 통일이 아니라 적대의 청산과 평화 공존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놓여 있다. 통일지상주의는 문제가 있으며, 통일이 한반도 주민의 평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 여겨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나무랄 바 없다. 기존의 통일담론이 오히려 분단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해왔다는 문제의식도 타당하다. 그리고 평화의 문제의식은 통일의 강조가 불러올 수 있는 민족주의의 과잉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약 남북의 적대와 갈등이 민족내부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국가 간의 문제라면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화 공존에 합의함으로써 평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분단국가 간의 관계이다. 비록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지만 통일지향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남북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 ‘역사적 국가’이다. 분단은 아무런 명분 없이 외세에 의해 강요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는 통합의 에너지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적대 해소는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의 관계와는 다르다. 남북의 평화 과정은 어느 국가와 국가의 평화 공존과 달리 그 자체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는 만큼 통일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평화 정착이 없는 통일은 전쟁

과 파국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통일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는 언제 위기가 고조될지 모르는 취약성이 있다.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는 궁극적으로 분단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한 이룩할 수 없고, 통일 역시 평화적인 방도를 통해서만 성취되어야 한다. 양자를 대립적 가치로 인식하기 보다는 ‘평화를 위한 통일’과 ‘통일을 위한 평화’라는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¹¹⁷

라. 분단 체제 극복과정으로서 인문학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세 번째 의미는 분단 체제 극복 과정으로서 인문학적 접근의 유용성이다. 한반도에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분단 체제 속에서 내면화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

세계적 냉전이 끝난 직후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관계를 고민해왔다. 그 첫 번째 산물이 남북의 상호 인정, 내부문제 불간섭 그리고, 화해·협력을 합의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였다.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 남북은 2000년 정상회담에서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 공존 그리고 화해·협력의 통일과정에 합의했다. 평화적이며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 통일을 이루자고 합의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전복하지 않으며,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평화적,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약속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¹¹⁷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p. 189.

통일이 체제와 이념을 하나로 만드는 일회적 사건 혹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발상은 2000년 6·15공동선언 제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합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는 자본주의 통일 혹은 사회주의 통일 등 통일의 이념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통일과정’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제2항은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 공존 그리고 화해·협력의 과정에 합의한 것이다. 서로 다른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합쳐지는 일회적 사건으로서의 통일은 전쟁과 파국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므로, 평화적이며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 통일을 이루자고 합의한 것이다.¹¹⁸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은 학자마다 강조점이 다르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사회문화적 통합을 중시하는 학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개념은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 냉전기 동안 남북은 분단 극복과 통일은 이념과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통일은 민족사적 당위성 차원에서 단일한 국민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단일 국가로의 통일체제이념의 통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통일을 강조할수록 오히려 갈등과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70년 가까운 동안 상대를 소멸되어야 할 존재로 여기면서 적대와 증오를 되풀이한 남북관계를 염두에 둘 때 단번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 가능하더라도 전쟁이나 엄청난 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이라면 이런 의문은 당연할 것이다. 통일개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이 학계에 확산된 것도 이 때문이다.

¹¹⁸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p. 14.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은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는 통일을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체제와 이념을 하나로 만드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통일은 분단구조가 만든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보다 나은 상태로 남북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동태적 과정(Process)으로 본다.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남북의 소통과 치유 그리고 통합의 과정이다. 베트남 통일과 같은 무력통일이라면 군사력이 중요할 것이며, 독일 통일과 같은 흡수통일이라면, 압도적인 경제력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소통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롭게 통합된 민족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마. 사람의 통일로서 소통·치유·통합

분단은 단순히 남북의 체제 대립으로 환원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분단은 단순히 정치경제 체제의 분열만이 아니라 그 체제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가치·정서·문화의 분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분단의 지배 질서는 이데올로기 수준의 의식적, 자발적인 동의로부터 일상적 반복을 통해 체화되는 무의식적인 동의에 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분단은 어느 한 쪽을 도저히 이해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서를 만연시켰으며 남북 주민들의 마음과 몸에 이러한 정서가 새겨져 있다. 이는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일상적 삶 속에서 집단 무의식으로 내면화된 것이다. 분단은 남북 사회 체제의 특징뿐만 아니라 문화 현상으로부터 개인의 일상적 행위와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은 단순한 체제 대립을 넘어 남북 주민의 삶과 욕망을 비틀어놓고 정서와

I
II
III
IV
V

감수성 등 삶의 결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반인문적 생활문화의 상처를 남겼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 중심의 기존 통일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그것은 통일이 단순히 체제의 통합만이 아니라 남북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문화적 통합, 곧 ‘사람의 통일’이라는 관점이다. 즉, 통일은 단순히 체제와 제도의 통합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의 통합 과정이다. 이는 정치경제적인 체제 통합을 추구하는 사회과학적 통일담론을 넘어서 남북 주민들 사이의 정서적, 문화적 소통, 분단 상처의 치유 그리고 가치·정서·생활상의 통합을 창출하려는 소통·치유·통합의 노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1) 소통

남북의 소통은 정치 교류나 경제 교류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내면화된 적대적 생활문화를 극복하고 서로를 내면적으로 이해하는 정서의 교감을 포함한다. 흔히 남북의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념과 정서, 그리고 생활문화를 존중하고 용인(차이의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플레랑스(Tolérance)’라는 말은 ‘관용(타인의 실수나 잘못의 너그러운 수용)’이 아니라 ‘견디다’의 의미, 즉 우리에게 지워진 부담을 견디다는 의미를 지닌다. ‘플레랑스’한다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이다. 즉, 차이의 인정은 타인의 견해에 대한 찬성이나 동의가 아니라, 반대(Objection)하지만 용인(Acceptance)하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타인의 종교적, 정치적 견해를 참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에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기로 합의를 한 것도 이런 의미의 ‘차이의 인정’에 해당한다.¹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는 견고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차이의 인정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이해하며 ‘타자의 타자성’을 지워버린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러저럭 관계를 만들어가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출현할 때 우리는 곧바로 타자를 비합리적인 것이자 이해 불가능한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남북관계가 그러하다.¹²⁰ 타자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가로막는 원한 감정과 적대의 심리가 지난 70년 가까운 동안 남북 주민의 몸과 마음에 आरो새겨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일반론적 의미에서 차이의 인정을 수긍할지라도, 정작 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타자를 수용하지 않으려 든다. 따라서 북이라는 타자는 단순히 나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타자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위협하는,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를 유발하는 ‘타자’이자 이해 불가능한 대상으로서 ‘타자’이다. 북이라는 타자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타자성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믿음과 성향들이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에 आरो새겨진 결과이다.

따라서 서로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부정하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타자로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 현실에서 타자성은 다른 차원에서 사유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소통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공통규칙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타자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나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다. 이럴 때만 남북이 상대를 자신과 동일화하려는 유혹을 극복하고 각자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동반하는 소통의 과정이 가능하다. 소통은 나와 차이나는 타자와의 불편한 만남을 감수

119. 이병수, “남북관계에서 소통과 치유의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제43집 (2013), pp. 354~355.

120. 위의 글, p. 355.

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초래되는 자기 정체성의 변화까지도 감수할 때 비로소 운위될 수 있다. 소통은 내 관점의 특권화를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타자의 이질성과 낯설음에 대면하는 용기와 과정상의 긴장을 견디는 인내를 동반한다. 이 과정에서 나도 나 자신이 되며, 타자도 그 자신이 되는 새로운 공통규칙이 형성된다.¹²¹

(2) 치유

치유는 남북이 복수와 원한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남북 주민의 집단적 인격 형성을 왜곡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및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남북 사이에는 지난 70년 가까운 동안 전시 체제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군사비 지출과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적대성은 남북 주민의 일상적 삶 속에서 내면화된 자발적 동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남북의 적대적 관계는 분단과 전쟁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서로를 가해자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보복과 원한감정’을 자극하고 있다.¹²²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전쟁공포가 실질적으로 제거되는 현실적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분단의 상처가 집단 전체의 인격 형성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¹²³ 이런 점에서 분단의 상처는 치료(Therapy)의 대상이 아니며 치유(Healing)의 대상이다. 분단의 상처는 개인이 앓고 있는 병이 아니라 흔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으로, 구

¹²¹ 위의 글, p. 356.

¹²² 위의 글, p. 357.

¹²³ 위의 글, p. 354.

조직 차원에서 존재한다. 이를테면 ‘반공주의’처럼 치유의 대상은 개인의 병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 전체가 가지고 역사적인 상처이다. 따라서 치유는 분단의 적대적 사회심리를 극복하고 통일의 사회심리를 지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의 비극적 역사를 성찰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상처를 덧나게 하고, 서로를 가해자로 여기는 적대의 심리가 아닌 고통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남북이 모두 일제 식민지 지배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으며, 식민지 지배의 고통과 분단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를 창출해야 한다. 고통에 대한 공감을 통한 유대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극적 역사를 분단국가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를 자신의 짐으로 떠맡는 데서 출발한다. 분단 이후 남북은 자신의 체제이념에 불리한 고통의 기억들을 은폐하거나 금지해왔다. 이념과 안보를 앞세우는 관점은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적 현장에서 우리나라 오는 고통의 목소리들을 외면하거나 차단한다. 따라서 내가 속한 집단의 비극적 역사를 분단국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¹²⁴

분단 상처의 치유는 기존의 종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의 방식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생활문화적 정서와 욕망의 공통성을 창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적대성의 치유가 향해야 할 방향은 타자성의 인정을 전제로 남북의 통합적 서사를 모색하는 데 있다. 분단 이전에 형성된 민족 공통의 생활과 정서로부터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서사를 개발할 수도 있으며, 분단시

¹²⁴. 위의 글, p. 357.

기 동안 각기 다른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되어온 남북의 정치적, 문화적 차이를 민족적 통합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을 수도 있다.

(3) 통합

남북의 통합은 분단 이전의 어떤 역사적 시점으로 단순히 회귀하는 복고적인 것이 아니라, 이질성이 서로 부딪혀 새로운 민족적 공통성을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난 70년 가까운 동안 분단의 적대성과 상처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분단 체제 속에서 내면화된 정서와 가치, 그리고 문화의 이질성도 심화되었다. 남북한의 통합은 단순한 정치경제적인 체제의 통일이 될 수 없고 남북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욕망과 정서적 교감을 확장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의 통합은 민족의 다른 한 부분에 대한 연대를 요구하는 열린 개념이다. 다시 말해 남북 통합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호 대립되는 생활문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의 상호소통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치, 정서, 생활문화의 공통 규칙을 서서히, 그리고 새롭게 형성하는 미래기획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2. 선행사례 분석

가. 통일교육 현황과 인문학교육 접목사례: 시민강좌

통일교육에서 인문학 관련 강좌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통일교육으로서 인문학을 특화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통일교육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은 캠프나 기행, 공모전 등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통일교육에 인문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 사례로는 (사)경

실련 통일협회의 ‘주제가 있는 통일인문학 강좌’가 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1994년 발족된 이후 꾸준히 통일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매년 진행하는 통일, 남북문제, 평화 관련 아카데미인 ‘민족화해 아카데미’가 있다. 민족화해 아카데미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내용을 보면 정치분야(북핵문제, 남북대화, 6자 회담), 남북경제협력(남북 자원 협력, 개성공단), 쟁점토론(남남갈등, 북한 인권), 북한 문화(북한 영화 관람), 북한 실상(영상으로 보는 북한) 등을 포괄한다.

경실련 통일협회의 프로그램에 인문학이 결합된 것은 2010년부터이다. 2010년부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표명하면서 기획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기존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역에서 벗어나 주제를 중심으로 아카데미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 통일협회의 특화된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문학을 도입한 ‘통일인문학 강좌’가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인문학 시민강좌’라는 타이틀로 3기까지 진행되었다. ‘주제가 있는 통일인문학 시민강좌’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과 협력하여 그 연구성과를 수렴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역시 (사)경실련 통일협회와 함께 시민사회에 통일문제를 확대하고,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인문학적 소통과 실천을 통일문제에서 실천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기존의 아카데미와 달리 인문학과 통일을 기획 주제로 삼아 특화시켰다는 점이 이전의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구분된다.

‘주제가 있는 통일인문학 시민강좌’의 첫 번째 시민강좌는 2011년 4월 4일(월)부터 5월 30일(월)까지 진행되었다. 통일인문학을 주제로 총 8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통일인문학 전체 주제는 ‘문화로 읽는 북한, 민족제일주의와 음악으로 보는 북한’이었다. 북한의 문화와 조선민족제

I
II
III
IV
V

일주의를 주제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세부 강좌는 ‘문화로 보는 북한의 정체성’,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발생과 전개’, ‘선군시대의 민족주의 담론’,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역사 호명’, ‘북한의 음악: 음악관’, ‘혁명가요’, ‘생활음악’, ‘음악정치’였다.

◉ 그림 V-1 2011년 경실련 통일협회의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프로그램’




경실련통일협회

주제가 있는
통일인문학강좌 - 2기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

2011년 11월 15일~12월 21일 저녁 7시~9시 (총6주)

다름에 대한 인정, 차이에 대한 소통,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
대학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통일강좌가 시작됩니다.

- ❖ 주 최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경실련통일협회(공동 주최)
- ❖ 일 시 : 2011년 11월 15일(화)~12월 21일(수) 저녁 7시~9시 (총6주)
- ❖ 장 소 : 건국대학교, 경실련강당
- ❖ 참가비 : 6만원(개별강좌당 15,000원, 경실련 회원 및 대학생 50% 할인)

프로그램

차수	강의주제	장소
1강 11월 15일(화)	[입학식] 통일과 민족사적 당위성 이병수(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원 HK교수)	건국대통일 인문학회의실 (문과대학204호)
2강 11월 22일(화)	분단 트라우마와 통일과 평화 이병수(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원 HK교수)	건국대통일 인문학회의실 (문과대학204호)
3강 12월 2일(금)	남북문제 현인과 전망 권영선(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경기도 가평 (현장학습)
4강 12월 7일(수)	소통으로서의 통일 박영균(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원 HK교수)	경실련 강당
5강 12월 14일(수)	치유로서의 통일 박영균(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원 HK교수)	경실련 강당
6강 12월 21일(수)	[수료식] 통일과 인문학적 패러다임 김성민(건국대 철학과 교수)	경실련 강당

문의 : 02-766-5624 / tongil@ccej.or.kr



‘주제가 있는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제2기 강좌는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를 주제로 하였다. 통일에 대한 일상적인 담론을 주제로 6강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강좌 주제는 ‘통일과 민족사적 당위성’, ‘분단 트라우마와 통일과 평화’, ‘남북문제 현안과 전망’, ‘소통으로서의 통일’, ‘치유로서의 통일’, ‘통일과 인문학적 패러다임’이었다.

‘주제가 있는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제3기 강좌는 통일과 해외코리안 문제를 결합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분단 현실’이 주제였다. 남북과 해외에 살고 있는 코리안의 문제와 통일문제를 결합하여 인문학 강좌로 개발하였다. 남북의 통일문제는 분단 당사자인 남북을 떠나 해외코리안들의 통합을 의미한다. 민족분단의 비극으로 시작된 한반도 통일은 남북의 통일과 함께 동포사회의 통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통일인문학의 주제로 삼았다. ‘주제가 있는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제3기 강좌는 2012년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6주로 진행되었다. 강좌의 주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민족정체성’, ‘북한주민의 생활문화’,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역사적 트라우마’,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생활문화’, ‘문화를 통한 통합 방안’, ‘중국 조선족의 생활문화’이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인 트라우마, 디아스포라 등에 대한 문제를 분단과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2013년 ‘주제가 있는 통일인문학 시민강좌’는 ‘남북문화’를 주제로 하여 4개 강좌로 구성하였다. 201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남북 문화의 차이와 거리’, ‘독일 통일과 문화 갈등’, ‘남북 문화의 차이와 거리-가치관을 중심으로’, ‘문학으로 보는 남북’의 강좌로 구성하여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강의실과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다.

통 일 인 문 화 아 카 데 미

제6차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차수 일경	제목	강사
1강/10.17(목)	남북문화의 차이와 거리 - 언어를 중심으로	권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강/10.24(목)	독일통일과 문화갈등	김 연(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3강/10.31(목)	남북문화의 차이와 거리 -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병수(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4강/11.08(수)	문학으로 보는 남북 - 시를 중심으로	이지순(북한대학원대학교)

| 주 최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사)경실련통일협회 ·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
 |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 11월 6일(수) 오후 7시 ~ 9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문 의 : 02-766-5624 / tongil@ccej.or.kr
 | 참가비 : 무료



경실련 통일협회의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이외에 인문학과 통일교육을 접목한 강좌로는 통일맞이에서 운영하는 늦봄청소년통일교육 사업이 있다. 늦봄청소년통일교육 사업은 고 문익환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개설한 사업이다. ‘사상과 통일철학을 시대에 맞게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교육하여 통일일꾼을 키워내는 정규 통일교육 사업’으로 기획

되었다. 늦봄청소년통일교육 사업은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민주주의, 평화인권, 인문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홍사단의 민족통일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대중강연의 성격을 갖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인 ‘대학생 통일아카데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학생 눈높이에 맞춰 특화되어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회원을 중심으로 ‘통일공부, 그리고 맛있는 치맥과 함께 하는 한여름밤의 영화상영’ 등이 있다.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만원의 회비를 내면 ‘통일강연’도 듣고, 영화도 관람할 수 있는 열린 행사이다. 2013년에는 통일강연 ‘어디까지 갔나?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영화 ‘GO’를 감상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나. 통일교육과 인문학교육접목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 문화교육 사업

통일문화 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일문화’를 주제로 진행하는 문화 관련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도에 개발되었다. 통일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은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남북문화교류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세 개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시범 운영하였다. 2014년부터는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통일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전공대학생, 문화예술 공공업무 종사자, 문화예술 사업기획자 등이다. 통일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은 남북한 문화통합, 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북한 문화를 특화한 프로그램이다.

I
II
III
IV
V

(1) 2013년 통일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

2013년의 통일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은 ‘일반 청소년 통일문화교육’, ‘북한이탈주민 통일문화교육’, ‘남북 문화교류 전문가 통일문화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은 ‘문화통합, 통일, 평화’, ‘남북한 주민의 생활(의식주)’, ‘남북한 공통 민속놀이/체육’, ‘남북한 주제 영화 관람’, ‘남북한 주민의 사회심리’, ‘남북한 예술과 대중문화’, ‘통일주제 관련 공연/전시 관람’, ‘남북한 역사와 문화유산’, ‘함께 만드는 공연, 신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장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만남과 소통의 장’, ‘전통문화 체험’, ‘역사문화 탐방 및 인문강좌’, ‘토론’의 네 개 장으로 진행되었다. 각각 프로그램의 구성 취지와 운영은 다음과 같다.

‘만남과 소통의 장’은 남북한 주민이 함께 만나 강좌와 체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한다는 목적으로 ‘인사동을 통해 본 전통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의미’, ‘남북의 음식문화’로 운영하였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만나 인사동을 답사하면서, 전통에 대한 현장 체험과 강의를 듣고, 북한 음식점 ‘릉라밥상’에서 북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상호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통문화 체험’은 남북의 전통문화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남북 주민의 문화 소양을 함양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다. 충무로에 있는 남산 한옥마을을 탐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집’에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취지였다. ‘역사문화 탐방 및 인문강좌’는 1박 2일 답사 프로그램이었다. 남북 주민이 함께 남이섬, 가평 뷔띠프랑스,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김유정문학관 등을

현장체험하고, 인문학 강좌를 듣는 방식이었다. 인문학 강좌로는 2차에 걸친 ‘행복한 인문학’, ‘지속가능한 교육’, ‘남북의 언어 차이’로 구성하였다. 인문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고민하고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강좌, 남북의 언어·문화 차이로 강좌를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에 이어 1박 2일 동안 함께 했던 남북한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종합정리의 성격을 가진 토론은 ‘남북한 주민의 삶 어우르기’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표 V-1 2013년 북한이탈주민 대상 통일문화 프로그램

분류	강좌	일시	장소 및 강사
만남과 소통의 장	제1강 인사동 전통거리	12월 12일(목) 17시 ~ 18시	전통의 의미(박계리), 릉리밥상(이애란)
	제2강 남북의 음식문화	18시 ~ 19시	
전통문화 체험	제3강 한옥마을 탐방	12월 13일(금) 14시 ~ 16시	남산 한옥마을
	제4강 사물놀이 체험	16시 ~ 18시	한국의 집
역사문화 탐방 및 인문강좌	남이섬, 김유정문학관, 쁘띠프랑스,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12월 14일(토) 10시 ~ 18시 *출발지: 건국대학교 문과대 앞	가평, 춘천
	제5강 행복한 인문학1	12월 14일(토)	배기찬
	제6강 행복한 인문학2		"
	제7강 지속가능한 교육	"	박찬석
	제8강 남북의 언어 차이		전영선

I
II
III
IV
V

분류	강좌	일시	장소 및 강사
토론	제9강 집단토론-남북한 주 민의 삶 어우르기	12월 15일(일) 10시 ~ 11시	숙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은 남북 주민이 함께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공동의 체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장 높은 호응을 보인 것은 북한 음식 체험이었다. 남한 한옥마을과 한국의 집 전통문화 체험은 인기가 없었다. 전통한식과 전통문화 체험, 전통문화 공연으로 구성된 고급 프로그램이었지만 한정식에 대한 호응도 낮았고, 문화체험의 가치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입맛이 맞는 북한 음식 체험이 훨씬 인기가 있었다. 답사프로그램은 당일의 불규칙한 기상과 참가에 따른 보상이 없어서, 약속된 인원이 대거 불참하였다. 순수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나 열의는 크게 떨어졌다.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은 남북문화교류 사업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문화 사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전문성을 높이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남북의 문화 차이부터 문화교류 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접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절차 문제, 남북 문화교류 사업의 성패 요인에 대한 분석, 남북 사이에 오고 갔던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강사들 역시 남북 문화교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 그림 V-3 2013년 통일문화교육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

통일문화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연구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

일시 10월 31일 - 11월 21일(매주 목요일, 저녁 6시 45분~9시, 1회 2강 진행)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B134 강의료 무료

주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 (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Program

차수	날짜	분야	프로그램명	강사	소속
1강	10/31	법과 절차	남북교류에 따른 법률 이해	이재상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무처장
2강	10/31	법과 절차	남북교류절차의 이해	김이경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3강	11/07	실무 실습	남북 실무 회담 실습 및 의향서·합의서 작성법	박지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원사업팀장
4강	11/07	저작권교류	남북저작권 교류 현황 및 절차	김기현	(주)남북저작권센터 기획실장
5강	11/14	공동 사업	남북 합동 공연 사례 분석	김정환	연출가, (재)구문화재단 상임이사
6강	11/14	공동 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사업사례 분석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7강	11/21	교류 일반	북한의 문화자산	신현욱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 학과
8강	11/21	교류 일반	남북문화교류 경과 및 성패 요인 분석	전영선	건국대학교 HK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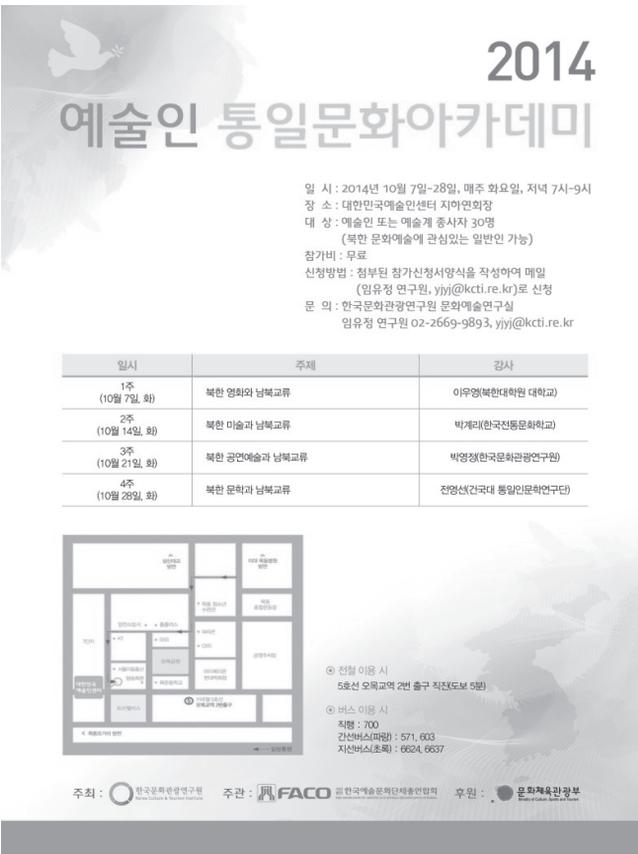
I
II
III
IV
V

(2) 2014년 통일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

2014년도 통일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2014년 통일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세분화되고, 특성화되어 있다. 통일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의 대상은 크게 다섯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공의 문화정책 담당자이다. 지방자치단체 문화 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문화재단 관계자들, 문화원 종사자, 도서관이나 박물관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둘째, 민간의 문화사업 담당자이다. 기업의 문화기획자, 문화산업계 종사자가 대상이다. 셋째, 문화예술인들이다. 넷째, 문화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다섯째, 남북 문화교류 종사자 및 남북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획자들이다.

통일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은 관련 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남북관계와 문화 통합’, ‘북한주민의 생활(의식주)’, ‘북한주민의 일생’, ‘북한의 문화예술’, ‘남북교류관련 법률과 절차’, ‘북한주민의 사회심리학’, ‘남북교류 실무’, ‘남북한 문화교류와 저작권’, ‘남북한 주제 영화관람’, ‘현장교육(통일관, DMZ 등)’, ‘남북 문화교류 사례(공연)’, ‘남북 문화교류 사례(역사, 학술)’, ‘남북 문화교류 사례(미술, 문학)’, ‘평화와 남북관계(평화교육)’, ‘인도적 대북지원과 문화교류’, ‘문화교류의 방향’ 등이 있다.

● 그림 V-4 2014년 ‘예술인 통일문화 아카데미’



2014 예술인 통일문화아카데미

일시 : 2014년 10월 7일~28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장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지아문화장
 대상 : 예술인 또는 예술계 종사자 30명
 (북한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일반인 가능)
 참가비 : 무료
 신청방법 : 첨부된 참가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메일
 (임유정 연구원, yji@kcti.re.kr)로 신청
 문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임유정 연구원 02-2669-9893, yji@kcti.re.kr

일시	주제	강사
1주 (10월 7일, 화)	북한 영화와 남북교류	이우영(북한대학교원 대학교)
2주 (10월 14일, 화)	북한 미술과 남북교류	박계리(한국전통문화학회)
3주 (10월 21일, 화)	북한 공연예술과 남북교류	박영행(한국문화관광연구원)
4주 (10월 28일, 화)	북한 문학과 남북교류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주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 : FACO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프로그램

(1) 청소년 통일인문강좌

건국대학교 청소년 대상 통일인문학 강좌는 기획 강좌와 학교 방문 교육의 형태가 있다. 청소년 대상 통일인문학 기획 강좌로는 광진정보

I
II
III
IV
V

도서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통일인문학’ 글쓰기 강좌가 있다. ‘통일인문학’ 글쓰기 강좌는 광진구 인근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인문학 강의와 글쓰기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통일인문 강좌에 글쓰기를 도입한 것은 학생들이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을 쉽게 풀어쓰면서, 글쓰기를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글쓰기를 결합한 결과 학부모의 호응도도 높은 편이고, 반응도 좋았다.

학교 방문 교육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통일인문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원하는 학교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청소년 버전에 해당한다. 2014년에 성동교육청과 협력하여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관내 학교를 방문하여 2~4주 프로그램으로 통일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였다.

● 그림 V-5 전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청소년 프로그램 ‘통일과 글쓰기’



(2)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시민강좌는 (사)경실련 통일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사업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강좌 프로그램이 있다. 시민강좌 프로그램은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분단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일반 주민이 통일문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체험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프로그램으로는 ‘영화로 보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치유의 인문학’,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9가지 트라우마’가 있다.

‘영화로 보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치유의 인문학’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과 광진정보도서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주제와 관련한 영화를 보고, 영화를 중심으로 분단과 통일을 이야기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 그림 V-6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영화로 보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치유의 인문학’



영화로 보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치유의 인문학

강의일자	주 제	영 화	영화상영		담당강사
			일시	장소	
6월 5일	일본제국주의와 식민 트라우마	<그의 선택>	6.1(토) 오후 2시	문화동 지하 1층 영화 음악 감상실	이병수
6월 12일	코리아 디아스포라와 이산 트라우마	<디어 광양>	6.8(토) 오후 2시		박영균
6월 19일	비극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기 - 법을 통해 본 제주 4·3사건	<레드 헌터>	6.15(토) 오후 2시		이재송
6월 26일	전쟁 트라우마와 송고함	<고지전>	6.22(토) 오후 2시		정진아
7월 3일	탈북 트라우마의 양상과 치유방안	<국경의 남쪽>	6.29(토) 오후 2시		김중균
7월 10일	한국인의 본단 트라우마와 구술치유	<징마>	7.6(토) 오후 2시		김중균
7월 17일	통일 사례 - 땅의 통일, 사람의 통일	<굿바이 레닌>	7.13(토) 오후 2시		김 면
7월 24일	역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모색 - 중합토론 및 수료식	-	-		김성민

| 주 최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 광진정보도서관

| 일 시 : 2013년 6월 5일(수) ~ 7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매주 수요일)

| 장 소 : 광진정보도서관 도서관동 1층 이야기방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 광진정보도서관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9가지 트라우마’는 역사분야의 전문출판사인 푸른역사 출판사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식민지배로

부터 전쟁과 분단, 국가 폭력 등 한국현대사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남긴 트라우마를 성찰함으로써 치유의 가능성과 통일 미래 국민 통합의 방향을 찾아보기 위한 취지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 그림 V-7 전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시민강좌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9가지 트라우마’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9가지 트라우마

역사는 우리의 일상과는 무관한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여겨지지만 그 흐름을 겪어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긴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 국가 폭력, 민중항쟁, IMF 등 한국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꿔놓기도 했고, 우리 모두에게 쉽게 지울 수 없는 흔적(트라우마)을 남겼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본 강좌는 한국현대사의 중요 국민 속에 나타난 역사의 상처들을 되짚어보면서 치유의 가능성과 미래의 삶에 대해 논의하리 한다.

<p>Class 01 9월 4일 (수) 한강미러지, 도둑이 물지 않은 식민지배의 상처 이병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HK교수</p> <p>Class 02 9월 11일 (수) 한국사의 원초적 비극, 분단 트라우마의 양상과 그 치유를 위하여 김종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HK교수</p> <p>Class 03 9월 25일 (수) 이산의 고통과 사랑의 상처 - 해외 거주 코리안들 박영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HK교수</p> <p>Class 04 10월 2일 (수) 전쟁 트라우마와 전쟁에 간접인사자들 장진아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HK교수</p> <p>Class 05 10월 16일 (수) 국가폭력이 자행된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재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Class 06 10월 23일 (수) 질살이보세 신화가 남긴 상처들 이광일 한신대 연구교수</p> <p>Class 07 10월 30일 (수) 5.18 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서유식 호원대 철학과 교수</p> <p>Class 08 11월 6일 (수) IMF 이후의 한국 최원일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HK 연구교수</p> <p>Class 09 11월 13일 (수) 한국사회의 학력, 학벌주의는 치유될 수 없는가? 김민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p> <p>Class 10 11월 20일 (수) 역사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도매 김성민 건국대 통일인문학 연구단 단장</p>
---	--

- 강 좌 : 9월 4일 - 11월 20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 강의신청 : <http://cafe.daum.net/purunacademy> 정기강좌 게시판
- 수강료 : 전 강좌 수강시 : 성인 16만원 / 학생(대학생/대학원생) 8만원
한 강좌 수강시 : 성인 2만원 / 학생(대학생/대학원생) 1만원

- 장 소 : 푸른역사아카데미(사직공원과 세종로 성당 사이)
- 문의 : 070-7539-4822



라.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프로그램

(1) 남북여성여울림합창단

‘남북여성여울림합창단’은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남한 여성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일반교양이 아니라 남북 여성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노래’를 선택하였다. 남북한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하고, 남과 북이 상대의 노래를 바꾸어 부르기도 하고,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부르기도 하면서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합창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합창도 하고, 동호회 수준을 넘어서 합창대회에도 출연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남과 북의 음악은 창법이 달라서 화음을 맞추기가 힘들었지만 그 자체로서 남북 문화에 대한 이해의 창이 되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함께 모여 합창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2) 남북여성문화제

남북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제이다. 2014년으로 3회가 되었다. 문화제는 그 동안 함께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결산하는 의미가 있다. 합창발표회, 라임댄스 등 문화제를 진행하면서 기획이나 준비 등을 함께 한다.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3) 사진발표회

사진발표회는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떤 주제를 주고 관련 사진을 찍은 다음, 앞에 나와서 그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진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 카메라가 아니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띄우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생각을 풀어어나간다.

3.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가. 프로그램 개발 기본 방향과 개발 원칙

통일교육에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통일한국이 담당하게 될 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통일담론에서는 정치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정치적 통일관’이거나 분단의 역사적 과제 해결로써 ‘숙명론적 통일관’, 통일의 편익을 우선하는 ‘경제적 통일론’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인문학적 통일논의는 기존의 통일논의와 달리 한반도 분단에 대한 성찰과 남북 주민의 인간적 삶의 통합을 고민한다. 남북의 올바른 통합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훼손된 분단적 사유를 치유하고, 인문학적 다양성을 토대로 한 통일교육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기존의 통일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대표적인 통일논의로 제기된 민족과 통일, 통일과 경제, 통일과 평화에 대한 논의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찰함으로써 통일논의의 출발로 삼는다.

I
II
III
IV
V

나. 교육 요구 분석

차이의 인정을 통한 남북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상, 이념과 정서, 그리고 생활문화를 존중하고 용인하는 데에서 시작해야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통일은 차이의 인정에 그치지 않고, 연대와 소통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남북의 소통은 정치 교류나 경제 교류만이 아니라 적대적 생활문화를 극복하고 서로를 내면적으로 이해하는 정서의 교감을 포함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단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의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분단은 오랫동안 우리말과 행동에까지 스며들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정서에 남아 있는 분단 트라우마를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분단이 우리 사회 내부에 집단 무의식으로 내면화된 부정적 아비투스(Habitus)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대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틀이 분단적 사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성찰이 필요하다. 분단이 우리의 사유에 작동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서사적 관점에서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인문학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은 건국대학교에서 인문학과 통일관련 강좌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되었던 주제를 참고하였다. 설문은 사전 면담을 통해 여덟 개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의 구체적인 세부 주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각 영역당 일곱 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하여, 인문학에 대한 강좌를 조사하였다. 각 영역과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학 일반 영역이다. 인문학 일반 영역의 세부 주제는 ①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가치론), ②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욕망론), ③ 돈의 현실적 필요성과 무소유의 정신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행복론), ④ 정의는 과연 있는가? 있다면 공정사회를 위한 정의의 원칙은 무엇인가?(정의론), ⑤ 계층의 불평등은 어디에서 연유하며,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평등론), ⑥ 내가 타자의 고통에 대해 왜 책임을 져야 하는가?(책임윤리론), ⑦ 인권은 무엇이며 오늘날의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하게 부각되는가?(인권론)이다.

둘째, 통일인문학 영역이다. 통일인문학 영역의 세부 주제는 ① 통합과 통일의 차이는 무엇이며, 결과로서의 통일과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통일의미론), ② 통일이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는가?(통일당위론), ③ 구조적 폭력의 상황에서 비폭력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비폭력 평화론), ④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과 그 관계는 무엇인가?(국가-시장론), ⑤ 한반도 통일은 오히려 평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통일과 평화의 관계는 어떠한가?(통일평화론), ⑥ 식민지 시대와 분단 시대는 단절적인가, 연속적인가? 남북 역사를 일국사(一國史)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20세기 한국사), ⑦ 동북아 공동체의 의미와 근거는 무엇이며,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남북통일이 지닌 의의는 무엇인가?(동북아 공동체론)이다.

셋째, 남북비교론 영역이다. 남북비교론 영역의 세부 주제는 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적 차이점은 무엇이며, 양자는 반드시 적대적 대립의 관계인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비교론), ② 북의 주체사상과 남의 반공이념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무엇이며, 이를 어

I
II
III
IV
V

떻게 볼 것인가?(남북 체제 이데올로기 비교론), ③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남북한에서 사상적으로 일어난 변화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런 변화가 남북 통합에 주는 영향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남북 사회 변동 비교론), ④ 남북의 철학사, 정치사, 경제사 관점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핵심적 쟁점은 무엇인가?(남북 역사관 비교론), ⑤ 남북 통일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은 어떠하며, 그 핵심적 쟁점은 무엇인가?(남북 통일정책 비교론), ⑥ 남북 주민의 일상 생활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남북 생활문화 비교론), ⑦ 남북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분단정서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남북의 정서 문예 비교론) 등이다.

넷째, 남북 통합론 영역이다. 남북 통합론 영역의 세부 주제는 ① 철학적으로 볼 때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능성은 있는가?(통합이념론), ② 20세기 한반도 역사에서 좌우합작의 사례(28년 신간회, 30년대 해외 민족유일당 운동, 해방 직후 좌우합작)가 남북 통합에 주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좌우합작론), ③ 남북의 이념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가 지닌 의의는 무엇이며, 남북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교류방향은 무엇인가?(남북교류론), ④ 남북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전통문화론), ⑤ 독일, 베트남, 예멘 등 분단국의 통합 사례가 한반도 통합에 지니는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분단국 통합론), ⑥ 분단 60년사에서 남북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의 인문학적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남의 한국학과 북의 조선학), ⑦ 남북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 시민(단체)이 해야 할 역할과 그 가능성은 무엇인가, 남남갈등의 극복방안은 무엇인가?(시민사회 통일론)등이다.

다섯째, 민족공동체론(혹은 민족주의론) 영역이다. 민족공동체 영역

의 세부 주제는 ①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같은 핏줄과 같은 언어라는 종족적 민족 개념이 남북 교과서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민족동질성론 혹은 남북 민족주의론), ② 민족은 과연 상상의 공동체인가, 탈민족 시대에서 민족주의 담론은 무용한가?(탈민족주의론), ③ 우리 사회에서 민족담론을 둘러싼 구체적 쟁점은 무엇인가?(민족담론을 둘러싼 남한 내 논쟁점), ④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우리와 같은 민족인가?(디아스포라 민족론), ⑤ 중국 조선족, 재일 조선인, 고려인의 생활 실태는 어떠한가?(코리안 디아스포라 실태론), ⑥ 동북아시아의 국가주의적 전통의 영향력과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한 상처가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패권주의론 혹은 식민주의론), ⑦ 전통적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의 양극단의 한계를 극복하는 민족담론의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민족공통성론) 등이다.

여섯째, 문화예술 영역이다. 문화예술 영역의 세부 주제는 ① 북한 문화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주체사상에 기반한 북한 문화의 형성과 전개과정은 어떠한가?(북한 문화론), ② 북한 문화예술(문학, 음악, 미술, 건축, 영화 등)의 전반적 특징은 무엇이며 남한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북한 문화예술론), ③ 북한의 조선민족 제일주의가 북한의 언어관, 문화관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주체 문예이론), ④ 구전설화를 바라보는 남북의 관점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인가?(구전설화론), ⑤ 남북 대중문화(영화, 드라마, 오락물)에 나타난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인가?(대중문화론), ⑥ 남북의 분단문화 및 통일문학에 나타난 인식상의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인가?(분단문화론 및 통일문학론), ⑦ 문화예술 영역에서 남북의 교류가능성과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적 사항은 무엇인가?(문화예술 교류론) 등이다.

일곱째, 생활문화 영역이다. 생활문화 영역의 세부주제는 ①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시장이 북한의 일상생활문화에 미친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최근 북한 일상생활론), ② ‘시장’과 ‘국가’가 남북 생활문화에서 지닌 의의는 무엇이며, 시장과 국가의 바람직한 위상은 어디에 있는가?(생활문화에 작용하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과 의의), ③ 남의 개인주의(자유)와 북의 집단주의(평등) 생활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며, 상호 소통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남북 가치관의 이질성과 소통), ④ 남북의 언어, 공휴일, 취향, 연애와 결혼 풍속도 등 생활풍습 차이의 소통은 가능한가?(남북의 사회문화적 이질성과 소통), ⑤ 남북이 전통문화를 재구성한 특징은 무엇이며 그 역사문화적 상징은 무엇인가?(남북의 전통문화론), ⑥ 남북이 현실적으로 공유한 전통문화적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상생과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자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남북 통합에서 전통문화가 지닌 의의), ⑦ 남북이 축적한 문화컨텐츠를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남북 문화컨텐츠론) 등이다.

여덟째, 소통과 치유 영역이다. 소통과 치유 영역의 세부 주제로는 ① 한국전쟁, 이산가족, 장기수,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 트라우마의 구체적 양상은 어떠한가?(분단 트라우마론), ② 분단과 전쟁의 트라우마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생애담 구술 조사)은 어떠한가?(구술사 방법론), ③ 분단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고 고착화시키는 정서와 가치관의 핵심은 무엇인가?(분단 서사론), ④ 분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요구되는 삶의 윤리는 무엇인가?(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 ⑤ 분단의 적대와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 공통의 서사영역(문학, 설화, 구비문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전통 통합서사론), ⑥ 남북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현대적 서사영역(공연예술, 남북합작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현대 통합서사론), ⑦ 남북의 적대

와 증오를 치유하는 문학치료 방법론이란 무엇인가?(문학치료학) 등이다.

여덟 개의 영역과 세부 주제는 통일인문학 영역에서 통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역과 주제들이다. 이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주제를 접목하여 인문학 프로그램 설계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통일인문학 강좌 수강희망자들에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및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V-2 교육 수요조사 설문지

인문학과 통일교육 개발을 위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인문학과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교육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적용한 통일교육은 인간과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 성찰에 기반하여 통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왜 통일을 해야 하며, 이질적 사람끼리의 진정한 소통과 통합은 무엇인가 등을 탐구하는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의미합니다. 우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념과 정서, 그리고 생활문화를 존중하고 용인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통일은 차이의 인정에 그치지 않고, 연대와 소통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남북의 소통은 정치교류나 경제교류만이 아니라 적대적 생활문화를 극복하고 서로를 내면적으로 이해하는 정서의 교감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차이의 인정을 통한 남북소통).	
아울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정서에 남아 있는 분단 트라우마와 우리 사회 내부에 집단무의식으로 내면화된 부정적 아비투스(악습)를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고, 서사적 관점에서 이를 치유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분단상처의 치유).	
그리고 거창한 체제나 이념의 통합을 전제하기보다는 남북 주민의 일상적 생활문화와 정서적 요소들의 공통성을 확장함으로써 사회문화 통합의 노력을 경주해야	

I
II
III
IV
V

합니다. 이는 과거의 전통을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측면을 부단히 확장시켜 가면서도 동시에 상호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공존적 삶의 양식을 합의해 가는 열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소통과 자유를 통한 통합).

이러한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 현장에 반영하여 바람직한 통일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설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교육 방향이 정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항목에서 가장 듣고 싶은 내용의 강좌를 9개 항목 당 두 개만 선택해 주세요.

1. 통일과 인문학 영역-(,)

- 1) 나의 삶과 통일
- 2) 결과로서의 통일과 과정으로서의 통일
- 3) 통일과 삶의 질
- 4) 북한이라는 타자를 인정하고 소통한다는 의미
- 5)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관계
- 6) 동북아 공동체와 한반도 통일

2. 남북 비교-(,)

-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과 적대 혹은 공존의 가능성
- 2) 남북 이데올로기 비교
- 3) 북한의 변화와 남북 통합
- 4) 남북의 이념 차이와 쟁점
- 5) 남북통일정책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쟁점
- 6) 남북 주민의 일상 생활문화 및 가치관
- 7) 남북 문학예술 속에 나타난 정서의 차이와 공통성

3. 남북 통합-(,)

- 1) 좌우합작의 사례와 통일의 의미
- 2) 남북 교류의 역사와 의미
- 3) 남북 소통을 위한 교류 방향
- 4) 민족 전통적인 삶과 가치관
- 5) 분단국 통합 사례와 한반도 통합
- 6) 남북 통합과 인문학적 자원
- 7) 남남갈등의 극복방안

4. 민족공동체론(혹은 민족주의론)-()

- 1)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 개념
- 2) 통일시대 민족은 무엇인가?
- 3) 민족을 말하는 여러 가지
- 4) 통일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 5) 동아시아 공동체,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 6) 통일시대 열린 민족주의

5. 문학예술 영역-()

- 1) 북한 문화의 정체성
- 2) 북한 문학예술의 특징과 남북의 차이
- 3) 북한의 민족문화
- 4) 남북 대중문화
- 5) 문학예술을 통해 본 남북 주민의 삶
- 6) 문화예술을 통한 남북의 소통

6. 생활문화 영역-()

- 1) 시장이 북한의 일상생활문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 2) 남의 개인주의(자유)와 북의 집단주의(평등) 생활문화의 특징은?
- 3) 남북의 언어, 공휴일, 취향, 연애와 결혼 등 생활습속 차이의 소통은 가능한가?
- 4) 남북이 전통문화를 재구성한 특징은 무엇이며 그 역사문화적 상징은 무엇인가?
- 5) 남북이 축적한 문화컨텐츠를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7. 소통과 치유 영역-()

- 1) 한반도 분단이 남긴 상처: 한국전쟁, 이산가족, 장기수, 북한이탈주민 등
- 2) 한반도 분단과 분단의 정서와 가치관
- 3) 분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삶의 방향
- 4) 분단의 극복의 민족 서사
- 5) 소통 증진의 현대 서사
- 6) 남북의 적대와 증오, 치유의 인문학

8. 북한이탈주민 문제-()

- 1)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트라우마
- 2)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 갈등과 진로
- 3)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 심리적 갈등
- 4)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네트워크
- 5) 북한이탈 여성 및 가족의 정착과 적응

9. 통일인문학 강좌가 개설된다면 듣고 싶은 강좌나 강의 내용은

- 1)
- 2)
- 3)
- 4)
- 5)

신분: 대학생 1~2학년(), 3~4학년(), 대학원(), 일반인()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설문조사결과 48명이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1명, 30대가 7명, 40대가 12명, 50대가 13명, 60대 이상이 5명이었다. 각 항목의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V-3 교육 수요조사 결과

영역	내용	응답자 (명)
통일과 인문학	나의 삶과 통일	13
	결과로서의 통일과 과정으로서의 통일	16
	통일과 삶의 질	16
	북한이라는 타자를 인정하고 소통한다는 의미	16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관계	17
	동북아 공동체와 한반도 통일	16
남북 비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립과 적대 혹은 공존의 가능성	18
	남북 이데올로기 비교	8
	북한의 변화와 남북 통합	14
	남북의 이념 차이와 쟁점	15
	남북통일정책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쟁점	10
	남북 주민의 일상 생활문화 및 가치관	21
	남북 문학예술 속에 나타난 정서의 차이와 공통성	15

영역	내용	응답자 (명)
남북 통합	좌우합작의 사례와 통일의 의미	7
	남북 교류의 역사와 의미	9
	남북 소통을 위한 교류 방향	22
	민족 전통적인 삶과 가치관	7
	분단국 통합 사례와 한반도 통합	10
	남북 통합과 인문학적 자원	13
	남남갈등의 극복방안	26
민족 공동체론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 개념	21
	통일시대 민족은 무엇인가?	11
	민족을 말하는 여러 가지	7
	통일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18
	동아시아 공동체,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20
	통일시대 열린 민족주의	15
문학 예술	북한 문화의 정체성	11
	북한 문학예술의 특징과 남북의 차이	26
	북한의 민족문화	7
	남북 대중문화	16
	문학예술을 통해 본 남북 주민의 삶	29
	문화예술을 통한 남북의 소통	5
생활 문화	시장이 북한의 일상생활문화에 미친 영향	15
	남의 개인주의(자유)와 북의 집단주의(평등) 생활문화의 특징	16
	남북의 언어, 공휴일, 취향, 연애와 결혼 등 생활풍습 차이의 소통 가능성	17
	남북이 전통문화를 재구성한 특징은 무엇이며, 그 역사·문화 적 상징	17
	남북이 축적한 문화컨텐츠를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26

I
II
III
IV
V

영역	내용	응답자 (명)
생활 문화	시장이 북한의 일상생활문화에 미친 영향	15
	남의 개인주의(자유)와 북의 집단주의(평등) 생활문화의 특징	16
	남북의 언어, 공휴일, 취향, 연애와 결혼 등 생활풍습 차이의 소통 가능성	17
	남북이 전통문화를 재구성한 특징은 무엇이며, 그 역사 문화적 상징	17
	남북이 축적한 문화컨텐츠를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6
소통과 치유	한반도 분단이 남긴 상처: 한국전쟁, 이산가족, 장기수, 북 한이탈주민 등	14
	한반도 분단과 분단의 정서와 가치관	14
	분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삶의 방향	26
	분단의 극복의 민족 서사	2
	소통 증진의 현대 서사	9
	남북의 적대와 증오, 치유의 인문학	27
북한이탈 주민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트라우마	20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 갈등과 진로	15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 심리적 갈등	27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네트워크	14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의 정착과 적응	17

결과를 종합하면 통일과 인문학 영역에서는 각 내용별로 비교적 고
른 답변을 보였다. 남북 비교 영역에서는 남북 주민의 일상과 남북의
대립과 공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남북 통합 영역에서는 남남갈등
문제와 남북의 소통을 위한 교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민족공
동체론 영역에서는 남북의 민족 개념 차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제,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 열린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반면 통일시대와 민족에 대한 다양한 담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았다. 문화 예술 영역에서는 남북 주민의 삶에 대한 문제와 남북문화예술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생활문화 영역에서는 남북의 문화컨텐츠와 활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소통과 치유 영역에서는 분단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적대감 해소와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북한이탈주민 문제 영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문제와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다.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1) 프로그램의 목적

통일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이 단순한 체제 대립만이 아니라 ‘마음의 장벽’을 남긴다는 점에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 간의 소통과 상처의 치유, 그리고 평화 공존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통일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타자와 소통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인문학적 통일교육은 ‘타자의 타자성’, ‘분단의 아비투스’, ‘분단 트라우마’ 등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한반도 분단 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인식을 목표로 한다. 인문학적 참여의 차원을 넘어 통일문제 자체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정치나 제도, 경제적 편익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분단 문제를 성찰하고, 분단으로 인해 고착화된 생활양식과 사유방식의 틀을 깨는 방향으로 통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분단과 통일문제를 접근한다.

첫째, 통일은 인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과학분야의 기계적인 결합, 기술적인 통합에서 제기되는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인문학적인 사유 방식을 의미한다. 인문학적인 고유의 관점과 방법을 통일문제에 적용하고, 대상에 기초한 사유방식으로서 인문학은 사회과학의 통일담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문학적 차원에서 분단 문제는 인간 문제이다. 인문학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간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한반도에서 분단이라는 구조는 한반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적 삶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인문학의 중심은 인간이다. 인간이 당면한 고통을 고민하고 풀어 간다. ‘고통의 감수성’이란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감수성을 의미한다. 우리 통일논의에서 타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근본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성이 배제되어 있다. 정책의 입장에서 감성은 배제되어야 하지만 정책으로 인해 피해받을 사람들에게 대한 긴장은 끊임없이 필요하다. 승자독식의 문제에서 제기되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고통에 대한 이해가 통일문제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몸과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심리적 층위에 대한 분석에 중심을 둔다. 심리적 층위로서 분단 체제에 주목하면서 분단 체제의 극복을 통해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분단 체제가 인간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성찰하고 반성함으로써 분단으로 인해 왜곡되어진 삶을 온전하게 바로 잡는 과정을 통일의 과정으로 본다.¹²⁵ 남북은 상호 적대성에 기반한 체제 정당성을 강조하

¹²⁵ 남북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동일성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자기동일성이란 자기의 의지대로 혹은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다. 심리학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욕망(Eros)과 파괴의 힘(Thanatos)은 사랑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관심 있는 대상, 관계가 7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 자기 동일성에 대한 의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극도의 파괴된 힘,

였고, 국가 폭력의 구조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폭력은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고,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을 통해 상대에 대한 적대와 공포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에는 민주화와 시민 사회의 발전으로 소통의 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상호적대성을 기반으로 국가 폭력이 여전히 중심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인문학은 인간의 문제에 주목한다.

셋째, 분단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 내재되고 축적된 내면의 분단의식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 주목한다. 갈등의 근본은 무엇이며, 대립의 출발은 무엇이며, 분단 체제가 우리에게 야기한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사유를 통해 분단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 그 자체가 ‘트라우마’이다. 남북은 분단 이후 전쟁과 분단 체제가 강화되면서, 국가 폭력이 일상화되고 합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분단의 트라우마는 치유보다는 오히려 분단의 지배질서를 강화하는데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작동되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정당성을 명분으로 한 폭력성에 노출되어 있다. 분단 체제 하에서 남북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을 겪어 왔으며, 지배 체제에 순응하는 과정은 피해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종속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치유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적대적 의식으로 전환된다. 남북은 각각 자기 의지대로 상대가 행동하기를 욕구한다. 이 욕구의 근원은 사랑이다. 사랑의 힘이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자기 동일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 문화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관점에 맞추어 ‘통일문제에 대한 성찰’, ‘남북주민의 소통’, ‘치유’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열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목적 하에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 대상의 강좌 프로그램, 소규모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남북한 주민 대상의 답사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다.

(2) 프로그램의 목표

통일인문학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는 교육 대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설정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강좌 프로그램에서는 익숙하게 생각했던 통일에 대한 문제인식을 낫설게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통일이려면 당연히 생각되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 관점의 통일담론이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성찰하도록 하였다. 언어와 문화를 주제로 한 것은 남북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언어 공동체라는 것이 여전히 남북현실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고, 언어와 문화의 통합이 통일문제에서 왜 필요한지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문학 소규모 강좌는 치유를 목표로 하였다. 문학을 매개로 분단이 주는 고통,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규모 강좌는 인문학, 문화예술인, 동화작가 등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치유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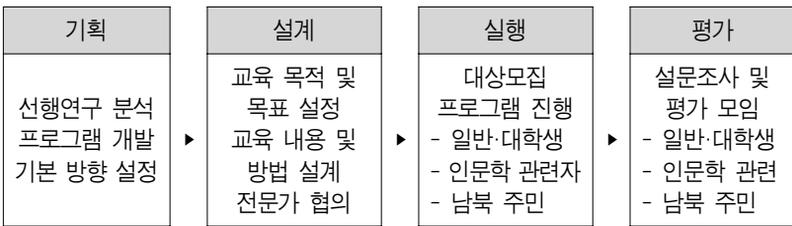
남북 주민의 답사 프로그램은 남북 주민의 소통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남북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의 분단이 일상에 깊숙이 작용하고 있음을 통해

통일문제가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공감한다’, ‘여성으로서 삶을 이해한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한다’, ‘통일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을 세부목표로 하였다.

라. 개발 과정

인문학 개념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다.

● 그림 V-8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기획

인문학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인문학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인문학과 통일교육을 접목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통일과 연계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통해, 인문학의 근본 원리로서 소통, 치유를 핵심 의제로 정했다. 소통과 치유를 통일문제와 접목한 사례도 검토하였다. 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와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참고 사례를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그 결과 인문학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를 소통, 치유, 통합으로

설정하였다. 소통에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의미를 밝히고’, ‘남북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인정’, ‘일상 속에서 익숙하지만 분단이 낳은 문화적 관습으로서의 분단 아비투스’, ‘타자의 타자성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핵심으로 하였다. 치유는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한 치유를 의미한다. 여러 트라우마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인지적인 탈북 트라우마를 주제로 하였다. 통합은 상호이해를 통한 소통의 방식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주제와 형식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세 가지 유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영역의 대중강연 프로그램, 소규모 관련자를 중심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 소통을 주제로 한 남북 주민의 답사 프로그램이다.

치유 프로그램은 인문학 영역에서 치유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학치료를 참고하였다. 답사 프로그램은 전국도서관협회에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을 참고하여 기획하였다. 강의실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관련 분야의 인문학 강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길 위의 인문학’은 현장을 찾아서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정한 공간을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일문제에 적용해보자는 취지였다. 동일한 공간 속에서도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가 있음을 경험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설계

통일인문학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에 맞추어 대상에 적절한 교육 내용으로 설계하였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처음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던 청소년 프로그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와 운영을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중랑구 소재 태릉고등학교가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었고, 중랑구 내 중고등학교에 통일동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협의해 나갔으나, 도중에 프로그램을 변경하게 되었다.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를 찾아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강연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에는 일반인 대상 통일인문학 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인문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성인 대상의 대중강좌 이외에 인문학과 통일교육을 결합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과 ‘1박 2일의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가) 대중강좌

인문학과 통일교육을 결합한 대중강좌 프로그램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총 4회의 강좌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관련 강좌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경실련 통일협회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나)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은 관련자의 소그룹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제2하나원의 한정미

교육기획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설계는 트라우마와 치유를 중심으로 일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문치료, 철학치료, 문학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놀이치료 등의 치료와 분단 문제를 결합하는 프로그램이 논의되었다. 이 중에서도 문학치료로 글쓰기를 선택하였다. 대중적으로 프로그램화하기가 쉽고,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아동문학과 글쓰기’,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과 문학적 재현’의 두가지 주제로 강좌를 기획하였다.

‘북한의 아동문학과 글쓰기’는 북한 문제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준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로 기획하였다. 북한의 아동문학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북한 아동문학의 특성, 남북한 아동문학 읽기, 남북이 함께 읽는 이야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독서를 통한 상호 나눔과 이해 프로그램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은 북한학과, 문예창작과, 문화컨텐츠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남북의 아동문학을 주제로 ‘북한 아동문학과 남북아동문학 비교’, ‘탈북아동 소재 동화의 캐릭터’, ‘북한의 대표적인 동화작가 리원우의 아동문학과 보물고간’, ‘북한 동화의 스토리텔링 특성’ 등을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동화를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다. 북한의 동화는 그 동안 북한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분야이고,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과 문학적 재현’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현실에 대한 문제와 이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진행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일반인과 아동·청소년으

로 나누었고, 이들이 탈북 과정에 겪는 고통과 치유를 주제로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일반인의 탈북 문제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의 작가를 연계하였고, ‘탈북청소년 문제 전문가’와 관련한 탈북 동화 작품을 하나의 강좌로 연계하였다.

(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하는 역사체험 프로그램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은 남북한 주민이 함께하는 역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였다. 남북의 여성들이 모여서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반추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남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서 남북의 분단 현실을 돌아보고,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답사 지역으로 강원도 강릉의 허난설헌 생가(生家)를 선정하였다. 허난설헌은 뛰어난 시재(詩才)를 지녔으면서도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여성으로서 간난(艱難)한 삶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여성으로서의 삶을 반추하기에 적절한 인물이었다. 허난설헌 생가 방문에 앞서 남북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코스로 평창의 ‘이승복기념관’과 현실적 안보 현장을 보여주는 ‘동해 통일안보관’을 추가하였다.

각각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면담과 관련자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자문과 협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I

II

III

IV

V

표 V-4 전문가협의회 진행 사항

프로그램	전문가 인터뷰 및 협의	자문 및 협의 내용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대중강좌 프로그램 운영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6월 16일 14시 - 장소: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사무실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명근(경실련 통일협회 간사) 김삼수(경실련 통일협회 부장) 고계현(경실련 사무총장) 전영선, 조배준, 이서하(이상 연구진) 	- 인문학과 통일교육 일반인 대상 대중강좌 프로그램 내용, 강좌 운영, 대상 모집 및 운영에 관한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대중강좌 프로그램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6월 25일 10시 - 장소: 건국대 문과대학 207호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명근(경실련 통일협회 간사) 이병수, 전영선, 조배준(이상 연구진) 	- 인문학 대중강좌 경험 사례, 일반인 인문학 강좌 요구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대중강좌 프로그램 운영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7월 2일 17시 - 장소: 광명시 평생학습원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정호(광명 경실련 사무국장) 임삼무(광명 경실련 간사) 홍명근(경실련 통일협회 간사) 전영선, 이서하(이상 연구진) 	-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 강좌운영 및 평가 협의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6월 23일 14시 - 장소: 화천 제2하나원 상담실 III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정미(하나원 교육팀장) 전영선(연구진) 	-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와 인문 교육 내용, 탈북 트라우마의 실제와 치유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7월 24일 10시 - 장소: 토즈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아(통일교육 전문강사) 김미애(동화작가, 프로그램 강사) 전영선, 이병수, 이서하(이상 연구진) 	-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 모집

프로그램	전문가 인터뷰 및 협의	자문 및 협의 내용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 프로그램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6월 23일 14시~16시 - 장소: 강남구 개포동 (사)여인지사 사무실 - 참석자: 최영애(여인지사 대표) 홍영희(여인지사 사무) 	- 남북 주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프로그램 구성에서 주의점 등에 대한 프로그램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주민의 소통 프로그램 운영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7월 4일 11시~12시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 참석자: 최영애(여인지사 대표) 홍영희(여인지사 사무) 전영선, 이서하(이상 연구진) 	- 남북 주민의 소통을 주제로 한 1박 2일 답사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과 관련한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주민의 소통 프로그램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9월 4일 3시 - 장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C 플랫폼 - 참석자: 이재상(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무총장) 전영선, 조배준(이상 연구진) 	-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참여한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용을 통한 남북 주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 자문

(3) 실행

인문학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모집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대중강좌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경실련 통일협회를 통해 모집하였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20년 넘게 통일이카데미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지역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이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경

실련 통일협회는 인문학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협의회에 소개하면서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광명 경실련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대상을 모집하였다. 광명 경실련은 2013년에 인문학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호응을 얻었던 경험이 있었다. 수강생 모집은 광명 경실련에서 지역 회원들에게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문학과 통일교육의 특성을 살리면서, 대중강좌로서 특성을 살려 강좌제목을 ‘여름 날, 퇴근 후 통일인문학 한 조각’이라고 정하였다.

강의 운영에 앞서서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광명 경실련의 요청 사항을 청취하였다. 광명 경실련은 광명 시민들이 ‘독일’ 통일의 사례에 대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이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과정과 결합하여 시민들에게 소개시켜 주면 단순히 독일의 사례나 경험을 전해주는 교육보다 재미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으로 ‘주제가 있는 통일인문학 강좌’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실무적 과정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 시민강좌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사례 분석과 함께 통일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였던 경실련 통일협회 홍명근 간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기존의 통일인문학 강좌에 대한 내용과 반응,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의 요구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그 동안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생각하였던 요구사항이나 현장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인문학이 일반시민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1년에 건국대학교와 경실련 통일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제가 있는 통일인문학 강좌 2기’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어려운 용어에 관한 피드백이 많았다. ‘분단의 아비투스’, ‘리

비도' 등의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다. 대중교육인 만큼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달라고 하였고 강의 기법이나 형태도 영상과 사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강의에서 최대한 비주얼 자료를 활용하고, 강의 내용도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곳은 광명시 평생학습원이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강생 모집과 홍보에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로 정하였다. 모집 인원은 20명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대상을 모집한 결과 55명이 신청하였다. 40대 이상이 많았지만 연령이나 직업도 다양하였다.

(나)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은 인문학분야에서 치유와 관련되는 대상을 선별하여 모집하였다. 치유와 관련 있는 문학치료, 예술치료, 글쓰기치료와 연관 있는 수강생으로 모집하였다. 수강생 모집은 ○○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학원과 ○○대학교 문화컨텐츠 대학원, 북한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술전공자 등을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섭외하였다. 문화컨텐츠 박사과정에서 동화치료를 공부하는 대학원생 2명, 공연전문가로서 예술치료를 공부하는 대학원생 2명, 통일교육 전문강사로서 통일교육 콘텐츠를 공부하는 대학원생 1명, 문예창작학과 대학원생으로 탈북청소년을 소재로 한 현역 동화작가 1명, 북한학과 대학원생 1명, 북한학 전공 대학생 1명 등 8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와 문학적 재현 강좌에 참여한 이후 2회에 걸쳐 평가회의에 참여하였다.

(다)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

소통 프로그램은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에서는 남북여성 합창단 여울림과 라인댄스 동아리 등을 통해 남한 여성과 북한 여성을 모집하였다. 30명이 1박 2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최종 평가회를 통해 평가 모임을 진행하였다.

● 표 V-5 인문학과 통일교육 프로그램 진행 사항

영역	프로그램	평가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7월 2일 ~ 23일 • 장소: 광명시 평생학습관 • 참석자: 일반시민·대학생 55명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강(7월 2일): ‘남북의 언어-차이와 거리’ - 2강(7월 9일): 독일 통일과정과 문화 후유증 - 3강(7월 16일):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 4강(7월 23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갈등과 문화 통합’ 	<p>각 강의차수별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p>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9월 17일, 24일 9시 30분 ~ 12시 30분 • 장소: 토즈 00점 • 참석자: 관련자 8명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강(9월 17일): ‘탈북, 그리고 정착까지의 여정’ - 2강(9월 17일): ‘찔레꽃’ 이야기 - 3강(9월 24일): ‘탈북·비보호 청소년 문제’ - 4강(9월 24일): ‘꽃배를 탄 아이들’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9월 17일, 9월 24일 ○ ○ 부근 식당 • 참석자: 강사 및 참여자 • 내용: 관련 분야의 치유 프로그램 적용

영역	프로그램	평가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9월 20일, 21일 • 장소: 평창 이승복기념관, 강릉 초당, 동해 통일공원 • 참석자: 남북 여성 30명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사: 이승복기념관, 허난설헌 생가, 초당 - 강연 '분단과 여성 문제' '여성의 삶과 인권' '양성평등과 젠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4년 9월 21일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 참석자: 강사 및 참여자 • 내용: 남북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의미에 대한 공감과 참가후의 변화

(4) 평가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설문조사, 참여자 평가, 진행자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 반응 평가를 하였다. 통일인문학과 치유 프로그램은 통일과 치유 문제와 유관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집단회합과 집단평가회 방식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이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하여 12시 30분에 끝났고, 이후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강좌를 들으면서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 문제를 자신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치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통일인문학과 소통 프로그램은 1박 2일로 진행되는 만큼 참여자들의 설문조사와 참여자, 진행자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강의에 대한 호응도 조사와 수요조사로 진행하였고, 참여자 평가는 집단회합과 집단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종합

I
II
III
IV
V

평가 시간을 가졌고,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점이 무엇 인지를 토론하였다.

마.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인문학과 통일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인문학과 통일 교육 소통 프로그램의 세 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

(1) 프로그램 체계

(가)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프로그램은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다수 일반인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형태의 교육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성찰’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그림 V-9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프로그램의 구조



1) 도입

도입부는 통일문제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를 끄집어내 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수강생들은 일반인이기는 하지만 통일관련 강 좌 수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다수의 강좌를 통해 익숙한 통일담론과는 다른 시각을 통해 통일문제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기존 통일문제와는 다른 인문학 강좌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네 개의 주제를 정하였고, 각 주제별로 강조한 것도 도입부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익숙한 사유방식의 전복(顛覆)이었다. 도입부에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제기 형태의 질문을 도입하여 관심을 환기하도록 하였다. 통일에서 인문학적 시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인지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통일과 통일정책에서 철학적 기반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개

강좌에서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을 주제별로 진행하였다. 인문학이 통일의 한 영역이 아니라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례와 일상을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남북의 언어-차이와 거리’에서는 남북의 이질화 정도와 통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인 문제를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용 어려움을 통해 제시하였다. ‘독일통일 과정과 문화 후유증’ 강좌에서는 서독 중심의 일방적 통일 이후에 동독 주민이 겪고 있는 문화적인 문제를 ‘통일독일의 신호등’을 예로 들어서 풀어나갔다. 동서독의 경우에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신호등이 서독의 신호등으로 교체되었는데, 서독의 신호등에 그려진 사람 모습은 동독에서는 정지신호였기 때문에 녹색 불이 들어와도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였던 사례가 있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화통합의 후유증 문제를 다루었다.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은 기존에 익숙한 민족담론의 통일논의와 경제적 담론의 통일논의가 갖는 효용과 한계를 짚어내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갈등과 문화 통합'은 분단 이후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달라진 남북의 문화적 차이가 어떻게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것인가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3) 마무리

각 강좌별로 후반부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최소 10분 이상을 두어 강의 시간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좌 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9시 30분까지 30분 이상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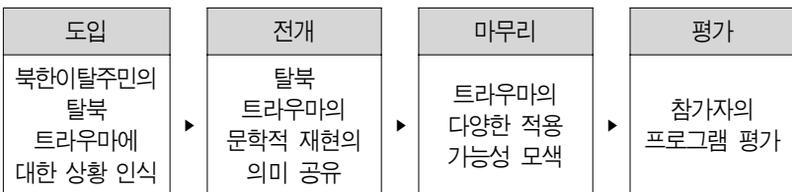
4) 평가

대중강좌의 평가는 2단계로 진행하였다. 일차적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각각의 강의 내용과 장단점, 강의 후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행사 관계자들과의 평가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의 개인 소감이나 경험을 청취하는 이차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나)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은 다음<그림 V-10>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그림 V-10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의 구조



1) 도입

도입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후부터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 인식한다.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상황,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겪는 공포, 탈북 이후 제3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느끼는 체포의 불안감,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과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 겪는 상황을 인식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나누어 트라우마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다.

2) 전개

작가를 초청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탈북 트라우마에 관하여,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문학적 재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도입부에서 이야기된 현실이 문학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작품의 구체적인 대목과 연계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현실과 문학이라는 경계를 어떻게 메우면서 문학적 특징을 찾아내어 작품화했는지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나누면서 토론한다.

3) 마무리

마무리 시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트라우마를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치유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공연예술 전공자는 예술치료의 관점에서, 문예창작학과에서는 글쓰기 치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각각의 영역에서 논의된 치유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본다.

I

II

III

IV

V

4) 평가

참여자 스스로가 프로그램 수강자이면서 새로운 기획자로서 가능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이나 자기의 영역에서 탈북문제를 어떻게 치유와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이야기한다.

(다)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의 활동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V-11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의 구조



1) 도입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여성이 만나 상대를 이해하면서 분단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공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처음 만난 낯설음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은 ‘노래’였다.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혼자 혹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나간다. 양재역에서 출발하여 이승복기념관을 거쳐 숙소인 ‘녹색체험도시’까지 노래자랑과 노래 배우기, 이야기를 통해 친밀도를 높였다.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북한 노래도 배웠고, 북한에서 인기 있었던 남한 노래도 배우면서 서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였다.

2) 전개

1박 2일 동안 남북 여성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강좌를 운영하였다. 강좌의 주제는 ‘분단과 여성 문제’, ‘여성으로서의 삶과 인권’, ‘분단과 갈등’으로 하였다. 강좌 주제는 50분으로 하였고, 10분의 질의시간이 있었다.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강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남북 여성이 참여하면서 서로가 짝을 지어서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3) 마무리

2일이 되는 날에는 남북의 여성들이 서로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남한 사회나 남한 여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한 여성들이 먼저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남한의 여성은 모두 잘 나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가 남한 여성 역시 여성으로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였다.

4) 평가

참여자 스스로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 과정을 성찰한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나 오해를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I

II

III

IV

V

(2) 프로그램 내용

인문학과 통일교육의 세 개 프로그램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표 V-6 인문학과 통일교육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	날자	주제	비고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1강(7월 2일)	남북의 언어 -차이와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10분) - 학습 목표 제시 - 문제 제기(퀴즈형) • 강좌(90분) • 질의응답(20분)
	2강(7월 9일)	독일통일 과정과 문화 후유증	
	3강(7월 16일)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4강(7월 23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갈등과 문화 통합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1강(9월 17일)	탈북, 그리고 정착까지의 여정	• 북한이탈주민 성인 의 트라우마와 문학 적 재현
	2강(9월 17일)	'짚레꽃' 이야기	
	3강(9월 24일)	탈북·비보호 청소년 문제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트라우마와 문 학적 재현
	4강(9월 24일)	'꽃배를 탄 아이들' 이야기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	9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 이승복기념관, - 강릉 초당 허난설헌 생가 •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과 여성 문제' - '여성의 삶과 인권' 	
	9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 통일공원 •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과 젠더' 	

4. 프로그램 운영

가.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1) 교육 대상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는 인문학적 관점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일반인에게 적용해 보는 시범 프로그램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강좌인 만큼 수강생 모집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인문학과 통일관련 강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문학과 통일강좌 수강 경험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강좌로서 수강생 숫자 역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광명 경실련의 조직을 통해 홍보하고, 광명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면서 홍보하였다. 당초 20명 정도의 인원을 예상하였으나, 모집 결과는 광명 경실련 회원, 평생학습관 수강생, 불교 정토회 회원 등 55명이었다. 처음부터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강의실 여건이 충분히 수용할만한 규모였기 때문에 신청자 전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교육자료 개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문학 프로그램은 2013년에 시행했던 통일인문학 강좌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는 ‘성찰’이었다. 통일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편익이나 우리 내면에 있는 흡수통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각성하고, 통일에서 문화의 힘, 인문학적 사유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성찰하는 강좌로 구성하였다. 일반 통일관련 강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일반적이고 익숙하게 알고 있던 통일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주제

I

II

III

IV

V

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광명 경실련에서 요구한 독일 통일과 문화 통합을 토대로 4장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교육 자료는 주제와 관련하여 슬라이드와 영상자료, 원고 등을 활용하였다.

●그림 V-12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자료

1강: 남북의 언어 - 차이와 거리 PPT 자료

남북의 언어 이질화
소통과 불통 사이의 남북언어

남북 언어 차이

- 첫째, 남북의 어휘 자체의 차이

북한이 평양어를 문화의 표준체계로 하면서, 사투리였던 평안도 어휘가 표준이 되었고, 어휘차이가 생겨났다.
- 둘째, 언어의 의미 차이

같은 어휘를 사용하지만 언어의 의미 차이가 발생.

✓ '사변'이라는 단어는 남한에서는 '변고'나 '난리'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

✓ '동무'의 남북 차이

1강: 남북의 언어 - 차이와 거리 PPT 자료



- I
- II
- III
- IV
- V

2강: 독일통일과정과 문화 후유증 PPT 자료



독일 통일과 시사점



1. 기획의도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베를린 장벽이 존재한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허물며 통일을 이뤘다.
그로부터 15년, 독일은 어떤 모습인가?

작년 9월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테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독일 국민의 21%가 '장벽의 부활을 원한다'고 답했다.

동서간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독일 통일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결과였다.



2강: 독일통일과정과 문화 후유증 PPT 자료

2 서독의 저질 복제품, 동독

“통일이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다.
동독은 서독의 저질 복제품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니엘라 단 / 작가>

“독일 통일은 없다. 서독과 동독의 두 국민들을 통합해
공동 목표, 공동 가치, 공동의 구상을 갖게 하는데 실패했다.”

<볼프강 헤를레스 / '우리는 한 국민이 아니다'의 저자>

4 통일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한국은 북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정확히 묻지 않습니
다.

마치 남측이 통일을 위한 행동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통일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 메지에르 / 통일 당시 동독총리>

I

II

III

IV

V

3강: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PPT 자료



통일을 인문학적으로 사유한다 는 것



1. 차이를 인정하는 소통

휴전선 허물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철조망을
걸어낸다고 되는 것 아니다.
마음의 철조망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차이는 나쁜 것
우리 방식으로 만들자



남과 북의 차이, 두 개의 다양성,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3강: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PPT 자료

1. 차이를 인정하는 소통

휴전선 허물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철조망을
걸어낸다고 되는 것 아니다.

마음의 철조망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차이는 나쁜 것
우리 방식으로 만들자

X

남과 북의 차이, 두 개의 다양성,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O

2. 반목과 대립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

분단은 누구의 책임인가?

만일 그렇다면 냉전이 해체되고, 지구상의
모든 분단국가는 통일되었는데 한반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세의 탓인가?



I

II

III

IV

V

4강: 북한이탈주민 문화갈등과 문화통합 PPT 자료

통일인문학연구원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가깝고도 정말 먼 나라 북한

- 북한 문화를 접할 때 일반적인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 '낯설다'

- 남북의 분단이 70년 가까이 흘렀고, 소통의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낯설음은 당연하다.

통일인문학연구원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문화의 관성

문화의 관성

청소년기에 형성된 문화적 감수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지 않고, 기존의 문화적 감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음.

※ 7080 문화, 세대 차이

문화의 보수성 (감성의 전이X) → 7080 문화, 세대 차이

4강: 북한이탈주민 문화갈등과 문화통합 PPT 자료



I

II

III

IV

V

(3) 프로그램 실행

(가) 교육 환경(장소, 사전준비)

강의장소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이었다. 장소 선정 기준은 접근성과 규모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로서 최대 수강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고,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했다. 또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접근성이 높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장소가 필요하였다. 장소 섭외는 프로그램 협력자인 광명 경실련에서 진행하였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지하철 7호선인 철산역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도 되지 않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았다. 또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으로서 시민들의 인지도도 높은 지역이었다.

(나) 강사 위촉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프로그램은 인문학 관련 통일교육 경험이 있는 강사를 위촉하였다. 시민강좌 경험과 시범운영으로서 프로그램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본 과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이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광명 경실련에서 요청한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강좌는 독일에서 문화를 전공한 통일인문학자를 섭외하였다. 섭외 과정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인 전영선 교수, 이병수 교수가 같은 소속인 김면 교수를 강사로 위촉하였다. 공동의 연구 과제를 진행했던 경험과 강의 자료 구성 등의 협력을 위해서는 단일 소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세부 운영 일정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는 ‘여름 날, 퇴근 후 통일인문학 한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7월 2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강좌로서 강좌의 운영은 강사의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강좌의 도입부에 학습 목표와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강의는 PPT와 최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강의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였다. 강의 후반부에는 강좌를 정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였다. 강의 시간은 두 시간이었으나 강의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길어지면서 대부분 9시 30분이나 10시 가까이에 끝났다.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다음<표 V-7>과 같다.

● 표 V-7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세부 일정

1강(7월 2일) 남북의 언어-차이와 거리 강좌 일정			
주제	남북의 언어-차이와 거리	시간	120분
학습 목표	1. 남북의 언어 정책과 언어 차이를 알아본다. 2. 언어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단계	강좌 활동	비고	
도입(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남북 언어에 대한 퀴즈 		
전개(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언어 차이의 현황 • 북한의 언어 정책 •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문제 • 언어 문화의 차이 	PPT 자료	
마무리(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 언어 통합을 위한 노력과 정책 		
평가(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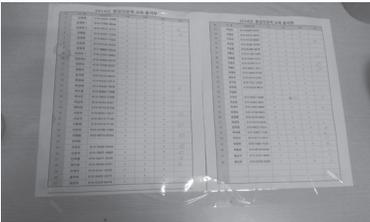
I
II
III
IV
V

2강(7월 9일) 독일통일 과정과 문화 후유증 세부 일정			
주제	독일통일 과정과 문화 후유증	시간	120분
학습 목표	1. 독일통일 과정에 대해 알아 본다 2. 독일통일 과정에서 문화 통합과 갈등에 대해 알아본다		
단계	강좌 활동		비고
도입(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독일통일에 대한 퀴즈 		
전개(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통일 과정 • 동서독의 문화 통합 과정 • 동독주민의 문화 적응 문제 • 동서독 통일 이후의 문화 갈등 		PPT 자료
마무리(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통합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 문화 통합을 위한 노력과 정책 		
평가(20분)	• 독일 통일이 남북 통일에 주는 시사점 질의 응답		

3강(7월 16일)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주제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시간	120분
학습 목표	1. 통일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의미를 이해한다. 2. 인간적 삶과 통일의 의미를 연관지어 본다.		
단계	강좌 활동		비고
도입(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통일과 인문학 강좌 경험에 대해 질문한다. 		
전개(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은 어떻게 통일문제를 사유하는가? • 인문학은 왜 통일문제를 사유하는가? • 인문학적 통일담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인문학의 기본 원리와 통일문제 적용 		PPT 자료
마무리(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이 인간적 삶에 미치는 영향 • 문화 통합을 위한 노력과 정책 방향 		
평가(20분)	• 인문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질의 응답		

4강(7월 23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갈등과 문화 통합			
주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갈등과 문화 통합	시간	120분
학습 목표	1.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충격과 갈등을 이해한다. 2. 남북 문화 차이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단계	강좌 활동		비고
도입(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에 대해 질문한다. 		
전개(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문화 정책 차이 • 북한 사회의 문화적 특징 •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문화적 차이 • 남북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문화 충돌 		PPT 자료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 문화 통합을 위한 준비 		
평가(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문화의 차이와 문화 통합에 대한 질의 응답 		

●그림 V-13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자료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신청자 명단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I
II
III
IV
V

나.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1) 교육 대상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은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주제를 특화한 프로그램이었다. ‘탈북 트라우마와 문학적 재현’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트라우마와 탈북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연계한 프로그램이었다. 대중강좌가 아닌 소규모 스터디 형태의 강좌로서 북한이탈주민 문제 전문가와 작가를 결합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목적에 맞추어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화한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는 관련 분야의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관련 분야는 북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문화컨텐츠 전공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문예창작이나 예술전공자로 하였다. 수강생 모집은 개인적인 접촉과 이메일 홍보를 통해 모집하였다. 인원은 최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2) 교육자료 개발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 지식보다는 탈북 과정이나 적응 과정에 겪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런 것’이라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강좌 제목을 ‘이야기’라고 하여서 일방적인 강의나 교육 방식을 지양하였다.

교육 자료는 강의 교재와 소설이었다. 교재는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관한 PPT자료이고, 소설은 초청 강사의 문학작품이었다. 전문적인 지

식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강사 자체가 교재가 되는 ‘사람책’ 형태로 진행되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작가가 관련 분야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3) 프로그램 실행

(가) 교육환경(장소, 사전준비)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은 관련 분야의 일정한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기 전공 영역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소규모 그룹 강의에 적합한 모임 전문 공간을 이용하였다. 강연 장소는 모임 전문 공간인 토즈 ○○점으로 하였고, 10인 부스를 활용하였다. 모임 전문 공간을 이용한 것은 카페나 강연장보다는 집중력도 높이고, 공간 접근성에서도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강좌 시간은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하여 90분 강의하고, 10분 쉬었다가 2차 강의를 하였다.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강의 내용에 대한 뒷풀이 자리를 가졌다.

(나) 강사 위촉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은 성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트라우마와 북한이탈청소년의 탈북 트라우마에 관한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탈북청소년 문제를 현장에서 경험한 전문가와 소설가, 동화작가를 강사로 위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현실 인식’에서는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했으며, 현재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북하나

재단 전연숙 팀장을 섭외하였다. 성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문학 작품인 ‘짚레꽃’을 교재로 하면서, 작가 정도상 씨를 섭외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 탈북 트라우마는 북한이탈청소년 문제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윤상석 씨를 강사로 위촉하였고, 북한이탈청소년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는 동화 ‘꽃배를 탄 아이들’을 교재로 하면서, 작가 김미애 씨를 섭외하였다. 김미애 씨는 통일부에서 실시한 제3회 통일창작동화 공모전에서 동화 ‘난 양강스타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북한이탈청소년을 소재로 한 동화 ‘꽃배를 탄 아이’로 제10회 황금펜문학상을 수상한 동화작가이면서, 탈북청소년 소재 동화로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다) 세부 운영 일정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은 ‘탈북 트라우마와 문학적 재현’을 주제로 ‘성인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대상으로 한 강좌와 ‘탈북청소년 문제’로 나누어서 9월 17일과 9월 24일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9월 17일에는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와 문학적 재현’을 주제로 9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남북하나재단의 전연숙 팀장이 ‘탈북, 그리고 정착까지의 여정’을 주제로 강의하였고, 11시부터 13시 10분까지는 소설가이자 ‘짚레꽃’의 작가인 정도상 씨의 ‘짚레꽃’ 이야기로 강의하였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전연숙 팀장은 ‘탈북, 그리고 정착까지의 여정’을 주제로 하여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화적 충돌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업무의 경험을 중심으로 남북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남북한 주민이

느끼는 문화적, 직업 차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소개할 수 있었고, 소규모로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문제인식에 대한 차이, 직업관에 대한 차이, 삶의 가치에 대한 차이가 남북 주민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였다.

두 번째 강의를 담당한 소설가 정도상 씨는 ‘탈북’ 그 자체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 없고, 탈북 과정에서 트라우마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와 북한에 대한 이미지의 왜곡과 내부적 분단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문학 역시도 개인의 문제에 집착하고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우리 사회는 진영논리에 갇혀 있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편 가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장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통일에 갇히지 말고 인간적 삶의 문제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9월 24일에는 ‘탈북청소년과 문학적 재현’을 주제로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윤상석 전 부소장이 ‘탈북·비보호 청소년 문제’를 주제로 강의하였고, 11시 40분부터 13시 10분까지 아동문학가이자 ‘꽃배를 탄 아이들’의 작가인 김미애 씨가 동화 ‘꽃배를 탄 아이들 이야기’로 강의하였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윤상석 전 부소장은 하나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에 기초하여 탈북청소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통일이 설레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과 함께 후속세대인 딸의 미래와 통일문제를 엮어가면서 통일의 의미와 분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잠재된 분단의 고통이 현실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탈북청소년의 자존감을 살리면서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탈북청소년에

계 구충제를 줄 때 구충제 대신 ‘건강증진제’라고 하여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통일문제에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공통의 이야기나 소재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강의는 동화작가인 김미애 씨의 발표가 있었다. 김미애 씨는 통일부에서 실시한 제3회 통일창작동화 공모전에 우수상으로 입선한 ‘난 양강스타일’과 제10회 황금펜문학상 당선작인 ‘꽃배를 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꽃배를 탄 아이’는 민철이가 강을 건너 탈북을 하는 이야기이고, ‘난 양강스타일’은 정준이라는 탈북청소년이 체육대회를 통해 새롭게 가족이 된 채원이와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 동화이다. 두 작품에 대한 내용을 전래동화 ‘바리데기’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고 강을 건넌다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래동화를 차용하여 동화로 창작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자신이 창작한 동화를 통해 주인공이 느끼는 상실에 대한 고통, 친구의 죽음을 목도한 트라우마 등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하였는지를 동화의 부분을 비교하면서 해석해 주었다. 창작의 소재가 된 것은 ‘상실의 슬픔’, ‘체제에 대한 공포’, ‘도덕감의 상실’이었다. 이런 소재가 어떤 의미가 있고,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탈북청소년들을 타자화시키는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과 시각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동시에 동화가 갖고 있는 ‘치유적 기능(치유기능이 아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보고 이해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림 V-14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사진



다.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

(1) 교육 대상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의 대상은 남북한 주민으로 하였다. 수강생 모집은 남북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였다. 남북여성합창단인 여울림 단원과 라인댄스 수강생 및 기타 강좌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참석 인원은 차량이동 인원과 숙박지 사정을 고려하여 30명으로 결정하였다.

I
II
III
IV
V

(2) 교육자료 개발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은 남북의 여성들이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강의내용은 1박 2일 답사 코스와 관련하여 ‘분단과 여성 문제’, ‘여성의 삶과 인권’, ‘양성 평등과 젠더’ 등으로 설정하였다. 강연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남북의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노래와 답사, 남북 여성의 공통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은 남북의 노래였다. 남북의 여성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로 ‘그리운 금강산’, ‘반갑습니다’, ‘짚레꽃’ 등이 선곡되었다.

(3) 프로그램 실행

(가) 교육 환경(장소, 사전준비)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은 1박 2일 답사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다. 답사지로는 남북 분단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면서, 여성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곳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허난설현’에 주목하였다. ‘허난설현’은 중국에까지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결혼생활은 불행하였다. 남성 중심의 봉건 시대에 뛰어난 시재(詩才)를 갖추었으니 여러 남성들의 시기와 질투를 피할 수 없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여성으로서 질곡된 삶을 돌아보기에는 ‘허난설현’이 적절하였다. 허난설현 생가에 대한 탐방으로 기획하면서 분단 문제를 함께 고민하였다.

분단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승복기념관’을 주목하였다. 이승복은 남북 분단 시절 반공의 표상이었기 때문이다. 이승복기념관

과 함께 동해 통일공원을 코스에 포함하였다. 통일공원은 북한 잠수정이 침투했던 곳으로 당시에 침투한 잠수정을 비롯하여 구축함 등이 전시된 야외공원이다. 남북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로 판단되었다. 숙소는 허난설헌 생가 바로 옆에 있는 ‘녹색체험도시’로 하였다. 답사지와 붙어 있으면서, 공공시설로서 녹색체험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나) 강사 위촉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의 강사는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춘 여성 전문가로 섭외하였다. 전문성을 갖춘 여성을 강사로 섭외한 것은 1박 2일 동안 교육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하고, 나아가 향후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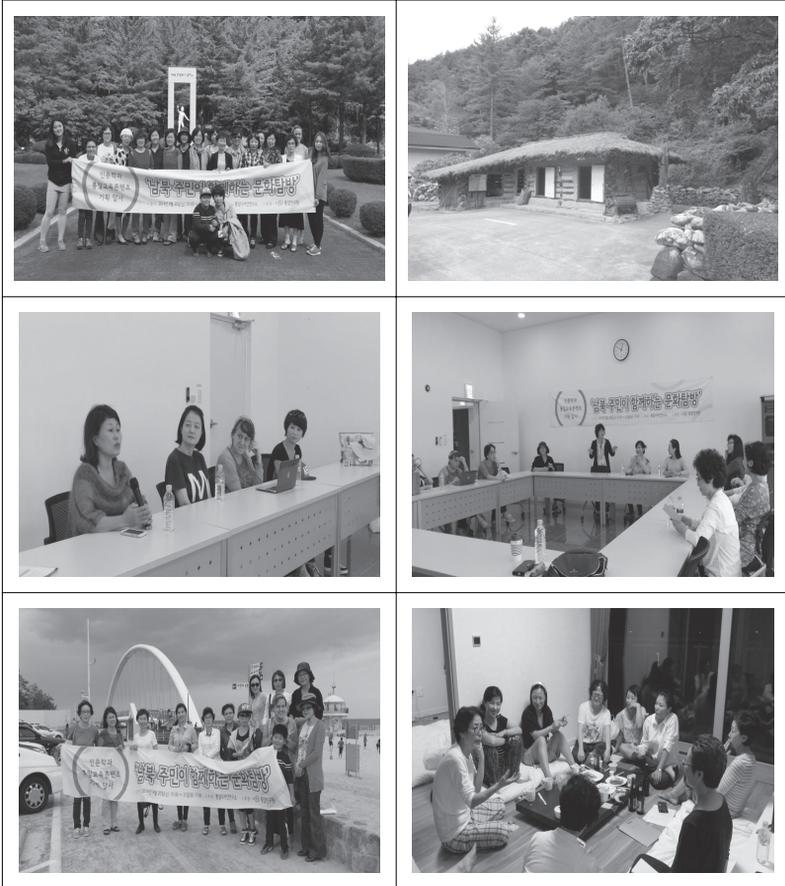
(다) 세부 운영 일정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은 1박 2일 동안 답사와 강연,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나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과 달리 야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다.

2014년 9월 20일 오전 10시에 양재역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이승복 기념관을 거쳐 허난설헌 생가 방문, 저녁 강연으로 구성하였다. 특강으로는 분단과 평화, 여성으로 삶의 문제, 평화를 위한 갈등 문제 등으로 구성하였다.

I
II
III
IV
V

●그림 V-15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 사진



5. 프로그램 평가

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가

(1)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강좌 운영의 시범강좌로 진행하였다. 기존의 통일교육에서 일상적이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인문학의 확산이라는 의미와 함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인문학과 통일교육을 결합한 강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대중 강연으로서 통일문제를 인문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강좌 형태의 통일교육은 북한의 정치 군사에 대한 문제나 북핵문제 등의 정치문제나 남북경협 등 정치·경제분야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성 역시 경제에 대한 정보 전달과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최근의 국제상황,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 등 정치분야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통일교육에서 비슷한 강좌가 운영되면서 새로운 주제의 발굴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는 남북의 언어 문제, 독일 통일의 문화적 갈등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는 수강 대상에 따라서 시의성 있는 강의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학은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인문학의 영역이 된다.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인간의 사유나 인식, 미적 체험, 역사적 경험이 모두 강좌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분단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상 분단 현실을 피할 수 없

으며, 삶의 영역에 분단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성찰하는 것이 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통일에 대한 관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한 강좌로서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좌 주제와 소재 선정에 있어 수강생들이 실감할 수 있는 공통의 이야깃거리를 찾아내어 삶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역사를 주제로 한 강좌 개발이 가능하다. 최근 영화 ‘명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역사소설을 주제로 한 강좌 개발이 가능하다. 이순신, 세종대왕, 사육신 등의 인문학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동화, 역사, 노래, 사진, 삶의 이야기 등을 소재로 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대상자에 대한 요구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문제를 주제로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은 인문학 영역의 핵심 가치인 ‘치유’와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한 것도 참여자 간의 소통을 위해서였다. 대상과 인원을 제한한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었다. 프로그램 내내 상호 간에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의 영역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던 것은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북한이탈주민 성인의 문제와 탈북청소년 문제는 문제의 차원이나

문학적 재현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성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탈북 트라우마 문제와 ‘짚레꽃’으로 1차와 2차 강좌를 구성하였다. 1차 강의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하게 되는 동기와 탈북 과정, 탈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어려움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2차 강의는 작가가 작품을 쓰게 된 동기와 문학 작품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 작품을 쓰기 위해 취재했던 이야기로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의 시각과 소설가의 시각이 겹치면서 프로그램이 보다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3차 강의와 4차 강의는 탈북아동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탈북청소년과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탈북청소년을 대할 때 시혜적인 시선이나 지속되지 못하는 시선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였다. 4차 강의는 동화라는 영역에서 새롭게 탈북청소년 문제를 다루게 된 이유와 의미, 그리고 탈북동화의 원형으로 ‘바리데기’ 설화와 탈북청소년 주인공 이야기를 동화적으로 결합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탈북청소년 문제를 전통 설화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풀어가는 방식은 사회적 현실을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탈북 트라우마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탈북 트라우마의 치유로서 동화나 소설 같은 글쓰기 프로그램이 유용하며, 관련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 역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신의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3)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은 1박 2일 동안 남북의 여성들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소통 프로그램으로서 1박 2일의 답사로 진행한 것은 성공적이었다. 1박을 함께 하면서 공식적인 프로그램 시간과 함께 비공식적인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답사 대상인 이승복기념관과 동해 통일공원은 남북한 주민이 공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남북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적절하였다. 특히 2014년의 경우에는 이승복기념관을 방문한 숫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허난설헌 생가터 방문에서는 남성 중심의 시대에 태어나 불우한 삶을 살다간 천재시인 허난설헌의 삶을 반추하면서, 남북 여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공통의 경험과 추억을 갖게된 남북의 여성들이 상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친밀도도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개선점도 있었다. 방문지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다. 사전에 답사와 관련한 예비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더라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학습자 반응평가

(1)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학습자 반응평가는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과정과 이유’, ‘종합평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5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진행자를 대상으

로 강의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개별 강좌별 평가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학습자 반응평가 설문지는 다음의 <표 V-8>과 같다.

● 표 V-8 학습자 반응평가 설문지

[통일인문학 교실] 한 여름 밤, 통일인문학 한 마당						
<p>본 [통일인문학 교실] 과정을 수료 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본 설문은 [통일인문학 교실] 과정을 더 향상 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응해주시면 향후 교육과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1. 교육과정 평가입니다.						
문항	질문	매우 좋았다.	좋았 다.	보 통	별로 였다.	매우 별로 였다.
1	1주차_전영선 교수 '남북 언어'					
2	2주차_김범 교수 '독일 통합'					
3	3주차_이범수 교수 '통일문제'					
4	4주차_전영선 교수 '북한이탈주민'					
*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과정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종합평가입니다.						
문항	질문	매우 좋았다.	좋았 다.	보 통	별로 였다.	매우 별로 였다.
1	[통일인문학 교실] 전체적인 평가 점수는?					

*어느 부분이 좋았고, 어느 부분이 별로였는지?

장 점	단 점

3. 향후 추가되었으면 하는 교육은 무엇이 있습니까?

4. 기타/건의 사항은?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표 V-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V-9 학습자 반응평가 설문조사 결과

1차 강의 - 남북의 언어, 차이와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언어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았다. • 통일문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 같은 민족의 언어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몰랐다. •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 생각보다 큰 언어문화의 장벽이 있다. • 같은 민족이지만 60년 넘는 세월 동안의 분단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아주 커다란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 언어문제는 통일과정에 있어 반드시 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소통해야 함을 깨달았다.

2차 강의 - 독일통일 과정과 문화 후유증

- 역사적인 배경 설명과 양질의 자료가 좋았다.
- 동서독의 통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
-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서 남북의 통일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남북 통일의 후유증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귀감이 되었다.
- 타인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알았다.
- 강의에서 영상을 포함한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밌고 흥미로웠다.
- 통일과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 설명이 쉽게 이루어졌고, 독일 통일을 통해 남북 통일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배웠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타인에 대한 존중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3차 강의 -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 남북 문제의 큰 틀을 파악하는 데 용이했다.
- 통일을 위한 기본적 마음가짐을 정립하였다.
- 통일은 대박이라기보다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윤리의식을 재고하게 되었다.

4차 강의 - 북한이탈주민의 문화갈등과 문화통합

-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 북한 문화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북한의 실상을 전해 들으면서 서로의 문화와 입장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에서 수강자들은 ‘어렵지 않은 단어로 편안하게 강의해 주었다’, ‘통일문제에 대한 학문적 딱딱함보다는 감성적 말랑말랑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강의 교수들의 통일에 대한 각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통일 문제에 대해 나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평소에 관심 밖의 문제였던 남북언어, 통일문제 등을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통일에 대해 가졌던 평소의 생각을 반성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단점으로는 ‘조금 더 유쾌하고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어진 모든 문제가 어려웠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한다’, ‘홍보가 부족한 듯하였다’고 답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 수강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이론적 교육과 강의가 의미 있고 좋았다’,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직접 소통하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였다’, ‘커다란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횡행하는 가운데 이번 강좌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었다’, ‘통일이 쉽지 않을 문 제임을 절감하였고,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향후 추가되었으면 하는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를 감상해 보자’,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왔으면 한다’,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의 평가는 강좌가 끝나고 나서 참가자 전체가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강인원이 8명이었고, 전공분야도 달랐으며,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적용이 강좌의 목적이었던 만큼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통일문제를 인문학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강연자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듯이 서로에 대해 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참가자들은 ‘북한 이탈주민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동화나 이야기를 통한 치유의 길을 찾은 것 같아서 좋았다’, ‘참여자 스스로가 인간책의 주인공 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좋을 것 같다’, ‘서로에 대해 눈을 봐주기, 열심히 들어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에서는 함께 답사를 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남북 주민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함께 노래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남북 간에 서로 몰랐던 점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은 1박 2일이라는 시간 문제였다. 남북 여성이 한 자리에 모여 1박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남과 북이 한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는 좋은 자리였다’, ‘남북 여성이 함께 차를 타고 1박 2일 여행 속에서 친밀해질 계기를 많이 갖게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1박 2일의 시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답사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친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1박 2일로는 서로에 대해 이해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승복기념관 탐방은 ‘분단 시대를 실감나게 하여 주었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 주었다’, ‘북한의 사상교육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느껴져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 ‘분단의 현실로 인한 이념적 갈등과 이를 반영한 시대의 산물을 보면서 나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강연에서는 ‘대립적 갈등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좋았다’, ‘여성으로서 공감가는 내용이었다’고 답하였다.

한편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많았다.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자유시간이 필

I
II
III
IV
V

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프로그램의 운영에 치중하면서 정작 참여자 개인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박 3일 정도의 집중 워크숍 같은 것이 기획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그램으로는 ‘함께 게임하고 자연을 산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소통과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을 희망하였다. 강의 주제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 이후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천사에 대한 내용’,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이해를 좁혀 나가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다. 향후 개선 방향

(1) 인문학과 통일교육 대중강좌

평가 결과, 학습자들은 일상에 대한 문제, 콘텐츠를 활용한 접근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일상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강연 자료의 추가개발도 필요하다. 북한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자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는 맞지 않다. 강좌에 필요하도록 10분 정도로 압축하여 활용하거나 특정한 영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북한의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 영상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북한의 의식주를 주제로 한 영상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2)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

인문학과 통일교육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인

문학을 주제로 한 강의로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보다 풍성한 이야기들이 오고갈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었다. 치유의 영역이 다양하고, 인문학 영역이 무한한 만큼 치유와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놀이, 미술, 연극, 동화, 철학 등)의 전문 영역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은 향후 교육 기간을 늘려 2박 3일 정도의 집중워크숍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보다 심도 깊은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과 통일교육 소통 프로그램에서는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독서나 영화,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독서모임이나 영화모임, 사진 등의 취미활동을 통해 소통의 길을 열어갈 수도 있다. 또한 실용적인 면에서는 말하기, 패션코디 등을 매개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인문학과 통일교육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은 소통, 치유, 통합을 핵심 가치로 하여, 기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인식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치를 중심에 놓고 접합성이 높은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기보다는 문화를 강의 소재나 매개로 하거나 진행되었던 기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질적인 차별성을 갖는 수준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향후 이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대상별, 핵심 가치별로 통일의 인문학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I
II
III
IV
V

통일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점이 있었다. 첫째, 인문학적 관점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이다. 인문학 분야의 강좌가 많지 않아서 접근 기회가 적고, 심화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대부분의 강좌가 단절되어서 심도 깊은 부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였다.

인문학은 학문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기보다는 성찰의 학문이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하면서 소통의 길을 열어간다. 통일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통일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그 자체를 고민한다.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성찰했고,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를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그 자체로서 통일담론의 역사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보다 정교화 되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하다. 인문학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강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문학은 삶으로부터 얻어진다. 삶과 분단 문제, 삶과 통일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따라서 청중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강연이 그렇겠지만 인문학은 강의 교재 자체가 아니라 전달자의 역량이 강좌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콘텐츠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통일교육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을 기해서 역량 있는 강사를 육성하고, 강사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수강생을 위한 사전 교육이다.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상대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남한 주민들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예비 지식을 전달하거나 행동 지침이나 요령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고’, ‘왜 왔느냐’, ‘어디가 좋느냐’ 등의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문학의 기본은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서로가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인간으로서 고통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강요는 없어야 한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들도 자신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고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큰 소통의 지점이 된다. 고통의 감성 개발을 통해서 느끼는 소통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중요하며 강좌에 앞서 사전에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고, 주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되어야 한다.

넷째, 적절한 강의교재의 개발과 활용이다. 남북한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영상자료를 강의용으로 편집하거나 목적에 맞추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을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통일교육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 참여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사나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등의 행정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경선 외. 『2012 교육정책 연구과제 보고서: 서울형 민주시민 교육 모형
과 실천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 교육연구 정보원, 2012.
- 강미정 외. 『코리언의 생활문화』. 서울: 선인, 2012.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엮음. 『인문학자의 통일사유』. 서울: 선인,
2010.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 기영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서울: 학지사, 2006.
- 김동규 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김성민 외.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서울: 선인, 2012.
- 김은경. 『민주시민을 키우는 어린이 정치』. 서울: 리젯, 2009.
- 김정수·정현백.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
원, 2007.
-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파주: 교육과학사, 2001.
- _____. 『평생교육방법 및 실천론』. 서울: 서현사, 2006.
- 김태홍 외.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5.
- 메라 세이지로 저, 정은지 역. 『평화를 지킨 사람들』. 서울: 초록개구리,
201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 서울: 민주
화운동기념 사업회, 2010.

- 박광철. 『재미와 감동이 있는 협력 놀이』. 서울: 즐거운학교, 2010.
- 박종철 외. 『통일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매뉴얼 힘내라! 정착성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손경애 외.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서울: 동문사, 2010.
- 송대성. 『안보관련 한국 사회 갈등현황과 해결방안』. 경기: 세종연구소, 2005.
- 심성보.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서울: 살림터, 2011.
- 엄기호. 『단속사회』. 파주: 창비, 2014.
- 오기성. 『남북한 문화통합론』. 파주: 교육과학사, 1999.
-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고양: 개마고원, 2013.
- 오혁진. 『평생교육경영학』. 서울: 학지사, 2003.
- 우석훈. 『88만원 세대』. 서울: 레디앙미디어, 2007.
- 이미나·이해주·김진화. 『평생교육방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4.
- 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이화정·양병찬·변종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03.
- 장대진 외. 『청소년을 위한 사회 참여 안내서 아름다운 참여』. 서울: 돌베개, 2004.
- 정경호. 『선생님, 통일이 뭐예요?』. 서울: 살림터, 2013.
- 제임스 뱅크스 지음, 모경환 외 역음.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8.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학교용 통일교육 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서의 적용방안 연구』.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1.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청소년을 위한 갈등해결교육교안집』.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13.
- 한대희·크리스티네 솔츠-라이스. 『청소년 정치 수첩』. 서울: 양철북, 2008.
-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 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 허문영 외. 『통일교육 과거·현재·미래』.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_____.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2009 청소년 통일교육 매뉴얼북 : 통일아 ~ 우리 친구하자!』. 서울: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2008.
- Bennett, 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Cross-Cultural Orientation: New Conceptualizations and Applications*.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6.
- Kowalski, T. *The Organization and Planning of Adult Educ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2. 논문

- 강순원. “북아일랜드 또래조정활동의 평화교육적 의미.” 『국제이해교육연구』. 제9권 1호, 2014.

- 고병헌. “실천적 평화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 『여성과 평화』. 제1호, 2000.
- 권영승 외.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의식.”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권 2호, 2011.
- 권혁범. “통일에서 탈분단으로.” 『당대비평』. 가을호, 2000.
- 김경은 외.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사회과 교육』. 제51권 1호, 2012.
- 김누리. “통일독일의 사회문화 갈등.” 『카프카연구』. Vol. 12, No. 1, 2005.
- 김대균. “내러티브 도덕교육에 대한 해석학적 탐구.” 『윤리교육연구』. 제21권, 2010.
- 김성훈 외. “교육 프로그램 메타평가 기준 개발.” 『교육평가연구』. 제22권 3호, 2009.
- 김정수. “해외 평화교육 사례와 통일교육에의 적용 전망.” 『여성과 평화』. 제2호, 2002.
- 김창환. “통일 전 동·서독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과 실상.”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8권 1호, 2003.
- 김혜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남채봉.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가 다문화시대 비판 시민 교육에 지니는 의의.” 『시민교육연구』. 제14권 2호, 2013.
- 도기숙. “통일이후 동독여성이 겪는 사회, 문화 갈등: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교훈.” 『한국여성학』. Vol. 21, No. 1, 2005.
- 박보영.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박수선. “회복적 정의의 실제,” 『2014 회복적 정의 조정자훈련 자료집』.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14.
- _____. “갈등해결센터 10년 기록하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갈등해결센터 10년 기록하고 기억하다』.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13.
- 박승규. “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 공간의 교육적 의미 탐색.” 『문화·역사·지리』. Vol. 24, No. 2, 2012.
- 박영자.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상호문화주의’시각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7권 1호, 2012.
- 박찬석. “2000년대 이후 통일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제44권, 2014.
- _____. “남북한의 통일관련 교육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 17집, 2008.
- 신형식.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2호, 2012.
- 신희선.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기술 개발.” 『사고와 표현』. Vol. 2, No. 1, 2009.
- 양계민.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4호, 2009.
- 양영자.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제25권 3호, 2007.
- 유영옥. “남남이념갈등 극복을 위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Vol. 27, 2003.
- 유주한. “통일한국의 통일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나영. “인물탐구 수업모형을 활용한 도덕교과의 통일교육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동수. “시민사회와 시민.” 이동수 엮음. 『시민은 누구인가』. 서울: 인간사랑, 2013.
- 이미경. “경제난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변화와 한계.”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여성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이병수. “남북관계에서 소통과 치유의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제43집, 2013.
- _____.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 철학』. 제21권 2호, 2010.
- 이수정. “다문화주의가 통일에 맡길기.”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10호, 2011.
- 전태국. “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변화를 통한 접근.” 『한국사회학』. 제41집 6호, 2007.
- 전효관. “남북 문제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의 현황과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제3집, 2000.
-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2호, 2010.
- 정창호. “독일의 상호문화교육과 타자의 문제.”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6권 1호, 2011.
- 정하운.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2호, 2012.
- 정희태. “평화교육의 수용을 통한 통일교육 개선: 초등 ‘도덕과’를 중심으로.” 『통일전략』. 제7권 2호, 2007.
-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호 2호, 2007.

_____. “통일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글로벌시대의 시민교육과 정치』.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07.

조찬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2호, 2012.

조한범 외.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No. 12, 2010.

주경필.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Monitoring)을 위한 평가준거체제 개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완규. “김대중 정부 시기 NGO 통일교육의 양극화 현상.”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 2011.

추병완. “통일교육칼럼: 한국통일교육, 다문화 시민 양성 모색해야.” 『통일한국』. 제326호, 2011.

_____. “학교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타당성.”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29호, 2009.

허영식.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균형적 발전방향.” 『민주시민교육논총』. 제5권 1호, 2000.

홍득표. “한국민주시민교육의 체제구축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2권, 1997.

Ruminski, Eckhard. “독일통일 후 정치재단의 민주시민교육 역할.”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2호, 2012.

3. 기타자료

『연합뉴스』.

- 고병헌 외. “평화교육의 개념과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통일부 용역보고서』, 2007.
- 무지개 청소년센터 뉴스레터. “남북포럼, 그 첫 번째 이야기.” 2014.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교육네트워크 1차 간담회 자료집』, 2013.
- 박준.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발표자료.” 전경련, 2014.
- 박홍순. “열린 사회의 시민교육, 주민학습을 통한 공동체 짓기.” 『갈등사회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의 역할』. 시민교육 아태회의 자료집, 2010.
- 사회통합위원회. “2012년 연례보고서,” 2013.
- 오혜원. “학교의 시민교육 :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안 민주시민교육.” 수원시평생학습관 발표문, 2012.
- 이병준 외. “민주시민교육 핵심 역량 실천모형 개발 연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연구용역보고서』, 2008.
- 이우영 외.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해외사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용역과제』, 2012.
- 이향규 외.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연구보고서』, 2013.
- 정은미.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변화.” 『다중전환의 도전과 비판사회학』. 비판사회학대회 발표자료집, 2013.10.26.
- 조정아. “사회통일교육 평가모델 개발.” 『통일부 통일교육원 수탁연구과제』, 2006.
- 통일교육협의회. “청소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2013.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서의 적용방안 연구.”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2001.

갈등해결센터. <<http://peacewave.net>>.

어린이어깨동무. <<http://www.okfriend.org>>.

컨플릭 키친. <<http://conflictkitchen.org>>.

한국비폭력대화센터. <<https://www.krnvc.org>>.

부록: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평가 검사도구 예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프로그램 유형별 반응평가지 예시(안)*

□ 강좌, 세미나, 포럼 유형

※아래 문항은 이번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번호 아래 √표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은 본 프로그램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항 순번	평가항목	매우 그렇 다 ⑤	그런 편이 다 ④	그저 그렇 다 ③	그렇 지 않다 ②	매우 그렇 지 않다. ①
1-1	강좌 1(강좌 2...)의 강의 내용은 전문적이고 전체 주제를 잘 반영하였다.					
1-2	각 강의 내용이 적절하게 배치되었고 잘 연결되었다.					
1-3	강의의 난이도는 적절했다. (필요시 강좌별 질문)					
2-1	수업 방식이 적절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필요시 강좌별 질문)					
2-2	토론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잘 유도되었다. (필요시 강좌별 질문)					
2-3	수업 교재와 기자재가 잘 갖추어졌으며,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 이 부록자료는 조정아, “사회통일교육 평가모델 개발,” 『통일부 통일교육원 수탁연구 과제』 (2006) 연구에서 수록된 <부록 1, 2>자료를 인용한 것이며, 이번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네 개의 프로그램에서 각 프로그램 평가도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문항 순번	평가항목	매우 그렇 다 ⑤	그런 편이 다 ④	그저 그렇 다 ③	그렇 지 않다 ②	매우 그렇 지 않다. ①
3-1	강좌 1의 강사는 강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3-2	강좌 1의 강사는 강의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흥미있게 진행하였다.					
4-1	프로그램 내용 및 참가 절차 안내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					
4-2	전체 교육 기간(10주)이 적절하였다(강좌만 해당).					
4-3	강의 및 토론, 휴식, 식사 등 전체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다.					
4-4	숙박 및 부대시설(휴게실, 컴퓨터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숙박 프로그램만 해당).					
4-5	식사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숙박 프로그램만 해당).					
5-1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유익하였다.					
5-2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질은 우수하였다.					
6-1	이 프로그램은 내가 통일(또는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6-2	이 프로그램은 내가 통일(또는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6-3	이 프로그램은 내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문항 순번	평가항목	매우 그렇 다 ⑤	그런 편이 다 ④	그저 그렇 다 ③	그렇 지 않다 ②	매우 그렇 지 않다. ①
7-1	나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통일과 관련된 실천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7-2	나는 이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이 개설될 경우 참가할 생각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1.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점은 어떤 것입니까?
2.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이 프로그램의 후속 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강좌, 워크숍, 체험활동 등)은 어떤 것입니까?
4.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나 본 기관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 워크숍 유형

※아래 문항은 이번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번호 아래 √표**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은 본 프로그램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항 순번	평가항목	매우 그렇 다 ⑤	그런 편이 다 ④	그저 그렇 다 ③	그렇 지 않다 ②	매우 그렇 지 않다. ①
1-1	워크숍 내용은 전문적이고 전체 주제를 잘 반영하였다.					
1-2	전체 워크숍의 내용이 적절하게 배치되었고 잘 연결되었다.					
1-3	프로그램의 난이도는 적절했다.					
2-1	워크숍 방식이 적절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2-2	학습참가자들 간에 경험 및 학습 활동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3	토론과 조별활동이 적절하게 배치 되고 잘 진행되었다.					
2-4	활동 자료와 기자재가 잘 갖추어 졌으며,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3-1	워크숍 진행자는 워크숍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3-2	워크숍 진행자는 전체 참가자들의 학습활동을 촉진하였다.					
4-1	프로그램 내용 및 참가 절차 안내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					
4-2	전체 교육 기간(또는 시간)이 적절하였다.					

문항 순번	평가항목	매우 그렇 다 ⑤	그런 편이 다 ④	그저 그렇 다 ③	그렇 지 않다 ②	매우 그렇 지 않다. ①
4-2	전체 교육 기간(또는 시간)이 적절하였다.					
4-3	강의 및 토론, 활동, 휴식, 식사 등 전체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다.					
4-4	숙박 및 부대시설(휴게실, 컴퓨터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숙박 프로그램만 해당).					
4-5	식사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숙박 프로그램만 해당).					
5-1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유익하였다.					
5-2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질은 우수하였다.					
6-1	이 프로그램은 내가 통일(또는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6-2	이 프로그램은 내가 통일(또는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6-3	이 프로그램은 내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					
6-4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은 내가 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다.					
7-1	나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통일과 관련된 실천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7-2	나는 이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이 개설될 경우 참가할 생각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1.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점은 어떤 것입니까?
2.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이 프로그램의 후속 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강좌, 워크숍, 체험활동 등)은 어떤 것입니까?
4.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나 본 기관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 체험학습, 캠프 유형

※아래 문항은 이번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번호 아래 √표**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은 본 프로그램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항 순번	평가항목	매우 그렇 다. ⑤	그런 편이 다. ④	그저 그렇 다. ③	그렇 지 않다. ②	매우 그렇 지 않다. ①
1-1	이번 체험학습(캠프) 내용은 전체 주제를 잘 반영하였다.					
2-2	사전강의, 활동, 휴식, 평가 등 체험학습(캠프)의 각 활동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다.					
2-3	체험학습(캠프)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2-1	체험학습(캠프) 진행 방식이 적절하였다.					
2-2	체험학습(캠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추어졌으며,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3-1	체험학습(캠프) 진행자는 체험학습(캠프)의 주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3-2	체험학습(캠프) 진행자는 체험학습(캠프)의 진행을 충실하게 준비하였고 흥미있게 진행하였다.					
4-1	체험학습(캠프) 내용 및 참가 절차 안내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					
4-2	체험학습(캠프) 전체 진행 시간은 적절하였다.					

문항 순번	평가항목	매우 그렇 다. ⑤	그런 편이 다. ④	그저 그렇 다. ③	그렇 지 않다. ②	매우 그렇 지 않다. ①
4-3	체험학습(캠프) 진행 장소는 적절하였다.					
4-4	숙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숙박 프로그램만 해당).					
4-5	식사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숙박 프로그램만 해당).					
5-1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유익하였다.					
5-2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질은 우수하였다.					
6-1	이 프로그램은 내가 통일(또는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성찰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6-2	이 프로그램은 내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					
7-1	나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통일과 관련된 실천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7-2	나는 이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이 개설될 경우 참가할 생각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1.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점은 어떤 것입니까?

2.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이 프로그램의 후속 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강좌, 워크숍, 체험활동 등)은 어떤 것입니까?

4.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나 본 기관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2. 반응평가를 위한 질문 문항**

■ 프로그램 목적/내용 ■

- 이 프로그램 목적은 명료하게 진술되었다.
- 이 프로그램 내용은 목적 달성에 적절하였다.
- 이 프로그램 내용은 학습 목표 달성에 충분하였다.
- 이 프로그램 내용은 본인의 요구를 충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프로그램 내용은 실제적이었다.
- 프로그램 내용은 논리적이었다.
- 프로그램 내용은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프로그램 내용의 난이도는 적절하였다.
- 프로그램 내용은 정확하게 진술되었다.
- 프로그램은 최신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프로그램 내용은 학습동기 유발에 공헌하였다.
- 프로그램 내용은 실천적으로 의미있는 것이었다.
- 종합적으로 나는 프로그램 목적(내용)에 만족했다.
- 프로그램 목적(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기술하십시오.
- 향후 동일한(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목적(내용)과 관련되는 제안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시오.

**이성훈, 『학습자 만족도 확인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반응평가』 (서울: 교육교회사, 2005), pp. 215~220.

■ 프로그램 자료 ■

-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자료는 프로그램 내용과 일치하였다.
-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자료(주교재, 참고자료)는 유용하였다.
- 이 프로그램 자료는 주제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 이 프로그램 자료(시각 보조물)의 질이 높았다.
-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된 장치(장비)는 적절하게 기능하였다.
- 프로그램에서 요구된 자료는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 프로그램에서 요구된 자료(장비)는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자료는 실천활동에서 활용 가능하다.
- 프로그램 자료의 사용에 관한 정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 추천된 학습참고서(보조물)는 프로그램 목적(내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 프로그램 자료는 정확한 지시문을 가지고 있었다.
- 프로그램 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 종합적으로 나는 프로그램 자료에 만족했다.
- 프로그램 자료를 개선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 향후 동일한(비슷한) 프로그램 자료 개선에 필요한 제안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 교육방법/매체활동 ■

- 이 프로그램의 수업방법은 프로그램(강좌) 내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었다.
- 이 프로그램의 활용매체는 프로그램(강좌) 내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었다.

- 이 프로그램의 수업방법(활용매체)은 프로그램 내용 이해에 적절하였다.
- 이 프로그램의 컴퓨터기반학습은 학습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 프로그램에서 활용매체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었다.
- 멀티미디어 활용은 프로그램 자료를 제시하는데 유용하였다.
- 비디오의 활용은 프로그램 자료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시각 자료는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멀티미디어의 그래픽 자료는 프로그램(강좌) 내용을 이해하는데 적절하였다.
- 멀티미디어의 동영상은 프로그램(강좌)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현실 세계의 예제는 프로그램(강좌)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종합적으로 나는 프로그램(강좌)에서 사용한 교수·학습방법(활용매체)에 만족한다.
- 어떤 종류의 교수·학습방법(활용매체)이 프로그램(강좌) 내용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 프로그램 향상을 위하여 사용된 교수·학습방법(활용매체)에 관한 건의 사항이 있으면 기술하십시오.
-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 향상에 필요한 제안사항을 기술하십시오.

■ 강사/학습촉진자 ■

- 이 프로그램 강사(학습촉진자, 진행자)는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 이 프로그램 강사는 프로그램(강좌) 내용 준비를 잘 하였다.
- 이 프로그램 강사는 교육 내용에 관하여 자신감(능력이 있는, 경험이 풍부)이 있었다.
- 이 프로그램 강사의 강의 진행은 전문적이었다.
- 이 프로그램 강사는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지도하였다.
- 강사는 학습자와 친밀감을 유지하였다.
- 강사는 학습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 강사는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 강사는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경청하였다.
- 강사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강사는 감정적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였다.
- 강사는 학습자를 공정하게 다루었다.
- 강사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였다.
- 종합적으로 나는 이 프로그램 강사에 대하여 만족한다.
- 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강사에 관한 제안사항이 있으면 기술하십시오.
- 강사의 교수방법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이 있으면 서술하십시오.
-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상세하게 기술하십시오.

■ 교수·학습활동 ■

- 이 프로그램의 교수·학습활동은 프로그램 내용에 적절하였다.
- 이 프로그램의 교수·학습활동은 학습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다양한 수업활동은 교육목표 달성에 적절하였다.
- 이 프로그램 수업활동은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논리적으로 조직되었다.
- 교수·학습활동은 강좌내용을 명료화하기에 유용하였다.
- 교수·학습활동은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교수·학습활동에는 충분한 송환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 이 프로그램 학습내용의 연습활동은 직무상황을 위한 실제적인 것이었다.
- 이 프로그램 학습내용의 연습활동은 강좌 내용의 학습을 향상하였다.
- 교수·학습활동으로 진행된 토론은 학습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 개인이 적극 참여하는 연습활동은 강좌 내용 이해를 촉진하였다.
- 강좌와 관련된 과제는 교육목표와 관련된 타당한 것이었다.
- 강좌와 관련된 과제는 학습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교수·학습활동 가운데 강좌내용 이해가 가장 많은(또는 적은) 도움이 된 수업활동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프로그램의 교수·학습활동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기술하십시오.
- 이 프로그램 교수·학습활동 개선에 필요한 제안을 상세하게 기술하십시오.

■ 프로그램 시기/기간 ■

- 이 프로그램을 개설한 시기는 적절하였다.
- 이 프로그램의 개별 과목에 배당된 시간은 학습 목표 달성에 충분하였다.

- 이 프로그램의 전체 기간은 학습 목표 달성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
- 이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따른 시간배정은 적절하였다.
- 이 프로그램의 전체 기간은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였다.
- 프로그램 내용의 연습을 위하여 개인에 배정된 시간은 적절하였다.
- 프로그램의 질의·응답에 배정된 시간은 적절하였다.
-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는 적절하였다.
-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실험실 시간은 프로그램 목표 이해에 충분하였다.
- 워크숍에 배당된 시간은 주제와 관련하여 적절하였다.
- 프로그램 과목별 개인(조별)활동에 배정된 시간은 충분하였다.
- 종합적으로 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 기간에 만족한다.
- 이번 프로그램의 시간 배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학습활동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어진 프로그램 시간배정에 관하여 의견을 기술하십시오.
- 프로그램 시기(기간)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십시오.

■ 교육환경 ■

- 프로그램이 진행된 교실의 물리적 환경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 교육 프로그램 시설은 학습을 위하여 편안하였다.
- 교육 프로그램 시설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 교육 프로그램 시설은 수업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였다.
- 수업활동을 위한 좌석 배치는 적절하였다.
- 교실의 좌석 배치는 교수·학습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 프로그램이 진행된 교실의 물리적 환경(조명, 소음수준, 온도, 환기, 활동 공간)은 교수·학습활동에 적절하였다.
- 교수·학습을 위한 필요한 장비(자원)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 교수·학습을 위한 장소 선정은 적절하였다.
- 교수·훈련을 위한 장소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였다.
- 종합적으로 나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시설(환경)의 질에 만족하였다.
- 교육 프로그램 환경(시설)의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기술해주시시오.
- 교육 프로그램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십시오.

■ 계획된 행동/전이에 대한 기대 ■

- 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실천활동(또는 직무)에 적용 가능하다.
- 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실천활동(또는 직무)과 관련이 있다.
- 이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실천활동(또는 직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활동(또는 직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장비)가 준비되어 있다.
-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활동(또는 직무)에서 활용할 자신이 있다.
-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동료와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활동(또는 직무)에서 활용하는 데 장애물이 예상된다. 장애물의 종류와 그 이유는?
-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활동(또는 직무)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십시오.

-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의 적용의 결과로서 예상되는 이익이 있다면, 상세하게 기술하십시오.
-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의 적용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기술하십시오.
- 학습한 내용의 적용과 관련되는 계획된 실천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 프로그램의 학습내용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기술해 주십시오.
-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의 효과적인 적용과 관련되는 건의사항을 기술하십시오.

■ 방법론적 전략/행정지원 사항 ■

- 이 교육 프로그램은 편리한 기간(시간, 장소)에서 이용 가능하였다.
- 이 교육 프로그램(강좌) 등록절차가 편리하였다.
- 이 교육 프로그램(강좌) 등록과정은 쉽게 이루어졌다.
- 이 교육 프로그램(강좌)과 관련되는 행정절차는 전문적이었다.
- 이 교육 프로그램(강좌)을 소개한 안내서는 정확하게 프로그램 내용(방법, 시간)을 기술하고 있었다.
- 프로그램 안내서는 교육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하였다.
- 프로그램(강좌)에 대한 설명(기술)은 유익하였다.
- 프로그램 등록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절차가 완료되었다.
-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행 계획과 관련된 도움은 유익하였다.
-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과외활동은 프로그램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
- 휴식시간에 제공된 간단한 다과류의 제공은 적절하였다.

-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보는 어떤 방법(매체)으로 알게 되었는가?
- 종합적으로 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방법론적 전략(행정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기술하십시오.
- 교육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필요한 방법론적 전략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기술하십시오.
- 교육 프로그램의 질 개선을 위한 행정사항에 관한 건의사항을 기술하십시오.

■ 종합평가 ■

- 종합적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강좌)은 유익하였다.
- 종합적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질은 탁월(보통, 미흡)하였다.
- 종합적으로 나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 종합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실천활동(또는 업무)에 필요한 역량개발에 공헌하였다.
- 이 프로그램의 내용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이 프로그램에 관한 당신의 평가는?
-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교육 프로그램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측면은 무엇입니까?
-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측면은 무엇입니까?

-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무엇이 가장 유익하였습니까?
-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무엇이 가장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 이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속도(과제의 양, 난이도 수준, 교육적 가치, 주제 적절성)와 관련하여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이 교육 프로그램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보통 이하의 점수에 응답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

-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프로그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의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 장래 동일한(유사한) 프로그램을 위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 이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이 프로그램 내용에 추가하여 장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타: 선수학습 관련 문항 ■

- 이 교육 프로그램(강좌)에서 요구되는 선수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에 프로그램 내용의 이해에 필요한 선수학습과 관련된 강좌에 참석하였다.

- 이 프로그램(강좌)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수학습(지식)의 습득을 가정하고 있었다.
- 이 프로그램(강좌)의 선수 학습을 위한 자료는 적절한 시기에 전달되었다.
- 이 프로그램(강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선수학습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 과제 준비는 프로그램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 기타2: 인식된 지식습득 관련 문항 ■

- 이 프로그램은 실천활동(또는 직무)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지식(기술, 태도)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 이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결과로 지식(기능, 태도)이 습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프로그램에서 예상하였던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이 반응평가를 위한 질문 문항은 이성흠, 『학습자 만족도 확인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반응평가』(2005)에 실린 내용을 사회통일교육용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연구총서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웅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갑택	11,000원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2014-01	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들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기 타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흥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2014)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편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1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외	1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신통일대계2014)	허문영 외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 (1)	조정아, 박영자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 (2)	조정아, 박영자 외	22,000원
2014	'그린 데탕트'실천전략·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 DMZ평화생태적 이용방안 (그린데탕트2014)	손기웅 외	17,0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외	12,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 비매품 ◆

KINU정책연구시리즈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Study Series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679, FAX: (02)901-2545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IV(2)